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독섬(石島)과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독섬(石島)과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정영미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늘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독도 문제를 들 것이다. 독도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길게 보면 17세기 말, 짧게 보면 20세기 초 일련의 사건들에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17세기 일본의 울릉도 도해 및 이의 금지에 관한 연구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20세기 일본이 러일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편입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자료나 관리 등의 측면이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초빙해 근대 한일의 경계와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독도 수호에 또 하나의 초석을 놓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동국대학교 임영정 교수는 오랫동안 독도의 명칭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료를 연구해 온 학자며,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는 1998년에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등을 발굴 공개하여 국내 학계의 연구 방향에 한 획을 긋게 한 학자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고서전문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재직 시절부터 조선 시대 고지도 및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은 지리학자고, 홍정원 연구원은 근대 사료 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신예 역사학자다. 또한 이 연구를 기획하고 주도한 재단의

정영미 연구위원은 일본 고문헌 해독에 정통해 다수의 한일 고문서 번역집, 논문 번역집 등을 발간, 한일 학계의 독도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참여해 연구한 결과지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전의 연구가 그만큼 빈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 책에 수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모쪼록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정책 수립자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 | | |
|-------------------------------|----|---|-----|
| 책머리에 | 9 | | |
| • 섬의 명칭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김병렬 | | | |
| I. 머리말 | 25 | | |
| II. 섬의 명칭이 국제사법법원에서 영향을 미친 사례 | 26 | | |
|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 | 26 | | |
| 2. 영향을 미친 사례 | 31 | | |
| III. 독도의 명칭 | 37 | | |
| 1. 우산도 | 38 | | |
| 2. 자산도 | 46 | | |
| 3. 삼봉도 | 47 | | |
| 4. 요도 | 61 | | |
| 5. 가지도 | 63 | | |
| 6. 석도 | 68 | | |
| 7. 일본의 명칭 | 68 | | |
| 8. 제3국의 명칭 | 70 | | |
| IV. 분석 | 75 | | |
| V. 맺음말 | 77 | | |
| • 한말의 于山島 연구 임영정 | | | |
| I. 머리말 | 81 | | |
| II. 대한제국기 이전 于山島 인지 | 83 | | |
| 1. 조선 전기 于山島의 인지 | 83 | | |
| 2. 조선 후기 于山島 인지의 확대 | 91 | | |
| III. 鬱陵島 특파 관원의 于山島 인식 | 98 | | |
| | | 1. 검찰사 이규원의 于山島 인식과 그 영향 | 98 |
| | | 2. 우용정의 「울도기」와 石島說 | 103 |
| | | 3. 심홍택 군수의 보고와 獨島 | 108 |
| | | IV. 맺음말: 石島·獨島 명칭의 정착과정 | 110 |
| | | •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홍정원 | |
| | | I. 머리말 | 117 |
| | | II. 20세기 전후 문헌상 우산도, 석도, 독도 | 119 |
| | | 1. 우산도와 석도 | 119 |
| | | 2. 석도와 독도 | 128 |
| | | III. 근대 지리지 편찬과 우산도 | 134 |
| | | IV. 울도군수 심능의 보고서와 독도 인식 | 140 |
| | | V. 맺음말 | 148 |
| | | •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이기봉 | |
| | | I.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 이해의 출발점 | 153 |
| | | II. 대한민국에서 고유지명의 한자 표기와 읽기 | 157 |
| | | III. 石島와 깍세섬 | 162 |
| | | 1. 石島의 표기 문제와 깍세섬 | 162 |
| | | 2. 이규원의 「鬱陵島外圖」와 깍세섬 | 164 |
| | | 3. 鼠項島(1910)·觀音島(1918)와 깍세섬 | 171 |
| | | 4. 石島와 깍세섬의 관계에 대한 소결 | 179 |
| | | IV. 石島와 獨島 | 180 |
| | | 1. 獨島와 '독도' | 180 |

| | |
|---------------------------------|-----|
| 2. 일본의 獨島 영토화에 대한 조선 측 반응 | 183 |
| 3. 獨島와 石島 | 186 |
| 4. 시모조 마사오의 石島·獨島 이해 태도 비판 | 193 |
| V. 맺음말: 石島·獨島에 대한 연구와 학문 일반의 문제 | 196 |

•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 정영미

| | |
|--|-----|
| I. 머리말: 문제 설정과 연구 방법에 대한 소고(小稿) | 217 |
| II.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의 형성과정 고찰 | 222 |
|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의 ‘역사적 사실’과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 혼란에 대한 설명 | 222 |
| 2.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 형성과정 - 전전과 전후 - | 236 |
| III. 리양쿠르 록스와 해군 | 269 |
| 1. 가와카미의 다케시마·마쓰시마와 고지도 | 270 |
| 2. 리양쿠르 록스와 해군 | 276 |
| 3. 결론적으로 | 287 |
| IV. 맺음말 | 289 |

| | |
|------|-----|
| 참고문헌 | 311 |
|------|-----|

| | |
|------|-----|
| 찾아보기 | 316 |
|------|-----|

• 책머리에

한국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북위 37도 14분·동경 131도 52분 지점에 위치한 소군도를 가리켜 독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글로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독도’라고 쓴다(表). 한자 또는 외국어로 쓸 때도 ‘獨島’, ‘Dokdo’ 등 한국어 소리에 해당하는 음가를 가진 문자를 빌어 표기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흔히 고사료에 기술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의 명칭에서 독도에 관한 한반도 역대 왕조의 인지 증거를 찾는다. 따라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의 명칭은 독도에 관한 한국의 영유권을 구성하는 역사적 권원의 근거 자료로 맹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가 곧 독도의 완벽한 역사적 명칭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명칭들은 지금처럼 독도라고 부르고 ‘독도’라고 쓰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명칭이 아니다. 이 명칭들은 역사적으로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북위 37도 14분·동경 131도 52분 지점에 위치한 소군도를 지칭할 때 사용한 소리를 한자를 빌어 표기한 표기상의 명칭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동시대인이 동(同)섬을 부를 때 어떤 소리를 사용했는지는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1726년 12월 자 서문에 있는 쓰시마번의 울릉도쟁계/죽도일건 관련 기록인 『죽도기사(竹島紀事)』의 기록(1권) 내용을 들 수 있다.

1693년 5월, 쓰시마번은 돗토리번에서 나가사키로 보내지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인수해 조선으로 돌려보내라는 에도 막부의 지시를 받는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같은 해 3월 11일 울산에서 출발해 4월 5일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끌려 5월 1일 돛토리번에 도착했다.

이 임무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시마번은 1693년 6월 조선 왜관에 서한을 보내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쓰시마번 번사와 조선 왜관 사이에 오고 간 서한의 초두 부분이다.

竹嶋之儀朝鮮ニ而ハブルンセミト申候由被申越候。竹嶋与書候而朝鮮讀ニブルンセミト申候哉。ブルンセミトハ如何様ニ書申候哉。鬱陵嶋与申嶋有之候。是を下々之詞ニブルンセミトハ不申候哉。日本ニ而者鬱陵嶋之儀を磯竹ト申候。鬱陵嶋とブルンセミハ別之嶋ニ而有之候哉。ブルンセミを日本人ハ竹嶋ト申候与申儀者誰之咄ニ而被承候哉。

다케시마(竹嶋, 울릉도)를 조선에서는 부른새미(한국어 소리 무릉섬에 해당하는 일본어 소리로 추정)라고 한다고 했는데, '竹嶋'라고 쓰고 조선어로 부른새미라고 읽는 것인가, 부른새미라고는 어떻게 쓰는가, 鬱陵嶋라는 섬이 있다. 백성이 이 섬을 부른새미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일본에서는 鬱陵嶋를 이소다케[磯竹]라고 한다. 鬱陵嶋는 부른새미와는 다른 섬인가, 누가 일본인은 부른새미를 다케시마라고 한다고 했는가.

ブルンセミ之儀嶋達ニ而御座候。具承届候処ウルチントウト申嶋ニ而御座候。ブルンセミ之儀者ウルチントウト申嶋ニ而御座候。ブルンセミ之儀者ウルチントウトより北東ニ当かすかに相見申由承候事。

부른새미는 다른 섬이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우르친토(한국어 소리 울릉도에 해당하는 일본어 소리로 추정)라는 섬이다. 부른새미란 우르친토에서 북동쪽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이라고 들었다.

쓰시마번은 아마 요나고 어민과 안용복·박어둔 간에 문제가 된 '다케시마(竹嶋, 울릉도)'가 조선의 울릉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문체로 보아 위 서한 이전에 다케시마를 조선에서는 부른새미라고 부른다는 정보가

이미 왜관(혹은 다른 곳)에서 쓰시마번으로 전달됐다고 판단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쓰시마번이 왜관에 질문한 것이 첫 번째 인용문이다. 그 취지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竹嶋'라고 쓰는 섬을 조선인이 부른새미라고 부른다면 그 표기법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 '鬱陵嶋'는 아닌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쓰시마번의 임무가 안용복·박어둔을 귀국시키는 것 외에 조선 어민이 다케시마에 재차 도해하지 못하도록 조선왕조에 요청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올 만도 하다. 쓰시마번은 1614년 조선 예조에 쓰시마 도민의 울릉도(鬱陵嶋) 이주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기록이 1693년 당시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鬱陵嶋라고 표기하는 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 요나고 어민과 안용복의 증언 등에 의해 다케시마가 鬱陵嶋라고 표기하는 섬이라는 것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왜관 등의 정보는 다케시마는 부른새미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쓰시마번으로서는 부른새미·다케시마·울릉도(鬱陵嶋)와의 연관관계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부른새미가 울릉도(鬱陵嶋)가 아니라면 조선 어민의 도해를 금지시키라는 막부의 명령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쓰시마번이 부른새미라는 소리명칭을 매개로 해서 일본어 표기명칭 竹嶋와 조선어 표기명칭 鬱陵嶋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鬱陵嶋라는 섬이 있다. 백성이 이 섬을 부른새미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한 점이다. 쓰시마번은 표기명칭 鬱陵嶋의 한국어 발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발음과 부른새미라는 발음과는 전혀 다르다. 이 점에 대해 쓰시마번은 “백성이 이 섬을 부른새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이 섬 명칭에 대한 기록물상의 표기와 실제로 일반 백성이 부르는 소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관점이 포함돼 있다.

쓰시마번의 질문에 조선 왜관은 '부룬새미는 다케시마가 아니며, 다케시마는 우르친토(밭음과 이후에 기술되는 섬의 면적, 산물, 서식 동물 등을 봐서 울릉도가 확실함)이고, 여기에서 북동쪽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이 부룬새미'라는 답변을 한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은 없다. 남동쪽이라면 독도가 아스라이 보일 것이다. 그 외의 섬은 없다. 그러나 방향은 다르나 '북동쪽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은 독도일 가능성이 크다. 위에 제시된 기술 외에도, 안용복이 '이번에 간 섬(울릉도)'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을 봤는데 당시 동행한 다른 어부가 그 섬이 무릉섬이며 일전에 도해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은 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다. 이런 것들로 봐서 조선 어민들은 분명히 동해상에 울릉도 외에 또 한 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해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섬은 독도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그 방향이 왜 북동쪽인지를 앞으로 달리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위의 사료는 독도의 역사적 명칭 연구에 또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당시 동해안 지역 어민들에게는 울릉도가 무릉섬으로도, 울릉도로도 불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도가 무릉섬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죽도기사』의 다른 기록을 보면, 왜관이 이 사건을 조사할 때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과 함께 그 근방 사람들에게 질문 조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이나 그 근방 사람들은 모두 일반 백성이고 어민들일 것이다. 울릉도가 부룬새미라든가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섬이 부룬새미라든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생업 현장에서 활용하던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근접한 시대의 조선왕조 관찬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한다.

이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시기와 안용복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시대 차

는 대략 160여 년가량이다. 이 기간에 많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조선 초기 공도정책 때문에 동해상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동해안 어민들이 조선 후기 왕조 권력 약화에 힘입어 몰래, 아니면 공공연하게 동해상으로 진출했던 것 같다. 안용복 사건은 이와 같은 역사적 현상 중 하나였다고 추정된다. 이 변화 가운데 생성된 새로운 지역적 지식이 중앙으로 전달돼 중앙의 기록물에 등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두 차례에 걸친 안용복 도일 사건을 통한 동해상의 두 섬에 대한 인지는 『동국문헌비고』(1770)에 수렴된다. 여기에는 동해상에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있는 것과 우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 즉 독도라고 기록된다.

그렇다면 1690년대 당시 동해안 어민들이 무릉섬이라고 부르던 독도가 관찬 문헌에는 왜 우산도로 기록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진다. 이 설명은 '사용주체의 변화' 및 '고전(古典) 참조'라는 과정의 설명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고사료에 기술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의 명칭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생업현장에서 지역주민이 획득해 활용하던 어떤 소리명칭이었을 것이다. 즉 사용주체는 지역주민이고 일반백성이다. 그런데 이 소리명칭이 중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사용주체가 바뀐다.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용주체가 문자를 구사하는 지식인 또는 양반으로 바뀐 것이다.

또 이들은 동해상 두 섬의 소속 문제가 조일 국가 분쟁으로 확대된 이상, 해당 섬들이 조선 영토 소속이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고전을 참고한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같은 고전은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 사이에서 무릉섬 또는 울릉도로 불렸던 울릉도는 울릉도로 확정되며 무릉섬으로 불렸던 독도는 우산도로 확정될 역사적 필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명칭들은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아주 오래도록 남는다. 이 명칭들을 접하는 현대 사람은 옛날 사람들도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라 표기하고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라고 발음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쓰고 부른 사람은 중앙의 지식인층, 양반층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우산도로 표기된 관찬문헌이 전해지는 한편, 섬에 대한 지역주민, 일반인의 지식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변해간다. ‘독섬’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국 측 연구에서는 독섬의 명명주체를 전라도민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라도민이 울릉도에 도해해 별채하고 배를 만들어 끌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에서 전라남도민을 만났고, 1787년 5월 울릉도를 발견한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에서 별채해 배를 만드는 조선인들을 본 것으로 봐서 18세기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독섬은 전라도민의 생업에서 생성된 살아있는 지식, 소리명칭이다. 그리고 우산도와 마찬가지로, 대한제국기에 이 소리명칭이 중앙으로 수렴되면서 한자 표기명칭 ‘石島’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측 연구에서 이 石島를 음독하고 ‘석도’로 표기해 버린다. 그러면 독자들은 예전에 독도가 석도라고 불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도의 역사적 명칭 연구는 지방 백성의 소리명칭 및 중앙 양반의 한자 표기명칭 차이, 전자가 후자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와 명칭의 생명력 차이, 즉 문헌에 기록된 한자 표기명칭은 시대변화의 세례를 받지 않으나 백성 사이에서 불리던 소리명칭은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명명 시기와 지역, 주체의 차이, 주체 간 이동 시 발생하는 변화 및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는 형태 등이 고려된 통시대적 ‘과정’으

로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과정’ 위에서 보면, 언어 형태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우산도와 석도가 역사적 인과관계의 산물로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일 간의 논쟁에는 위에서 말한 관점이 배제됐다. 이 논쟁을 정리한 것이 「섬의 명칭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논문은 기존 독도의 역사적 명칭의 연구방향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선행 연구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 측 연구는 시종 역사사료 중 우산도라는 명칭이 수록된 내용을 부분 발췌·열거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여기에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신념이 전제돼 있다. 일본 측 연구는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 측 연구 역시 사료를 동시대적 문맥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통사적 관점은 배제돼 있다. 여기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신념이 전제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 연구의 해석은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린다.

또 영유권 분쟁에서 섬의 명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가늠하고 있다. 명칭 그 자체는 국제사법법원 등이 영유권을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 연구가 결론으로 제시하는 바처럼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는 ‘명칭상 울릉도의 부속섬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쓰시마번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백성이 무릉섬을 울릉도나 독도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했다면, 동해안 지역 백성이 먼 바다에 멀리 떨어진 섬들을 무릉섬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연관 지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명칭은 안용복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찬사료에는 우산도로 고착된다.

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역사의 어느 한 시점, 한 지역에서 생성된 소리명칭이 중앙으로 수렴되면서 石島라는 한자 표기명칭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규원

김찰사가 울릉도에서 전라남도의 거문도·초도 어민을 만난 것 등을 근거로 그들의 방언에서 독섬이 생성됐다고 본다. 그리고 석도는 독섬의 소리를 뜻풀이해 같은 뜻의 한자 석(石)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사회·경제적 배경 언급과 어문학적 해석만 있을 뿐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통사적 관점에서 우산도에서 석도로의 변화를 연관적으로 고찰한 연구도 없다.

「한말의 于山島 연구」 및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관련 연구」는 앞서 제시한 관점하에 우산도에서 석도·독도로의 계승 과정을 그 주된 관련자의 인식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다.

「한말의 于山島 연구」는 먼저 조선 시대 해금정책 및 안용복 사건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연관 지어 우산도라는 명칭의 생성과 소멸, 변화 과정을 기술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관찬문헌과 고지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술한다.

우산도에서 석도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고종과 이규원 김찰사의 우산도에 대한 ‘식견 차이’를 지적한다. 고종은 이규원 김찰사를 울릉도로 파견하면서 울릉도 옆에 있는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宇山島)’를 조사해 오라고 한다. 이 배경으로 고종의 우산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지적되고 있다. 즉 고종은 이미 고전을 통해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다만 송죽도(松竹島)라는 섬이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 울릉도와 우산도 외의 제3섬인지를 파악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규원은 송죽도(松竹島)는 뗏섬(竹島)이며 우산도(宇山島)는 울릉도의 이명(異名)이라고 답한다.

그 배경에는, 이규원이 고종과 달리 독도인 우산도가 기록돼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문헌비고』, 『강계고』 등의 고전을 참고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 조사 보고서에는, 송죽도(松竹

島)와 우산도(宇山島)를 찾아봤으나 지금의 뗏섬 이외는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함으로써 고종이 우산도(宇山島)를 뗏섬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1900년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벌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파견한 우용정 역시 “우산도는 물론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역사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울릉도 시찰 위원으로 부임”해 조사 현장에서 자주 들은 독섬 혹은 ‘뗏섬’이라는 호칭을 石島로 한자화해 보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가 보고한 대로 우산도라는 고유 명칭이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석도로 이해한 결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그런 호칭이 남게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독도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고전에 익숙하지 않은 무인 출신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부임하면서 “깊은 생각 없이” 독섬을 獨島로 표기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관련 연구」는 1899년 9월 23일 자 『황성신문』 별보(別報)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의 울릉도 부속섬에 관한 기술을 소개하고 우산도에서 석도로의 계승 과정을 기술했다.

즉 『황성신문』 별보에서는 울릉도 부속섬을 우산도와 죽도(竹島, 뗏섬)라고 하고, 거의 동일한 기술을 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석도와 죽도라고 한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차이를 기사 작성자 및 보고자의 울릉도의 부속섬에 관한 사전지식과 연결해 고찰했다.

먼저 『황성신문』 기사 초두의 울릉도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의 고전과 『대한지지』 등의 내용을 참조한 흔적이 보이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1794년 월송만호 한창국의 울릉도 수토 기록에 처음 등장해 1882년 울릉도 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서 명확해진 죽도를 열거한 것과 동시대의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 울릉도감 배

계주 등의 언급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사 작성자가 “울릉도의 부속섬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우산도와 죽도를 열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기사 작성자의 울릉도 부속섬에 대한 인식이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의 『조선개회사』(1901)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 『조선개회사』는 울릉도의 부속섬은 일본인이 마쓰시마라고 하는 우산도와 죽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석도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경위를 울릉도 주민의 우산도 인식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즉 칙령이 내부(內部)에서 작성한 설군청의서(設郡請議書)에 의해 제정됐으며, 이 청의서는 1895년 울릉도 도감으로 부임한 인천 영종도 출신 배계주의 보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때 울릉도 사정에 능통한 그가 주민이 돌섬으로 부르는 섬의 명칭을 “법제상 정식으로 정하는 명칭인 만큼 돌섬을 한자로 표기”해 “돌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석도(石島)’라고 한역해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 1906년 심홍택이 돌섬을 ‘독도(獨島)’라고도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한글 고유 명칭이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1906년 내부가 「울도군 배치전말」에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다시 죽도, 석도로 통감부에 보고한 것은 “심홍택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지령을 통해 볼 때 독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영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에 독도를 소관도서로 밝히지 않고 석도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석도가 곧 독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타 부처인 통감부에 보내는 공문인 만큼 일반화된 명칭인 독도가 아닌 공식 행정 명칭대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 제작된 「조선지지」(1895), 「대한지지」(1899), 「대한신지지」(1907), 「초등대한지지」(1907), 「증보문헌비고」(1908) 등 지리지, 지리

교과서 상의 우산도를 그 저본(底本)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이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 옛날 이름인 우산도가 쓰인 것은 “울릉도 사람들에게 우산도가 생소할지는 몰라도 조선 시대 지지류의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사용됐던 우산도가 더 잘 알려진 명칭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은 주로 고유지명인 소리명칭과 이를 한자 표기한 명칭의 차이에 착목해 석도와 독도를 분석한 논문이다. 즉 한반도 고유의 소리명칭은 한자의 뜻을 빌리거나 음을 빌리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또 한 명칭에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적용될 때도 있다. 지금 한국에서 쓰는 ‘石島’가 대한제국 행정단위의 관할 구역을 나타내는 고유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라고 볼 때 그 고유지명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돌섬’, ‘돌도’, ‘석섬’, ‘석도’ 네 가지뿐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각세섬(觀音島)을 ‘石島’라고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각세섬이 石島로 한자 표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1.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외도(鬱陵島外島)」에는 각세섬이 ‘島項’이라고 돼 있으며 순우리말 이름인 섬목을 한자 뜻(島)+한자 뜻(項)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2. 1910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는 ‘鼠項島’라고 돼 있으며 순우리말 이름인 섬목을 한자 소리(鼠)+한자 뜻(項)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즉 대한제국의 울릉도 개척을 전후해 많은 순우리말 지명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릉도 부속섬 石島의 순우리말 지명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글의 한자 표기 원칙으로 볼 때 石島의 순우리말 지명 가능성은 돌섬, 돌도, 석섬, 석도 네 가지뿐이며, 일본 측 연구자가 石島라고 말하는 순우리말 지명 각세섬의 한자 표기는 島項, 鼠項島이지 石島가 아니라는 것이다.

獨島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지명총람』에서 보면 순우리말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쓰인 ‘獨’이라는 한자는 주로 뜻이 아니라 소리를 따서, 그중에서도 ‘독’의 소리를 따서 표기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 동사용례를 분석해 표준말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는 319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독섬(獨島)’에서의 ‘독’이 표준어인 ‘돌(石)’을 의미하며, 순우리말인 독섬을 한자의 소리+뜻을 따서 표기한 獨島가 한자의 뜻+뜻을 따서 표기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속의 石島와 동일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독도를 ‘독섬(石島)’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고유한 지역 말로 불리던 지명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조합해 표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지명에 대해서도 한자의 소리로 읽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느 것을 선택해 표기하게 됐는지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논리를 전개”해야 하며, “‘石島’에 대한 연구가 대한민국의 한자 표기와 읽기 전통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이에 의해 본 기획연구의 테마에서는 독도를 ‘독섬(石島, 고유 소리명칭+한자 표기)’이라 기술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는 독도의 일본 명칭을 앞서 제시한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독도의 일본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했다. 이 두 명칭은 19세기 중반 한때 혼란기를 겪는다.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도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서양함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고 서양명칭을 붙이면서 다양한 명칭이 혼재했고, 1905년 당시 랑코도(Liancourt Rocks)로 불리

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서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의 이야기를 메타히스토리 또는 ‘언설’이라는 관점 하에 분석하고 있다. 즉, 1906년부터 1966년까지 일본 측 연구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히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역사사실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는, 에도 시대 일본 서해안 지역(주로 시마네, 돗토리 지역)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라는 인식은 에도 후기에 이르러 거의 소멸한다. 그리고 서양 해도를 모사한 창설 일본 해군의 해도가 유포되면서 ‘울릉도=마쓰시마, 독도=Liancourt Rocks’라는 인식이 새롭게 생성돼 유포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사가 말해왔던,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竹島=울릉도)는 마쓰시마가 됐기 때문에, 1905년 독도에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해 편입했다는 명칭 계승 논리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한다.

한편, 고지도상에는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라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 측 연구는 이 지도들을 근거로 에도 시대의 인식이 근대로 계승된다는 관점을 취하나 이는 앞서 제시한 ‘명칭의 생명력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前) 시대의 명칭이 고지도라는 기록 형태를 통해 단순 모사·반복된 것일 뿐이다. 고지도상 명칭은 전(前) 시대의 화석일 뿐 해당 시대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이 반영된 명칭은 아니다. 해당 시대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울릉도=마쓰시마, 독도=Liancourt Rocks’였을 뿐이다.

또 일본 측 연구는 울릉도·독도 위치를 잘못 기재한 서양지도 때문에 일본지도 상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다케시마=가공의 울릉도, 마쓰시마=울릉도’로 되고 사람들도 후자로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번역 메커니즘과 독자의 시점이라는 관점이 누락된 것이다. 즉 서양지도 상의 ‘아르고노트=가공의 울릉도, 마쓰시마=울릉도’는

‘다케시마=가공의 울릉도, 마쓰시마=울릉도’로 번역돼 지도에 기재된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외견상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 기재 지도와 똑같아진다. 직접 항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지도와 에도 시대의 지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일본의 북서쪽 바다 가운데 섬이 두 개 있다는 것만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지도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 해군이 만든 해도를 사용했다. 따라서 해당 시기 일본의 독도 인식을 반영한 명칭은 해도 상의 Liancourt Rocks이며, 이 명칭이 전(前) 시대의 마쓰시마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의 논문들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5년 동안 독도연구와 인연을 맺어온 집필자들이 다양한 독도의 역사적 명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고민해 온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집필한 것들이다.

여기서는 독도 명칭 분석에 필요한 많은 다양한 분석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도의 역사적 명칭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대, 일정한 지역주민이 사용한 소리명칭의 명명주체와 사용지역이 지식층·중양으로 바뀌면서 한자 표기명칭으로 전환됐고 그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우산도와 석도같이 외견상 서로 연관성 없는 명칭이 독도의 역사적 명칭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이 과정이 더욱 정치하게 기술된 논문이 나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록된 각 논문의 참고문헌표는 생략했다. 각 논문의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신 2011년 1월 현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독도 명칭 연구와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논문, 문헌 등의 리스트를 게재했다.

2012년 3월 3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영미



섬의 명칭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김병렬



- I. 머리말
- II. 섬의 명칭이 국제사법법원에서 영향을 미친 사례
- III. 독도의 명칭
- IV. 분석
- V. 맺음말

섬의 명칭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김병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섬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요소 가운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역사적 사실과 결정적 기일 그리고 실효적 지배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해당 섬의 특수한 상황과 법원의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섬의 명칭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섬의 명칭은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에 그 우선순위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법원은 섬의 명칭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명칭에서 특정국의 언어적 특징이 강함에도 반대쪽의 실효적 지배가 보다 강함에 주목해 판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 섬의 영유권 및 해양경계분쟁 사건에서는 국제사법법원이 섬의 명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도 했다.

김병렬

국제법 전공,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대표논저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2001, 다다미디어), 『獨島竹島史的檢證』(2006, 岩波書店, 공저), 『일본군부의 독도침탈사』(2006, 다다미디어) 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사법법원이 다룬 사건 가운데 섬의 명칭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II. 섬의 명칭이 국제사법법원에서 영향을 미친 사례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

대표적인 것으로 프랑스의 성 말로(St. Malo) 만 내에 있는 영국의 해협 도서군의 하나인 저지(Jersey) 섬과 프랑스 해안 사이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섬과 암초들로 구성된 에크레오(Les Ecrèhou) 및 망키에(Les Minquiers)의 도서 및 부속 암초들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들 수 있다. 1950년 12월 29일 부탁합의에 의해 1951년 12월 5일 국제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 영국이 승소했다.

에크레오 섬은 영국령인 저지 섬 북동쪽에 있는데,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 물 위에 있는 암초 중에서 저지 섬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약 3.9해리, 프랑스 해안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6.6해리에 위치해 있다. 망키에 섬은 저지 섬의 남쪽에 있는데, 저지 섬과는 9.8해리, 프랑스 해안으로부터는 16.2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섬은 프랑스령인 초시(Chausey) 섬으로부터는 대략 8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 영국과 프랑스 모두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해 그 후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 노르망디 공의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르망디 공의 정복으로 이 섬이 해협 안에 있는 여러 섬과 더불어 노르망디공국에 통합됐으며, 이 통합은 프랑스 왕 필립 아우구스투스가 대륙 노르망디를 점령한 1204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필립 왕이 비록 노르망디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해협 내 여러 섬의 점유 기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망키에와 에크레오를 포함하는 해협 내 여러 섬은 여전히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그 후 영국 왕과 프랑스 왕 사이에 체결한 여러 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 됐다고 영국은 주장했다.

그리고 또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는 저지 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에 이르는 동안 수차에 걸쳐서 형사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1820년경 저지 섬 주민이 이 섬에 건립한 가옥이 과세 대상이 됐고 이 섬에서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저지 섬 행정당국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 1875년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구에 대한 실효적 점유 등을 이유로 역사적 권원을 주장했다.¹⁾

이에 대해 프랑스는 해협 도서군에 속한 저지, 귀런시(Guernsey), 알데니(Alderney), 삭(Sark), 헤럼(Herum) 및 제토(Jethou) 등의 섬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나 망키에와 에크레오는 프랑스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해협 내 여러 섬은 서기 933년 노르망디를 관할하던 윌리엄 롱스워드(William Longsword)에게 봉토로 수여돼 관리됐는데, 1066년 노르망디 공인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게 됐다. 이 노르망디 공은 프랑스 왕의 봉건적 가신(Vassal)으로, 영국 왕이었지만 노르망디 공의 자격으로 프랑스 왕이 수여한 봉토를

1) 김병렬(2005),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34~235쪽

관리했다. 그러던 중 1202년 4월 28일에 영국 왕 존(John)이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망디 전체를 포함해 프랑스 왕의 봉토로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전 토지를 몰수당함으로써 해협 내 전체 섬에 대한 관할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점 등을 원용해 이 섬에 대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했다. 또 프랑스 시민에 의한 섬의 수로 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에 걸친 조명과 부표의 관리, 19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최근의 수력발전계획 등을 원용해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했다.²⁾

이러한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영국은 프랑스 왕의 노르망디와 봉건적인 관계 주장은 단지 명목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르망디 공이 해협 도서군을 프랑스 왕이 수여하는 봉토로서 수령했다는 것과 윌리엄 롱스워드 또는 그 상속인이 해협 도서군을 대표해 신하의 예를 닮았다는 것을 부인했다. 영국 정부는 다시 1202년 판결의 효력 및 그 존재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고, 또한 비록 그 판결이 노르망디 공 자격이 있는 영국 왕에 대해 유효하게 선고됐더라도 그 판결 이후 양국 사이에 전쟁과 평화적 해결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주장하는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는 자국 왕이 노르망디를 점유한 1204년에 실제로 발생한 노르망디 공의 영토분리가 당연히 본 사건에서 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국 정부가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에 대한 영국으로의 영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섬들은 1204년 이래로 프랑스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양국의 원시적 권원에 관한 검토보다 1839년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과 양국이 주장하는 결정적 기일에 중점을 두

고 사건을 분석했다.

먼저 1839년 8월 2일에 프랑스와 영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을 살펴봤다. 이 중 특히 저지 섬과 프랑스 근해 사이의 굴 어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이 협약이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데는 양 당사국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두 섬이 합의된 공동 어업구역 내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 협약이 어느 정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대신 '영국 도서 해안 전체에 걸쳐' 3해리 이내에는 영국 신민의 배타적 어업권이 미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즉 양국 모두 두 섬의 영유권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1839년의 어업협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다.

결정적 기일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해당 섬들과 암초들에 대한 영유권에 관해 오랫동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1950년 12월 29일 특별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는 분쟁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을 결정적인 기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프랑스 정부는 1839년의 협약이 체결된 날짜를 결정적 기일로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1839년에서 1950년 사이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다소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두 가지 사항을 분석한 법원은 일단 1839년의 어업협정이 영유권과 관련된 협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결정적 기일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1839년 협약이 체결된 날짜에는 아직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들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록 상당 기간 당사자 사이에 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에크레오 및 망키에 섬의 영유권 문제와 결부된 것

2) 김병렬(2005), 앞의 책, 235~236쪽

은 아닌 것으로 봤던 것이다. 법원은 프랑스가 명시적으로 에크레오와 망키에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1886년과 1888년 이전에는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프랑스가 해협 내 여러 섬에 대해 봉건적 권원을 보유했더라도 그것은 1204년 이래 여러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함으로써 충분하다. 이러한 봉건적 권원은 대체 시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오늘에 와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대체의 증명책임은 프랑스에 있다. 그리고 프랑스가 원용하는 1202년의 판결은 그 존재, 효력, 범위 및 결과가 어떻게 생각되든 간에 해협 내 여러 섬에 관해 집행되지 않은 상태며, 7세기나 지난 오늘에 와서 그 법적 효력을 소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적 고려의 합리적 태두리를 훨씬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추출되는 간접적 추정이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 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상의 시찰, 수력 발전 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작은 섬들 암초 외측에서의 부표설치를 포함한 이러한 행위는 이 섬의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증거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성질의 행위는 이 섬에 대한 국가 권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만장일치로 에크레오와 망키에 섬 및 암초들에 관한 주권이 영국에 있음을 확인했다.³⁾

이 사건에서 프랑스가 섬의 명칭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국 측이 재판과 관련된 메모

3) 김병렬(2005), 앞의 책, 236~237쪽

리얼 등의 서류에서 시종일관 불어식 표기인 'Ecrèhou'를 사용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전혀 개의하지 않고 영국의 주권을 인정했다.

2. 영향을 미친 사례

1821년 스페인령 과테말라는 스페인에서 독립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와 함께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을 형성했다. 하지만 1839년에 연방이 분열하면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새로 탄생했다.⁴⁾

이후 1854년에 미국이 온두라스에 엘 티그레(El Tigre) 섬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엘살바도르가 이에 반대하면서 민구에라(Meanguera)⁵⁾와 민구에리타(Meanguerita)⁶⁾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⁷⁾ 엘살바도르 외무장관은 폰세카 만 내의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의 경계선 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1861년 5월 14일 온두라스 정부에 외교문서를 제시하며 육상에서의 경계협상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협상이 시작됐다.⁸⁾

해상에서의 경계협상은 1884년이 돼서야 시작됐다. 크루즈-레토나 협약(The Cruz-Letona Convention)에 의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 만(灣)의 수역협상이 경계협상에 포함됐으나 결국 온두라스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진 못했다. 하지만 협약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서로 상

4) ICJ Reports(1992), p. 33, par., 29

5) 엘 티그레 섬 위에 있으며, 최고점은 해발 480m이다. 남북으로 6km, 동서로는 3.7km이고, 전체 면적은 1,586ha다. Ibid., p. 570

6) 민구에라 섬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26ha의 넓이다. Ibid., p. 570

7) Ibid., p. 34, par., 30

8) Ibid., p. 34, par., 31

대방 주장의 본질을 인식하게 됐다. 이후 1900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교섭이 이뤄져 폰세카 만에서 일부 양국의 경계가 확정됐다. 1916년 엘살바도르는 폰세카 만 수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중앙아메리카 사법법원에 니카라과를 상대로 제소했다. 1916년의 소송절차는 니카라과에 대항한 엘살바도르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해양법 발전에 따라 각 당사국은 만 바깥쪽 해역의 법적 제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해양 입법을 서둘러 수정했다.⁹⁾

육상에서의 영토경계 분쟁은 1861년 7월 엘 모노(El Mono) 회의를 시작으로 1869년 몬타나 데 나과테리크(Montana de Naguaterique) 협상으로 이어지는 등 당사국 간 회의에서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188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다뤄졌다. 1884년에는 3월과 4월 온두라스 대표와 엘살바도르 대표 간 회의를 통해 1884년 4월 10일 크루즈-레토나 협약의 초안이 작성됐지만 온두라스의 비준거부로 1886년 9월 28일에는 또 다른 협약인 젤라야-카스텔라노스 협약(Zelaya-Castellanos Convention)이 체결됐다.¹⁰⁾

1888년 11월 라 유니온(La Union)과 과나카스틸로(Guanacastillo)에서 개최된 새로운 협상에서 고아스코란(Goascoran) 강을 육상 경계선으로 합의했다. 1889년에 새로운 젤라야-카스텔라노스 협약(Zelaya-Castellanos Convention)이 다시 체결됐으나 이행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1895년 협약으로 이어져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을 재확인했다.¹¹⁾

이후 몇 차례의 협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마침내 1969년 7월 14일부터 18일간에는 국경충돌사태까지 발생했다. 100시간의

9) *ICJ Reports*(1992), p. 34, par., 32
 10) *Ibid.*, p. 35, par., 33
 11) *Ibid.*, p. 35, par., 34

교전 끝에 미주기구(OAS)의 개입으로 휴전에 결국 동의했지만 양국 간에 형성된 전쟁상태는 이후 10년 이상 지속됐다. 이후 양국은 1980년 리마(Lima)에서 일반평화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 제31조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영토분쟁을 국제사법법원에 의뢰하기로 1986년 5월 24일 특별협정을 체결했다.¹²⁾

이 협정에 의해 사건이 국제사법법원에 의뢰되자 엘살바도르는 자케이트 그랜드(Zacate Grande)와 패럴런즈(Farallones)를 제외한 만 안(灣內)의 모든 섬이 분쟁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엘 티그레 섬을 포함해 모든 섬에 대해 자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자케이트 그랜드 섬과 패럴런즈 군도를 제외한 폰세카 만 내에 있는 모든 섬, 특히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의 주권이 엘살바도르에 속한다.¹³⁾

이에 대해 온두라스는 다른 섬들은 분쟁상태에 있지 않고 오직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 섬만이 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섬에 대해서만 자국의 주권을 인정해주면 된다고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온두라스공화국이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 줄 것¹⁴⁾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 만이 양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있으며 온두라스공화국이 이들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하고 선언해 줄 것¹⁵⁾

12) *ICJ Reports*(1992), pp. 35~39, pars., 35~39.
 13) *Ibid.*, p. 206, par., 323, p.367
 14) *Ibid.*, p. 207, par., 324, p.372
 15) *Ibid.*, p. 377

이러한 양국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엘 티그레, 민구에라, 민구에리타가 모두 분쟁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

폰세카 만 내의 모든 섬은 스페인의 주권 아래 있었다. 그런데 1854년 미국 영사가 온두라스 정부에 엘 티그레 섬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엘살바도르는 1854년 10월 12일 자 외교각서에 의해, 이 제안을 참고로 언급하며 이를 거부했고,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에 대한 온두라스의 측량활동을 언급하면서 두 섬에 대한 주권이 엘살바도르에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온두라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엘 티그레 섬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¹⁶⁾

법원은 우선 엘 티그레를 다루면서 1833년 이후로 진행된 역사적 사건을 검토했다. 그리하여 온두라스가 1849년 이래로 섬에 대한 효과적 점유를 보유하고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이 해체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행위는 엘 티그레 섬이 온두라스에 귀속된다는 가정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을 첨부하며, 현실적 가정은 온두라스가 스페인으로부터 승계한 섬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온두라스의 승계는 알려진 식민지 권원과 모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¹⁷⁾

이어서 법원은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민구에라에는 오랫동안 주민이 거주해왔다. 하지만 민구에리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법원에 부탁되기 이전에도 양 당사국은 민구에라와 민구에리타를 단일 섬으로 취급해왔다. 민구에리타의 작은 크기와 큰 섬으로의 인접성,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953년 국제사법법원 판결에 부쳐졌던 망키에 군도와 같은 속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민구에리타는 망키에 및 에크레오 사건처럼(*dispositif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의심의 여지없이 '가능한 전유물(*capable of appropriation*)'이다. 이것은 비록 담수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간출지도 아니고, 수목으로 덮여 있다. 양 당사국은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가능한 전유지로 취급해왔다.

민구에라와 다른 섬들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분쟁 천명은 1854년 10월 12일 자 살바도르의 항의각서에 의해서였다. 같은 날짜의 회람 서신에 의해 엘살바도르의 주장은 널리 알려졌다. 나아가 엘살바도르 정부는 1856년 8월에 공식적인 잡지 *Gaceta*를 간행했는데, 여기에서 산 미구엘 성(Department of San Miguel)의 측량기사가 측량한 무인도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민구에라의 땅', '자케이트와 코네조 섬', '엘 티그레라고 불리는 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1879년 12월 30일 자 *Gaceta*지에는 무인도인 민구에라 섬의 경매가 보도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온두라스 정부의 어떠한 항의나 반응의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다.¹⁸⁾

즉 법원은 민구에리타를 민구에라의 부속 섬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비준되지 못한 1884년 크루즈-레토나 협약에서 민구에리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민구에라의 부속 섬이자 엘살바도르령으로 취급됐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해양경계선은 태평양으로부터 폰세카 만 내로 들어와서 엘살바도르의 민구에라, 콘차기타, 마틴 페레스, 폰타 사카테와 온두라스의 엘 티그레, 사카테 그란드, 잉그리사, 엑스포시지션 사이를 지

16) *ICJ Reports*(1992), p. 381

17)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Ⅲ(국제사법재판소판례)』(2005), 해양수산부, 서울, 256쪽

18) *ICJ Reports*(1992), pp. 570~571

나 고아스코란구에서 끝난다.¹⁹⁾

물론 이 협약은 온두라스 의회의 반대로 비준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온두라스가 민구에라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민구에리타 만을 따로 분리해 동협약에 명시하는 등 온두라스의 영유권 하에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법원은 온두라스의 반대나 저항이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민구에라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엘살바도르가 민구에라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상당한 문헌증거를 획득했으며, 문헌상 나타나는 모든 기간에 온두라스의 이의 제기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의 반대 없이, 섬에 거주하는 살바도르 주민과 그의 증언을 요청해 엘살바도르가 민구에라 전반에 대한 국가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²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온두라스 정부가 민구에라에 대해 엘살바도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직 1991년 1월뿐이었다.²¹⁾ 하지만 이 이의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²²⁾ 법원은 온두라스의 이의 제기는 민구에라가 온두라스의 일부란 동의를 가정해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언급했다.²³⁾ 그리고 민구에리타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주권행사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큰 섬인 민구에라에 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을 뿐이다.²⁴⁾

이것은 민구에리타 섬이 비록 독립적으로 취득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섬

에 대한 상대국의 특별한 주권행사가 없는 한 주도(主島)인 민구에라섬의 속도(屬島)로 다뤄져야 한다고 한 것인데, 법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민구에라에는 현재 오랫동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민구에리타는 그렇지 못하다. 법정에서의 민구에라 및 민구에리타 섬에 관한 양측의 논쟁 내내 양 당사국은 두 섬을 단일체로 취급했다. 어떠한 당사국도 최종 진술서에서 두 섬을 분리해서 취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작은 크기의 민구에리타는 큰 섬과의 인접성,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망키에 군도가 해협제도에 부속됐다는 인식처럼(*ICJ Report(1953)*, p. 71), 민구에라에 부속된 것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민구에리타는, 망키에 및 에크레오 사건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유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비록 답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간출지도 아니고, 초목으로 덮여 있다. 양 당사국은 각기 이 섬에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전유의 가능성을 주장해왔다.²⁵⁾

주목할 점은 이 판결문에서 법원이 직접 명칭 때문에 부속 섬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부속 섬이라는 인식 때문에 양 당사국이 이를 분리해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름 또한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붙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식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II. 독도의 명칭

독도에는 많은 이명(異名)이 있다. 于山島·三峰島·蓼島·石島 등 편찬된 시

25) *ICJ Reports(1992)*, p. 223, para., 356

19) 협약 제2조

20) *ICJ Reports(1992)*, p. 227, par., 361

21) *Ibid.*, p. 228, par., 362

22) *Ibid.*, p. 229, par., 363

23) *Ibid.*, p. 230, par., 364

24) *Ibid.*, p. 232, para., 368

기와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됐으며, 일본에서 또한 竹島·松島·리양고도[リアンキュルト]가 혼동돼 사용됐다.

1. 우산도

독도의 옛 이름이 우산이었다고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신석호, 이병도 교수다.²⁶⁾ 각종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국 또는 우산도라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명칭 | 수록 문서명 | 비고 |
|-------|---------|------------|------------------------|
| 512년 | 우산국 | 삼국사기(1145) | 권 3, 신라본기 지증왕 13년하 6월 |
| 1018년 | 우산국 | 고려사 | 권 4, 현종 9년 11월 병인 |
| 1022년 | 우산국 | 고려사 | 권 4, 현종 13년 7월 병자 |
| 1412년 | 유산국도 | 태종실록 | 권 23, 태종 12년 4월 기사 |
| 1417년 | 우산도 | 태종실록 | 권 33, 태종 17년 2월 임술 |
| | 우산, 우산인 | 태종실록 | 권 33, 태종 17년 2월 을축 |
| | 우산무릉 | 태종실록 | 권 34, 태종 17년 8월 을축 |
| 1425년 | 우산무릉등처 | 세종실록 | 권 29, 세종 7년 8월 갑술 |
| | 우산무릉등처 | 세종실록 | 권 29, 세종 7년 10월 을유, 신묘 |
| 1436년 | 무릉도우산 | 세종실록 | 권 73, 세종 18년 윤6월 갑신 |
| 1451년 | 우산무릉2도 | 고려사지리지 | 강원도 울진현 |
| 1454년 | 우산무릉2도 | 세종실록지리지 | 강원도 울진현 |
| 1531년 | 우산도 | 신증동국여지승람 | 강원도 울진현 |
| 1770년 | 우산 | 동국문헌비고 | 여지도 |

신용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위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울릉도 공도정책을 확정하는 도중에 ‘울릉도’ 외에

26) 임영정(1995), 「독도의 호칭에 관한 제설의 검토」, 『환동해권의 시간과 공간의 교감』, 교학사, 150쪽

또 하나의 작은 섬 ‘우산도’가 있음이 확인돼 기록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호조판서 박습이 1416년 9월 김인우를 천거하면서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들은 이야기로 “울릉도의 둘레는 7척이 되며 그 옆에 작은 소도가 있다”고 하며 이름을 모르는 또 하나의 섬의 존재를 국왕에게 보고했으며, 그 직후 김인우가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됐는데, 그 직책을 ‘무릉도안무사’라 하지 않고 ‘무릉등처안무사’라고 한 것은 이 ‘소도’를 의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인우가 1차로 울릉도를 다녀온 직후의 조정회의에서는 태종이 ‘무릉등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산무릉’, ‘우산무릉등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김인우가 ‘무릉등처안무사’가 되어 1차로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울릉도 옆의 ‘소도’를 울릉도 거주민의 증언에 의해 ‘우산도’로 확인해서 조정에 보고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김인우는 울릉도를 다녀오면서 우산도(독도)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울릉도 옆에 소도가 있고 우산도로 불리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안무사 김인우는 태종의 명에 의해 2차로 울릉도에 들어가서 상당수의 울릉도 거주민을 쇠환해 돌아왔다.

(…)

세종은 부왕 태종의 울릉도 공도정책을 답습해 실행했다. 세종은 1425년 8월에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해 군인 50명을 인솔하게 하고 병기와 3개월분의 식량을 주어, 1423년 8월에 울릉도로 도망해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남녀 28명을 쇠환해오도록 했다.

전판장기현사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였다. 처음에 강원도 평해인 김을지, 이만, 김우을금 등이 무릉도에 도망하여 거주했는데 병신년에 나라에서 김인우를 파견하여 모두 쇠환케 했다. 계묘년에 김을지 등 남녀 모두 28명이 다시 본도에 몰래 도망하여 들어갔다. 금년 5월에 김을지 등 7명이 그 처자를 본도에 남겨두고 작은 배를 타고 평해군 구이포에 몰래 도착했다가 발각되었다. 감사가 본군의 치보를 이용해 보고하여, 이에 다시 쇠환하도록 한 것이다. 김인우는 군

인 50명을 인솔하고 무기와 3개월분의 식량을 준비하여 바다로 떠났다. 섬은 동해 가운데 있고, 김인우는 삼척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세종이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일한 직책을 태종이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우산도'가 무릉도와 함께 김인우가 안무해야 할 행정관리지역 안에서 부각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기록이 무릉도를 두 번이나 '본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종과 이 산의 보고자들, 실록의 기록자들이 모두 무릉도를 본도, 우산도를 '속도'로 알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준다.

즉 세종과 그의 신하들이 이때에는 울릉도에 속도인 우산도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파견하는 관직명부터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초기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영유했으며, 그 통치 지배권을 행사해 안무활동을 실행했음을 문헌상으로도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는 병선 2척을 이끌고 3차로 울릉도에 들어갈 때 태풍을 만나 병선 1척과 타고 있던 46명의 배꾼이 실종되는 손실을 봤다.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본도에 역을 피해 간 남녀 20명을 수색하여 잡아와 복명하였다. 처음에 김인우는 병선 2척을 영솔하고 무릉도에 들어갔는 바, 선군 46명이 탄 1척은 태풍에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임금께서 여러 대신들에게 가로되, 김인우는 20여 명을 잡아 데려왔으나 40여 명을 잃었으니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 섬은 특이한 산물이 별로 없는데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의 이유는 전적으로 부역을 면하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조참판 김자지가 계하여 가로되, 이번에 잡아 온 도민을 법에 비추어 죄를 주자고 청하니, 임금께서 가로되, 이 사람들은 타국에 몰래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며, 또 전에 법한 바를 사해준 일도 있으니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은 이어 병조에 명해서 이들을 충청도의 먼 산군에 두어서 다시는 도망하

지 못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복호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가 다시 쇠회한 도민들을 예조참판이 죄 주자고 청한데 대해 세종이 "이 사람들은 '타국'에 몰래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며"라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즉 우산무릉등처가 '타국이 아니라' 아국이므로 여기에 몰래 들어간 것에 대해 죄를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 국왕 세종이 '우산도와 무릉도'를 타국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고 명백히 밝힌 내용이다.

『세종실록』의 세종 7년(1425) 8월 갑술조와 10월 을유조에 나타난 위의 두 기록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자료다. 왜냐하면 ① 조선 국왕(세종)이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는 관리를 임명 파견해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실제로 통치권 영유권을 행사했고, ② 우산도와 무릉도 중에서 무릉도를 본도라고(따라서 우산도를 속도라고) 구분했으며, ③ 우산도와 무릉도는 타국이 아니라고(즉 조선의 영토라고) 천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처럼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도 부왕 태종의 공도정책은 여전히 답습했다. 세종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인솔했던 병선 2척 가운데 태풍에 잔파한 한 척에 탔던 46명의 배꾼을 위해 초혼제를 지내도록 명했고, 그 가운데 10명이 일본 石見州 長濱等岸에 표류하다 구조돼 돌아왔으나, 세종의 공도정책 고수는 변하지 않았다. 세종 18년(1436)에 강원도 관찰사 유계문이 울릉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산출이 많음을 들어 백성을 모집해서 울릉도에 실제로 거주시키고 만호와 수령을 두어 구장지책을 세우자고 건의했을 때 세종은 이를 윤치하지 않았다.²⁷⁾

그런데 신용하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도 위 표에 나오는 우산도가 독도를

27)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75~80쪽

지칭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²⁸⁾

한국 측은 조선 초기의 관찬기록인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다음 기사를 들어, 이조 초기 이래 울릉도와 우산도는 다른 두 개의 섬으로 인정돼 있었고, 그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일본이 말하는 죽도)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이상 세 문헌 중에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이씨 조선 제4대 세종의 실록 말미에 부재된 팔도지리지로 세종 14년(1432)에 윤준, 신장 등이 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에 약간의 증보를 가해서 단종 2년(1454)에 편찬한 것이다.

다음에 『고려사지리지』는 세종을 이은 문종 원년(1451)에 찬진한 『고려사』의 지리지로 당시 지리학에 조예가 깊다고 하는 양성지가 만든 것이다. 따라서 『신찬팔도지리지』가 완성된 시대부터 열거하면 『세종실록지리지』 쪽이 『고려사지리지』보다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에 관한 전체 기사를 비교하면 『고려사지리지』 쪽은 지증왕 12년(511), 고려 태조 13년(930) 및 의종 11년(1157)의 것뿐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고려사지리지』의 전기기사 외에 이조의 태조(태종의 오류, 후술) 시대에 김인우가 울릉도에 가고, 그 결과 동도에 대해서 공도정책이 취해지게 될 때까지의 경위가 추록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울릉도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실록지리지 쪽이 새롭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처음 성종 12년(1481)에 『동국여지승람』으로 편집됐지만, 후에 2회의 개정을 거쳐 중종 26년(1531)에 '신증'의 이름을 더해 찬진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3서 중에서는 여지승람이 가장 새로워 실록지리지의 기사에 세종 20년(1438)과 성종 2년(1471)에 관한 것이 다시 추록돼 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고려사지리지』를 보면 '울릉도'라는 항에서, 이 섬이 신라 때 우산국이라고 칭한 일과 무릉이라고도 우릉이

라고도 칭했던 일, 지증왕 12년에 내항했다는 일, 고려의 태조 13년에는 섬 사람이 방물을 바쳤다는 일, 의종 11년에 김유립이 울릉도에 향했던 일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우산국의 항복에 대해서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찬진된 조선 최고의 사서로 알려진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수록돼 있다.

(…)

즉 이 기사에서 우산국의 귀복을 지증왕 13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고려사지리지』와 다르지만 신라 시대에 우산국이 명주의 정동 해중에 있고, 울릉도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다고 이야기해 울릉도에 있었던 나라의 명칭이 '우산'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전기 지리지와 같다.

이 이찬 이사부의 울릉도 정벌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의 권 44, 열전 4 '이사부'의 항에도 자세한 기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울릉의 이름은 예를 들지 않고 오로지 우산국으로 부르고 있다. 또 『삼국사기』보다 약 150년 후에 집필된 『삼국유사』에도 이사부의 정벌에 관한 기사가 있지만(단지 여기서는 이찬 박이종으로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우산국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우릉, 우릉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들 외에 『고려사지리지』의 태조 13년(930)의 "그 섬사람들이 백길, 토두에게 방물을 헌상하게 했다"라고 기록된 기사에 대해서는 『고려사』의 태조 13년 8월 병오조(권 1)에는 "우릉도사 백길 토두"라고 돼 있어 "그 섬사람들이" "우릉도인"임을 가리키고 있다. 또 의종 11년(1157)의 김유립의 울릉도 탐사에 관해서 지리지에는 "왕이 울릉도 땅이 넓고 비옥하다는 것을 들으시고"라고 돼 있는 것을 『고려사』 의종 11년 5월조(권 18)에는 "왕이 동해 중에 있는 우릉도가 땅이 넓고 기름지고, 옛날에 주현을 두었다. 운운"이라고 기록해 울릉도라고 말해야 할 것을 우릉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고려사지리지』 및 이것을 입증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기사를 전부 살펴보면 국명으로는 우산, 도명으로는 울릉으로 돼 있어, 우산국과 울릉도가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고려사지리지』의 '울릉도'의 항에서 설명하는 것은, 모두 울릉도 1도에 관한 것으로, 단지 그 주기의 마지막에 "혹 말하기를 우산 무릉 2도라 한다"라

28)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94~101쪽

는 일절을 삽입해 우산 무릉 2도설이 있는 것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것에 관해서, 그 후의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되면서 그 모두에서 '우산', '무릉'을 2도로 취급하고 있다. 단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는 그 주기의 내용은 지증왕 12년에 관한 기사를 좀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 외에는 『고려사지리지』의 울릉도에 관한 주기를 약간 수정한 것일 뿐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실록지리지에 있는 김인우의 울릉도 순검에 관해서는 『태종실록』의 태종 16년(1416) 9월 경인조에는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였던 호조참판 박습이 무릉도를 잘 안다고 말한 삼척인 전 만호 김인우 및 이만 양인을 불러 물어봤더니, 이 섬에는 균역을 피해서 도망쳐 들어간 자가 있고, 또 이 섬을 근거로 왜구의 우려도 있다고 말하므로,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병선을 무릉도에 파견해 도망쳐 들어간 사람을 쇄출시키기로 했다고 돼 있다.

또 이 기사를 받아 동 실록의 태종 17년(1417) 2월 입술조(권 33)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 대죽, 강치 가죽, 생저, 면자, 검박목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는 15구로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올 때 두 번이나 태풍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했다.

즉 이 기사로 김인우가 향했던 섬이 우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산도라는 명칭이 사서에 나타난 최초이지만 태종실록의 전기 두 기사를 비교하면 그곳에서 말하는 우산도가 무릉도와 동일한 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김인우의 보고에 의하면 그 우산도에서는 대죽, 수수피, 생모시, 목화 등을 산출하고 그곳에는 15호 86명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나 그것이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기도 전체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를 계승하고, 다만 세종 20년(1438)과 성종 2년(1471)의 울릉도 답사에 관한 보고서를 추록하고 있다.

세종 20년의 일에 관해서 여지승람에서는 현인 만호 남희가 이 섬에 가서 김환 등 70여 명을 모두 잡아 돌아와 그 땅이 비게 됐다고 하고 있다. 한편 『세종실록』 20년 4월 및 7월조에 의하면 강원도 해변인 전 호군 남희와 전 부사직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으로 임명해 그 섬에 들어가 숨어있는 인구를 수색시킨 결과, 7월에는 남희와 조민 등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잡은 남녀 66명과 섬의 산물 사철, 석종유, 생전복, 대죽 등을 진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년 4월 갑술, 전 호군 남희와 전 부사직 조민을 무릉도 순심경차관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때 국가에서는 무릉도가 해중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고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도망해 숨은 인구를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20년 7월 무술, 호군 남희와 사직 조민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사철, 석종유, 생모시, 대죽 등의 산물을 바치며 아뢰기를, 발선한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하자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했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이 두 문헌의 기사는 인명 그 외에 상위는 있지만 모두 세종 20년에 이르

러서 울릉도가 완전히 공동화된 경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섬이 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닌 것은 앞의 김인우가 간 우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 사람이 거주하고 대죽 등의 생산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명백한 일이다.

(...)

이처럼 울릉도를 1도로 취급하고 있는 『고려사지리지』는 물론, 우산과 무릉을 2도로 하는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에도 그 주기의 내용은 한결같이 울릉도 1도에 관한 것뿐으로 우산도에 관해서는 하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²⁹⁾

여기에서 우산도가 울릉도인지 독도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양설이 존재한다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우산도가 울릉도의 속도 또는 인접도라고 하는 명칭상의 특징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산도

『숙종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³⁰⁾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於翌曉 拖舟入子山島(...)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將(...)

송도 즉 자산도이다. 이것 역시 아국의 땅이다. 너희가 어찌 그곳에 산다는 말이나? 이튿날 새벽 배를 저어 자산도에 들어갔다... 울릉도나 자산도 등도 조선의 땅이다. 가칭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라고 하면서...

29) 川上健三(1966), 앞의 책, 94~101쪽

30)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무인

그런데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증보문헌비고』 등에서는 자산도 대신에 '芋山島'라고 쓰고 있다. 독도를 자산도라고 한 것은 『숙종실록(肅宗實錄)』뿐이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내용이 『춘관지』의 「울릉도쟁계」나 『증보문헌비고』 등에도 나오고 있지만 모두 芋山島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도를 울릉도의 '子島'라는 의미에서 자산도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于山島의 '于'를 '子'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설사 모자관계에 의한 명칭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울릉도가 '毋島'라는 명칭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삼봉도

신석호 교수는 "조선 초기에 독도를 우산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삼봉도라고 한 일도 있다"라고 했다.³¹⁾ 박경래,³²⁾ 박대련,³³⁾ 박관숙 교수³⁴⁾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성종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兵曹啓 永興人金自周供召云 本道觀察使以三峰島尋覓事 金自周及宋永老與 前日往還金興金漢京李吾乙亡等十二人 給麻尙船五隻入送 去九月十六日於鏡城地獲仇未發船 向島 同日到宿富寧地青巖 十七日會寧地加隣串 十八日到宿慶遠地末應大 二十五日西距島七八里許到泊 望見則於島北有三石列立

31) 신석호(1965), 「독도의 내력」, 대한공론사, 21쪽

32) 박경래(1965), 「독도영유권의 사·법적인 연구」, 대한공론사, 158쪽

33) 박대련(1965), 「독도는 한국영토」, 대한공론사, 243쪽

34) 박관숙(1968),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40쪽

次小島 次巖石列立 次中島 中島之西又有小島 皆海水通流 亦於海島之間 有如人形別立者三十 因疑懼不得直到 畫圖形而來 臣等謂 往年朴宗元有江原道發船遭風 不至而還 今漢京等發船於鏡城瓮仇未 再由此路出入 至畫島形而來 今若更往 可若尋覓 謂於明年四月風和時 還有文武才者 一人入送 從之³⁵⁾

병조에서 아뢰기를, 영흥 사람 김자주의 공초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본도 관찰사가 삼봉도를 찾기 위하여, 김자주와 송영로, 그리고 전일에 다녀온 김홍, 김한경, 이오을망 등 12명에게 마상선 5척을 주어 들여보냈는데, 지난 9월 16일에 경성 땅 옹구미에서 배를 출발하여, 섬으로 향해, 같은 날 부령 땅 청암에 도착하여 자고, 17일에 회령 땅 가린곳이에 도착하여 잤으며, 18일에는 경원 땅 말응대에 도착하여 잤고, 25일에는 섬 서쪽 7, 8리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나란히 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이 있고, 다음은 암석이 나란히 섰으며, 다음은 북판 섬이고 북판 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모두 바닷물이 통합니다. 또 바다 섬 사이에는 인형 같은 것이 별도로 선 것이 30개나 되므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닿을 수가 없어 섬 모양을 그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 등은 말하기를 왕년에 박종원은 강원도에서 배를 출발하였다가 바람을 만나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경 등이 경성의 옹구미에서 배를 출발하여 이 뱃길을 거쳐서 돌아와 도형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만약 다시 간다면 기히 심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년 4월 날씨가 좋을 때 문무 재주있는 자 1인을 선발하여 들여보낼 것을 청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신석호, 박경래, 박대련, 박관숙 교수 등은 이 기사야말로 독도를 나타내는 기사라고 했다.

신용하 교수 또한 삼봉도가 독도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첨기해뒤야 할 것은 성종(재위 1469~1494) 시기에 독도가 한때

35) 『성종실록』, 성종 7년 10월 정유조

삼봉도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성종은 왕이 된 직후 원년(1470) 12월에 영안도(지금의 함경도) 관찰사 이계손의 보고에서 도부배국정범(逃賊背國情犯)이 삼봉도로 들어가 버리는 해악이 심한데, 뱃길이 사나워서 영안도의 작은 배로는 가벼이 추적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마땅히 상세한 것을 조사해서 추적을 시행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했다. 이때 국왕 성종은 동해에 울릉도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삼봉도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으므로 이것이 중앙에서 말하는 울릉도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은 성종 2년(1471) 8월에 강원도 관찰사 성순조에게 “이제 들으니 영안도에 사는 백성이 무릉도에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어 사람을 보내 잡아오고자 한다고 하는데, 세종조에 일찍이 이 섬의 인구를 심토(尋討)한 적이 있는바 그때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 조사하는 것이 가하고 또 원행자를 모집하며 선박을 준비해 보고하라”는 명령서를 내렸다.

국왕 성종은 이때 함경도 사람들이 말하는 삼봉도를 울릉도로 생각하고 공도정책을 폐기해 사람을 살게 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었던 듯, 인정전에서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면서 “삼봉도는 우리 강원도의 경지에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다수 가서 살기 때문에 세종 조에 사람을 보내 쇄환하게 했다가 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람을 많이 살게 할 수 있겠는가. 혹은 말하기를 바닷길이 험악해 비록 그 토지를 활용한다 해도 이익이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방치함만 같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설은 어떠한가”하며 토론에 부쳤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는 도부피세자(逃賊避稅者)를 쇄환하고 공도정책을 그대로 지속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통일된 것 같다.

다음 달(1472년 4월)에 국왕이 박종원을 ‘삼봉도경차관’으로 임명해 파견하면서 도부잠투자(逃賊潛投者)를 불가분 쇄환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묻자, 박종원은 삼봉도에 도착하면 도부잠투자들이 모두 도망할 것이므로 자기는 먼저 그 선박들을 빼앗고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으나 임기처치에 어려움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왕은 이에 따라 “삼봉도는 우리나라 봉역 안에 있는데, 해로가 험악해 도부피세자가 몰래 들어가 살고 있다. 이제 명령을 내리노니 너는 가서 포박해오되 발선 이후

군사를 영솔함에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써 다스려 일을 하라”고 교지를 내렸다.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은 군사를 배 4척에 나누어 태우고 5월 28일 울진 포를 출항했는데, 곧 큰 바람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박종원이 탄 배는 동북쪽으로 밀려가 29일 아침에 동남 방향으로 무릉도를 바라보고 15리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큰 바람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7주야를 표류하다가 6월 초6일 간성군 청간진에 간신히 도착했다. 한편 사직 광영강 등이 탄 3척의 배는 5월 29일 무릉도에 도착해 3일간 머물면서 섬 안을 수색했는데 거주인은 보지 못하고 단지 옛 집터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6월 초6일 강릉 우계현 오이진에 도착했다. 박종원의 삼봉도 수토는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왕과 조정에서는 사직 광영강 일행이 울릉도에 도착해 3일간 체류하면서 수색한 결과 도부피세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므로, 울릉도와 삼봉도는 별개의 다른 섬이라는 확신을 하게 돼 새로운 섬의 발견도 겸해서 삼봉도 수토에 더욱 열을 올렸다. 원래 삼봉도 건은 영안도(지금의 함경도)에서 제기한 문제이므로 영안도 사람들을 동원해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영의정 정인지 등은 ‘삼봉도수척사목(三峰島搜覓事目)’을 정할 것을 의논하고 영안도 관찰사에게 명령해 한산유직품관(閑散有職品官) 가운데 사행(使行)에 가한 자를 미리 골라서 모든 일을 준비시킨 후에, 명년 봄 날씨가 화창해지면 일찍이 삼봉도에 다녀온 적이 있는 영안도 사람 김한경을 길 안내로 해서 조사하도록 했으며, 병조에서는 이 품계에 의거해 ‘삼봉도수척사목’을 제정했다.

국왕 성종은 이 삼봉도수척사목을 승인해줬으며, 이듬해 정원에는 육지로부터의 거리와 지세로 볼 때 삼봉도와 무릉도가 별개의 다른 섬인 것 같으니 연해의 고로와 뱃사람들을 찾아 상세히 조사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임금이) 영안도 관찰사 정난중에게 논해 가로되, 김한경의 말로는 경흥에서 청명한 날을 만나면 삼봉도를 볼 수 있다고 했고, 회령에서 동쪽으로 뱃길을 달려 7주야면 도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서북행해 4주

야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전년에 사람을 파견해 무릉도에 가서 조사케 했는데 울진에서 동쪽으로 뱃길을 달려 1주야면 도달했고, 서행해 3주야에 돌아왔다. 그 말한 바의 지세에 의문이 있다. 또 세상에 전하는 말에 무릉도 북쪽에 요도가 있지만 한 사람도 다녀온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의문이 있다. 경은 다시 연해의 고로와 뱃사람을 방문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라.

해로가 험악한데 만약 사람을 파견해 조사하고자 하면 원행자를 모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람들 말에 변민이 逃賊往投했다고 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한 것은 물을 것도 없으려니와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이라도 할 수 없다. 모험을 무릅쓰고 가려다가는 혹 실패할 수도 있으니 경은 그 정세를 조사하고 헤아려 보고하도록 하라.

국왕 성종의 이러한 명령에 응해, 성종 6년(1475) 5월에 경성인 김한경, 회령인 임도치, 경원인 임유재, 김옥산, 이오을망, 김덕생 등이 함께 경원의 지면 말응대진에서 배로 출발해 3일 만에 삼봉도를 볼 수 있었는데 섬 안에 7, 8명의 사람이 보였지만 우리 패들은 단약해 하륙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종성의 친군위 노의순이 보고했다. 국왕은 영안도 관찰사에게 노의순 등 각 사람을 상세히 질문 조사해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국왕 성종은 영안도 관찰사로부터 김한경 등 2명이 신묘년(1471) 5월에 삼봉도에 표박해 그 섬사람들과 서로 접근했고, 또 을미년(1475) 5월에 김한경 등 6명이 이 섬을 향해 7, 8리까지 근접해서 이 섬을 망견했으나 바람 때문에 결국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 혹시 거짓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마땅히 건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3명을 별도로 파견해서 김한경과 함께 이 섬에 들여보내 조사케 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했다.

이에 영안도 관찰사는 성종 7년(1476) 9월 김자주, 송영로와 이전에 그 섬에 다녀왔다는 김흥, 김한경, 이오을망 등 12명에게 마상선 5척을 주고 들어가 조사해오도록 했다.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그들이 조사한 삼봉도는 그 내용에서 볼 때 오늘날의 독도(우산도)와 같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영흥인 김자주의 말이라고 하여 영안도 관찰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도 관찰사는 삼봉도 수역의 일로 김자주와 송영로를 전일 다녀 온 김홍, 김한경, 이오을망 등 12명과 함께 마상선 5척을 주어 들어가 조사하도록 파견하였다. 그들은 지난 9월 16일 경성 땅 옹구미에서 그 섬을 향하여 발선해서, 같은 날 부령 땅 청암에서 자고, 17일에는 회령 땅 가린곶이에 도착하여 잤으며, 18일에는 경원 땅 말응대에 도착하여 잤다. 25일에 섬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7, 8리 되는 곳에 도착하여 정박해서 망견한 즉, 섬의 북쪽에 삼석이 열립하여 있고, 다음에 소도가 있으며, 다음에 암석이 열립하였고, 다음에 중도가 있다. 중도의 서쪽에 또 소도가 있는데 모두 해수가 유통하며, 또한 해도의 사이에 사람 형태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이 30이 되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 바로 섬에 대지 못하였다. 도형을 그려가지고 왔다.

이때 김자주 등이 그려온 삼봉도의 도형은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위 보고의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의 독도(우산도)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어서 김자주 등이 조사한 삼봉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알 수 있다.

김자주의 조사 이후 성종 연간에는 삼봉도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있었으나, 삼봉도는 함경도 지방에서 호칭하던 이름이었고, 중앙에서는 태종 때부터 시작해 세종조에는 우산도로 고착돼 불리고 있었으므로 성종이 서거한 이후에는 다시 우산도로 불리게 됐고, 삼봉도로 불리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다.³⁶⁾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이것이 독도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울릉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³⁷⁾

36) 신용하(1966), 앞의 책, 81~87쪽

37) 川上健三(1966), 앞의 책, 125~132쪽

이조의 가장 유명한 문헌 중 하나인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력 1476년에 김자주를 장으로 하는 현재의 독도의 조선조사단이 삼봉도에 도항해 당시의 조선 정부에 대해 “우리가 정박한 곳에서 7리나 8리 되는 거리에 동방을 보면 세 개의 암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섬의 도면을 그려서 귀환했다”라는 취지를 보고했다. 이 사실은 조선인이 삼봉도(현재의 독도)에 동도 조사를 목적으로 간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1953년 9월 9일부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구상서). 그러나 이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성종실록』 권 72, 7년 정유조에 기재돼 있는 기사다.

(…)

한국 정부의 삼봉도에 관한 공식 견해는 이상과 같지만 고려대학교 신석호 교수는 그의 논문 「독도의 내력」(신석호, 사상계, 1960년 8월호 게재)에서 이것을 한층 부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초기에 우산도를 독도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봉도라 한 일도 있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성종 2년부터 12년(1471~1481) 사이에 삼봉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 삼봉도는 동해에 가운데 있는 섬으로 처음에는 누구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은 섬이었다. 그러나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 섬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 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고 여러 번 수토군을 조직해 이 섬을 수색했다. 그러나 수토군은 한 번도 이 섬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성종 7년 10월 정유(27일)조에 실려 있는 김자주의 말에 의하면(이하 전계의 성종실록의 기사 중 “去九月十六日(…) 畫島形而來”를 인용)이라고 있어, 이 기록에 의하면 김자주 등은 삼봉도에 상륙하지 못하고, 삼봉도 동쪽 7, 8리 해상에서 서쪽을 향하여 삼봉도를 바라보고 온 것인데 그가 말한 삼봉도의 모형은 지금의 독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즉 김자주가 말한 섬 북쪽에 삼석이 열립하였다 하는 것은 서도 북방에 높이

솟은 세 바위섬을 말한 것이요, 다음의 소도와 암석은 동도와 서도의 사이에 무수히 산재한 바위를 말한 것이요 중도는 서도를 가리킨 것이요, 중도 서쪽의 소도는 동도 동남방에 높이 솟아있는 바위섬을 말한 것으로 대개 지금 독도를 그대로 그린 것이요, 섬 사이에 해수가 유통한다는 것도 독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섬 사이에 보이는 인형과 같은 것은 아마 가제를 인형으로 오인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서에 나타난 삼봉도에 관한 기사를 연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봉도라는 이름이 사서에 처음 보이는 것은 『성종실록』 권 15, 3년 5월 경오조에 있는 다음 기사이다.

(…)

즉 이에 의하면 함경도 부령의 김한경이라는 사람이 삼봉도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김한경에 관해서는 『성종실록』 권 110, 10년 윤10월 무인조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고, 거기에서도 삼봉도의 이름은 김한경에 의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단 그를 취조한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

그러나 그 섬의 존재 및 인민이 부세를 피해 숨는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문제시하게 됐다. 특히 성종은 이것을 중시한 장본인으로 본도 탐색 및 인민 쇠회를 결정했다. 그 첫 번째 조사를 맡은 것이 박종원이었다.

이 박종원의 삼봉도 수색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2년(1471)으로 하고 있으나 『성종실록』에는 성종 3년(1472) 3월에 박종원이 삼봉도 경차관에 임명돼 도성 및 강원도의 군사를 통솔해, 4척에 분승하고 5월 28일에 울진포를 출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의 상황이 『성종실록』 권 19, 3년 6월 정축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

즉 박종원 일행은 5월 28일에 울진포를 출발했지만 도중에 대풍을 만나 배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 중 박종원이 탄 배는 동북을 향해 29일 해가 뜰

무렵에 울릉도를 동남쪽 15리 정도 떨어져 멀리 망견할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지만 또 대풍을 만나 7주야를 표류하다가 6월 6일에 강원도 간성군 청간진에 표착했다.

한편, 사직 광영강 등이 탄 3척은 5월 29일에 울릉도에 도착해 3일을 묵으며 도내를 수색했지만 단지 집터를 발견했을 뿐 주민은 없었다. 도내의 대죽 몇 그루를 채취해 6월 6일에 강릉 우계에 귀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박종원은 삼봉도를 찾아 울릉도에 도착했고, 삼봉도 수색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즉시 그 재거사를 계획해 전회에 준해 김한경을 안내자로 해서 길성 이복의 여러 읍에서 선발한 군사 160명을 4척의 배에 배치해 이듬해 4년 봄에 이를 결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행에 옮기지 못한 듯, 실록에는 그 후 기사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성종 4년, 5년, 6년의 실록에 삼봉도에 관해 기사가 없다가 성종 7년(1476)에 이르러 다시 나타난다. 이에 관한 것은 『성종실록』 권 64, 7년 2월 임오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

즉 성종 7년 2월에 종성에 있는 친군위 노의순이라는 자가 상언하기를 전년 5월 경성인 김한경, 회령인 임도치, 경원인 임유재 등 6명과 함께 경원의 말응대진을 출발해 3일 만에 삼봉도를 봤지만 멀리서 보니 섬 안에 7, 8명이 있었고, 자신들의 세가 약했기 때문에 상륙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한경은 경성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앞의 삼봉도 발견자로 실록(권 15, 성종 3년 2월 경오조)에 실려 있던 부령인 김한경과는 아마 동일인이라고 생각된다. 경성과 부령은 서로 인접한 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가 생겼다고 생각되지만, 경성은 개인이 말한 것이고, 부령은 관에서 취조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령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관찰사 이극군이 여러 사람에게 상문한 결과 영흥인 김자주 및 송영로에게 명해, 김한경 등 12명과 함께 배 5척에 분승해 삼봉도 수색을 위해 성종 7년 9월 16일에 경성의 용구미를 출발했다. 그 상세한 것이 이 항의 모두에 든 성종실록 권 72, 성종 7년 10월 정유조의 기사이다.

즉 이것에 의하면 김자주 일행은 9월 16일에 용구미를 출발한 후 해변을

따라 북상해 다음 날인 17일에는 회령의 가린곶, 18일에는 경원의 말응대에 도착해 묵었다. 이곳은 전년 5월에 김한경 등이 출발한 곳이다. 계속해서 25일에는 삼봉도의 서쪽 7, 8리 해상에 도착했다. 실록의 전기 기사에서는 말응대를 출발한 날이 분명하지 않지만 『성종실록』 권 72, 성종 7년 10월 임진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어 3박 4일이 걸린 것으로 돼 있다. 이것으로 헤아려 보면 말응대에서 출발은 9월 22일이 된다.

(…)

그런데 김자주 일행이 삼봉도의 서쪽 7, 8리에 도착해, 삼봉도를 멀리 바라보니, 섬 북쪽에 바위 셋이 열립해 있고, 다음에 소도, 다음에 암석이 열립해 있고, 또 그다음에 중도, 중도 서쪽에 또 소도가 있고, 그러한 섬 사이에 해수가 유통하고 있었다. 섬 사이에서 사람의 모습을 30명 정도 봤으나 상륙하지 않고 섬의 모양을 그려서 돌아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단 이 섬이 인정되고 그곳에는 주민이 있다는 보고였기에 그 쇠환에 대해 다시 문제 삼고 이듬해 4월에 바람이 잔잔한 때를 골라 문무제가 있는 자를 보낸다는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것 역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그 후 성종 10년(1479) 5월에 이르러 영안도 관찰사가 삼봉도에 들어간 사람의 쇠환에 대해 정부에 요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년 8월 계축에 왕은 증경정승 및 부원군 등 정부의 원로를 소집해 협의했다. 이 협의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종실록 권 107, 10년 8월 계축조에 상세히 나와 있지만 삼봉도에 들어간 인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도망쳐 들어간 자 중에는 전군자, 어명산 등 그 이름이 알려진 자도 있었다는 것, 거리는 약 이틀 정도의 행정이라는 것, 배를 댈 곳도 적지 않다는 것, 상당수의 잠투자가 있다는 것 등이 알려졌었다.

그 협의의 결과 영안도관찰사 이덕량, 남도 절도사 이흥석, 북도 절도사 신주에게 삼봉도에 들어간 무려 1천여 명의 인민을 대병으로 토벌하기 위해 초마선 오십 척을 준비할 것,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귀래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용서하고 상을 내릴 뜻을 천명해 도망친 백성을 초유할 것을 명했다.

이어서 동 10년 9월에는 당시 수재라는 자부심이 높았던 조위를 특별히 발탁해 영안도 경차관에 임명하고 조선 및 도망간 백성의 초무에 대해 감

사, 절도사와 의논해 선차하기로 했지만 윤10월 27일에 이르러 김자주를 수령으로 하는 일행 32명이 3척의 배에 분승하고 부령 남면 청암리 해변에서 출발했다. 그 일행에는 삼봉도 전설의 인물 김한경 외에 삼봉도에 도망친 자의 친족 이인석, 김장명, 이중선 등도 참가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가 없고 『성종실록』 권 110, 10년 윤10월 무인조에

좌승지 이경령이 아뢰기를 “지난 달 28일에 조위가 마상선을 모아 서 들어갔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돌아왔습니다. 30일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어서 동 실록 권 112, 10년 12월 경오조에

왕이 말하기를 “삼봉도에 도망해 숨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 반드시 찾아서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한경 등이 전일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관청에서 보내려고 할 때마다 바람이 거슬러 분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 아주 좋지 못한 일이다. 병조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다.

성종 11년(1480) 봄이 돼, 또다시 삼봉도 초무가 계획됐고, 이번에는 군병을 곧장 임도시키는 것으로 하여 애초에는 상호군 정석희를 초무사로, 처음에 파견된 박종원을 부사로 임명했으나 둘 다 이것을 사양했기 때문에 다시 심안인을 초무사로, 성건을 부사로 임명하고 총 200여 명, 배 9척을 파견하려고 주도한 준비를 진행시켰으나 5월 말이 돼도 4월 이후의 장마가 그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성종은 여전히 그 뜻을 버리지 않고, 이듬해 성종 12년(1481) 정월에는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의 건의에 의해 이전 조위 때의 예에 따라 먼저 30여 명을 보내 삼봉도의 소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만일 삼봉도에 도망친 백

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망친 백성을 우선 초무하고 대적할 수 없을 때 대군을 보내 토벌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그 후의 경과에 대한 기술은 없다.

이상 개관한 대로 김한경의 보고가 동기가 되어 수차례나 삼봉도를 찾는 일을 행했으나 더러는 풍랑에 막혀, 더러는 근접하고서도 상륙하지 못하고 끝났다. 게다가, 삼봉도를 멀리서 봤다는 것도 고작 김한경과 동행한 김자주 일행뿐으로 그 외는 섬의 소재조차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러하자, 정부의 관계자 중에도 삼봉도의 존재에 의혹을 품는 자가 있었다. 김한경한테 삼봉도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취조를 맡은 이극돈이 우선 의혹을 품었다는 것은 앞에 지적한 대로이나 성종 11년(1480)에 심안인을 초무사로서 삼봉도에 파견할 방침이 정해졌을 때도, 시독관 김소, 지평 복승정 등은 삼봉도의 소재가 묘연해 알지 못하면서 김한경의 말을 믿고 200여 명의 병사를 파견하는 것의 위험을 말하고 먼저 수로에 익숙한 자 2, 3명을 보내어 탐지한 후에 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또 심안인의 행차가 중지된 후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은 몇 개의 선후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상부를 속인 김한경을 극형에 처하고, 삼봉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극론까지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삼봉도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 개인의 말에 흔들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 결국 우선 30여 명을 보내 삼봉도의 소재를 확인한다는 가장 온건하고 착실한 대책을 취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다.

그러나 이 계획도 결국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으며, 또 그 이전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몇 개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신중파의 설득이 주효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삼봉도의 존재가 아주 멀어 그 유무를 알지 못한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김자주가 삼봉도의 지도를 그려서 귀국했다는 성종 7년(1476) 보다 4년 후인 성종 11년(1480)의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측에서는 성종 7년의 기사만을 갖고 조사의 목적으로 오늘의 다케

시마에 조선인이 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사실은 당시에 이미 이 김자주의 삼봉도 탐사를 반드시 신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봉도는 과연 실재하는 섬일까. 만약 정부 관계자 중에 김한경의 언동에 대해 의혹을 품는 자가 있었다 해도 두세 번에 걸쳐 대대적인 탐색이 시행됐다는 것은 분명 당시의 조세를 피해 본토 밖의 섬으로 잠적하는 자가 있었고, 그것이 김한경의 삼봉도에 관한 정보와 얽혀서 도망친 백성의 쇄환이 진지하게 고려된 것으로, 단순하게 개인에게 정부가 놀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삼봉도가 실재하는 섬이라면 이것과 비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섬은 울릉도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성종 3년(1472) 박종원의 삼봉도 탐색이다. 박종원 일행은 4척의 배에 분승하고 삼봉도를 찾아 강원도 울진포를 출발, 그중 3척은 울릉도에 도달했고 또 박종원 자신이 탄 배도 같은 섬에서 15리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삼봉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박종원의 탐색은 삼봉도의 인민쇄환 목적이었으나 동해안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섬은 울릉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 번째로 김한경을 비롯해 삼봉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조선 동해안의 최북부, 함경도 북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그 지리적 위치 관계에서 강원도와의 관계가 예부터 지금까지 가장 밀접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됐으며, 또 공도 정책을 취한 시대에 울릉도를 순검한 것도 강원도 각지의 관리였다. 그런데도 삼봉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것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선 최북부의 거주자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발견한 그 섬이 이미 울릉도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멀리서 본 섬의 형태에서 이것을 삼봉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울릉도를 형용해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라고 기술하는 것은 우산도 항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다. 『속중실록』 권 25, 숙종 19년(1693) 11월 정사조에

대체로 울산의 어부가 해변에서 표류하여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섬 위의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섬에는 수십 호의 인가 흔적이 있다.

라고, 울릉도를 해상에서 보면 삼봉이 하늘에 닿아있다고 형용하고 있어, 이것을 봐도 울릉도를 삼봉도라고 이름 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다.

고려대학교 신 교수는 상술한 것처럼 “김자주가 말한 삼봉도의 형상은 지금의 독도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김자주가 이야기한 섬 북쪽에 3석이 열립해 있다는 것은 서도 북방에 높이 솟은 세 개의 암도를 말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중도는 서도를 말하는 것이고, 소도와 암석이란 동도와 서도의 사이에 산재하고 있는 무수한 바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형상은 오히려 울릉도에 비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신 교수는 김자주가 말하는 ‘중도’를 지금의 다케시마의 서도에 비정하고 있지만 서도는 다케시마 중 최대의 섬이어서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의 다케시마는 이 서도와 그다음의 동도가 주도를 구성하고 이것을 둘러싸는 다른 암초는 그 크기에서 이 양 도와는 격단의 차이가 있다. 김자주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주도를 둘러싸고 중도, 소도, 암석 등의 부속도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것을 오늘의 다케시마에 비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자주의 보고에 있는 섬 북쪽의 3석이 열립하고 있다는 광경이다. 이것은 울릉도 동북단 가까이 있는 삼본립의 기이한 바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삼본립은 해안 절벽 가까이 높이 50, 60미터의 큰 암주가 마치 칼을 세워 놓은 듯이 해면에 솟아 있어, 바다에서 현저한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김자주가 말하는 소도 암석에 해당하는 관음기, 일본입도, 공암 등 일련의 암초가 산재하고 있다.

또 신 교수는 김자주가 본 ‘사람 모습과 같이 따로 서 있는 30’이라는 것은 아마 강치를 오인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성종실록』 권 72, 7년 10월 임진조에는

사람 30여 명이 섬 입구에 늘어서 있고 연기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의를 입었는데, 얼굴은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개는 조선 사람이었다.

라고 돼 있어, 백의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치로 오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자주 자신이 이것을 조선인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됐든 만일 김자주가 말하는 삼봉도라는 것이 울릉도 이외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의 다케시마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삼봉도 탐색은 원래 삼봉도에 많은 사람이 잠입한다는 보고에 기초해 시작된 것으로 때로는 동도에 무려 1천여 주민이 있다고까지 전해지고 있었고, 실제로 김자주가 동도를 망견했을 때도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사람이 상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금의 다케시마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³⁸⁾

이처럼 삼봉도의 독도 여부와 관련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다. 한편 순전히 명칭상으로 삼봉도 역시 울릉도의 속도를 나타내는 특징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4. 유도

『성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俞永安道觀察使蘭宗曰 金漢京言 在慶興邊清明日 可望見三峰島 自會寧東舟行七晝夜而到 向北行四晝夜而還 前年遣人往尋茂陵島 自蔚珍向東舟行一晝夜而島 西行三晝夜而還 其所言地勢有可疑者 世傳茂陵島北有蓼島 無一人往還者 是亦可疑 卿更訪問 沿海古老舟人詳究以啓 海路險惡今若遣人 尋

38) 川上健三(1966), 앞의 책, 120~131쪽

求宜募願行者³⁹⁾

영안도 관찰사 정난중에게 유시하여 가로되, 김한경의 말로는 경흥에서 청명한 날을 만나면 삼봉도를 볼 수 있다고 했고, 회령에서 동쪽으로 뱃길을 달려 7주야면 도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북행하여 4주야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였다. 전년에 사람을 파견하여 무릉도에 가서 조사케 했는데 울진에서 동쪽으로 뱃길을 달려 1주야면 도달했고 서행하여 3주야에 돌아왔다. 그 말한 바에 의문이 있다. 또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무릉도 북쪽에 요도가 있지만 한 사람도 다녀온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의문이 있다. 경은 다시 연해의 고로와 뱃사람들을 방문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해로가 험악한데 만약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고자 하면 원행자를 모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서 요도가 울릉도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 송병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요도를 독도라고 봤다.

그러나 요도가 가공의 섬이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실재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오래 두고 신도설이 나돌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요도는 독도로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1445, 세종 27) 갑사로 있던 최운저의 증언, 즉 “일찍이 삼척 봉화현에 올라갔다가 (요도를) 바라보았으며, 그 뒤 무릉에 갔다가 또한 이 섬을 바라봤다”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이 요도를 독도라고 하기에는 방향 등의 불일치로 인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요도라는 명칭 또한 그 명칭만으로 울릉도의 부속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9) 『성종실록』, 성종 4년 정월 경자

40)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40쪽

5. 가지도

『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卽爲到泊於島之西面黃土丘尾津 登山看審 則自谷至中峰 三十餘里 而山形重疊 谷水成川 其中有可作水田六十餘石下種之地 谷則狹窄 有瀑布 而左爲黃土丘尾窟 右爲屏風石 其上又有香木亭 古斫取香木 而以間年斫取之故 漸就稀少 二十四日 到桶丘尾津 則谷形如桶 前有一巖 在海中 與島相距 可爲五十步 而高近數十丈 周回皆是絕壁 谷口巖石層層 僅僅攀登而見之 則山高谷深 樹木參天 雜草茂密 通涉無路 二十五日 到長作地浦谷口 果有竹田 非但稀疎 舉皆體小 其中擇其稍大者斫取後 仍向東南楮田洞 則自洞口 至中峰 爲數十里許 而洞裏廣闊 其址顯有三處 可作水田數十石下種之地 前三島 在北曰防牌島 在中曰竹島 在東曰瓮島 三島相距不過百餘步 島之周回 各位數十把 險峻峴 難以登覽 仍爲止宿 二十六日 轉向可支島 四五箇可支魚 驚駭躍出 形若水牛 砲手齊放 捉得二首 而丘尾津山形 最爲奇異 入谷數里 則昔日人家遺址 宛然尚存 左右山谷 甚爲幽深 難於登陟 仍遍看竹巖 候布巖 孔巖 錐山等諸處 行到桶丘尾⁴¹⁾

섬의 서쪽 황토구미에 도착하여 산에 올라 살펴보았습니다. 골짜기에서 중봉까지 30여 리인데 산이 첩첩 중첩되어 있습니다.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었는데 그중 경작이 가능한 논이 60여 석의 씨를 뿌릴 정도 되었습니다. 계곡은 깊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황토구미굴이 있고, 우측은 병풍석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또 향나무가 있어 도끼로 채취했습니다. 간년마다 도끼로 찍어내었기 때문에 점차 희소해지고 있었습니다. 24일 통구미진에 도착했는데 계곡의 형상이 통과 같았습니다. 앞에 하나의 바위가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거리가 가히 50보는 되고 높이는 수십 장이었습니다. 주위는 모두 절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곡의 입구에는 암석이 층층이 있었고 가까스로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산은 높고 골은 깊었습니다. 수목이 하늘에 닿았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

41) 『정조실록』, 정조 18년 6월 무오

다. 25일에 장작지포의 골짜기 입구에 이르렀는데, 과연 대밭이 있었으나 비단 드물게 있었을 뿐 아니라, 거의 다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큰 것을 골라서 베어 가진 다음 동남쪽의 저전동을 향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동구로부터 중봉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가 되었으며, 동 안은 광활하고 기지가 뚜렷하게 세 곳이 있는데, 눈을 만들어 수 십 석의 종자를 씨 뿌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앞에는 세 개의 섬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것을 방패도라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죽도라 하며, 동쪽에 있는 것을 옹도라고 하였습니다. 세 섬의 서로 떨어진 거리는 100여 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섬의 둘레는 각기 수십 파가 되는데 험한 바위로 되어 가파롭기 때문에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으므로 인하여 그냥 머물러서 잤습니다. 26일에 방향을 바꾸어 가지도로 가니 4, 5마리의 가지어가 놀라서 뛰어 나왔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물소와 같았습니다. 포수들이 일제히 총을 쏘아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진의 산모양이 가장 기이했으며, 골짜기로 몇 리 쯤 들어가니 옛날에 사람이 살던 인가의 텃자리가 완연하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좌우의 산골짜기는 매우 깊어서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죽암, 후포암, 공암, 추산 등 여러 곳을 두루 돌아보고 통구미에 도착했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보면 수토사 일행이 22일 울릉도의 서쪽인 황토구미에 도착해 태하천을 따라 북호폭포까지 탐험한 후 24일 섬의 남쪽인 통구미를 거쳐 25일 장작지포에서 대나무를 베고, 저전동에서 일박한 후 26일 가지도에 상륙해 가지를 두 마리 잡는다. 이어 구미진을 탐험한 후 울릉도의 북쪽인 죽암, 후포암, 공암, 추산 등을 탐험한 후 다시 통구미로 가서 복귀준비를 하고 30일에 섬을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가지도를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²⁾

42) 박관숙(1965), 앞의 책, 40쪽; 박대련(1965), 앞의 논문, 243쪽; 박경래(1965), 앞의 논문, 157쪽

한편 이 가지도에 대해서 가와카미 겐조는 다음과 같이 독도 비정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남선 씨 자신은 오히려 『정종(정조)실록』 18년(1794) 6월 무오 조(권 40)에 기재돼 있는 수토관 한창국의 울릉도 답사보고 중 “26일에 가지도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가 놀라서 뛰어나오는데, 모양은 물소와 같았는데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가지도’라는 것이 지금의 다케시마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지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든 정조실록의 기사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 후의 기록에도 찾을 수 없다. 오직 한창국이 이 섬에서 ‘가지’ 두 마리를 포획한 것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가지’는 해륙,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미치(海獺)인 강치를 말한다. 최남선 씨는 이 보고의 기사를 근거로

순전히 ‘가지’만의 서식지를 말하자 하면 지금의 독섬으로써 의함이 아주 타당할 듯하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한창국이 울릉도를 답사했던 당시에 강치가 생식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오늘날의 다케시마만이 아니었다. 메이지 초 이래로 울릉도의 개발이 시작돼 사람들의 입주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강치는 동도의 주변에서도 망쳐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모이게 됐는데 그 이전, 바꿔 말하면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이 시행되던 시대에는 강치의 주요 생식지는 오히려 울릉도 주변이었다. 이 일은 겐나 연간부터 겐로쿠 연간에 걸친 오야, 무리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의 주목적이 전복 이외에도 강치기름을 취하는데 있었던 것으로도 봐서 명백하며 이에 관한 문헌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島正義]의 편술 『竹島考』에는 “그 섬(울릉도를 가리킴)의 주산물은 전복과 강치 두 종류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야다 다카마사[矢田高嵩] 저 『長生竹島記』에도

그래서 도해의 주목적은 꼬치전복, 생해삼, 강치기름을 얻어 나무통에 담아 돌아오는 일이다. 이익이 적은 것은 신기도 어려워 눈길도 주지 않고 놓아준다. 강치는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두고 그 구멍에 기어올러간다. 그것을 철포를 쏘아 잡는다.

라고 돼 있다. 또 겐로쿠 6년 5월 22일 자 「오칸조카시라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님에게 제출한 「서부」의 사본(御勘定頭松平美濃守殿江差出候書付寫)」이라는 제목의 이케다가 문서에도 “다케시마에서 강치를 잡아 그곳에서 기름을 취하고 돌아와 상매했다. 원래 기름에는 세금도 없습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더욱이 교호 연간에 돗토리 번에서 막부에 제출한 ‘죽도 송도 지도’를 보면 ‘강치어장’으로써 하마다우라[浜田浦], 오사카우라[大坂浦], 기타우라[北浦], 야나기우라[柳浦], 기타쿠니우라[北國浦], 다케노우라[竹の浦] 등 울릉도 연안의 지명을 주기하고, 울릉도 도형을 그린 지도에는 철포장으로 그 어장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어, 동도 주변 곳곳에 강치의 생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창국이 울릉도를 답사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후이나, 당시에도 여전히 공도정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환경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강치가 동도 주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가지도’에서 4, 5마리의 강치가 발견됐다고 해서 오늘날의 다케시마가 강치의 생식지인 것을 이유로 그것이 반드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지도’의 위치다. 『정조실록』에서는 한창국의 일행이 4월 25일에 저전동에 이르렀다는 기사에 이어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 가운데의 것은 죽도, 동쪽의 것은 옹도로,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가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아주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라고 기록돼 있다.

최남선 씨는 이 “세 섬의 거리는 불과 1백여 보에 불과” 운운하는 것에 서, 방패도, 죽도, 옹도 3도가 울릉도의 동북단 가까이 있는 이른바 삼본립 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도명으로 한다면 서항도, 죽서, 옹도 3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편이 적당하다. 단지 이들 3도의 위치 관계가 각각 1백여 보라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옹도와 다음의 ‘삼도’ 사이에 탈락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아무튼 일행은 울릉도 동안의 어느 한 지점을 4월 26일에 출발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가지도로 향해 강치 2두를 포획한 뒤, 돌아가서 울릉도의 북안을 따라 동에서 서로 항해해 죽암과 공암을 지나, 다시 추산에 상륙한 후에 통구미에 이르러 산해의 신을 제사지내고, 바람을 기다려 머문 뒤 30일에 그곳을 출발해 귀로에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통구미는 현재의 桶丘味 또는 通龜尾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으며, 울릉도 서안의 남쪽에 있는 지명이다. 그렇다고 하면 울릉도의 동안에서 출발해서 가지도를 왕복한 뒤, 울릉도 북안을 서쪽으로 향해하고 그곳을 더 남하해서 통구미에 도착하는 동안에 실제로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이런 단기간에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가지도’라는 것은 울릉도 동북안 근처의 무명 소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가지도 또한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해당한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⁴³⁾

가지도 역시 독도로 비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두고 위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에 가지도가 울릉도 속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칭이라면 위의 논란 중 어느 것이 옳으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별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43) 川上健三(1966), 앞의 책, 134~138쪽

6. 석도

근세에 들어와서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과 삼림 남벌이 문제가 되자 대한제국정부는 1899년 우용정을 파견해 실태를 조사케 한 후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지방행정구역상 군으로 승격시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를 반포하게 되는데 이 칙령 제2조에 군청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로 한다고 명시해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많은 학자는 이 석도를 독도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석도 역시 일본인들은 독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석도 또한 명칭상으로는 울릉도의 부속도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일본의 명칭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67년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지은 『隱州視聽合記』의 '松島' 기록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지금과 반대로 울릉도를 竹島로, 독도를 松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처럼 독도를 松島라고 하는 기록은 보력연간(寶曆年間, 1751~1763)에 저술된 『竹島圖說』, 1823년의 『隱岐古記集』, 1828년의 『竹島考』 등에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1779년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 「日本與地路程全圖」, 1804년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의 「邊要分界圖考」 등의 지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울릉도를 竹島로 독도를 松島로 불러오던 일본인들은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계기로 1696년 두 섬에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게 된다. 출어금지로 두 섬에 대한 지리적 식견이 모호해지자 울릉도를 竹島라고도 하고 松島라고도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던 중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며 무역업을 하던 무토오 헤이가쿠(武藤平學) 등 여러 명이 동해상에서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울릉도에 松島는 이름을 붙여 1876년에서 1877년 사이 외무성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 무역영사관에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 등의 이름으로 개척허가신청서를 내게 된다.

이러한 신청서가 접수되자 일본정부는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고오키(渡邊洪基) 등에게 이를 조사하게 한다. 와타나베는 “竹島 松島에 대해 一島兩名說 二島說이 있으나 판별이 어렵다. 지금 신청한 松島는 竹島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군함 아마기(天城)를 시켜 측량하도록 한다.⁴⁴⁾

1880년 울릉도를 측량한 아마기호는 보고서에서 “松島, 한인은 울릉도라 칭함”이라고 하면서 도쿠가와 막부시절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개척원에서 사용한 대로 松島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와중에 독도는 프랑스의 포경선인 리앙쿠르(Liancourt)호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암을 일본식으로 표기한 리앙고도(リアンゴト), 竹島, 松島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기되는 등 혼란을 겪다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로 편입 시 지금의 竹島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후 계속 竹島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松竹은 성격이 비슷한 한 쌍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 쌍, 즉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막부 시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검토할 때도 부속도서로 취급했다.

44) 川上健三(1966), 앞의 책, 31~40쪽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우산도나 삼봉도 등의 명칭보다는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竹島, 松島의 명칭을 이용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였다는 인식을 증명하는 논리를 구축하는 편이 더 용이할 수 있다. 민구에라와 민구 에리타 섬 사건에서 민구에리타 섬이 민구에라 섬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민 구에라 섬의 소속에 민구에리타 섬이 따라간다고 하는 판결로 볼 때, 竹島와 松島는 논리의 구성에 따라 부속도서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제3국의 명칭

1)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

리앙쿠르호는 1832년에 르아브라는 프랑스 항구에서 건조됐는데 갑판이 하나, 돛이 둘 그리고 대포가 2문 장착된 포경선이다. 리앙쿠르라는 이름은 배의 선주인 제레미아 윈슬로우(Jeremiah Winslow)가 자신과 라 페루즈(La Perouse)의 친구인 라 로시후코 리앙쿠르 공작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보인다.

리앙쿠르호의 선장 드 수저가 1847년부터 1850년 사이의 활동을 해군성에 보고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849년 4월 12일에 나는 울릉도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섬에서 채목을 하기 위해 두 개의 작은 보트를 보냈다. 나는 그 섬이 보이는 지역 근처를 순항하면서 7월 30일까지 이렇게 그 근처에 있었다. 이 순항은 북위 36도 20분과 42도 35분 사이, 동경 127도로부터 133도 35분까지의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동안에 28마리의 고래를 잡았고, 그중에서 8마리는 배로 인양했다.⁴⁵⁾

45) Jean Thierry Du Pasquier(1983), 「프랑스선의 동해 진출사」,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83쪽

물론 이 보고서에 드 수저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없다. 그러나 리앙쿠르호가 울릉도와 독도 해상에서 3개월 이상 순항하면서 고래잡이를 했기 때문에 독도를 발견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드 수저 본인은 명시적으로 자신이 독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1938년에 프랑스의 루이 라 코아 선장은 *Last French Whalers*라는 책에서 드 수저가 발견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라페, 즉, 드 수저라는 사람이 일본 근해에 있는 일본말로 마쓰시마 섬 근처에서 라페 섬을 발견하였다. 그가 발견한 섬의 위치는 북위 37도 9분, 동경 120도 26분에 해당되며, 이 섬은 울릉도의 동남방에 위치하고 있다.⁴⁶⁾

물론 이 책에서 기술하는 독도의 경위도는 사실과 대단히 상이하다. 그러나 울릉도의 동남방에 독도 이외의 다른 섬이 없고, 리앙쿠르호가 측량장비를 갖춘 군함이 아니고 포경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위도의 오차가 리앙쿠르호의 발견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다.

제3국의 포경선이 명명한 이 리앙쿠르암이라는 이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느 쪽에도 국제법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

2) 호넷 섬(Hornet Island)

1855년 4월 25일 영국의 군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호넷 섬이라고 명명했다. 함장 포시쓰(Charles C. Forsyth)는 섬의 위치를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보고하고 두 섬의 개략적 형태를 부연했다.⁴⁷⁾ 포시쓰의 측량

46) 위의 논문, 183쪽

47) John W. King(1858), *the China Pilot*, 2nd ed., London : The Hydrographic

결과는 1855년 머리(Maury)와 벤트(Bent)에 의해 최초로 해도에 기록되며 이 해도는 1856년에 출판됐다.

1856년 페리 제독이 출간한 『일본원정기』 속의 “Karte der Kueste von China und den Japanischen Inseln nebst den Marianen und einem Teil der Philippinen auf Befehl des Commodore M.C. Perry U.S.N.”, 1859년의 James Wylde 지도, 1872년 A. Peterman Gotha가 제작한 *China, Korea and Japan*, 1880년 J. Rittau가 편집한 *Topographische Karte von Japan*, 1881년 판 James Wylde 지도, 1894년의 Stanford 지도, 1856년 Nikitina 지도, 1950년 Bartholomew 지도 등이 호넷 섬이라고 표기하고 있다.⁴⁸⁾

제3국의 군함이 명명한 이 호넷 섬이라는 이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느 쪽에도 국제법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

3) 올리붓차와 미넬라이 암(Olovutsa & Minelai Rock)

1854년 외교협상차 일본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함대 중 팔라다호는 조선의 동해안을 탐사하면서 북상했고 올리붓차호, 바스토크호, 메인시코프호는 나가사키에서 타타르 해협으로 바로 북상했다.

1854년 4월 2일 대한해협의 동수로를 지나 타타르 해협으로 항해하던 올리붓차호(함장 나지모프)는 4월 6일 독도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항해일지에 기록했다.

1854년 4월 6일 동해에서 돛으로 항해하다.

0100시. 바람 중미풍, 풍향 북북동, 월광, 별들이 빛남, 기압 30.04, 기온 16.5도

0400시. 함정 내 수위 4.75인치, 바람 미풍, 월광, 별들이 빛남, 기압 30.05, 기온 14도, 일출 시 돛대 사이로 함정 침로 전방에서 섬을 발견

0800시. 보고에 의하면 함정 전방상태 양호, 환자 1명, 함정 내 수위 4.5인치. 어제 청수 재고량 50%, 0800시 현재 섬 방위 32도, 바람 약풍, 일기 청명, 기압 30.3, 기온 15도

0900시를 지나서 중간 돛대 및 삼각돛을 세움

1200시. 바람을 가로질러 좌측으로 선회, 함정 내 수위 4.75인치, 아침에 발견한 2개의 높은 바위는 만나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이 2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젠(약 642m) 떨어져 있으며, 이들 섬은 동남동 및 서남서로 놓여 있고, 이들 중 서쪽 섬은 북위 37도 13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은 올리붓차도라 명명했으며, 동쪽 섬은 현재의 발틱함대 캄차트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인 1846년까지의 흑해함대 소속이었을 때 최초의 함정 이름을 기념해 미넬라이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올리붓차도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가량 수상에 나타난 암초가 뻗어 있다. 올리붓차 및 미넬라이도는 청명한 일기상태의 30마일 거리에서 발견했다. 1854년 4월 6일(신력 18일) 우리 함정은 올리붓차도에서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만나질 동안 머물렀다.

1600시. 함정 내 수위 5인치, 올리붓차도 방위 남서쪽 1도, 바람 미풍, 일기 청명, 기압 30.3, 기온 15도

이러한 독도 발견 사실은 기함인 팔라다호가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 “조선 동해안 탐사결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Office, Admiralty; (1861), *Ibid.*, 3rd ed., London : The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48) 김병렬(1997), 「독도의 명칭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9집, 국방대학교, 351쪽

다줄레도(울릉도)는 바스토크호가 북위 37-22도, 동경 130-56도에서 관측하였는데, 둘레 20마일 크기의 원형 모양이고 해안은 협소하며 거의 접근할 수가 없었다. 다줄레도의 최고봉 높이는 2,100피트이다.

아르고노트 섬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섬은 보이지 않았다. 해조의 하얀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붓차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하였으며, 미넬라이 및 올리붓차도라고 이름 붙였다. 이 섬의 발견은 항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들 섬은 근접한 섬들로부터 분리되어 아주 떨어져 있어서 동해 북방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

1857년에 러시아 해군성 수로국은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한 조선 동해안 지도를 제작하게 되며, 이 지도에 올리붓차호가 독도를 최초로 발견해 올리붓차 및 미넬라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 기술돼 있다고 기록하게 된다.

러시아함대에 의한 독도 발견 사실은 1861년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 발간한 『중국수로지』에도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수로지는 팔라다호가 발견해 미넬라이 및 올리붓차라고 명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결과 보고에 독도 발견 사실이 기술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지 않고 팔라다호가 발견했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데서 온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그 후 많은 학자에 의해 그대로 답습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에서 제작한 1876년 판 「조선동해안도」에 그려진 독도의 형상은 1860년에 러시아의 세르게프 대령이 독도를 북쪽으로 3.5마일 거리, 북서쪽 10도로 5마일 거리 및 북서쪽 61도로 14마일 거리에서 바라본 형상을 그린 것인데, 1882년 6월판 러시아 해군성 수로국의 「조선동해

안도」부터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1867년 오지리 히데카쓰(大後秀勝)가 제작한 「대일본해로전도」와 1876년 해군수로국에서 제작한 「조선동해안도」, 1897년에 지질조사소에서 제작한 「대일본제국전도」 등이 러시아의 표기를 따라 독도를 올리붓차, 미넬라이 암이라고 표기하고 있다.⁴⁹⁾

러시아가 독도를 올리붓차와 미넬라이로 명명하고 「조선동해안도」에 포함시킨 것이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내 학자 중에 이를 인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 정부에 확인해 그려 넣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해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를 받아들여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동해안도」에 독도가 포함된 것은 법원에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분석

독도는 육지로부터 215km 이격된 무인도이다. 게다가 조선왕조 초기 주민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 주민의 거주를 금지시킨 관계로 원해에 대한 지식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는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 이외에 달리 우산국을 지배한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49) 김병렬(1997), 앞의 책, 353~355쪽

없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산국을 지배한 기록이 나오게 된다. 고려 시대 때의 기록은 울릉도인이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⁵⁰⁾과 고려가 울릉도에 사람을 보냈거나 울릉도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기록,⁵¹⁾ 그리고 여진족이나 왜가 울릉도에 침입했다는 기록⁵²⁾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처럼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지리지』에 비교적 독도, 즉 우산도가 뚜렷이 기술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잘 통치되던 울릉도가 조선왕조 건국 이후 주민쇄환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식견이 흐려지게 되어 우산도와 무릉도가 같은 섬이라고 하고 다른 섬이라고도 하는 기록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 정부의 주민쇄환정책과 원해 어로금지에도 연해어민들은 울릉도 근해에 가서 어로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중앙정부의 모호한 지식과는 달리 울릉도 이외에 독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안용복의 도일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이처럼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독도를 인지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당시 사용됐던 독도의 명칭 자체가 울릉도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관된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의해 독도가 새로 발견되고 명명된 사실은 제3국의 사실로 특별히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50) 『고려사』 권 1, 태조 13년 8월 병오; 동 권 5, 덕종 원년 11월 병자; 동 권 37, 충목왕 2년 3월 무신

51) 『고려사』 권 17, 인종 19년 추7월 기해; 동 권 18, 의종 11년 5월 병자; 동 권 24, 원종 원년 추7월 경오; 동 권 27, 원종 14년 2월 계축

52) 『고려사』 권 4, 현종 9년 11월 병인; 동 권 4, 현종 13년 7월 병자; 동 열전 134 신우 5년 7월

53)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김병렬(1997), 앞의 책, 167~171쪽 참조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역사적 사실, 실효적 지배, 결정적 기일 등 법원에서 섬의 영유권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은 무수히 많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본 결과 어느 당사국의 고유 영토가 분명하다면 이를 포기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영유권의 변경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결정적 기일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정적 기일 이전에 어느 쪽이 실효적 지배를 더 강하게 시행했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실효적 지배마저 양쪽이 모두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섬의 명칭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특정국에서는 명칭이 있는데 다른 특정국에서 고유의 명칭이 없이 상대방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어느 특정국의 영유권이 분명한 인접 큰 섬의 부속도서임을 명확히 해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큰 섬의 부속도서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산도나 삼봉도, 요도, 석도 등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특색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사용했던 竹島와 松島는 松竹의 개념으로 큰 섬의 영유권이 명확할 경우 작은 섬이 큰 섬의 영유권을 따라가는 개념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논리의 구성이 요망된다.

아울러 제3국에서 독도를 명명한 것은 크게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지도를 받아들여 일본에서 재제작한 것은 금반언의 원

리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말의 于山島 연구

동국대학교 임영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대한제국기 이전 于山島 인지
- III. 鬱陵島 특파 관원의 于山島 인식
- IV. 맺음말: 石島 · 獨島 명칭의 정착과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흔히鬱陵島와 獨島를 ‘모자(母子)의 섬’ 또는 ‘자매(姊妹)의 섬’으로 부른다. 같은 화산도(火山島)이고, 동해의 한가운데 두 섬이 외롭게 마주 보고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다.¹⁾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명칭상 두 섬의 관계가 꼭 그렇지만 않다.

울릉도가 ‘羽陵·芋陵·武陵·茂陵·蔚陵’ 등의 여러 이름으로 쓰이는 동안 독도는 조선 초기에 于山島로 명명된 이래 한말(韓末)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 이름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울릉도가 일찍부터 조공 등의 문제로 잘 알려져 온데다 사람들이 출입한 일이 있던 사실과 영농이 가능하다는 소문 등등 때문에 그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 우산도, 즉 독도는 시기적으로 한참 늦게

임영정

한국사 전공,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대표논저로는 『독도연구』(1985,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공편),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1997, 독도연구보전협회, 공저), 「조선시대 해금정책의 추이와 울릉도·독도」(1997,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이 있다.

1) 李丙燾(1963), 『獨島名稱에 대한 史的 考察 - 于山·竹島 名稱考 -』, 趙明基紀念 佛敎 史論叢

알려졌는데 사람이 살기 어렵고 뱀길이 사나운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운필(運筆) 상의 문제로 ‘子山島·干山島·千山島·찬찬타오’ 등으로 호칭하는 일도 있었다.²⁾ 그러나 이런 호칭은 우산(于山)에서 변형된 것이며 그 대종은 우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우산도가 한말에 이르러 두 개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서(史書)에 등장한다. 1900년에는 ‘석도(石島)’로, 1904~1905년에는 ‘독도(獨島)’로 호칭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왕조 500여 년간 거의 전 시기를 이어온 독도의 호칭인 우산이 한말에 이르러 갑자기 사라지고 엉뚱하게 석도, 독도로 호칭이 바뀌는 과정이 이채롭다.

그간 1900년 10월 27일 자로 공포된 칙령 제41호 「울릉도(鬱陵島)를 울도(蔚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는 건(件)」에 보이는 ‘석도’와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의 「行動日誌」³⁾, 그리고 울도군수(蔚島郡守) 심흥택(沈興澤)이 강원관찰사 이명래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이는 ‘독도’라는 명칭은 과연 언제부터,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유래됐을까.

그 동안 우리는 석도와 독도라는 이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명명됐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해석을 밝히기에 주력해 왔다. 반면 그간

2) 子山島라는 호칭은 조선 숙종 19년(1693)에 안용복이 쓰시마로부터 돌아와서 사연을 공술하는 중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도 가운데에는 淸의 陳松亭이 그린 지도를 1835년 靑苔園에서 필사한 『淸朝一統圖』에 보인다. 또 安田 雷洲가 1850년에 제작한 『本邦西北邊境水陸略圖』, 1874년 津田靜一이 제작한 『淸十八省輿地全圖』 등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 한편 프랑스 레지신부가 제작한 『朝鮮王國圖』와 당빌의 『조선왕국도』(1737년 제작)에는 “Chianxantao”, “Tchichantao”로 각기 표기돼 있다. (이상태(2011), 「고 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10 참조)

3) 『軍艦 新高行動日誌』 明治 37년 9월 25일 자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불리던 섬이 한말에 이르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우산도 명칭이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가를 살피고, 그 호칭이 한말에 이르러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석도’ 또는 ‘독도’로 바뀌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검토해 보려 한다.

II. 대한제국기 이전 于山島 인지

1. 조선 전기 于山島의 인지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15세기 초 태종 11년(1411) 호조판서 박습(朴習)이 과거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시절에 겪고 본 일을 토로하면서 그 계기를 이룬다. 그는

예전에 方之用이란 자가 15戶의 무리를 이끌고 武陵島에 들어가 살면서 때로는 假倭로 변해 연해지방을 침탈한 일이 있었다.

고 했다.⁴⁾ 즉위 초기부터 해금정책(海禁政策)을 강력히 시행하던 태종은 이 말에 즉시 무릉도⁵⁾ 도민의 쇄환을 결심하고 동 16년(1416) 9월 삼척(三陟) 출신 전

4) 『太宗實錄』 권 32, 태종 16년 9월 경인

5) 무릉이라는 섬 이름이 최초로 사용된 것이 조선 초기부터이다. 물론 『高麗史』 지리지에 보이나, 이는 조선시대 불리던 관행을 사용한 것이고 고려 전 시대에 걸쳐 이 이름이 쓰인 적이 없다. 아마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여말선초의 대종들 사이에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기대하는 심리가 싹터 그런 호칭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는 필자의

만호(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삼아 그 섬에 다녀 오게 했다.

김인우는 이듬해 2월에 무릉도에 가서 섬(울릉도) 안에 15호 86명의 남녀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올 때는 우산도를 거쳐 왔다고 했으며, 거민 3명을 대동했다.⁶⁾ 그의 이 같은 보고에 따라 그 해에서 이듬해 사이에 섬 주민이 일 팔 쇠환됐다. 아마도 김인우가 그 역할도 담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울릉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기 시작한다.

세종 초에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다녀온다. 세종 7년(1425) 8월의 일이다. 그런데 이때 김인우가 국왕에게 받은 직함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였다. 9년 사이 직함에 '우산(于山)'이라는 지명이 첨가됐다. 그것은 태종 17년 무릉도를 다녀올 때 기록에 우산이란 지명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즉, 그해 2월 입술 조에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⁷⁾ 또 김인우가 등장했던 시기는 (음력) 9월과 8월이었다. 매년 8~10월은 편서풍으로 해무가 걷혀 청명한 날이 많다. 독도가 망견되기 가장 적당한 계절이다. 이로 미뤄 보면, 김인우는 처음 무릉도에 가서 국왕의 명을 수행한 후 도민들에게 들은 우산도에 대한 지식을 자신이 직접 망견하자 이 섬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귀환 길에 우산도를 거쳐 와서 조정에 복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우산이라는 지명은 이런 과정을 겪어 공식화되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울진현조에 “于山과武陵 두섬이 縣의 正東 海中에 있다”고 한 주

단순한 해석에 불과하다. 이를 규명하는 데에는 사회심리학·인문지리학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6)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 2월 입술조. “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芋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戶 男女並八十六(…)”

7) 앞의 주석

기(註記)에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風日 淸明한 날에 望見된다” 하는 지리적 지식으로 남게 됐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해금정책을 펴서 원격지 소재 도민의 쇠환과 연안 주민의 내륙 이주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태종~세종 초에 시행된 무릉도 도민의 쇠환이 그 대표적인 예다.⁸⁾ 도민의 쇠환정책이 강력히 시행되면서 울릉도는 빈 섬이 됐고 호기심으로 울릉도에 가는 것조차 금지되면서 인적이 끊기자 울릉도와 우산도의 소재와 인지 등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요도(蓼島), 삼봉도(三峰島)라는 가공의 섬이 등장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삼척 출신으로 무릉도에서 남녀 66명을 쇠환한 일이 있는⁹⁾ 호군(護軍) 남회(南會)에게 요도를 찾도록 한 일도 있었고,¹⁰⁾ 성종 초 수차에 걸쳐 삼봉도경차관(三峰島敬差官)을 파견해 「삼봉도 수역사목(三峰島 搜覓事目)」을 작성한 일도 있었다.¹¹⁾

해금정책에 의한 인지의 혼란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지리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실려 있는 우산도, 울릉도 기사가 그것이다.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三峰岌巖撐空 南峰稍卑 風日淸明 則峰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8) 林英正(1997), 「조선시대 해금정책의 추이와 울릉도·독도」,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32~35쪽 참조

9) 『世宗實錄』 권 82, 세종 20년 7월 무술

10) 『世宗實錄』 권 109, 세종 27년 8월 무오

11) 林英正(1993), 「朝鮮時代 遠海島嶼에 대한 認識」, 『남도영 교수 고회논총』, 민족문화사, 313~317쪽 참조

위의 이 기사는 울진현의 높은 지대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과 다녀올 수 있는 일정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육지로부터 보이는 울릉도의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표현한 반면 우산도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에 대해 목측거리를 위주로 표현했다.¹²⁾ 『동국여지승람』이 『세종실록지리지』보다 후일에 편찬됐음에도 이같이 울릉도만을 육지에서 바라본 사실 위주로 표현하고 우산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게다가 말미의 주기처럼 '두 섬이 본래는 한 섬이었다'는 표현을 써서 독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했다. 이같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과 다르게 기술되고, 우산도의 존재를 애매하게 표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성종 13년(1482) 2월에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의 상소를 보면,

(前略) 그 후 신이 申叔舟와 더불어 『世祖實錄』을 수찬하고 또 『睿宗實錄』을 수찬하였습니다. 신이 또 『(世宗實錄)地理志』·『東文選』·『東國輿地勝覽』 등의 책들을 수찬하였습니다만 미처 보고를 올리지 못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선왕의 유교가 완연하여 어제인 듯 하고 御製하신 두 문집이 아직도 대내에 있습니다. (...) 신이 생각하건대 지리지는 국가의 圖籍으로서 역대 왕조에 모두 있었습니다. 『(宋)九域志』와 『(大明)一統志』가 그것입니다. 신이 世宗때에 『高麗史地理志』를, 世祖 때에도 지도와 지지의 일을 명령 받았는데, 睿宗大王께서 즉위하자 편찬을 빨리 마치라고 명령하시므

12) 일본인 학자 사이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이도 있다. 관행상 섬에 대한 조사는 육지에서 거리 중시하는데, 이로 보면 육지에서 독도가 망견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하여 우산도 존재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 27년 8월 戊午에 왕이 강원감사에게 보낸 유시에 '甲士 崔雲渚言 嘗登三陟烽火峴望見 其後因往茂陵 亦望此島 南營言 年前在洞山縣亭上 望見海中有山 質諸縣吏 答曰 此山自古有之 使其吏終日候之 日非雲氣實山也 予謂此島海中必有之...'라 한 것을 보면 우산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로 무자년 겨울에 편찬을 시작하여 무술년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 관부에 소장해 주시면 군국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그윽히 생각하건대 지도는 관부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민간에 흩어져 있게 하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로는 고려 중엽 이전에 『五道兩界圖』가, 我朝 초에는 李薺의 『八道圖』가, 세종 조에는 鄭陟의 『八道圖』·『兩界大圖』·『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 조에는 신이 만들어서 진상한 『八道圖』와 『閔延茂昌虞芮三邑圖』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 중 가장 긴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弘文館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에 보관하게 하면 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前略) 臣與叔舟 撰世祖實錄 又撰睿宗實錄 臣又撰地理志東文選 東國勝覽等書 未遑啓請 至今十五年 先王遺教 宛然如昨 御製二集 今在大內 (...) 臣竊惟地理志 我國家圖籍也 歷代皆有之 宋有九域志 大明有一統志 臣於世宗朝 撰高麗史地理志 世祖朝又受地圖地誌之事 睿宗即位 申命畢撰 戊子冬始撰 至戊戌正月 書成以獻 乞命印出 藏之官府 軍國幸甚 (...) 臣竊惟地圖 不可不藏於官府 又不可於散在民間也 東國地圖 高麗中葉以上 有五道兩界圖 國初有李薺八道圖 世宗朝有鄭陟八道圖兩界大圖小圖 世祖朝 臣誠之撰進八道圖閔延茂昌虞芮三邑圖 (...) 右緊關者 竝收於官 藏弘文館 其餘一皆官收 藏論政府 軍國幸甚(...)¹³⁾

이라 해 『고려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찬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지 20년이 지난 문종 원년(1451) 8월에 찬술한 『고려사지리지』의 동계 울진현 조에,

울릉도가 있다.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 우릉이라고 불렀는데, 섬의 주위는 1백리이고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그 거리가 가까워서

13) 『成宗實錄』 권 138, 성종 13년 2월 壬子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한다(有鬱陵島 在縣正東海中 新羅時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 來降(…) 一云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라고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로부터 30년이 지나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내용이 다르게 기술된 까닭은 ① 『세종실록지리지』의 모본(母本)이 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의 모본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 6년(1424) 왕명에 따라 제작된 『경상도지리지』의 서(序)에는

여러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수로의 거리, 그리고 전부터 인민이 접거하고 농작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적을 것(諸島陸地相去 水路息數 及島中在前人民接居 農作有無開寫事)

라고 했고,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속찬사목(續撰事目)」에는,

해도(섬)는 소속된 읍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수로로 몇 리 떨어져 있고, 육지로부터 본 읍까지는 몇 리 떨어져 있는가, 사면의 둘레는 몇 리 되는가, 전답은 몇 결이고 민가의 소재여부(를 적을 것)(海島 在本邑某方 水路幾里 自陸地去本邑幾里 四面周回相去幾里 田畝幾結 民家有無)

라고 했다. 즉, 『경상도지리지』에서는 이 기록 직전 수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김인우의 무릉도·우산도 왕환의 사실에 따라 울릉도를 육지의 기점으로 잡은 것이고,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속찬사목에서는 사목 자체가 본

읍에서 몇 리, 육지에서 본 읍까지 몇 리 떨어졌는지 분명히 기록하라고 적었으므로 기록 자체의 초점에 차이가 있었던 점

② 태종 말~세종 초부터 시행된 강력한 해금정책으로 울릉도 도민이 쇠환되고 연해 어민의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면서 세종 초의 역사사실이 망각되거나 지식이 희석된 점

③ 양성지의 상소문처럼 국가의 기밀이 수록된 지도와 지지는 민간의 소장 과 열람이 금지되면서¹⁴⁾ 『승람』의 편찬에 『세종실록지리지』를 전혀 참고할 수 없었던 점

④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제작에 참여한 울진현의 유식자들이¹⁵⁾ 해금정책의 금령으로 인해 직접 섬(울릉도와 우산도)에 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들리는 전언만으로 상황을 기록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¹⁶⁾

여하튼 오랫동안 강력한 해금정책이 시행되면서 울릉도는 무인도로 변해 갔고, 우산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되어져 갔다. 그 결과 이산해(李山海) 등¹⁷⁾ 동해안에 다녀 온 일이 있었던 극히 소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14) 주석 12)와 같음.

15) 鄭陟熙(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I·II)」, 『歷史學報』 69·70 참조

16) 『東國輿地勝覽』에는 상기와 같은 추측기사 이외에 『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우산·무릉도 항에서 보인다. 세종 20년에 도민을 쇠환한 이는 護軍 南贊와 司直 曹敏이었다.(『세종실록』 권 82, 20년 7월 戊戌) 그러나 『東國輿地勝覽』에서는 그 역할을 南顯라는 인물이 한 것으로 하였다. 또 쇠환 인원도 66명이었는데, 『승람』에서는 70명이라 하였고, 그 우두머리를 金丸이라 하였는데, 이는 가공인물이다. 실은 무릉도에서 쇠환돼 처벌된 자는 金凡으로 이 사람은 그 이듬해 무릉도에 무단 입도하였다가 압송된 자다.(『세종실록』 권 84, 21년 2월 丙辰). 이런 문제를 통해 『동국여지승람』과 실록의 기록 전반을 대조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7) 「鬱陵島事」, 『鵝溪遺稿』

은 울릉도를 조선 초기부터의 호칭인 무릉도라는 이름처럼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는 이상향으로 인식하게 됐고, 어촌 심언광(漁村 沈彦光)·규창 이건(葵窓 李健)·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구원 이춘원(九畹 李春元) 등을 비롯해 수많은 시인 묵객의 영탄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산도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산도가 영영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지속적 인 보완 증수에 따라 그 지리적 지식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1481) 50권 분량으로 편찬됐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의 동원으로 내용상 통일되지 못한데다 시대가 지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 중종 25년(1530) 55권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완성되었다. 본서는 그 후 조선 전 시대에 걸쳐 대표적인 인문지리서로 그 위치를 차지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고종 19년(1882) 4월 왕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면대하는 자리에서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와 송죽도(松竹島)의 존재 여부를 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이르면, 각 지역마다 읍지를 제작, 통치의 근거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급기야 영조 41년(1765)에는 이 읍지들을 모아 『여지도서(輿地圖書)』를 간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줄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형식과 내용을 모체로 하고, 시대와 지역적으로 증감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점만을 취택 개정한 것이었는데, 그 때문에 강릉진관(江陵鎭管) 소속 삼척부(三陟府)의 고적(古跡) 조에 있는 울릉도 기사도 『여지승람』의 기사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울릉도와 우산도의 지식은 연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 후기 于山島 인지의 확대

우산도가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인지가 확대된 것은 숙종 19년(1694) 삼척첨사(三陟僉使)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심찰 이후다.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이 울릉도에서 어로 중이던 일본인들과 일으킨 시비가 급기야 조선 정부와 쓰시마 도주 사이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울릉도 쟁계’의 발생이었다.¹⁸⁾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신(廷臣) 사이에서는 왜에 대한 온건론과 강경론이 대립했다. 급기야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차제에 울릉도에 설진(設鎭)해 왜인의 도해(渡海)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전됐고,¹⁹⁾ 이에 따라 울릉도 비어책(備禦策)에 관심이 증폭됐다.

조정에서는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을 설치하기 전에 삼척첨사를 수토사로 삼아 섬의 형세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첨사로 영장(營將) 장한상(張漢相)이 발탁됐다.²⁰⁾

장한상은 그해 9월 19일 삼척을 출발,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섬의 곳곳을 살피고 돌아와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숙종실록(肅宗實錄)』과 그의 보고서 사본이 게재된 『울릉도사적(鬱陵島史蹟)』에 실려 전해진다.²¹⁾ 『울릉도사적』에는 특히 우산도에 관한 기사가 다음과 같

18) ‘鬱陵島 爭界’에 관해 많은 논고가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內藤正中(2006)의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金柄烈·內藤正中(2006),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등이 있다.

19) 『承政院日記』 숙종 20년 7월 16일 前武兼宣傳官 成楚珩 상소;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 8월 己酉의 南九萬 상소

20) 위의 각주 18)의 南九萬 상소

21) 宋炳基(2007), 『울릉도와 독도(재정판)』, 단국대학교출판부, 109~111쪽

이 소개됐다.

(…) 東方五里許 有一小島 不甚高大 海長竹叢生於一面 (…)
東望海中有一島 杳在辰方 而其大未滿蔚島三分之一 不過三百餘里

(울릉도의) 동쪽으로 5리쯤에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데, 높고 크지 않고 해장죽(海長竹)이 섬 전체에 총생하고 있다. (…)
서쪽을 바라보면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면 바다 가운데 한 섬이 보이는데, 아득히 진방(辰方)에 위치하며 그 크기는 울도(蔚島)의 3분의 1 미만이고 (거리는) 3백여 리에 불과하다.

장한상이 지적한 울릉도 동쪽으로 5리쯤에 있는 섬은 오늘날의 죽서(竹嶼)다. 그리고 죽서에서 아득히 먼 바다 가운데 진방(辰方)으로 섬 하나가 위치한다고 하는데, 진방은 동남동 방향을 일컫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독도와 근사하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동남동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기와 거리는 오늘날 독도의 규모 · 거리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동남동 방향으로 죽서 이외에 우산도만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한 섬이 곧 우산도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섬의 위치와 거리, 그리고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눈대중으로는 비교적 근사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독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²⁾

울릉도가 수토 대상이 되고 그 사정이 밝혀지면서 숙종 23년(1697)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수토하되, 삼척영장(三陟營將) 또는 첨사(僉使)가 월송만호(越松萬戶)와 교대로 수토하기를 정식화했다.²³⁾ 수토사의 윤번교대가 지속되면서²⁴⁾ 울릉

22) 宋炳基(2007), 앞의 책

23) 『承政院日記』 숙종 23년 4월 13일; 『備邊司謄錄』 숙종 25년 7월 15일 조

24) 울릉도 수토제는 정확히 3년마다 윤번제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도사전』

도와 더불어 우산도에 대해 그 인지 정도가 확대됐고, 국토로서의 인식 역시 구체화 되고 있었다. 특히 ‘울릉도 쟁계’를 통해 일본의 영토적 야욕을 분쇄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관학자는 물론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울릉도 문제의 전후사를 다루는 경향이 늘고 우산도의 내용도 더욱 구체화돼 18세기 영토의식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²⁵⁾

이런 경향은 『동국여지승람』의 애매한 표현 때문에 생긴 ‘우산울릉 일도설(于山蔚陵一島說)’에 대한 의구심까지 해소했으며 이에 따라 ‘우산울릉 이도설(于山蔚陵二島說)’로 회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8세기 초엽인 숙종 40년(1714) 7월 강원도어사(江原道御使) 조석명(趙錫命)이

연해의 포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詳聞하건대 平海와 蔚珍이 鬱陵島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뱃길에 막힘이 없으며, 울릉도의 동쪽으로는 섬들이 잇달아 왜의 경계와 서로 접해 있다.

라고²⁶⁾ 우산도가 존재함을 암시했을 뿐 아니라, 그 인접한 일본영토까지 지적했다. 즉 섬이 잇달았다는 것은 울릉도 동쪽 지근(至近) 거리에 있는 죽서에 서부터 우산을 거쳐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에 연해졌음을 알려준 것으로 우산도의 존재를 보다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와 동시에 우산도가 관찬 문서에도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역 고로(古老)들의 전

에 따르면, 장한상의 수토 후 5년 만에 월송만호 전회일(田會一)이 다녀오는 등, 시기가 일정치 않고 때에 따라서는 계속하여 삼척첨사만 수토하는 등 윤번교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수토제는 고종이 1882년 울릉도 개척을 본격화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25) 18세기 영토의식의 발흥은 『東國文獻備考』 등의 관찬서는 물론 실학자의 문집 등의 사찬서와 地圖 · 地誌 類의 간행이 이 시기에 폭주한 데서 살펴볼 수 있다.

26) 『肅宗實錄』 권 55, 숙종 40년 7월 신유

문을 통해 저술된 『동국여지승람』의 지리관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숙종 37년(1711) 5월 9일 수토관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삼척영장 박석창(朴錫昌)이 수토행적을 남기기 위해 새긴 신묘명각석문(辛卯銘刻石文, 경북문화재 자료 413호)이 있는데, 이 각석문을 보면

辛卯年五月初九日 到泊于倭舡倉 以爲日後憑考 次萬里滄溟外 將軍駕彩舟 平生仗忠信 履險自無憂 搜討官折衝將軍三陟營將 兼僉節制使朴錫昌 拙句刻石于卯方 軍官折衝朴省三 折衝金壽元 倭學閑良朴命逸 軍官閑良金元聲 江陵通引金蔓 營吏金嗣興 軍色金孝良 中房朴一貫 及唱金時云 庫直金苾玄 食母金世長 奴子金禮發 使令金乙泰 都沙工崔粉²⁷⁾

라고 해 수토관이 한번 울릉도에 가려면 도시공을 포함해 최소 14~15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 물론 수행원의 수는 때에 따라 가감되었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더라도 우산도의 인지가 이들 입을 통해 수토관의 원래 소속 지역에 알려지게 되고, 수차에 걸친 수토관의 내왕으로 우산도의 존재를 체험한 인사의 증언과 지식이 훨씬 빨리, 그리고 널리 확산됐을 것이다.

이같이 많은 인원이 우산도를 인지하게 되자 18세기에 들어와 우산도의 존재가 관찬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관찬서 편찬의 주도적 학자가 신경준(申景濬)이다. 그는 저서인 『강계고(疆界考)』 울릉도조에 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鬱陵島, (...)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芋山이다. 울진현 정동 바다 가운데

27) 각석문은 현재 도동의 향토사료관에 전시돼 있고, 이 문건은 李弘植 교수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李弘植(1953), 「鬱陵島搜討官 關係碑 二」, 『高大史叢』 3 참조

있으며, 일본의 隱岐州와 서로 가깝다.²⁸⁾

라고 해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그 뒤를 이어

내가 살피건대 『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于山과 蔚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 바 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다 于山國의 땅이다.

라고 했다. 송병기(宋炳基)는 이 글에 보이는 『여지지(輿地志)』가 효종 7년(1656)에 반계 유형원(潘溪 柳馨遠)이 저술한 지지(地誌)라고 했다.²⁹⁾ 신경준은 이 『여지지』를 인용해 우산도 존재설이 자신의 독단 주장이 아니라 선학들의 주장임을 내외에 각인시켰다. 그는 또 『강계고』 외에 여러 관찬지지의 찬술에 참여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다.

『동국문헌비고』는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됐다. 처음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영조 46년(1770) 왕명에 따라 13고(考) 100권으로 편찬했다. 이 13고 가운데 「여지고(輿地考)」를 신경준이 맡아 편찬했다. 홍량호(洪良浩)가 찬술(撰述)한 「여암 신경준 묘갈명(旅菴 申景濬 墓碣銘)」에,

明年 (...) 上又選文學之士八人 撰文獻備考 設編輯廳 公則掌輿地考³⁰⁾

라한 데서 확인된다. 그는 이 「여지고」를 찬술하면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

28) 『疆界考』 鬱陵島조

29) 宋炳基(2007), 앞의 책, 118~124쪽

30) 『旅菴全書』(1)(1976), 景仁文化社

진에 속했다고 한 후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참고해

島在蔚珍正東海中，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峰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
峰頭樹木及山根沙渚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略) 至成宗二年 有告
別三峰島者 乃遣朴元宗往見之 因風濤不得到而還 同行一船 泊鬱陵島 只取
大竹大鯪魚 回啓云 島中無居民矣

이라 한 후 이어서 각주(脚註)를 달아 위 『강계고』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이 『여지지』 기사의 내용을 서술했다.³¹⁾

그는 또 국왕이 좌우에 두고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찬술에도 관여해 우산도의 존재를 부각했다. 위 두 관찬서의 내용은 대부분 『강계고』의 내용을 전재하다시피 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안용복 밀항사건의 첫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가 일본어민에게

子山島 爾不聞子山 亦我境乎

라고 해 우산도 존재설을 뒷받침했던 것까지 인용한 것이다.³²⁾

관찬서뿐 아니라 한말에 간행된 언론에서조차 우산도의 존재가 알려진다. 『황성신문(皇城新聞)』 전면에 별보(別報)로 울릉도의 역사와 라 포르테(E. Laporte, 羅保得)의 조사내용을 소개한 기록이 있는데,

蔚珍之東海에 一島가 有호니 曰 蔚陵이라. 其 附屬한 小六島 中에 最著者
는 于山島 竹島니 大韓地誌에 曰 鬱陵島는 古于山國이라.(蔚珍의 동쪽 바다

31) 『增補文獻備考』 권 31, 輿地考 19 참조
32) 宋炳基(2007), 앞의 책, 118~124쪽

에 섬 하나가 있는데, 이름 하여 울릉도이다. 그에게 부속한 작은 섬이 여섯 인데, 그중 가장 알려진 것이 우산도와 죽도이다. 『大韓地誌』에 이르기를, 鬱陵島는 옛 우산국의 땅이다).

라고 했다.³³⁾

우산도 인지의 확산은 지도상에서도 보인다.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를 비롯해 「동여전도(東輿全圖)」, 「접역지도(接域地圖)」의 「강원도도(江原道圖)」, 「대한전도(大韓全圖)」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한여지도」는 1898년 학부(學部)에서 제작한 지도로서 매우 정치하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동여전도」와 「접역지도」는 18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한전도」는 1890년에 제작됐다고 각인된 지도였는데, 이들 지도에 모두 울릉도 동쪽으로 작은 섬을 그려 넣기를 오늘날의 독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그렸고, 이를 ‘于山’이라 표기했다.³⁴⁾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고 19, 해방 1, 동해울진조에는

于山島·鬱陵島(…)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芋山)이다. 속(續) 지금은 울도군(蔚島郡)이 됐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속(續) 지금은”이란 말은 이 책이 간행되던 융희 2년(1908)을 일컫는 것이다. 또 울도군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대한제국 칙령 제

33) 『皇城新聞』 광무 3년 9월 23일 자

34) 이상태(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6쪽

41호」(1900)가 반포돼 울릉도와 우산이 울도군으로 편입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 보면 1900년 전후까지 중앙에서는 독도를 여전히 우산도로 표기하고 또 호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鬱陵島 특과 관원의 于山島 인식

1. 검찰사 이규원의 于山島 인식과 그 영향

고종 18년(1881)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과 반출을 조사하고자 울릉도에 검찰사(檢察使)를 파견할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유효해 그해 5월 23일 부호군 이규원(李奎遠)이 검찰사에 임명됐다.³⁵⁾

검찰사 이규원은 문신 집안의 후손이나, 부친과 형, 그리고 본인 등 2대에 걸쳐서만 무과로 입신했다 한다. 그는 철종 2년(1851) 무과에 합격한 후 선전관으로 시작해 관직 생활을 해 금부도사(禁府都事), 구성부사(龜城府使), 정평도호부사(定平都護府使), 횡성현감(橫城縣監), 부령도호부사(富寧都護府使) 등을 지냈다 한다.³⁶⁾

이규원은 이듬해인 고종 19년(1882) 4월 7일 울릉도로 떠나고자 사폐(辭牒)했다. 이 자리에서 국왕 고종과 이규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

敎曰 鬱陵島 近有他國人物之無常往來 任自占便之弊云矣 且松竹島 芋山島 在於鬱陵島之傍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有何物與否 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

35) 『高宗實錄』 권 18, 고종 18년 5월 계미

36) 이해은·이형근(2006), 『晚隱 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 해양수산개발원, 8~24쪽

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왕께서 이르기를 울릉도에 근래에 와서 타국 사람들이 무상으로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또 松竹島와 芋山島는 鬱陵島의 옆에 있다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이 산출되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도 (이 때문에) 특별히 차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또 장차 읍을 설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지도와 별단을 자세히 기록해 보고하라.

奎遠曰 芋山島即鬱陵島 而芋山古之國都名也 松竹島即一小島 而與鬱陵島相距爲三數十里 其所產即檀香與簡竹云矣

(이)규원이 말하기를 芋山島는 즉 울릉도이며, 또 芋山이란 옛날 國都의 이름입니다. 松竹島는 작은 섬으로 울릉도에서 약 삼십여 리 떨어져 있고, 所產은 檀香과 簡竹뿐이라고 합니다.

敎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輿地勝覽所載也 而又稱松島竹島與芋山島爲三島 通稱鬱陵矣 其形便一體檢察 鬱陵島 本以三陟營將越松萬戶 輪廻搜檢者 而舉皆未免疏忽 只以外面探來 故致有此弊 爾則必詳細察得也

왕이 하교하기를, 혹은 우산도라고 칭하고, 혹은 송죽도라고 칭하는 섬에 관한 기록이 모두 『(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또 松島 竹島와 芋山島의 세 섬을 울릉도라고 통칭한다는데, 그 형편 일체를 검찰토록 하라. 울릉도는 본래 三陟營將과 越松 萬戶가 輪廻 수검하던 곳인데, (그들) 대부분이 (검찰에) 소홀하고 오직 외면만 탐구하여 온 까닭에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以外別有松島竹島也

(이)규원이 대답하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松島와 竹島를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송죽도(竹嶼, 부술(譯者 註)) 이외에 따로 송도 죽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敎曰 或有所得聞 於曾往搜檢人之說耶

하교하기를 그대가 들었다는 주장이 일찍이 수검한 일이 있는 사람의 말인가.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着 而轉聞其梗概矣

규원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수검했다는 사람을 만나볼 수는 없었으며, 오로지 轉聞을 통해 그 대개의 뜻을 말한 것뿐입니다.³⁷⁾

이 문답을 볼 것 같으면, 국왕 고종과 검찰사 이규원의 우산도에 대한 식견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국왕은, ① 근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무상왕래하면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을 검찰할 것, ② 송죽도(松竹島)와 芋山島가 울릉도의 옆에 있다 하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산물을 조사할 것, ③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계획이니 지도와 별단을 소상히 적어 보고할 것을 명했다. 이에 이규원은 (ㄱ) 芋山島가 울릉도의 이명이며, 芋山은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이라는 것, (ㄴ) 송죽도는 작은 섬으로 울릉도 앞 동쪽에 있는 죽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규원의 이런 대답은 고종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고종은 이미 『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기사를 읽어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일본인들의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라는 호칭이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우산도 이외에 섬이 더 있는지, 그 섬이 우리의 울릉도와 우산도 이외 제3의 섬인지를 혼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 현지 검찰을 수행할 목적으로 떠나는 이규원은 우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국왕에 비해 훨씬 빈약했다.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해 전문(轉聞)만으로 파악한 불완전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상세히 수검하라는 하교조차 무시하는 듯한 자세를 드러내 보였다. 검찰사의 이런 인식은 당시 많은

37)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 4월 임술

인사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동국문헌비고』, 『강계고』 등 많은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개 지방관이나 서민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입수할 여지가 극히 제한된 전적(典籍)이었다. 그만큼 검찰사가 알고 있는 지식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검찰사 이규원이 검찰일기와 더불어 제출한 『계초본(啓草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松竹于山等島 僑寓諸人 皆以傍近小島當之 然既無圖籍之可據 又無嚮導之指 瞻 晴明之日 登高遠眺 則千里可窮 而更無一拳石一撮土 則于山之稱鬱陵 卽如耽羅之稱濟州是白如乎 臣於入島之後 既步履其高顛 復舟駛其山麓 包日之間 足跡無所不到 全島形勝 瞭然在目 而惟其拙於文辭 尚多掛漏 是白乎祿緣由馳啓爲白臥乎事云云

松竹 于山 등의 섬에 대하여 그곳에 사는 여러 사람들은 바로 앞의 작은 섬(여기에서는 竹嶼를 지칭함)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나, 근거로 삼을 圖籍이 없으며, 지적할 嚮導조차 없습니다. 청명한 날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니 천 리에 이르도록 하나의 돌이라든가, 한 줌의 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즉, 于山을 鬱陵島로 칭하는 것이 耽羅를 제주로 칭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소신이 入島한 후 신이 닳도록 높은 곳에 오르내리고 배를 띄워 山麓을 뒤져 종일을 헤매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섬 전체의 形勝이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으나, 文辭에 능하지 못하여 빠뜨린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이 『계초본』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검찰사 이규원은 4월 10일 출발해 20일 만인 4월 30일 울릉도 서쪽 해변인 소황토구미에 도착했다. 그리고 5월 10일 까지 체류하면서 섬 전체를 답사했다. 도중 성인봉에도 올라가 동쪽을 관망했

다. 우산도를 찾으려는 자세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⁸⁾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죽서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사를 첨가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⁹⁾

이규원의 사폐 시 답변과 회항 후 제출한 『울릉도검찰일기』 『계초본』에서 우산도가 죽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우산도에 대한 국왕 고종의 종래 인식을 크게 바꾼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고종에게서 우산도에 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우산도를 죽서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다.

후술(後述)하겠지만,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이 제출한 보고서인 「울도기(蔚島記)」와 울릉도에 설군(設郡)을 요청한 관제개혁안이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를 통해 상주했을 때는 물론, 관제개혁안이 논의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우산도가 석도로 거론될 때에도 고종은 우산도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는 검찰사의 사폐 시 언급과 보고서로 인해 우산도의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38) 宋炳基(2007), 앞의 책, 145쪽

39) 이규원이 울릉도를 수검하던 4월은 계절적으로 울진에서 울릉도를, 울릉도에서 독도를 망견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오늘날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망견하기 가장 적절할 때는 편서풍이 거세게 불어 해무(海霧)가 수평선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10월부터 11월의 오후의 며칠뿐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 即可望見”은 바로 이때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사 이규원의 눈에 보인 것은 죽서뿐이었을 것이다. 울릉도의 성인봉에 올라 바라본 이규원으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무게를 더했을 수 있었지 모른다. 게다가 이규원에게 우산도 관련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도민의 대부분은 울릉도에 입도한 기간이 극히 짧고, 게다가 불법적으로 입도한 입장이어서 우산도를 망견하거나 전문할 기회가 없었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실토할 정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이혜은·이형근, 앞의 책 65~92쪽). 그것이 조정에 올린 보고서와 함께 그려서 바친 울릉도 내도(鬱陵島內圖)와 외도(外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이상태(2011), 앞의 논문, 26쪽).

2. 우용정의 「울도기」와 石島說

1899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서의 무단 벌목을 자행하는 일본인의 행위를 조사한 부산해관(釜山海關) 세무사서리(稅務士署理) 라 포르테와 도감(島監) 배계주(裒季周)의 보고에 기초해 우용정을 ‘울릉도시찰위원(鬱陵島視察委員)’에 임명했다.⁴⁰⁾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무단 벌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우용정의 자는 성약(聖若)으로 현종 15년(1849)생, 단양 우씨(禹氏) 예안군파(禮安君派) 27세손으로 기록돼 있을 뿐,⁴¹⁾ 그에 관한 인적 사항은 현재로서는 더 알 수 없다. 그 밖의 기록으로는 『증보문헌비고』 직관고(職官考)에

(高宗)三十二年 改稱內部 置大臣協辦 各一員(并勅任) 局長五員(州縣局一等 尋改地方局土木局版籍局二等 衛生局會計局三等) 叅書官八員 視察官四員 技師四員(并奏任) 主事四十員 技手四員(并判任) 又置醫師 砲製藥師.

라고 해⁴²⁾ 고종 32년(1895) 관제개혁에 따라 설치된 내부(內部)에 정원 4명의 시찰관(視察官)이 있는데, 우용정은 이 시찰관으로 주임관(奏任官) 처우를 받았다고 했다.

시찰관이 무슨 직무를 처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우용정이 수행한 업무와 내부에만 시찰관이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지방 관아에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즉시 그곳에 투입돼 사건을 해결하고, 완결되면 다시

40) 『官報』 광무 3년 12월 19일

41) 『丹陽禹氏 禮安君派譜』 권 1

42) 『增補文獻備考』 권 238, 직관고 25, 내부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직책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용정은 바로 이 직책에 있으면서 울릉도에서 벌어진 일본인의 무단 벌목과 도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파견되고, 귀환 후 그 시찰보고서인 「울도기」를 제출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작성과 반포에 깊숙이 관여했으리라 보는 것이 전부다.⁴³⁾

우용정은 광무 4년(1900) 5월 25일 인천(仁川)을 출발, 동 29일 부산(釜山)에 도착, 그곳에 대기 중이던 동래 감리서(東萊 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 포르테, 부산해관 세무사방판(稅務士幫判) 김성원(金聲遠), 부산주재(釜山駐在) 일본영사관보(日本領事官補) 赤塚正補 등과 합류한 다음 창룡환(蒼龍丸)편으로 도항, 5월 31일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그는 6월 5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도감 배계주와 도민, 주재 일본인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일, 김면수와 더불어 직접 일본인의 동태를 조사한 일, 도민의 편의를 도모할 선박 구입을 알선한 일, 그리고 도세(島勢)를 조사한 일 등이었다 한다.⁴⁴⁾ 그러나 그보다도 시급한 것이 울릉도를 정부의 지방관제 속에 포함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일본의 불법·탈법을 막고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 같다.⁴⁵⁾

우용정은 그해(1900년) 6월 15일에 귀경했다. 곧 그간 조사한 내용과 앞으로 취할 대책을 담은 보고서 「울도기」를 내부대신 이견하(李乾夏)에게 제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 그간 울릉도에서 조사한 내용 이외에 ① 울릉도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인을 철수시킬 것, ② 울릉도의 관제를 개편하되 이로 인해 늘어나는 직원의 월봉은 도민에게서 걷는 세금과 도민으로부터 걷는 관세(管

稅)로 충당할 것 등의 건의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⁴⁶⁾

그의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해 10월 22일에 「울릉도(鬱陵島)를 울도(蔚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에 관(關)한 청의서(請議書)」가 내부에서 의정부(議政府)에 제출됐다. 이 설군청의서(設郡請議書)는 바로 의정부의 의결을 거쳐 1900년 10월 25일 광무 4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로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됐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勅令 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여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여 官制 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郡廳 位寔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石島'다. 여러 학자는 이 석도가 독도이며, 울릉도에 많이 와서 머물던 전라남도 연해민의 호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즉, 우용정은 울릉도에서 우산도의 존재와 호칭 등의 지식만을 도민들로부터 입수한 후 상경해 이 사실을 내부대신에게 보고한 결과 석도라는 호칭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⁴⁷⁾

그런데 「울도기」를 보면, 그 첫머리에 그의 울릉도와 우산도 등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일단이 다음과 같이 소개돼 있다.

46) 앞의 책, 『鬱島記』 後錄 4 참조

47) 宋炳基(1999),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184~196쪽. 저자는 석도가 독도임을 여러 가지 방증을 들어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발미는 方鍾鉉 교수의 “독도의 하루”(『京城大學 豫科新聞』, 1947년 8월 자)였다고 해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해석에 주력했다.

43) 宋炳基(2007), 앞의 책, 187~189쪽

44) 禹用鼎, 『鬱島記』

45) 『增補文獻備考』 권 153, 직관고 내부조

鬱陵島古稱于山國 未知羅朝何代之建國 而文獻無徵亦不可考 至智證王時 (略) 於是國人大懼 而乃降云 此乃野史之所傳 而亦無國乘所載 自此以後 空廢其地幾百年 而史無傳焉 至我朝龍蛇之變(壬辰倭亂) 三陟(鄭)姓幾人避兵於此 肅廟朝 搜出金丸等七十餘人 載於史冊 而此後命三陟府使越松萬戶 間三年搜討 使之不得居生 蓋慮絕島中 若有無賴成群 或作禍胎也...

울도는 예전에 우산국이라고 일컬었다. 신라의 어느 대(代)에 건국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문헌에 증빙할 자료가 없고 역시 상고할 수도 없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 반란의 무리들이 몰래 접거하여 지형이 험난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신(臣) 사부(異斯夫)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라 명하니 (略)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항복했다고 했다. 이는 바로 야사에서만 전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편찬한 사서에는 기재된 것이 없다. 이런 이후부터 그 땅을 몇 백년 동안 비워버린 것이니,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다.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 임진왜란 시에 三陟의 鄭氏 몇 사람이 전쟁을 여기에서 피했고, 肅宗 조에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찾아 쫓아낸 사실이 역사책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에 三陟府使와 越松萬戶에게 3년간 수토사를 명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니, 대체로 절도(絶島) 중에서 만약 무뢰배가 군집하여 화태(禍胎)를 초래할까 염려한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부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산도와 울릉도에 대한 우용정의 지식이 영성하기 짝이 없다. 대표적으로 ① 신라 지증왕 때에 이루어진 울릉도 편입사실을 한갓 야사에 기록된 것으로 돌리고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 것, ② 임진왜란 당시 삼척인(三陟人) 정씨(鄭氏) 등이 울릉도에서 피란했다고 한 것, ③ 김환(金丸) 등 울릉도민 70여 명의 쇠환이 세종조에 있던 일인데도 숙종조(肅宗朝)의 사건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④ 도민의 쇠환과 입도의 금지는 태종~세종조에 시작된 일임에도 삼척부사와 월송만호가 3년마다 수토사로 명해져서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 것 등 잘못된 지식을 보고서의 첫머리에 실었던 것이다.

그는 첫째, 신라 지증왕 13년에 있었던 이사부(異斯夫)의 우산도 정벌을 야사에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해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류(地誌類),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서와 같은 많은 사서에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임란 중에 삼척인 정씨 일가가 울릉도에 피란했다는 기사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정감록」 등 서(書)에서나 언급될 수 있는 황당한 야사다. 셋째, 김환 등 울릉도민 70명의 쇠환이 숙종 때라고 하지만, 이는 세종 20년 7월에 벌어진 일이며, 이때 쇠환을 담당한 자는 전 만호 남희와 전 부사직 조민(曹敏)이었다. 또 쇠환된 인원은 66명이었다.⁴⁸⁾ 또 쇠환된 도민의 우두머리가 김환이라 했으나, 이 사람은 세종 21년 2월에 귀생(貴生)과 더불어 울릉도에 숨어 들어갔다가 잡혀서 교수형에 처한 김범(金凡)이었다.⁴⁹⁾ 넷째, 삼척부사와 월송만호가 3년간 수토하는 관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이들에 의해 섬이 무인도화됐다고 한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 것은 조선왕조 초기인 태종~세종 초기부터 시행된 해금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⁵⁰⁾ 이로 인해 왜와 조정 사이에 '울릉도 쟁계'까지 일어나 그 결과가 숙종 22년 이후 수토제로 전환된 것이다.⁵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용정은 우산도는 물론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역사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울릉도에 시찰위원으로 부임했다.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영성한 만큼 우산도의 존재와 호칭 여부에 신경을

48) 주 15 참조

49) 『世宗實錄』 권 84, 세종 21년 2월 병진조

50) 임영정(1997), 「朝鮮時代 해금정책의 추이와 울릉도·독도」,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독도연구보존협회

51) 宋炳基(1999), 앞의 책, 253~273쪽

쓸 일이 없었다. 그는 도세 조사에 즈음해 전라남도 연해민이거나 도민출신 울릉도 도민들이 우산도를 부르던 독섬 혹은 돌섬에 이미 익숙했다. 때문에 우산도 역시 도민들이 표현하는 ‘돌섬’을 ‘石島’로 한자화 해 관계개편안에 반영시킬 수 있었고,⁵²⁾ 중앙정부도 그가 보고한 대로 우산도라는 고유 명칭이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석도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에 그런 호칭이 남게 됐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심흥택 군수의 보고와 獨島

1903년에 심흥택이 울도군수에 부임했다. 그는 철종 6년(1855)에 충청도(忠淸道) 강경에서 태어나 9세에 향시를 봐 유학이 되고, 이후 무과에 응시해 1870년 선전관에 올랐으며, 1896년에 강원도(江原道) 흡곡군수(翁谷郡守)를 지내고 1902년 12월에 울도군수에 차하됐으나, 동절기라 이듬해 정월에 부임했다고 한다.⁵³⁾

그가 울도군에 재직 중이던 1906년 3월 5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등 ‘죽도조사단(竹島調査團)’ 10여 명이 울도군 관아에 이르러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사실을 통고했다. 그 자리에서 심 군수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⁵⁴⁾ 다음날인 1906년 3

52) 宋炳基(1999), 앞의 책, 202쪽

53) 심 군수의 출생 및 약력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가 최근 울릉군 金基伯 과장이 그 후손에게서 자료를 받아 소장한 것이 있어 그 도움으로 심 군수의 약력을 참조했다.

54) 독도조사단의 일원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바 있는 奧原碧雲은 그의 조사보고서에서 “심 군수의 조사단에 대한 응대는 자못 세련됐으나, 행정상의 문제에 하여 요령부득의 말만 했다”라고 언급했다. 아마도 심 군수가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영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奧原福市, 「竹島渡航日誌」, 『竹島及鬱陵島』 부록)

월 5일 강원도관찰사와 내부에 긴급으로 보고서를 올렸다. 이른바 심흥택 보고서다. 그 내용을 보자.

報告書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外洋 百餘里 許이옵드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 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次 來島이다 인바 其一行 則日本島根縣 隱岐島司 東文輔, 及 事務官 神西由太郎,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影山 岩八郎, 巡查一人, 會議員一人, 醫師 技手各一人, 其外 隨員十餘人이 先問 戶總, 人口, 土地 及 生産多少하고 次問 人員 及 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查樣으로 錄去이압기 茲以 報告하오니 照亮하심을 務望함

光武十年 丙午 陰三月 五日⁵⁵⁾

이라 돼 있다. 이 보고서에서 심 군수는 3월 4일 일본인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에 강제 편입된 사실을 통고받자, 이튿날 즉각 위와 같은 보고서를 외부와 내부에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일본인들이 ‘리양쿠르’ 암 또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던 섬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라 표기한 인물이 됐다. 심흥택 군수가 독도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심군수 자신이 동해의 지지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고, 둘째는 우산도가 이미 독도 또는 돌섬, 독섬 등의 명칭으로 도민 사이에서 일반화된 데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게다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니타카함의 1904년 9월 25일 자 일지에 「송도(松島)에서 리양코루도 암(岩)의 실견자(實見者)로부터 청취한 정보」라고 제(題)한 글에

55) 議政府外事局, 『各觀察道案』 1

「リアンコルド」岩韓人之ヨ獨島ト書シ。本邦漁夫等略シテ「リアンコ」島ト呼稱セリ。別殘略圖ノ如ク二個岩嶼ヨリ成リ。西嶼ノ高サ約400尺險阻ニテ攀ルコト困難ナルモ東嶼ハ較低クシテ雜草才生シ。頂上稍稍平坦ノ地アリ (...)⁵⁶⁾

라고 했다. 즉, 1904년 이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관행적으로 독도라고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⁵⁷⁾ 그만큼 도민들이 통용하는 관계로 깊은 생각 없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독도라는 명칭 역시 석도와 더불어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의 방언이었다. 독섬 또는 따로 떨어져 홀로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붙인 독섬(獨島)에서 유래돼 짧은 시간에 도민들 사이에 일반화된 호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본다.

IV. 맺음말: 石島 · 獨島 명칭의 정착과정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의 거의 전시대에 걸쳐 우산도로 호칭되던 독도는 한말에 이르러 그 호칭을 잃고 갑자기 석도(石島)와 독도(獨島)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고종 18년(1881)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이 있기 이전에 울릉도에는 내지인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이듬해 울릉도 개척 방침의 확정에 따라⁵⁸⁾ 내지에서 농어민이 대거 입도해 경작지를 개척하였다. 이들 사이에서 우산도가 돌섬(石島), 또는 독섬(獨島)으로 호칭되고, 그 곳으로

검찰사와 시찰관이 내왕하면서 중앙관서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호칭이 사용된 것 같다.

검찰사 이규원이 국왕 고종의 특명으로 울릉도에 당도한 것은 고종 19년(1882) 4월 30일이었다. 그는 5월 10일까지 11일간 울릉도에 머물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섬 안을 답사했다.

조사결과 섬 안에는 이미 140명에 달하는 본국출신 원주민이 약 10여 년 전부터 살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라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그 다음이 경상도였다. 전라도에서 온 도민은 흥양(興陽, 현 고흥(高興)) 94명, 낙안(樂安, 현 순천(順天)) 21명 등 115명에 달했다. 강원도에서 온 도민은 평해(平海) 출신 14명이고, 경상도에서 온 도민은 경주연일·함양에서 온 10명, 기타 1명(경기도 파주 출신)이었다. 또 이들은 대부분이 하호 출신이고 사족은 함양 출신 전석규(全石奎)와 파주 출신 정이호(鄭二祐)뿐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⁹⁾

검찰사 이규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경, 즉시 서계와 복명서, 그리고 별단과 지도를 올리고 6월 5일 국왕에게 복명했다.⁶⁰⁾ 그는 이 자리에서 ① 섬을 개척해 도민의 입거를 권장할 것, ② 설진의 최적지는 나리동이라는 것, ③ 일본인의 불법 체류와 표목의 설치를 항의해야 할 것 등을 건의했다.⁶¹⁾

그의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울릉도 개척이 결정돼 고종 20년(1883) 4월부터 내륙인의 울릉도 입거(入居)가 시작됐다. 남자 36명, 여자 18명, 모두 16호 54명이 입거했다. 출신지별로 보면 강원도 39명, 경상도 11명, 충청도 3명, 경

56) 『軍艦 新高 行動日誌』, 명치 37년 9월 25일

57) 堀化生(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11쪽

5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20일

59)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啓本草』

60)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5일

61) 宋炳基(1999), 앞의 책

기도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역시 하호층이었음은 물론이다.⁶²⁾

울릉도에 미리 와서 살던 주민이나 새로 입거한 주민을 막론하고 모두 독도가 우산도로 명명됐던 원래의 호칭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관심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다. 다만 울릉도 동쪽에 가까이 섬이 있다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⁶³⁾ 그 섬의 원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나라 소속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었다. 다만 그 섬을 다녀오거나 전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말에서 섬의 생김새와 위치로 보아 돌로 된 섬(石島), 돌섬의 전라도 식 방언인 독섬과 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섬(獨島)으로만 인식되고 그 이름이 일반화돼 갔다.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 차 출발하기에 앞서 사폐하는 자리에서 이미 우산도에 대한 국왕 고종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 위에 귀환해 복명 시 제출한 『계본초』에서도

(…) 松竹·于山等島 僑寓諸人 皆以傍近小島當之 然既無圖籍之可據 又無嚮導之指滴 晴明之日 登高遠眺 則千里可窮 而更無一拳石一撮土 則于山之稱鬱陵 卽如耽羅之稱濟州是白如乎 臣於入島之後 既步履既高顛 復舟駛其山麓 包日之間 足跡無所不到 全圖開勝 瞭然在目 而惟其拙於文辭尙多掛漏是白乎祗 緣由馳啓爲白臥乎事云云

(…) 松竹島와 于山 등의 섬에 대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바로 가까이 있는 섬이 그곳(우산)이라 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찰할 근거가 될 지도나 서적이 없고 지적해서 항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청명한 날에 높은데 올라가서 멀리 천 리 밖까지 내다보아도 한 개의 돌과 한 줌의 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즉 우산이 울릉을 칭하는 것이 耽羅를 제주라 칭하는 것과 같사

62) 『光緒 9年 4月 日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및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成冊』(奎章閣 소장)

63)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啓本草』

옵니다.

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가 결정적으로 고종의 우산도 존재에 관한 인식을 뒤바꿔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규원의 사폐 시에만 하더라도 국왕을 비롯해 정신(廷臣)들 사이에 막연히 우산도로 알고 있던 지식을 현지에 다녀온 관원(이규원)이 '교우제인(僑寓諸人)'이 문견한 지식을 피력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1900년 5월 인천에서 출발해 울릉도에 당도한 내부시찰관 우용정 시찰위원이 보고한 「울도기」를 보면, 우산국이 신라(新羅)에 병합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적 연원에 정확한 것이 없이 시중에 떠도는 야사 류의 지식만을 나열한 정도였다.

더구나 우용정의 시찰목적은 일본인의 울릉도 범작과 불법 반출 조사였다. 이 조사목적에 우산도 존재에 관한 항목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도명(島名) 호칭 여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현지인에게서 들은 대로 石島라고 인식해 관계개정안에 삽입하게 됐다.

또 그 3년 후인 1903년 4월에 부임한 울도군수 심흥택 역시 무반 출신으로 당시 지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까닭에 독도에 망루 설치를 목적으로 그 연해를 측량하던 일본 니타카함의 보고처럼 현지 도민이 쓰는 독도라는 명칭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결과 한말에 이르러 우산도라는 명칭이 우리의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현지 주민의 호칭을 한자로 번역한 석도(石島)·독도(獨島)라는 호칭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홍정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20세기 전후 문헌상 우산도, 석도, 독도
- III. 근대 지리지 편찬과 우산도
- IV.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와 독도 인식
- V. 맺음말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홍정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2005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면서부터 독도(獨島)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독도 영유권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기관이 설립됐고, 연구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 자연히 연구 성과도 대량 생산됐다. 그럼에도 양적인 수의 팽창과 달리 질적인 면에서는 과거보다 향상된 연구 결과물이 기대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독도와 직접 관련된 문헌 자료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히 한국 고문헌상의 우산도(于山島)와 석도(石島)가 독도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명쾌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후관계를 분석해 보면 우산도나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직접 독도라고 기술한 고문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산도’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에 주로 사용됐으며, 한국이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관할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전후해서는 우산도가 그

홍정원

한국사 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대표논저로는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2011, 『군사 80』),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1909)를 통해 본 울도군 상황 연구」(2011, 『한국근현대사연구』 58) 등이 있다.

다지 쓰이지 않았지만, 석도나 독도라는 지명이 사용되는 시기의 전후에도 종종 문헌상에 등장하고는 한다. 이때의 우산도는 거의 독도를 가리키지만, 독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아마 우산도라는 지명이 ‘돌섬(석도, 독도)’으로 전이(轉移)되면서 지명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울릉도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도’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라고 규정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여기서 석도가 독도인지 아닌지는 울도군수가 독도를 통치 관할에 두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도’라는 명칭은 「심흥택 보고서」(1906)에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명기돼 있어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준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이 보고를 받은 의정부와 내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자료의 부재가 낳은 연구의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19세기 후반 들어 개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지리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갑오개혁을 통해 각급 근대 교육 기관은 지리를 중요한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리 교과서와 관·사찬의 지리지들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편찬된 대부분의 지리 교과서나 지리지에는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가 기록돼 있다.

또 독도라는 명칭이 직접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영토 편입에 대한 제국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울도군수가 계속해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는 울도군수의 보고서가 있다. 이는 울도군수 심흥택 이후 군수직을 역임했던 심능익(沈能益)이 1909년 1월 순종의 남순행 때 보고한 「경상남도 울도군 지방상황(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1909)이다. 이 보고서는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 설명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군수로서 심능익(沈能益)의 독도 관할 인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 공문서, 지리지, 신문류, 잡지류 등 문헌상에 나오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우산도, 석도, 독도’의 지명상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이후에도 울도군이 독도를 지속해서 관할하고 있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산도와 석도가 지명상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근대 지리지에서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울도군수 「심능익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의 독도 관할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겠다.

Ⅱ. 20세기 전후 문헌상 우산도, 석도, 독도

1. 우산도와 석도

울릉도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인들이 잠입해 불법으로 목재를 벌채하고 어업을 일삼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 정부는 1883년 울릉도 개척령을 내리고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일본인의 철수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범작(犯作)이 본격적으로 말뚝을 빚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초부터였다.¹⁾ 그리고 이는 1897년 광무연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져 섬의 규목을 남벌할 뿐만 아니라 섬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횡포도 매우 심했다.²⁾

일본인들이 범작한 목재는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여기에는 법금을 어긴 일부 울릉도민들의 협력도 있었다.³⁾ 도감 배계주는 이 목재를 찾기 위해 1898년 말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키[隱岐]·도쿄[東京] 등지에서 재판해 승소했다. 그는 다음 해 초에도 일본 마쓰에[松江]로 건너가 소송을 제기했다.⁴⁾

이처럼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범작 투운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1899년 5월 부산에 머무르고 있던 전 도감 배계주를 재임명했다. 그리고 부산해관 세무사 브라운(J.B. Brown, 柏卓安)에게 위탁해 서양인 한 명을 파견해서 울릉도의 상황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 포르테가 선정돼 1899년 6월 하순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로 떠났다.⁵⁾

1899년 9월 23일 자 『황성신문』 별보에는 울릉도의 역사와 라 포르테의 조사 보고 내용을 「울릉도사황(鬱陵島事況)」이라는 제하에 소개하고 있다.⁶⁾ 그 첫머리에 울릉도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1) 『統署日記』 3, 고종 32년 5월 20·21일, 윤5월 30일; 『日案』 3, 文書番號 3666·3688;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95쪽
 2) 「內部來去案」 6, 광무 2년; 『外衙門日記』(『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高麗大學校附設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광무 2년 2월 10·29일; 송병기(2010), 위의 책
 3) 『독립신문』, 광무 3년 1월 19일; 송병기(2010), 위의 책
 4) 『外衙門日記』, 광무 2년 10월 8·11·12일, 광무 3년 4월 25일;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皇城新聞』, 광무 3년 2월 6일, 4월 26일, 5월 16일; 「內部來去案」 7, 광무 3년; 송병기(2010), 위의 책
 5) 「內部來去案」 7, 광무 3년, 照會 제13호; 『俄案』 2(『舊韓國外交文書』 18, 高麗大學校附設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文書番號 1460; 『內衙門日記』, 광무 3년 6월 27·28일; 위의 책, 195~196쪽
 6) 『皇城新聞』, 광무 3년(1899) 9월 23일

울진지동해(蔚珍之東海)에 일도(一島)가 유(有)하니 왈(曰) 울릉(鬱陵)이라 기(其) 부속(附屬)한 소육도중(小六島中)에 최저자(最著者)는 우산도(于山島) 죽도(竹島)니 대한지지(大韓地誌)에 왈(曰) 울릉도(鬱陵島)는 고우산국(古于山國)이라.

고 했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6개의 섬 가운데에서 가장 우뚝한 것으로 우산도와 죽도(竹島)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도’는 바로 울릉도 동북쪽 가까이 있는 오늘의 죽도(竹島, 竹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에 부속된 가장 큰 섬의 하나로 거론한 ‘우산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기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울릉도 부속 섬에 대해서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를 파견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서술돼 있다. 즉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제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명시했다. 여기서 죽도는 1899년 『황성신문』 기사상의 죽도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석도는 『황성신문』 기사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산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우산도가 왜 갑자기 석도로 변경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상기 『황성신문』 기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근간이 되는 자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899년 『황성신문』 기사는 라 포르테의 보고 내용을 게재하기는 했지만, 그 앞부분의 울릉도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은 기사 작성자가 서술한 것이다. 이 작성자는 울릉도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와 같이 시작하면서 섬의 생산물, 땅의 성질, 가지어(可之魚, 강치), 괘조(霍鳥, 깍새),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 동남제도개척사겸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使) 김옥균(金玉均), 도감 배계주 등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그해 봄에 울릉도감 배계주가 울릉도의 일본인

침탈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주기를 내부에 보고했고, 내부에서는 부산해관 세무사 브라운에게 서양인 한 명을 파견해 조사하게 했으니, 그 보고 내용을 소개한다고 했다.

기사 작성자는 울릉도에 대해 조선에 전해지는 지지류를 우선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후기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한 『동국문헌비고』, 이 외에도 여러 지도류 등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싶다. 기사의 본문에는 『대한지지』를 인용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산도라는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설명돼 있지만,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죽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리지만을 참고해서 기사를 썼더라면 죽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거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울릉도 부속 섬으로 죽도가 언급된 문헌 기록은 울릉도 수토관 월송만호 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 수토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⁷⁾ 한창국은 정조 18년(1794)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왔다. 수토 중인 4월 25일 기록에 저전동(楮田洞) 앞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개의 섬을 보고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옹도(翁島)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된다고 했다.⁸⁾ 이후 문헌 기록상 죽도의 정확한 위치와 지명은 1882년

7) 『정조실록』, 18년(1794) 6월 3일(무오)

8) 여기에서 방패도와 옹도는 현재 불리지 않는 섬으로 어떤 섬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방패도와 관련해서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국립중앙도서관, 古2702-8)을 보면, '대간도(大干島)'와 '소간도(小干島)'가 울릉도의 동쪽 부속 섬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간도는 큰방패섬, 소간도는 작은방패섬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 현재의 죽도와 관음도로 보인다(국립중앙도서관(2009),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감찰하고 작성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島)」를 통해 알 수 있다.

『황성신문』의 울릉도 기사 작성자가 위의 자료들을 열람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울릉도 부속 섬에 대한 정보가 중앙에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사상에서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동남제도개혁사 김옥균이나 울릉도감 배계주에 대한 언급 등이 있는 것을 보면, 기사 작성자는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의 부속 섬에 대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산도와 죽도를 열거한 것으로 생각한다.

울릉도의 부속 섬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일본인에게도 전해졌다.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⁹⁾ 간사이며, 한국에서 내각 고문을 역임한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의 보좌관으로서 기록, 편찬, 관보 등의 사무를 감독한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¹⁰⁾

대소 6도가 있다. 그 중 우뚝한 것을 우산도(于山島, 일본인은 松島라고

서울). 한편, 한창국이 보고한 죽도는 현재의 죽도와 명칭이 동일하고, 울릉도 동쪽 5리 거리에 해장죽(海長竹)이 자라는 섬이 있다는 특징을 설명한 문헌 기록(張漢相, 「鬱陵島事蹟」)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의 죽도(땃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 동아동문회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남하에 위기를 느끼고 조선 내에 친일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천지명(2003), 「한말 일본 동아동문회의 조선 교육 진출」, 『동서사학』 9, 한국동서사학회; 채수도(2007), 「초기 동아동문회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 노선에 관한 연구」, 『대구사학』 90, 대구사학회).

10) 恒屋盛服(1901), 『朝鮮開化史』, 博文館; 박병섭(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小六島アリ 其中著名ナルヲ于山島(日本人ハ松島ト名ク)竹島ト云

이름한다)와 죽도(竹島)라고 한다.

저자인 쓰네야 세이후쿠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친분이 있는 박영효(朴泳孝)와 연계해 갑오개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한국의 정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와 죽도를 거론한 것은 『황성신문』(1899. 9. 23)의 기사를 참조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서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 더해 일본인은 우산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이름 한다고 했다.¹¹⁾ 당시 일본에서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기도 했고,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섬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가 이르는 바 송도다’라고 했다(輿地志云 蔚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는 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쓰네야 세이후쿠는 조선의 여러 지지류들과 신문 자료들을 참조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했던 것이다.

독도를 기존 조선 시대의 명칭인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석도라고 표기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칙령의 근간이 되는 내부의 설군청의서, 즉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에 관(關)한 청의서(請議書)」(1900. 10. 22)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¹²⁾ 이 청의서는 울릉도감 배계주의 보첩,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의 보고서와 부산해관 라 포르테가 제출한 시찰록(視察錄)을 참작해 작성됐다.

내부시찰관 우용정이 1900년 울릉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는

11) 『조선개회사』의 부속된 지도에는 다케시마(竹島)가 가공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마쓰시마(松島)가 울릉도 위치에 잘못 표기돼 있다.
12) 「各部請議書存案」 17(奎章閣 소장)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당시의 시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울도기」가 전해져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울릉도의 부속 섬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당연히 우산도라든가, 독도라는 명칭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라 포르테의 1900년 시찰록도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인 그가 울릉도의 부속 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그의 임무는 해관 세무사로서 세무 관계였을 것이기 때문에 관할 범위는 그다지 관심사항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의 청의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 울도군 관할 구역은 울릉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도감 배계주의 보첩을 토대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계주는 인천(仁川) 영종도(永宗島) 출신으로 개척 초에 입거한 사람이다.¹³⁾ 그는 1895년 8월(양 10월)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가 도장제(島長制)에서 도감제(島監制)로 바뀌면서 판임관(判任官) 대우로 도감에 임명됐던 사람이다.¹⁴⁾ 그러므로 울릉도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00년 울도군의 초대군수로까지 임명된 그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될 범위를 보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 이전까지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인 우산도를 왜 울릉도 사람들은 우산도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울릉도 사람들에게 우산도가 이미 잊혀진 섬의 명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매일신보』(1913. 6. 22 자)의 기사에 의하면, 울도군 서면 김원준이라

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本省機密往信(明治 33年), 機密 第133號; 송병기(2010), 앞의 책, 183쪽
14) 『高宗實錄』, 고종 32년 8월 16일; 『官報』, 開國 504年 8月 16·9月 20日; 송병기(2010), 위의 책

는 사람이 동북 방향 약 40, 50리 거리에 우산도라는 무인도가 있다고 해 탐험을 계획하다가 중지했다고 한다. 또 십수 년 전에도 울릉도의 내선인(內鮮人)이 우산도를 탐색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1913년을 기준으로 십수 년 전에 우산도를 탐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¹⁵⁾ 하지만 1900년을 전후로 1913년 당시의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가 서술된 조선의 지지류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산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상상 속의 섬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울릉도 거주민들이 우산도라는 섬 명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역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상의 울도군 관할 구역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은 서술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울릉도감 배계주가 울릉도 거주민들이 부르던 섬의 명칭을 그대로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돌섬'이라고 불렀으며, 울릉도감 배계주는 법제상 정식으로 정하는 명칭인 만큼 돌섬을 한자로 표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돌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石島'라고 한역해 표기했던 것이다.

'돌섬=石島', '독섬=獨島'을 모두 등치시켜 설명하는 것은 전라도 방언에 '돌'을 '독'이라고도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다. 따라서 '돌섬=독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가 알려지기 훨씬 전인 1947년에 처음 제기됐다.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일원이었던 방중현 교수는 독도를 답사하고 돌아와 기행문을 작성했다. 여기서 그는 '독도'라는 이름이 '석도'의

15) 박병섭은 십수 년 전 우산도를 탐사했던 사람을 1900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를 다녀왔던 우용정이라고 추정했다(박병섭(2009), 앞의 책, 80~82쪽). 하지만 우용정의 「울도기(鬱島記)」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그 이유를 독도의 외형이 돌과 같고, 전라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한다는 데 연결했다. 그래서 독도는 석도의 뜻인 '독섬(돌섬)'이라는 것이다.¹⁶⁾ 만약 그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먼저 접하고 이것이 독도라고 추론했다면 억지 논리로 비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도'라는 지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독도'라는 명칭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나온 결론이 '석도'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실제로 1882년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140여 명의 조선인을 조사했다. 이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가 115명(홍양 94, 낙양 2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 14명, 경상도 10명, 경기도 1명 순이다.¹⁷⁾

이규원의 검찰 결과를 토대로 1882년 8월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졌고, 다음 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륙민들이 울릉도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 정착민은 16호 54명으로서 출신 지역별로는 강원도 39명, 경상도 11명, 충청도 3명, 경기도 1명이었다. 초기 정착민 중에 전라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돌=독'이라는 전라도 방언에 의해 독도 명칭이 발생했다고 하는 논리와 상반돼 보일 수도 있는 결과다. 울릉도 거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 내왕인인 전라도민들에 의해 울릉도 주변의 지명이 정착됐다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릉도의 각 지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라도민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전해주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1923년 『개벽』지의 기자 이을(李乙, 필명으로 보임)은 울릉도 지명의 유래에 대해 전라도 여수군(麗水郡) 삼산면(三山

16) 방중현(1963), 『一箕國語學論集』, 民衆書館; 송병기(2010), 앞의 책, 220쪽

17)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이혜은·이형근(2006), 『晚隱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面) 삼도(三島) 방면의 어부가 3, 4월에 울릉도에 왔다가 6, 7월에 돌아가는 동안 '변칭(變稱)'된 것이 거의 전반에 달한다고 했다.¹⁸⁾ 여수군 삼산면은 거문도(巨文島)·초도(草島)·손죽도(巽竹島)를 포함하는 곳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했다는 것은 구전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일찍이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서도 흥양 삼도(거문도), 초도 사람들이 배를 만들며 미역을 따고 있다고 소개했던 바가 있다.¹⁹⁾ 특히 위 『개벽』지의 기사는 기자가 그해 여름 실제 울릉도를 다녀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역시 독도의 옛 명칭이었던 '우산도'가 19세기 후반 이후 전라도 사람들에 의해 '돌섬'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칭됐고, '돌=독'이라는 전라도 방언에 따라 '석도/독도'로 한자 표기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석도와 독도

석도(石島)는 '돌섬'을 가리키는, 즉 독도를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었다. 그런데 돌섬은 독도(獨島)라는 명칭으로 공문서상에 한자 표기되기도 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바로 「심홍택 보고서」(1906)를 통해서다.²⁰⁾ 「심홍택 보고서」는 울도군수 심홍택이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에게 시마네현 사

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를 대표로 한 일행의 울릉도 방문과 일본이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를 편입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강원도관찰사서리는 이를 의정부에 「보고서호외(報告書號外)」로 보고했다. 의정부에서는 참정대신이 「지령 제3호」를 내려 “일본의 독도(獨島) 영지시설(領地之設)은 전속무근(全屬無根)하니”라고 해, 독도를 다시 그대로 명시하며 일본의 영토 편입을 부인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 석도라고 한 것이 독도로 바뀐 것이다.

한편 심홍택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독도라고 명기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 공식 보고서인 만큼 칙령상에 실려 있는 정식 행정 명칭인 석도라 해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문서상에 정식 행정 명칭 외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다. 대표로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서울의 공식 행정 명칭은 서울특별시다. 조선이나 대한제국 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였다. 그런데 한성 외에도 한양(漢陽), 경조(京兆), 경도(京都), 경성(京城), 수선(首善), 장안(長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 시대 관찬서에는 이러한 서울의 여러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 있다. 「심홍택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의 한성부 공문서를 봐도 한성, 한양, 경성 등의 지명이 쓰인 경우는 상당히 많다.²¹⁾ 공문서인 만큼 서울의 공식 행정 명칭인 '한성'만 쓰였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공식 행정 명칭 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명도 별다른 구분 없이 명기했던 것이다.

오히려 '서울'이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든지,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등 서울과 관련된 속담들은 상당

21) 『漢城府去來案』, 「報告書」第23號, 광무 6년(1902) 12월 8일 외 다수

18) 李乙(1923. 11),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開關』 4권 41호, 開關社
 “地形及物相과 인사의 移動的으로 작성된 本島地名의 유래는 일종 史談거리가 적지 않다. 이것은 開島이래 全南 麗水郡 三山面 三島方面의 어부의 다수가 本島 名産인 靑蘆를 채취기 위하여 매년 三四月에 來集하였다가 六七月이 되면 撤歸하여 이리케 來往이 頻數하는 동안 不知 中 그럭저럭 變稱된 것이 거의 전반에 互하였다 한다.”[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9) 李奎遠(2006), 앞의 책 참조

20) 「各觀察道去來案」1, 奎17990; 송병기(1985), 「高宗朝의 鬱陵島·獨島經營」,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히 많다.²²⁾ 이 속담들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민간에서는 한성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문으로 표기하는 조선 시대 문헌 기록의 특성상, 문헌상에는 ‘서울’이라는 한글 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본예(柳本藝)의 저술로 전해지는 『한경지략(漢京誌略)』(19세기 초)에 ‘徐菴’이라고 한자 표기한 예가 있는 정도다.²³⁾

이러한 현상은 독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돌섬, 독섬 등과 같은 순우리말 민간 지명은 문헌 기록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돌섬을 한자 표기한 石島라든가 독섬을 한자 표기한 獨島가 기록에 전할 뿐이다. 石島로 쓰였던 獨島로 쓰였든 이는 모두 혼동해 돌섬, 음독해 독섬을 가리키는 지명 표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 석도를 심홍택이 독도로 표기했다고 해서 석도와 독도가 각기 다른 섬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제상의 지명이 석도에서 독도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는 모두 돌섬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한성, 한양, 경성 등의 서울 지명이 혼용돼 사용된 한성부 문서의 예처럼, 칙령상 석도라고 해서 공식 보고서에 꼭 석도라고만 써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이후 석도가 다시 쓰인 기록은 「심홍택 보고서」가 있던 직후인 1906년 7월 13일 자 『황성신문』 「울도군(蔚島郡)의 배치전

말(配置顛末)」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다. 이 기사는 통감부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가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와 군청 설치(設始) 연월을 시명(示明)하라는 공함(公函)을 보내, 내부에서 이를 알려줬다는 내용이다. 내부는 통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울도군의 연혁을 밝히고, “울도군의 소관 도서는 죽도(竹島), 석도(石島)이고,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여 리”라고 답했다.²⁴⁾

이처럼 내부는 통감부에 울도군의 소관 도서를 ‘죽도, 석도’라고 밝혔다. 당시 내부에서는 약 두세 달 전에 접했던 심홍택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지령을 통해 볼 때, 독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일본과 영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에 독도를 소관 도서로 밝히지 않고 석도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석도가 곧 독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타부처인 통감부에 보내는 공문인 만큼 일반화된 명칭인 ‘독도’가 아닌 공식 행정 명칭대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기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왜 1906년 7월에 통감부에서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밝혀달라고 했는가다. 통감부 통신관리국장의 질의였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의 망루나 해저전신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24) 『皇城新聞』, 광무 10년(1906) 7월 13일; 『대한매일신보』, 광무 10년(1906) 7월 13일. 상기 『황성신문』 기사는 2008년 2월 22일자 일본 『山陰中央新聞』에 의해 일반에 알려졌다. 『山陰中央新聞』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죽도, 석도를 언급하면서 울도군의 동서 거리를 60리라고 한 것은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즉 석도가 독도라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87.4km이기 때문에 60리보다 훨씬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울릉도 섬 크기라고 할 수 있다. 金正浩 「大東輿地圖」(1861)의 울릉도 주기에는 섬 크기를 설명하면서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했다. 아마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정원(2011),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0쪽

22) 송재선(1984), 『우리말속담큰사전』, 서문당; 이복규(2011), 「속담에 나타난 서울 인식」,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23) “지금 사람들이 경사(京師)를 서울(徐菴)이라고 이르는 것은 신라의 옛 이름이 서야벌(徐耶伐)이라고 한 데서 후의 사람들이 경도(京都)를 서벌(徐伐)이라고 하고, 후에 전칭해 서울(徐菴)이라고 한 것이다(今人稱京師曰 徐菴者 古号新羅爲徐耶伐 後人仍稱京都曰 徐伐 後轉爲徐菴耳).” 『漢京誌略』 卷1 沿革,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6초판, 2000재판; 임동석(2007), 「서울(首爾)名稱 淵源考」, 『중국어문학논집』 47, 중국어문학연구회, 311~312쪽

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 망루나 해저전신선은 이미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완성됐다.²⁵⁾ 따라서 이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통감부에서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물은 것이 1906년 3월에 있던 심흥택의 보고와 이에 대한 의정부 및 내부의 지령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령은 일본의 영토 편입을 부인하고, 이를 다시 조사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강원도관찰사서리 「보고서호외」(1906)에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지령은 문서상으로 전해지지 않고, 다만 신문기사에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 자)
(…)내부에서 指令하기를 遊覽道 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客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 日本 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謬然이라 ㅎ엿더라.
- 『제국신문』(1906년 5월 1일 자)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도샤는 용혹무괴 ㅎ 일어니와 淸령 ㅎ엿다는 말은 무기 ㅎ 일이니 쟁이상지 ㅎ거든 일본리스에게 교섭 ㅎ아 淸단 ㅎ라 ㅎ엿다더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하면, 내부에서는 일본인이 독도를 일러 일본

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 보고가 매우 아연할 일이라고 지령했다.²⁶⁾ 『제국신문』의 기사는 『대한매일신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리스’에게 교섭해淸단하라는 『대한매일신보』에 없는 지령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일본리스’는 1906년 2월 설치된 통감부의 지방기구인 이사청(理事廳)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사청의 수장은 이사관(理事官)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일본과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에서 외부(外部)로 문서를 보내 일본공사관에 조회토록 요청하고, 외부에서는 일본공사관에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형태였다. 그런데 외부가 폐지되고 통감부가 설치된 상태에서 일본과의 영토 문제는 통감부에 조회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내부의 지령이 울도군에 전달됐는지, 아니면 울도군이나 내부에서 통감부로 조회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내부의 지령이 있는지 두 달여 후에 통감부에서 내부로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문의해 온 것을 보면, 어떠한 경로였든지 통감부에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조회가 가지 않았을까 싶다. 통감부에서 울도군에, 그것도 그 소속 도서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한 기록은 이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²⁷⁾

25) 울릉도 망루는 1904년 8월 3일 건설에 착공해 9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해저전신선은 9월 8일 공사에 착공해 9월 25일 완성됐다. 러일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착공된 울릉도 신망루도 1905년 7월 14일 착공돼 8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독도 망루는 7월 25일 착공해 8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독도의 해저전신선은 1905년 10월 말 공사를 시작해 11월 9일 독도와 마쓰에 사이를 연결했다(堀和生(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14~115쪽).

26) 여기서 ‘客或無怪’는 『제국신문』에서는 ‘용혹무괴’라고 했다. 이는 ‘혹시’, ‘아마도’라는 의미의 ‘客或’이 맞는 표현이고, ‘客或’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27) 홍정원(2011),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58~161쪽

Ⅲ. 근대 지리지 편찬과 우산도

19세기 후반 들어 개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지리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가 발표되고, 이에 근거해 4월 16일 「대한제국 칙령 제79호」(1900)로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제정 공포된 이후 각급 근대 교육 기관에서 지리과목을 중요한 교과목으로 가르치게 됐다.²⁸⁾ 또 이와 더불어 지리 교과서가 간행되기 시작하고 관·사찬의 지리지들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편찬된 지리 교과서나 지리지는 대체로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가 기록돼 있는데, 이 우산도가 어떠한 섬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최초의 지리 교과서는 『조선지지(朝鮮地誌)』(1895)다. 『조선지지』는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종래의 지리서 형식을 탈피하려는 흔적이 보이거나 아직 여지승람류의 지리 서술을 벗어나지 못한 지리서로 평가되고 있다.²⁹⁾ 그 강원도 편에는,

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주위는 200여 리인데, 동서는 60리이고, 남북은 40여 리이다.]

우산도는 [울진에 있다.]

(鬱陵島는蔚珍에 在호니 周回 二百餘里니 東西 六十餘里오 南北이 四十餘里라) 芋山島는(蔚珍)

28) 남상준(1988),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19,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04쪽

29) 장보용(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대한지리학회지』 5, 대한지리학회, 50쪽

라고 했다.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해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면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섬이며, 모두 울진에 속한 섬이라는 기존의 울릉·우산 2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대표적인 지리서로는 현채(玄采)의 『대한지지(大韓地誌)』(1899)가 있는데, 여기에는 울릉도만 설명돼 있고, 우산도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1950~1960년대 한일 왕복외교문서상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³⁰⁾ 일본 측에서는 1954년 「일본정부견해2」에서 『대한지지』의 경위도상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국 측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면, 학부 관리가 저술한 『대한지지』에 독도가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동경(東經)의 한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³¹⁾ 이에 한국 측은 상기 저서는 한국을 개설하는 것이 주 목적인 책으로 무인고도(無人孤島)까지 서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³²⁾ 이후 한동안 논란이 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 일본 측 연구자가 『대한지지』의 경위도 표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³³⁾

그렇다면 『대한지지』의 경위도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기에 독도가 영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까. 저자 현채는 발문에서 이 지리서가 일본인들이 쓴 것에 근본을 두고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연히 경위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현

30) 1950~1960년대 한일 왕복외교문서라고 일컫는 것은 일반적으로 1953년부터 시작돼 1962년까지 일본 측에서 4건, 한국 측에서 3건의 독도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힌 외교 문서를 통칭한다.

31) 外交部(1977), 「일본정부견해 2」(1954. 2. 10), 『獨島關係資料集1 - 往復外交文書(1952~1976)』, 57쪽

32) 外交部(1977), 「한국정부견해 2」(1954. 9. 25), 『獨島關係資料集1 - 往復外交文書(1952~1976)』, 91쪽

33) 下條正男(1998. 8), 「죽도문제의 문제점」, 『韓國論壇』 108, 132~152쪽; (2007. 9),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文藝春秋社

책이 참고한 일본인들의 책은 주로 마쓰모토 니키치(松本仁吉)의 『조선지지도요략(朝鮮地誌要略)』과 고마쓰 스스무(小松運)의 『조선팔도지(朝鮮八道誌)』며, 그 기술체제를 따랐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⁴⁾ 실제 『대한지지』 경위도는 『조선팔도지』에서의 경위도 서술과 동일하다.

한편 『대한지지』에서 서술된 경위도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한국의 최남단은 33도 6분 40초인데 『대한지지』에서는 33도 15분으로, 최북단은 43도 39초를 42도 25분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제외한 내륙의 최동단이 130도 41분 22초(함북 경흥)인데 『대한지지』에는 130도 35분이라고 했으니 그 오차는 상당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당시 한국이 근대지리학적 개념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서술을 직접 인용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지지』와 동일한 경위도 표시는 『조선팔도지』 외에 일본의 『수로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지지』보다 앞선 1894년에 발간된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총기(總記)에는 한국을 설명하면서 경위도를 “북위 33도 15분부터 42도 5분, 동경 124도 30분부터 130도 35분에 이른다”고 했다. 『조선수로지』 총기는 영국 해군성의 수로지인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3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다. 이 경위도 표시는 오다 사이지로(大田才次郎)의 『신찬조선지리지(新撰朝鮮地理誌)』(1894), 스즈키 도메키치(鈴木留吉)의 『조선지리도(朝鮮地理圖)』(1894)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대한지지』의 경위도 표시는 일본의 지리서들을 참고한 것이고,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

『대한지지』 이후의 대표적인 지리서로는 장지연(張志淵)의 『대한신지지(大韓

34) 강철성(2006), 「현채의 대한지지 내용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17~118쪽

35) 김병렬(1998. 9), 「일학자에 의해 역지주장 입증됐다」, 『韓國論壇』 109, 156~171쪽

新地志』(1907)³⁶⁾가 있다. 장지연은 어려서부터 지리학을 좋아했던 인물로서 강역을 매우 중시해서 국사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국토에 대한 경계를 알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³⁷⁾ 그래서 정약용(丁若鏞)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증보 교정해 1903년에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라는 제목으로 편찬했다. 그 이후 완벽한 지리 교과서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저술한 책이 『대한신지지』다. 이 책의 「경상북도」 편에는 울도(鬱島)를 설명하면서 그 말미에 “우산도(于山島)는 기(其) 동남(東南)에 재(在) 하니라”라고 해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⁸⁾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은 거리 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독도밖에 없다. 특히 저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인물로, 그가 재직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1906년 5월 9일 자의 『황성신문』에는 「심홍택 보고서」의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또 그가 『대한신지지』를 저술하면서 참조했다고 추정되는 일본의 지리서로는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1905)가 있다. 그 이유는 서술 체제상 지문지리(地文地理)와 인문지리(人文地理)로 구분되는 데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또 『대한신지지』에서 한국의 경위도 서술도 『한국신지리』와 동일하며, 서술 내용에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신지리』가 발표된 해가 1905년인데 짧은 기간 내에 장지연이 이를 참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³⁹⁾ 이러한 의문은 장지연의 『대한신지지』가 편찬된 해인 1907년에 김건중(金建中)이 『한국

36) 『대한신지지』라는 제목이 언뜻 현재의 『대한지지』의 신판처럼 보이지만, 저자 서문에 의하면 옛 서적과 구별하기 위해 ‘신지지’로 했다고 한다.

37) 정선희(1997), 「위암 장지연의 지리적 사고와 한계 - 생애와 역사적 환경을 중심으로 -」, 『지리교육논집』 37,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8~149쪽

38) 張志淵(1907), 『大韓新地志』, 序, 徽文館

39) 정선희(1997), 앞의 논문, 152~154쪽

신지리』를 번역해 국한문 혼용체로 『신편대한지지(新編大韓地誌)』를 편찬한 것을 보면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일본에서 출간된 서적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그만큼 수용이 빨랐던 것이다.

다부치 도모히코의 『한국신지리』 제3편 처지(處誌) 제5장 「강원도(江原道)」 편에서는 울릉도를 설명하면서,

본도(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 되는 지점에 우리 오키도(隱岐島)와 거의 중앙 지점에 하나의 무인도가 있는데, 세간에서는 이 섬을 일러 '양코도(ヤンコ島)'라 칭한다.

(本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我が隠岐島との胎んど中央に當り無人の一島あり 俗に之れをヤンコ島と稱す)

라고 했다.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양코도라는 무인도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기사에서 양코도의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울릉도 항목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오키도에만 '我が'라는 표현을 써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지연이 『한국신지리』를 참조했다면 울릉도 동남쪽에 자리하는 양코도를 우산도로 서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지연의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계속 이어져 안중화(安鍾和)는 『초등대한지(初等大韓地誌)』(1907)에서 울릉도를 설명하면서 “于山島는 其 東南에 在 ㅎ 나라”라고 『대한신지』와 같은 내용을 실었다.⁴¹⁾

한편, 장지연의 우산도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증보문헌비고』(1908)가 있다. 『동국문헌비고』를 새롭게 증보한 『증보문헌비고』는 1906

년 3월에 초출작업이 완료됐으며, 1908년 7월 1일에 간행됐다. 이 책의 「여지고」 울진(蔚珍)조는 기존 『동국문헌비고』에 기술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다만 우산도의 소속에 대해 한 가지 내용이 첨가돼 있는데 다음과 같다.⁴²⁾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芋山)이다.

속(續)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이 되었다

(于山島 鬱陵島…二島 一卽芋山 ‘續’ 今爲鬱島郡)

『속(續) 지금은』이란 『증보문헌비고』를 간행한 1908년 현재란 뜻으로,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를 통해 울도군에 소속돼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에는 김택영(金澤榮)과 장지연이 참여했다. 김택영은 1903년 문헌비고 속찬위원(續撰委員)에 임명됐으며, 1905년에는 학부 편집위원을 겸직했다가 그해 겨울 모두 사직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따라서 김택영은 자료 초출작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지연은 1906년 2월 『황성신문』 사장직을 사임하고 『문헌비고』 편집위원으로 임명됐다가 그해 6월 『조양보(朝陽報)』의 편집원이 되면서 사임했다. 따라서 그가 『증보문헌비고』의 수정작업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³⁾ 그렇다면 장지연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앞에서 밝혔듯이 장지연은 울릉도 동남쪽의 양코도를 서술한 다부치 도모히코의 『한국신지리』 및 심홍택의 보고를 실은 『황성신문』(1906. 5. 9) 기사를 참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40) 金建中 譯(1907), 『新編大韓地理』, 普成館

41) 安鍾和(1907), 『初等大韓地誌』, 徽文館

42) 『增補文獻備考』 上 31, 輿地考 19, 海防 1, 東海 蔚珍

43) 박인호(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228~233쪽

리고 자신의 저술인 『대한신지지』에서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남에 있다고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했다. 여기서 그는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지리적 위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담당했던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에서의 우산도 기술은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을 담당했던 김택영이나 장지연은 독도라는 명칭을 직접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옛 이름인 우산도라고 했을 뿐이다. 이는 과거 『동국문헌비고』에서 거론한 우산도를 굳이 독도라고 변경해서 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우산도가 생소할지 몰라도 조선 시대 지지류의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사용됐던 우산도가 더 잘 알려진 명칭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명칭에 대한 변경 없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지금은 울도군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독도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IV.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와 독도 인식

1908년 편찬된 『증보문헌비고』를 끝으로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이 있기 까지 독도, 석도, 우산도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독도라는 명칭이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에도 울도군수가 지속해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울도군수의 보고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돼 있다. 이 장에서는 한 보고서를 분석

해 보도록 한다.⁴⁴⁾

이 보고서의 제목은 「경상남도 울도군 지방상황(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이하 「심능익 보고서」)으로 『궁내부잡철(宮內府雜綴)』이라는 표제의 문서철에 편철돼 있다. 작성된 날짜는 ‘융희 3년(1909) 1월 일’이고, 작성자는 ‘울도군수 신 심능익(鬱島郡守 臣 沈能益)’이다.⁴⁵⁾

보고서가 작성된 1909년 1월은 대한제국의 순종황제가 경상도 지역을 순시했던 때다. 순종은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 질서 하에서 국내 정세의 불안과 백성의 곤궁한 생활을 탐문하기 위해 경상도 순행, 즉 남순행을 실시했다고 한다.⁴⁶⁾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감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즉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직전에 순종의 순행을 통해 반일 감정을 완화하거나 친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⁴⁷⁾

순종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구→부산→마산 등지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1월 10일 마산을 순시할 때는 오후 3시 10분 창원부 행재소에서 경상남도 관찰사와 울도군 등 해당 지역 군수 17명이 순종을 폐현(陛見)했다. 울도군수의 보고서는 이때 궁내부에 제출됐다. 울도군 외에도 기장군, 밀양군, 동래군 등이 해당 군의 ‘지방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⁴⁸⁾

44) 이 장은 홍정원(2011),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1909)를 통해 본 울도군 상황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를 참조해 재구성했음.

45)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 장서각 소장(K2-3637)

46) 『南巡行日記』 권 1, 융희 3년(1909) 1월 10일

47) 이왕무(2007),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2호, 59~60쪽

48) 『南巡行時日記』 권 2, 「第九號 進獻品明細表」; 『內閣日記』 권 7, 융희 3년 1월 14일. 이 중에서 『궁내부잡철』에는 울도군과 기장군의 지방상황 보고서만 편철돼 있고, 밀양군과 동래군은 실려 있지 않다. 한편, 순종은 남순행에 이어 1월 27일~2월 3일에 서순행(서북순행)을 실시했는데, 이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지

울도군수 심능익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를 서술하고, 울도군의 면, 동수, 호구 및 인구수와 교통상황, 토산물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 중에서 특히 울릉도의 위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島 地方 東西 35里, 南北 40里
東 日本國 隱岐縣 海里 1千里
西 三陟地 海里 8百里
南 釜山港 海里 1千里
北 元山港 海里 1千里

여기서 본도(本島)는 섬을 가리키므로 울도군 전체가 아닌 울릉도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는 울도군이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울릉전도는 죽도, 석도를 제외한 울릉도 본섬 및 그 주변 작은 섬과 바위들을 포함한 것이었다.⁴⁹⁾ 그러므로 「심능익 보고서」에서 본군(本郡)이라 하지 않고 본도라 칭한 것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인 죽도, 석도를 제외한 울릉도 본섬만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울릉도의 섬 크기는 동서 35리, 남북 40리라고 했다. 10리를 약 4km라고 했을 때, 동서 35리의 길이는 약 14km로, 실제 거리인 10km와 다소 차이가 있다. 남북 40리 또한 약 16km로 실제 거리인 9.5km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측량에 의한 섬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오차는 인정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南巡行時日記』 권 1, 「進獻品明細表」; 『內閣日記』 권 7, 융희 3년 2월 23일).

49) 송병기(2010), 앞의 책, 214쪽

울릉도 위치를 설명하면서 동쪽으로 일본 오키⁵⁰⁾를 들었고, 서쪽은 정서쪽에 해당하는 삼척을 들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울릉도와 항로상으로 연결된 부산항과 원산항을 들었다.

그런데 울도군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한 위와 같은 서술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라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 전체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왜 울릉도만을 중심으로 언급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한제국 정부나 울도군수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1905)을 인정했다면, 동쪽 지점으로 오키가 아니라 일본령이 돼 버린 독도를 거론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순종의 남순행 때 「심능익 보고서」와 함께 궁내부에 제출됐던 기장군수(機張郡守) 구연호(具然浩)의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慶尙南道機張郡地方狀況)」(1909. 1)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울도군의 지방상황에 대한 보고서임에도, 왜 울도군 전체가 아닌 울릉도만을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했는가 하는 점이다. 울도군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명기된 것처럼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울릉도뿐 아니라, 칙령에 명기된 죽도와 석도의 위치도 모두 함께 보고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한다. 죽도는 울릉도에서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지만, 87.4km나 떨어져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다. 울도군수가 독도를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울릉도만이 아닌 독도를 포함한 위치를 보고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기장군수 구연호의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의문점은 해

50) 당시 오키(隱岐)는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오키도가 정식 행정 명칭이었다. 심능익이 오키현이라고 한 것은 오키도의 오류다.

소될 수 있다. 기장군 보고서는 울도군과 마찬가지로 기장군의 크기 및 위치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¹⁾

地方 四表 東西 60里, 南北 60里
 東接 梁山界 40里
 西接 東萊界 20里
 南 海門 20里
 北接 梁山界 40里

기장군 보고서도 울도군과 마찬가지로 군의 크기와 위치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동서남북 각 접경지까지의 거리는 군청 소재지의 관문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다. 1872년에 작성된 기장군의 지방지도를 보면, 지도의 서남쪽에 “동래계(東萊界) 자관문십오리(自官門十五里)”라고 명기돼 있다.⁵²⁾ 즉, 기장군의 서남쪽은 관문으로부터 15리 거리인 동래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장군 지도는 1909년 기장군의 보고와 각 경계나 거리가 동일하게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모두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울도군도 관문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울도군의 크기와 위치를 밝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울도군의 관문이 있던 도동으로부터 울도군 전체의 크기와 위치를 표현해야 하는데, 사방이 모두 바다인 울도군은 섬의 크기만 표현될 뿐 육지와 같은 동서남북 경계 지점이 없다. 따라서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군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죽도 및 석도(독도)의 위치는 울도군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됐던 자로, 이때는 「심홍택 보고서」가 제출된 1906년 3월과 의정부 참정대신이 지령을 내렸던 1906년 5월의 약 1년 후다. 그런데 전 군수였던 심홍택이 1907년 3월 황성군수로 임명됐기 때문에 심능익은 심홍택에게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 사이에는 실제 도입하지 않았지만, 구연수가 잠시 임명됐던 적도 있었다. 심홍택이 전근을 간 3월부터 심능익이 임명되는 8월까지 울도군 행정 공백은 울도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사 전재항(田在恒)이 군정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업무 인계상의 차질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³⁾

〈표 2〉 역대 울도군수의 재임 기간(「관보」 참조)

| 연 번 | 군수명 | 재임 기간 | 비 고 |
|-----|-----|------------------|------------------------------|
| 1 | 배계주 | 1901. 1~1901. 10 | 중추원 의관으로 전임 |
| 2 | 강영우 | 1901. 10~1902. 2 | 실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3 | 배계주 | 1902. 3~1903. 1 | |
| 4 | 심홍택 | 1903. 1~1907. 3 | 황성군수로 전임 |
| 5 | 구연수 | 1907. 6~1907. 7 | 경무사로 전임 실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6 | 심능익 | 1907. 8~1909. 8 | 용남군수로 전임 |
| 7 | 전태홍 | 1909. 8~1910. 8 | |

특히 군 관할 구역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던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에 대한 내용을 새로 부임한 군수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심홍택 보고서」는 군수가 일본 측의 방문을 받자마자 상부에 긴급 보고했을 정도로 울도군에서

51) 「慶尙南道機張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 장서각 소장(K2-3637)

52) 「機張地圖」(1872), 규장각 소장(奎10512)

53) 『官報』, 광무 11년(1907) 4월 24일

중요도가 높은 보고서였다. 더욱이 「심흥택 보고서」의 부분(副本)은 1947년 제 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 방문했을 때까지도 울릉도청에 보관돼 있었다.⁵⁴⁾ 따라서 심능익 군수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과 이를 부인했던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했다면, 울도군수가 울릉도의 동쪽으로 뭔가 지점을 찾을 때 오키도보다는 독도가 울도군과 맞닿아 있는 경계가 됐을 것이다. 특히 이 경계는 단순한 군의 경계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심능익 군수는 울도군의 동쪽 경계로 일본과 접하는 지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오키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울도군수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작은 무인도기 때문에 오키를 기점으로 했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즉, 「심능익 보고서」에서 울릉도의 동서남북은 단지 울릉도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비교적 잘 알려진 큰 지역들을 언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함께 보고됐던 기장군의 경우라든가 기타 여러 지리지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해당 군의 경계를 기본으로 그 거리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장군 보고서의 경우 동접(東接), 서접(西接), 북접(北接) 등 ‘접(接)’이라는 표현과 양산계(梁山界), 동래계(東萊界) 등 ‘계(界)’라는 표현을 써서 기장군과 인접한 경계를 밝힌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남쪽의 경우에만 바다와 맞닿아 있기

54)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일원이었던 申奭鎬 교수는 울릉도청에 소장돼 있던 「심흥택 보고서」 부분을 찾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전문을 공개했다. 한국의 독도 관련 첫 연구였다(申奭鎬(1948),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創刊號, 朝鮮史研究會, 96쪽).

때문에 계라고 하지 않고 ‘해문(海門)’이라는 표현을 썼다. 앞서 1872년 기장군 지도에서도 군의 서남쪽 경계면에 ‘동래계(東萊界) 자관문십오리(自官門十五里)’라고 주기했다. 1899년 전국 읍지 상송령으로 『기장군읍지(機張郡邑誌)』가 작성됐는데, 여기에서도 첫 시작을 동서남북 각 접경지와의 경계와 거리로서 설명해 동지(東至), 서지(西至) 등 ‘지(至)’와 양산계(梁山界), 동래계(東萊界) 등 ‘계(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⁵⁵⁾ 그러므로 기장군 보고서의 ‘계’라는 표현은 군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는 당시 해당 군의 경계를 보고서의 앞머리에 밝힌다는 문서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지 중에서도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신지지』(1907)는 도 단위로 서술했는데, 각 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경계’ 항목을 두었다. ‘위치·경계’ 항목은 동서남북으로 접하는 도명을 서술하고, 동서·남북의 길이, 위도·경도순으로 서술했다.⁵⁶⁾ 이러한 양식은 조선 시대 지리지에서 공통된 서술 형태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울도군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의 위치와 경계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대한신지지』의 부록 「각군연혁급거리

55) 『機張郡邑誌』(1899), 규장각 소장(奎10857)
 “東至海岸八里 西至梁山界三十里 南至東萊界十四里, 北至蔚山界四十九里”
 『기장군읍지』에는 동서남북 경계 지점을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 보고서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방위상 경계는 『기장군읍지』가 정확하고,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 보고서는 방위보다는 교통로상 연결된 경계 지점에 더 중점을 두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기장군의 동쪽을 바다가 아닌 ‘梁山界’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군의 위치를 설명할 때, 동서남북 경계지를 들어 설명한다는 기본 원칙은 모두 같다.

56) 張志淵(1907), 『大韓新地誌』 附錄, 徽文館
 『대한신지지』 권 2, 제3편의 경상북도조에는 蔚島를 설명하면서 “于山島는 其東南에 在하니라”라고 해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방면결호경계표(各郡沿革及距里方面結戶境界標)에서도 울도군의 경계는 공란으로 돼 있다. 다른 섬의 경우에는 인접한 내륙의 행정구역명이나 해(海), 해안(海岸)이라고만 표기하기도 했다.

울도군의 경계를 굳이 언급한다면 동서남북 모두 '해(海)'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방향에 인접해 있는 다른 행정구역과 경계까지의 거리를 제시해야 한다. 울도군수 심능익은 울릉도의 동쪽 기점으로 독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를 표기하면서 해리 1천 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울도군수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고 울도군이 독도를 관할하고 있음을, 즉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V. 맺음말

독도(獨島)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 명칭이 '독도'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때는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로 표기되던 독도가 근대 시기에는 우산도, 석도(石島), 독도(獨島) 등으로 표기됐던 것이다. 이들이 독도를 가리키는 동일한 명칭인가 아닌가가 독도 연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이 나지 않았다. 이들 여러 명칭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근대 사료에서 독도 표기가 지니는 각각의 배경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우산도=석도=독도'임을 밝히고, 울도군수가 독도를 지속해서 관할하고 있었음을 분석해 봤다.

우선 근대 사료에는 우산도를 울릉도 부속 섬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해 주목을 끈다. 『황성신문』(1899. 9. 23 차)에서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

산도와 죽도(죽서)를 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인에게도 전해져 『조선개회사』(1901)에서도 우산도와 죽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우산도에는 주를 달아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島)로 부른다고도 했다.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거론하고 있다. 앞서 『황성신문』 기사와 비교하면 죽도는 동일하고, 우산도가 석도로 바뀌어 표기됐음을 알 수 있다.

우산도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19세기 후반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내왕하면서부터로 보인다. 울릉도의 여러 지명이 이 당시 전라도민들에 의해 변칭됐다는 것은 1923년 『개벽』지의 울릉도 기행문에도 잘 설명돼 있다. 우산도라는 명칭이 기록된 문헌을 접할 수 없었던 울릉도의 전라도민들은 독도를 보고 그 형태상의 특징을 살려 '돌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돌섬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상에 석도라고 표기된 것은, 울릉도 사정을 잘 알던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돌섬을 石島라고 한자 표기해 내부에 보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칙령을 내기 위한 내부의 청의서를 보면, 이 청의서가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보첩,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의 보고서와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 포르테가 제출한 시찰록을 참작해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민들에게는 이제 독도를 가리키던 우산도라는 지명이 없어지고, 돌섬이라는 지명만 남게 됐다. 그런데 돌섬은 전라도 방언에 의해 '독섬'으로도 발음됐고, 이 독섬을 獨島라고 한자 표기한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1906)가 중앙 정부에 보고됐다. 그리고 「심홍택 보고서」 및 이에 대한 지령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 일반에 널리 전해지면서 독도라는 명칭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산도라는 지명 사용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울릉

도민들 사이에서는 우산도 지명이 사라지고 돌섬이 정착됐지만, 중앙에서는 우산도가 계속 쓰였다. 조선의 지지류들을 참조해 작성된 근대 지리지들은 모두 기존의 우산도를 그대로 표기했던 것이다. 이는 『대한신지지』(1907)와 『증보문헌비고』(1908)에서도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그대로 표기돼 있다. 『대한신지지』에서는 “우산도는 그(울릉도) 동남에 있다”고 해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 관계를 분명히 했고, 『동국문헌비고』(1770)를 증보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지금은 울도군이 됐다”고 새로 첨언해 울도군의 관할 범위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됨을 설명했다. 1908년 편찬된 관찬서인 『증보문헌비고』에 우산도(독도)가 울도군으로 서술된 것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도를 계속 통치 범위 내에 두었기 때문이다.

울도군수가 독도를 지속해서 그 관할로 했던 것은 1909년 울도군수 심능익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심능익은 1909년 1월 남순행을 실시하는 순종 황제를 알현하는 데 참석해 「경상남도 울도군 지방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하면서 시작되는데, 동쪽 지점으로 일본의 오키를 들었다. 여기서 동서남북 각 지점이 군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함께 보고된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 보고서나 기타 여러 지지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울도군수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인정했다면 국가의 경계가 되는 독도를 동쪽 지점으로 서술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울도군수가 독도를 지속해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아닌 오키섬을 동쪽 지점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는 이렇듯 1910년 일본의 강압적인 한국 병합 이전까지 한국 영토의 일부로서 울도군수가 지속해서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 회복된 한국 고유의 영토이다.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 I.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 이해의 출발점
- II. 대한민국에서 고유지명의 한자 표기와 읽기
- III. 石島와 각세섬
- IV. 石島와 獨島
- V. 맺음말: 石島·獨島에 대한 연구와 학문 일반의 문제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 · 獨島 고찰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 이해의 출발점

현재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 앞으로 독도로 통일) 문제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면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었음을, 일본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로 유리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발굴됐다. 앞으로 더 발굴될 자료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 두 나라의 연구자들은 이미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한쪽의 주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가 부지기수(不知其數)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핵심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앞으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로

이기봉

지리학 전공,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

대표논저로는 『울릉도 · 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 관련 자료 해제집: 고문헌 편』(2009, 국립중앙도서관, 공저) 등이 있다.

통일)의 다음과 같은 자료이다.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 鬱島로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호야 江原道에 附屬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야 官制中에 編入호고 郡等은 五等을 호 事.

第二條 郡廳 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호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 十九字를 刪去호고 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호고 安峽郡下에 鬱陵郡 三字를 添入호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호고 庶事 草創호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호 事.

第五條 未盡호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호야 次第 磨鍊호 事.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호 事

光武 四年 十月二十五日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의해 울릉도(鬱陵島)를 울도군(鬱島郡)¹⁾으로 승격시킨다는 앞의 내용은 울도군이 조선의 독자적인 지방행정단위 중 하나로 편제됐음을 국가 정식 법 절차에 따라 확정 지은 것이다. 따라서 “第二條 郡廳 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호 事”라는 문장으로 표현된 울도군의 관할 영역은 당연히 조선의 영토가 된다.

울릉전도(鬱陵全島)가 울도군을 구성하는 가장 큰 본섬을, 竹島가 본섬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뱃섬(竹島)을 가리킨다는 점은 대한

1) 울릉도(鬱陵島)의 이름을 울도(鬱島)로 개칭한 이유는 조선에서 고을의 이름을 두 글자로 만드는 역사적 관행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민국과 일본의 연구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다.²⁾ 하지만 또 다른 섬으로 기록된 石島에 대해 대한민국 측 연구자와 일부 일본 측 연구자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깍세섬 또는 觀音島(앞으로는 깍세섬으로 통일)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견해가 엇갈린다.³⁾

2) 본 글에서는 지명의 한자(한글) 표기에서 (한글) 부분을 한자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불리던 이름의 소리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竹島·石島·獨島처럼 논의의 전개를 위해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명 이전까지는 한자만 쓰고, 이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한자(한글) 표기의 원칙을 따른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거의 모든 연구자가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습관처럼 한자의 소리에 따라 적거나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실제로 불리던 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자제로 조심해야 한다.

3) 이에 대해서는 김영수(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통권 73호, 233~268쪽에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石島가 어떤 섬을 가리키느냐에 대해 주장한 주요 논문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石島가 현재의 독도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중 한국 측 연구자들은 당시 현재의 독도 이름이었던 돌섬의 뜻인 독섬을 石島는 한자의 뜻+뜻을 따서, 獨島는 소리+뜻을 따서 표기한 것으로 봤다.

방중현(1947), 「독도의 하루」, 『경성대학예과신문』 13;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大西俊輝 著, 권오엽 역(2004), 『독도』, 제이앤씨;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獨島·鬱陵島의 名稱變化 연구 - 명칭 변화를 통해 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증명」, 『한국학보』 91·92;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內藤正中(2005),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 69호; 배성준(2002),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선우영준(2006), 「독도 영토 권원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논문; 서종학(2008), 『「獨島」·「石島」의 地名 表記에 관한 研究』, 어문연구; 유미림(2008),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둘째, 石島가 현재의 깍세섬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下條正男(2008a), 「獨島呼称考-韓國政府版「獨島：六世紀以來韓國の領土」批判」,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호, 拓植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8b), 「獨島呼称考-韓國政府版「獨島：六世紀以來韓國の領土批判」批判-」,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平成 20年 7月), Web 竹島問題研究会

그런데 ‘石島’라고 표기된 지명의 한자 소리만으로 그것이 현재의 독도인지 꼭세섬인지 아니면 다른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울릉도와 부속 섬 관련 공문서 속에서 石島라는 표기는 앞의 자료에만 등장하며, 『황성신문』(1906. 7. 13) 기사에 “울도군의 소관 도서는 竹島, 石島이고,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여 리”라는 기록만 하나 더 나올 뿐이다.⁴⁾

시기적으로 문헌 속에 연속으로 나오는 이름이었다면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주장해도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나오는 石島가 실제로 존재했던 섬임은 분명하며, 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연구자 어느 쪽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石島는 울도군 영역의 한계를 표시하기 위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고유지명(固有地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의 石島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본 출발점이 실제로 존재한 섬에 대한 고유지명이라는 사실에 있음은 어느 나라의 연구자도 피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4) 이 신문 기사는 2008년 2월 22일 자 일본 『山陰中央新聞』에 의해 일반에 알려졌는데, 통감부가 內部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와 군청 設始 연월을 示明하라는 公函을 보내 내부에서 이를 알려준 것에 대한 기사라고 한다(홍정원(2011),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를 중심으로 -」, 『軍史』 제 80호, 160쪽).

II. 대한민국에서 고유지명의 한자 표기와 읽기

대한민국과 일본은 문명 형성기부터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 사용하던 뜻글자(表意文字)인 한자를 들여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고유지명의 표기에도 사용했다. 물론 두 나라는 한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어와 계통이 전혀 다른 고유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든 한자에 이미 중국에서 읽던 소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한자의 소리와 두 나라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던 뜻의 소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중 앞의 것은 한자의 소리(音)로, 뒤의 것은 한자의 뜻(意)으로 정착했다.

예를 들어 소리글자(表音文字)인 한글로 한자 ‘天’과 ‘地’에 대한 한자의 소리를 적으면 ‘천’과 ‘지’이지만 고유하게 전해 내려오는 뜻의 소리는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한자 ‘玄’과 ‘黃’에 대한 한자의 소리는 각각 ‘현’과 ‘황’이지만 뜻의 소리는 ‘검다’와 ‘누렇다’다.

이처럼 한자의 소리와 뜻이 구분되는 현상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한자에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부르던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소리와 뜻 중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다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작성된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⁶⁾ 4권에 수록된 경기도(京畿道) 여주군(驪州郡) 금사면(金沙面)의 행정마을 이름을 사례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5) 경기문화재단 편(2008),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 京畿道篇, 4~9쪽
6) 『朝鮮地誌資料』(古 2703-1)는 경기도(1-7) · 충청북도(8-11) · 충청남도(12-15) · 전라북도(16) · 전라남도(17-23) · 경상북도(24-31) · 경상남도(32-38) · 강원도(39-42) · 황해도(43-46) · 평안남도(47-50) · 평안북도(51-54) 등 총 54책으로 구성돼 있다.

〈표 1〉 금사면 행정마을 이름의 표기

| 번호 | 조선지리지자료 (1911) | | 분 석 | |
|----|----------------|----------------|--------|--------------------|
| | 한자 (표기된 이름) | 언문 (불리던 이름) | 한자의 소리 | 표기 형태 |
| 1 | 巢由里 | 쇼류실 | 소유리 | 소리+소리+뜻 |
| 2 | 宮里 | 궁말 | 궁리 | 소리+뜻 ⁷⁾ |
| 3 | 梨浦里 | 천양 | 이포리 | 뜻+뜻 |
| 4 | 灘項里 | 여울목 | 탄항리 | 뜻+뜻 |
| 5 | 外坪里 | 밭들 | 외평리 | 뜻+뜻 ⁸⁾ |
| 6 | 店坪里 | 점들 | 점평리 | 소리+뜻 |
| 7 | 箭北里 | 살때 | 전북리 | 뜻+뜻 |
| 8 | 上虎里 | 웃범실 | 상호리 | 뜻+뜻+뜻 |
| 9 | 下虎里 | 아래범실 | 하호리 | 뜻+뜻+뜻 |
| 10 | 釜谷里 | 가마실 | 부곡리 | 뜻+뜻 |
| 11 | 道壯里 | 도장골 | 도장리 | 소리+소리+뜻 |
| 12 | 走鹿里 | 쥬늬거리 | 주록리 | 소리+소리+뜻 |
| 13 | 上品里 | 상품실 | 상품리 | 소리+소리+뜻 |
| 14 | 下品里 | 하품실 | 하품리 | 소리+소리+뜻 |
| 15 | 獐項里 | 노루묵니 | 장항리 | 뜻+뜻+소리 |

여주군 금사면의 행정마을 15개 중에서 모두 한자의 뜻만 빌려 표기한 것이 7개이고,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 8개이며, 소리만 빌려 표기한 것은 없다. 다만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里’를 제외한 2개의 한자 표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소리만 빌려 표기한 것도 5개가 된다.

- 7) ‘里’는 행정단위의 표시를 위해 사용한 경우와 ‘마을·말·실·울’ 등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2가지로 나뉜다. 표기 형태에서는 행정단위의 표시를 위해 사용한 경우는 제외했다.
- 8) ‘천양’은 梨浦里를 구성하고 있던 중요 마을 중의 하나였으며, 梨浦는 실제로 부르던 이름인 ‘배개’를 한자의 뜻+뜻 형식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인천편) 24쪽).

〈표 1〉의 여주군 금사면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조선지리지자료』에서 한자 표기와 소리를 적은 언문(諺文, 한글) 표기가 모든 행정마을에 있는 경우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여주군 금사면처럼 한자와 언문(한글) 표기가 모두 병기된 면(面)이 많지 않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조사 방식도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조선지리지자료』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마을에 대해 실제로 부르던 이름과 한자 표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불리던 행정마을의 이름과 한자 표기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은 1966년에 시작돼 1986년에 20책으로 완간된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이다. 비록 남북분단 때문에 남한인 대한국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동일한 행정마을에 대한 다양한 표기뿐 아니라 연혁에 대한 조사도 자세하게 이뤄졌다.

『조선지리지자료』와 『한국지명총람』이 얼마나 비슷한지 여주군 금사면을 사례로 살펴보면 〈표 2〉의 ①·②와 같다. 총 15개의 행정마을 이름 중 언문(한글)으로 표기된 이름이 같은 경우가 12개, 다른 경우가 3개 있다. 12개 중 소리 표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같은 소리를 약간 다르게 표기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뿐이다.

언문(한글)으로 표기된 이름이 다른 3개 중 하나인 ‘천양’은 이포리(梨浦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마을 이름을 따서 기록한 것인데, 『한국지명총람』에서도 ‘천양’이 조사됐다.⁹⁾ 梨浦里라는 마을의 한자 표기는 앞서 각주 8)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梨(뜻: 배, 소리: 이)’와 ‘浦(뜻: 개, 소리:)’

9)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인천편), 25쪽. 천양은 1469년 여주목에 합해지면서 사라진 川寧縣의 중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천령이 주민에 의해 사용되면서 소리가 약간 바뀌어 천양이 된 것이다.

포)처럼 실제로 불리던 이름인 ‘배개’를 한자의 뜻+뜻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상품실·하품실’과 ‘위품실·아래품실’은 앞의 경우는 한자인 上·下의 소리인 상·하를 따라, 뒤의 경우는 뜻인 위·아래를 따라 표기한 것이다.¹⁰⁾

〈표 2〉 여주군 금사면의 지명 조사 비교

| 번호 | ① 조선지리지자료 (1911) | | ② 한국지명총람 (1986) | ③ 현재의 행정마을 이름 | |
|----|------------------|--------|-----------------|---------------|-----|
| | 한자 | 언문(한글) | 한글 | 한자 | 한글 |
| 1 | 巢由里 | 쇼류실 | 소우실 | 巢由里 | 소유리 |
| 2 | 宮里 | 궁말 | 궁말 | 宮里 | 궁리 |
| 3 | 梨浦里 | 천양 | 배개 | 梨浦里 | 이포리 |
| 4 | 灘頂里 | 여울목 | 여울목 | 外坪里 | 외평리 |
| 5 | 外坪里 | 밭들 | 바깥들 | | |
| 6 | 店坪里 | 점들 | 점들 | 金沙里 | 금사리 |
| 7 | 箭北里 | 살때 | 살뒀 | 箭北里 | 전북리 |
| 8 | 上虎里 | 윗범실 | 윗범실 | 上虎里 | 상호리 |
| 9 | 下虎里 | 아래범실 | 아래범실 | 下虎里 | 하호리 |
| 10 | 釜谷里 | 가마실 | 가마실 | 道壯里+釜谷里 | 도곡리 |
| 11 | 道壯里 | 도장골 | 도장골 | =道谷里 | |
| 12 | 走鹿里 | 주늬거리 | 주룩거리 | 走鹿里 | 주룩리 |
| 13 | 上品里 | 상품실 | 위품실 | 上品里 | 상품리 |
| 14 | 下品里 | 하품실 | 아래품실 | 下品里 | 하품리 |
| 15 | 獐項里 | 노루묵니 | 노루묵 | 柏子里 | 백자리 |

『한국지명총람』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로 사용하는 자연마을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조사했으며, 일부 편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모든 행정마을을 조사한 결과가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조선지리지』와

10) 한글학회(1986), 앞의 책, 27쪽

비교하면 1911년에 사용하던 행정마을의 이름이 1966년에서 1986년 사이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에 거의 모두 조사돼 있다. 이는 여주군 금사면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일제강점기(1910~1945)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행정마을의 이름 대다수가 표기된 한자 소리를 따라 불리게 됐음은 〈표 2〉의 ③과 같으며, 이 역시 여주군 금사면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행정마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됐던 다수의 하천, 섬, 산, 고개 등의 자연지명에서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100년 전에 부르던 지명의 소리와 현재 불리는 지명의 소리가 달라진 것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다.

그러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의 ‘石島’는 실제로 불리던 어떤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일까?

石島를 한자의 소리에 따라 ‘석도’라고 읽고 쓰는 연구자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 한자로 표기된 지명 대부분을 한자의 소리를 따라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0년 10월 25일에도 石島라는 구체적인 섬의 이름을 ‘석도’로 불렀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불리던 섬의 이름을 한자의 뜻과 소리 중 어느 것을 따라 표기했음은 石島를 비롯해 한자로 표기된 대한민국의 지명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려 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¹¹⁾

11) 일본 역시 실제로 불리던 섬의 이름을 한자의 뜻과 소리 중에서 선택해 표기하는 전통은 대한민국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한자의 소리만으로 읽지 않고 원래 불리던 지명을 표기하기 위해 선택했던 한자의 뜻과 소리를 구분해 읽는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다르다.

Ⅲ. 石島와 깍세섬

1. 石島의 표기 문제와 깍세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가 어느 섬을 가리키건 고유지명이었음을 부정하는 연구자는 없다. 하지만 고유지명이 쉽게 바뀔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며 주장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다. 고유지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유지명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지명이라 불릴 수 없으며, 나아가 정식 행정단위의 관할 구역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다.

울릉도 본섬 바로 주변에서 가장 큰 섬은 본섬에서 약 2.5km 떨어진 면적 0.020km², 최고 높이 118m의 유인도(有人島)인 땃섬(竹島)이다. 깍세섬은 깍새 또는 까계새가 떼를 지어 살아 주민이 붙인 순한국말 이름으로,¹²⁾ 높은 절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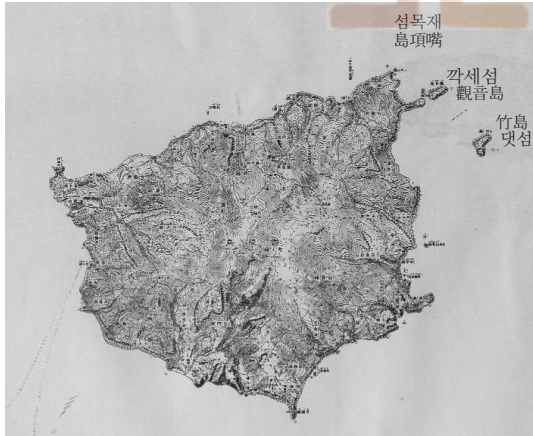


그림 1_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의 울릉도 본섬과 깍세섬 및 땃섬(竹島)

12) 한글학회(1979),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 IV), 95쪽

로 둘러싸인 면적 0.017km², 최고 높이 106m의 작은 섬이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무인도(無人島)지만 울릉도 본섬 주변에서는 땃섬 다음 두 번째로 크다.

이 같은 섬의 크기는 본섬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이지만 그 밖에 본섬 주변의 많은 작은 바위섬에 비하면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편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에 울도군의 관할 영역으로 표기된 3개의 섬 중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본섬인 울릉전도와 竹島(땃섬) 이외의 石島를 깍세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石島가 깍세섬을 가리키는 고유지명이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石島가 한자의 뜻과 소리 중 어느 것을 빌려 표기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로 불리던 이름으로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을 보면 石島는 첫째, 한자의 뜻+뜻으로 표기할 경우 ‘돌섬’, 둘째, 한자의 뜻+소리로 표기할 경우 ‘돌도’, 셋째, 소리+뜻으로 표기할 경우 ‘석섬’, 넷째, 소리+소리로 표기할 경우 ‘석도’라 불리던 섬이 된다.

<표 3> 한자의 뜻과 소리에 따른 石島

| 한자 표기 | 한자의 뜻(意) | | 한자의 소리(音) | | 가능한 이름 |
|-------|----------|---|-----------|---|--------|
| | 돌 | 섬 | 석 | 도 | |
| 石島 | ○ | ○ | | | 돌섬 |
| | ○ | | | ○ | 돌도 |
| | | ○ | ○ | | 석섬 |
| | | | ○ | ○ | 석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표기한 고유지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리던 이름은 앞의 네 가지 경우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역시 고유지명이기 때문에 1900년 10월 25일 이전이나 이후에 지속해서 불렀거나 불리지 않았더라도 공식·비공식 자료에 표기된 흔적을 남겼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각세섬에는 石島라 표기될 수 있는 이름이 사용됐거나 표기된 자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2. 이규원의 「鬱陵島外圖」와 각세섬

울릉도로 건너가 생업활동을 하던 조선인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882년 이규원이 고종의 명령을 받고 울릉도검찰사가 되어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동안 체류하면서부터다. 이때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규원의 보고서인 『울릉도검찰일기』의 「계초본」에 의하면 당시 울릉도에 있었던 일본인은 78명이었고, 조선인은 140명이었다.¹³⁾ 물론 이들 조선인 대부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인 주거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를 출신별로 정리한 것이 <표 4>다.

140명 중 대다수는 13~24명씩 한 단을 이뤄 장기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때때로 미역을 따다가 작업이 끝나면 만든 배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밖에 약재를 캐는 사람과 대나무를 베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13) 이해은·이형근(2006),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해양수산개발연구원, 192~199쪽. 같은 책 200~216쪽에는 「계초본」의 해석본이 수록돼 있는데, 낙안 거주 이경철이 데리고 있던 격줄 20명이 12명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

<표 4> 이규원이 만난 조선인의 출신도 분포¹⁴⁾

| 울릉도 지점 | 출신도 | | | | 합계 |
|-------------|----------|--------|----------------|------------------|------------|
|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도 | 전라도 | |
| 작은황토구미 | | | | 24(홍양) | 24 |
| 큰황토구미 | 14(평해) | | 7(경주) 2(연일) | | 23 |
| 예산창 | | | | 21(낙안) 20(홍양) | 41 |
| 나라골 | | 1(파주) | | | 1 |
| 성인봉 동 10여 리 | | | 1(함양) | | 1 |
| 도방청 | | | | 14(홍양) | 14 |
| 장작지 | | | | 13(홍양) | 13 |
| 통구미 | | | | 23(홍양) | 23 |
| 합계(%) | 14(10.0) | 1(0.7) | 10(7.2) | 115(82.1) | 140(100.0) |

140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영구적인 주거지로 삼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가는 상태였다. 이규원이 성인봉 동쪽 10여 리의 초막에서 만난 함양 출신의 약초 캐는 전석규(全錫奎)는 섬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 섬의 형편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만한 곳, 각종 토산물 등 모르는 것이 없어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만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고유지명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각세섬과 관련이 있는 해안지명 위주로 이때의 조사 결과를 그린 이규원의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에 수록된 지명을 정리한 것이 <표 5>다. 한자로 표기된 총 38개의 지명 중 1979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

14) 현재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연일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홍양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낙안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포함돼 있다.

7(경북편 IV)의 울릉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21개로 전체의 55.3%에 이른다. 그리고 실제로 불리던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도 뜻과 소리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울릉도외도」의 한자 지명

| 번호 | 울릉도외도 (1882) | 한자의 소리 | 한국지명총람 (1979) | 한자의 표기 형태 | 현재 위치 |
|----|--------------|--------|---------------|---------------|---------|
| 1 | 可支窟 | | | | |
| 2 | 谷浦 | 곡포 | 골개·골계 | 뜻+뜻 | 서면 남서리 |
| 3 | 窟巖 | 굴암 | 굴바위 | 소리+뜻 | 서면 남서리 |
| 4 | 羅里洞 | 나리동 | 나릿골 | 소리+소리+뜻 | 북면 나리리 |
| 5 | 老姑巖 | | | | |
| 6 | 大巖 | | | | |
| 7 | 待風邱尾 | 대풍구미 | 대풍구미 | 소리+소리+소리+소리 | 북면 태하리 |
| 8 | 大黃土邱尾 | 대황토구미 | 큰황토구미 | 뜻+소리+소리+소리+소리 | 북면 태하리 |
| 9 | 道方廳 | 도방청 | 도방청 | 소리+소리+소리 | 울릉읍 도동리 |
| 10 | 島頂 | 도항 | 섬목·섬메기 | 뜻+뜻 | 북면 천부리 |
| 11 | 門巖 | | | | |
| 12 | 沙汰邱尾 | 사태구미 | 새태구미 | 소리+소리+소리+소리 | 서면 남서리 |
| 13 | 山幕洞 | 산막동 | 산막골 | 소리+소리+뜻 | 서면 태하리 |
| 14 | 蒜峰 | | | | |
| 15 | 石間朱穴 | | | | |
| 16 | 船板邱尾 | | | | |
| 17 | 小黃土邱尾 | 소황토구미 | 작은황토구미 | 뜻+소리+소리+소리+소리 | 서면 태하리 |
| 18 | 倭船倉 | 왜선창 | 예선창 | 소리+소리+소리 | 북면 천부리 |
| 19 | 雄甯邱尾 | | | | |
| 20 | 將軍巖 | | | | |
| 21 | 長斫之 | | | | |
| 22 | 鎗岩 | | | | |
| 23 | 葶浦 | 저포 | 모시개 | 뜻+뜻 | 울릉읍 저동 |
| 24 | 冑巖 | 주암 | 투구방우 | 뜻+뜻 | 울릉읍 저동 |

| | | | | | |
|----|------|------|---------|-----------|--------|
| 25 | 竹島 | 죽도 | 댓섬·대섬 | 뜻+뜻 | 울릉읍 저동 |
| 26 | 倡優巖 | | | | |
| 27 | 千年浦 | 천년포 | 천년포 | 소리+소리+소리 | 북면 천부리 |
| 28 | 燭大巖 | | | | |
| 29 | 錐峰 | 추봉 | 송곳산 | 뜻+소리 | 북면 나리리 |
| 30 | 桶邱尾 | 통구미 | 통구미 | 소리+소리+소리 | 서면 남양리 |
| 31 | 風巖 | | | | |
| 32 | 香木邱尾 | 향목구미 | 향나무(구미) | 소리+뜻+(소리) | 서면 태하리 |
| 33 | 玄浦 | 현포 | 가물개·가문개 | 뜻+뜻 | 서면 남양리 |
| 34 | 兄弟巖 | | | | |
| 35 | 紅門街 | 홍문가 | 홍문(동) | 소리+소리+(뜻) | 북면 천부리 |
| 36 | 虹霓巖 | | | | |
| 37 | 華巖 | | | | |
| 38 | 黑斫之 | 흑작지 | 가문짜지 | 뜻+소리+소리 | 북면 현포리 |
| | 38 | | 21 | | |

이것은 이미 고유지명의 상당수가 만들어져 사용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100년 가까이 지난 1979년에도 계속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울릉도검찰일기』의 「계초본」에는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던 고유지명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땅 이름은 小黃土邱尾(작은황토구미)인데[地名小黃土邱尾]”¹⁵⁾, “땅 이름은 谷浦(골개 또는 골계)라고 합니다[地名日谷浦]”¹⁶⁾ 등이 나온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본섬과 함께 기록된 竹島와 石島 중 竹島도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순한국말 이름인 댓섬을 竹(뜻: 대, 소리: 죽)과 島(뜻: 섬, 소리: 도)란 한자의 뜻+뜻의 형태로 기록한 것

15) 邱尾는 바닷가가 내륙으로 휘어져 들어가 배를 대기 알맞은 곳을 의미하는 만(灣)의 순한국말 ‘구미’를 한자의 소리+소리를 따라 표기한 것이다.

16) 浦는 물가를 의미하는 순한국말 ‘개’를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으로, 한자의 소리를 따서 溪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竹島임을 1979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들은 한자로 竹島라 표기된 섬을 댛섬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는 현재의 깍세섬이 어떤 이름으로 표기돼 있는가. 깍세섬 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가 아니라 ‘島項’이란 이름이 표기돼 있다. 이규원의 자료만으로는 島項의 순한국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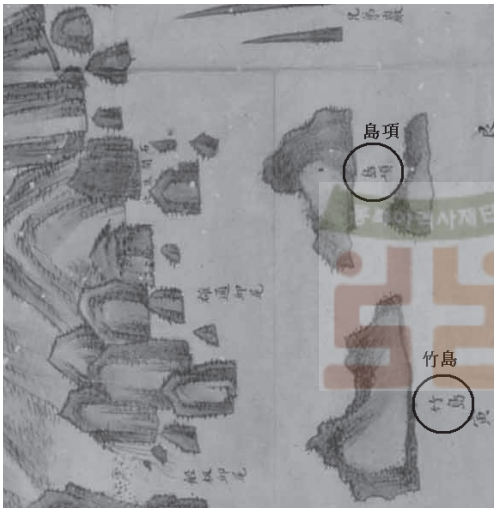


그림 2_ 이규원의 「울릉도외도」(1882)에 그려진 島項과 竹島

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지명총람』의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있는 순한국말 이름인 섬목¹⁷⁾을 한자인 島(뜻: 섬, 소리: 도)와 項(뜻: 목, 소리: 항)의 뜻+

17) 섬메기라고도 표기돼 있는데, ‘메기’는 ‘목’의 사투리(方言) 중 하나다.

뜻 형태로 기록한 것이 島項이라는 사실이 조사돼 있다.¹⁸⁾ 물론 『한국지명총람』에는 島項(섬목)이 깍세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깍세섬과 육지 사이의 좁은 물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과 육지 사이의 좁은 물살 지역을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넘기는 좁은 통로인 ‘목’에 비유해 ‘○○목’으로 부르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와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사이의 좁은 바다 지역을 ‘울돌목’이라 부르며 한자로는 뜻+뜻(+뜻)의 형태인 ‘鳴梁(項)’이라 쓴다.¹⁹⁾ 또 하나의 예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사이의 좁은 바다 지역을 ‘손돌목’이라 부르며 한자로는 소리+소리+뜻의 형태인 ‘孫石項’이나 소리+뜻+뜻의 형태인 ‘孫石項’이라 쓴다.²⁰⁾

결국 島項(섬목)이란 이름이 형성된 것은 울릉도 본섬과 깍세섬 사이의 좁은 바다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자 울릉군 북면 천부리의 섬목이란 자연마을의 이름으로도 사용됐고, 현재 한 가구밖에 남지 않은 곳으로 변했지만 계속 섬목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좁은 바다인 울돌목 바로 부근에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의 자연마을 이름으로 울돌목 또는 울두목이 사용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²¹⁾

목뿐만 아니라 고개, 나루, 여울, 바위, 산 등의 자연지명이 바로 부근에 들 어선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 제강점기인 1911년에 조사된 『조선지리지자료』의 울도군에도 錐山(송곳산), 卵

18) 한글학회(1979), 앞의 책, 95쪽
 19)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 IV, 제주편), 18쪽
 20) 한글학회(1985),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103·272쪽
 21) 한글학회(1984), 앞의 책, 157쪽

峰(알봉), 竹岩(대방우·판방우), 光岩(구암), 龜岩洞(굴바우), 石門洞(돌문골), 馬岩(말방우) 등 자연지명이 마을 이름으로 변한 경우가 많이 기록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 島項(섬목)이란 이름을 좁은 물목 바로 옆에 있는 깍세섬 위에 표기해 놓은 것도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울릉도검찰일기』의 「계초본」에도 이규원이 島項(섬목)이란 이름을 깍세섬과 울릉도 본섬 사이의 좁은 물목이 아니라 깍세섬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음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또 (배를 댈 수 있는) 하나의 물가(浦)가 있는데, 이름 하여 缸板邱尾라고 합니다. (그) 남쪽 바다 가운데에 2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형체가 누운 소와 같고 좌우로 돌면서 형세가 서로 껴안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竹島(땃섬)이라 하고, 또 하나는 島項(섬목)이라 하는데, 단지 대나무만 무성하게 자랄 뿐입니다.

又有一浦 名曰缸板邱尾 南邊洋中 有二小島 形如臥牛 而左右回旋 勢若相抱 一曰竹島 一曰島項 只有叢竹而已.

앞의 기록에 나오는 島項(섬목)은 분명히 깍세섬을 가리키는데, 이규원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사람들이 붙여서 사용하던 순한국말의 고유지명을 한자의 뜻+뜻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1882년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왕의 명을 받은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동안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조사할 때 지명, 특히 해안가의 지명도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했다.

둘째, 이규원이 조사해 「울릉도외도」에 표시한 38개의 울릉도 지명 중

55.3%인 21개가 1979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에서도 확인될 만큼 상당수의 고유지명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울릉도 본섬 바로 주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기록된 세 섬 중의 하나였던 竹島(땃섬)이 「울릉도외도」에 표기돼 있다.

넷째, 「울릉도외도」에 그려진 깍세섬 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가 아니라 1979년에도 확인되는 島項(섬목)이 표기돼 있다.

3. 鼠項島(1910) · 觀音島(1918)와 깍세섬

1882년 8월 20일 울릉도 개척령이 국가적으로 내려지면서 울릉도의 영구 정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83년 4월에 울릉도 개척 때 들어가야 할 선박, 양식, 잡물(雜物)의 가량(假量)에 관한 성책이 작성됐는데, 사공과 결꾼 20명 및 목수와 대장장이 각각 2명 등 개척민으로 가는 사람을 3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²²⁾

1883년 7월에는 울릉도에 새로 들어온 민호 인구의 성명과 나이 및 전토의 개간 수효에 관한 성책이 만들어졌다.²³⁾ 大黃土浦(큰황토구미)에 4가구, 谷浦(골개)에 5가구, 錐峰(송곳산)에 2가구, 玄圃洞(가문짜치)에 5가구 등 총 16가구 54명이 흩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光緒九年四月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奎 17041); 유미림·조은희(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쪽에서 재인용.

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光緒九年七月 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交成冊」(奎17117); 유미림·조은희(2008), 앞의 책, 17쪽에서 재인용.

〈표 6〉 『독립신문』(1897. 4. 8)의 「외방 통신」에 기록된 마을 이름과 호구 수

| 동리 통계 | | | | | |
|-------------------|--------------|-----|-------|------|------|
| 동리 | 현재 위치 | 가호 | 인구 | 남자 수 | 여자 수 |
| 저포동 | 울릉읍 저동리 모시개 | 27 | 101 | 54 | 47 |
| 도동리 | 울릉읍 도동리 도방청 | 14 | 54 | 34 | 29 |
| 사동 ²⁴⁾ | 울릉읍 사동리 사태구미 | 33 | 153 | 95 | 58 |
| 장흥동 | 울릉읍 사동리 장흥동 | 35 | 151 | 86 | 65 |
| 남양동 | 서면 남양리 골개 | 26 | 138 | 75 | 63 |
| 현포동 | 북면 현포리 가문짜지 | 29 | 120 | 78 | 43 |
| 태하동 | 서면 태하리 태하동 | 19 | 82 | 45 | 39 |
| 신촌 | 울릉읍 사동리 신촌 | 20 | 70 | 45 | 25 |
| 광암리 | 북면 나리리 구명바위 | 7 | 30 | 18 | 12 |
| 턴부동 | 북면 천부리 천부동 | 45 | 155 | 82 | 73 |
| 라리동 | 북면 나리리 나릿골 | 22 | 83 | 50 | 33 |
| 11동 | 실제 합계 | 277 | 1,137 | 662 | 487 |
| 전체 통계 | | | | | |
| 12동 | 독립신문 통계 | 397 | 1,134 | 662 | 472 |

1897년 4월 8일의 『독립신문』 「외방 통신」에는 울릉도 도감이 조사해 보고한 울릉도의 호구 수와 동리의 이름이 〈표 6〉처럼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²⁵⁾ 동리에 따라 가호·인구·남자·여자의 수가 조사된 것인데, 각 동리의 통계와 전체 통계가 약간 차이 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별 무리는 없다.

동리의 통계를 실제로 합산한 것에 기초하면 11개 마을에 277호 1,137명이 살고 있었으며, 전체의 통계로 제시한 것에 기초하면 12개 마을에 397호 1,134명이 살고 있었다. 아울러 11개 마을을 현재의 위치로 보면 울릉도의 중

24) 독립신문에서는 마을(동리)의 이름이 모두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한자의 소리로만 적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르던 이름은 독립신문에 한글로 표기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많은데, 〈표 6〉의 현재 위치에 실제로 부르던 이름을 적어 놓았다.

25) 유미림·조은희(2008), 앞의 책, 93쪽에서 재인용.

요 주거지 대부분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0년 6월에는 내부에서 시찰위원으로 파견한 우용정이 울릉도를 시찰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울도기」란 이름으로 보고한다. 마을마다 호구 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거주민이 400여 가구, 남녀 합해 1,700여 명으로 나와²⁶⁾ 3년 전인 1897년 4월 8일의 『독립신문』 「외방 통신」에 기록된 인구수인 1,134명이나 1,137명보다 약 600명 안팎 정도가 많다.

이와 같은 마을의 확산과 인구의 증가가 강원도 울진군의 관할 아래 있던 울릉도를 국가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수(郡守)를 파견해 직접 다스리는 강원도 울도군으로 승격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유지명의 생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울릉도 대부분의 지역이나 장소에 고유지명이 만들어져 사용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배경이 됐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00년 안팎에 실제로 불리던 울릉도의 고유지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다행히 『조선지리지』의 경상남도 울도군 부분에 〈표 7〉처럼 한자로 표기된 지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언문(韓契)으로 기록해 놓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가 포고된 1900년 안팎에 얼마나 활발하게 고유지명이 만들어져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유미림·조은희(2008), 앞의 책, 122~126쪽 참조.

〈표 7〉 『조선지리지』에 수록된 경상남도 울도군 지명

| 조선지리지(1911) | | | 한자의 소리 | 한국지명총람 (1979) |
|-------------|--------|--------|--------|------------------|
| 종별 | 지명(한자) | 언문(한글) | | |
| 山名 | 朱砂山 | | 주사산 | 주사(산) |
| 川名 | 朱砂川 | | 주사천 | 주사(내) |
| 溪名 | 愚伏洞溪 | 우복동걸 | 우복동계 | 우복동(걸) |
| 山名 | 冠帽峰 | | 관모봉 | 갈미봉 |
| 峙名 | 間巖峙 | 간영지 | 간령치 | 간령재 |
| | 沙洞峙 | 아룩사지 | 사동치 | 와룩사(재) |
| | 苧洞峙 | 모시기지 | 저동치 | 조동재 |
| | 羅里峙 | 라리골지 | 나리치 | 나리재 |
| 洞名 | 道洞 | | 도동 | 도동·도방청 |
| | 沙工里 | 사공넘이 | 사공리 | 사구나미 |
| | 苧洞 | 모시기 | 저동 | 모시개 |
| | 朱砂谷 | 주사골 | 주사곡 | 주사골 |
| | 新興洞 | | 신흥동 | 적은모시개 |
| | 內守田 | | 내수전 | 내수전 |
| | 臥達里 | | 와달리 | 와다리 |
| | 沙洞 | | 사동 | 사동 |
| | 內平田 | | 내평전 | 안평전 |
| | 玉泉洞 | 우복동 | 옥천동 | 옥천동 |
| | 長興洞 | | 장흥동 | 장흥동 |
| | 新里 | | 신리 | 신리 |
| | 蓮花洞 | | 연화동 | 연화동 |
| 山名 | 內周峰 | 안두루봉 | 내주봉 | (안)두루봉 |
| | 外周峰 | 밖두루봉 | 외주봉 | (밖)두루봉 |
| | 蟾山 | 독겁산 | 섬산 | |
| | 架梁山 | | 가사산 | |
| 溪名 | 石門洞溪 | 석문골물 | 석문동계 | 남양천 |
| | 南西溪 | 남서골물 | 남서계 | 남서천 |
| | 台霞川 | 태하동네 | 태하천 | 태하천 |
| 峙名 | 通九味峙 | 통구미지 | 통구미치 | 통구미(재) |
| | 龜岩峙 | 굴방위지 | 구암치 | 굴바우(재) |

| | | | | |
|----|------|-------|------|--------|
| | 馬岩峙 | 말방위지 | 마암치 | 말방우(재) |
| | 台霞峙 | 황토구미지 | 태하치 | 골개재 |
| 洞名 | 通九味洞 | | 통구미동 | 통구미 |
| | 石門洞 | | 석문동 | 돌문골 |
| | 南陽洞 | 골기 | 남양동 | 골개 |
| | 龜岩洞 | | 구암동 | 굴바우 |
| | 囉叭嶺 | | 나팔동 | 나팔동 |
| | 鶴圃洞 | | 학포동 | 학포동 |
| | 馬岩 | 말바위 | 마암 | 말방우 |
| | 山幕谷 | 산막골 | 산막곡 | 산막골 |
| | 台霞洞 | | 태하동 | 태하동 |
| | 香木洞 | | 향목동 | 향나무재 |
| 山名 | 彌勒山 | | 미륵산 | 미륵산 |
| | 草峰 | | 초봉 | 셋봉 |
| | 錐山 | 송곳산 | 추산 | 송곳산 |
| 川名 | 錐山川 | 송곳산너 | 추산천 | 송곳산(내) |
| 洞名 | 玄圃洞 | 감은작지 | 현포동 | 가문짜지 |
| | 雄通浦 | 웅통기 | 웅통포 | 웅풍개 |
| | 平里洞 | | 평리동 | 평리 |
| | | | 新村 | 신촌 |
| | 光岩 | 구암 | 광암 | 구암 |
| | 羅里洞 | | 나리동 | 나릿골 |
| | 卵峰 | 알봉 | 난봉 | 알봉 |
| | 錐山 | 송곳산 | 추산 | 송곳산 |
| | 天府洞 | | 천부동 | 천부동 |
| | 古船昌 | 예선창 | 고선창 | 예선창 |
| | 石圃洞 | 정돌포 | 석포동 | 정들개 |
| | 竹岩 | 딴방위 | 죽암 | 대방우 |
| | 58 | 32 | | 56 |

〈표 7〉을 보면 한자로 표기된 지명은 58개이고, 실제로 불리던 소리를 적은 언문(한글)으로 표기된 지명도 32개나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자로 표기

된 58개의 지명 중 56개가 1979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의 경상북도 울릉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11년경에 조사된 고유지명이 1979년까지도 지속해서 사용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 바로 부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깍세섬에 대한 고유지명 역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지리지』의 경상남도 울도군 부분에는 섬의 지명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깍세섬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속 石島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다행히 1910년에 편찬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²⁷⁾와 1917년의 측량 결과를 담은 1918년에 간행한 「1:5만 지형도」²⁸⁾에 울릉도 본섬 주변의 섬 이름이 자세히 적혀 있다.

『한국수산지』에는 현재의 땃섬 위에 竹嶼가, 깍세섬 위에 鼠項島가 기록돼 있다. 이 중 竹嶼가 竹島와 마찬가지로 순한국말 이름인 땃섬을 한자의 뜻+뜻 형식을 빌려 한자로 표기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측 연구자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앞의 자료에 나오는 鼠項島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明治 42년(1909) 6월에 간행된 해도(海圖) 「竹邊灣至水源端」의 분도(分圖)에 鼠項島의 한국어 발음이 가타카나로 ‘ソモクソム(소모쿠소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石島의 한국어 발음인 ‘소쿠소무(소쿠소무)’와 비슷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²⁹⁾

한국의 한자 지명에 대한 시모조 마사오의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의 지명

은 한국의 소리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같은 글의 같은 쪽에서 鼠項島를 島項의 별칭(別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개의 한자 지명이 하나의 소리로 불리던 순한국말 이름에 대한 서로 다른 한자 표기였을 뿐이라는 점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鼠項島는 분명히 순한국말 지명을 한자의 한국어 소리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순한국말 지명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라 표기하는 한국의 전통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 왜 한자로 표기됐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鼠項島가 순한국말의 어떤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인지 이해하기 위해 한자의 일본어 발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명 연구의 기본자세를 의심해야 할 만큼 큰 문제다.

鼠項島에서 鼠의 ‘뜻 : 소리’는 ‘쥐 : 서’, 項의 ‘뜻 : 소리’는 ‘목 : 항’이다. 따라서 한자의 뜻과 소리를 통해 鼠項으로 표기된 순한국말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쥐목’, ‘쥐항’, ‘서목’, ‘서항’ 네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 중 ‘서목’은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서 한자의 뜻+뜻 형식인 島項으로 표기된 순한국말 이름인 ‘섬목’을 한자의 소리(鼠)+뜻(項)에 따라 표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목’과 ‘섬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순한국말 이름을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할 때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표 1>에서도 ⑫의 ‘주늬’이 한자의 소리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면서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走鹿(주룩)’으로 기록된 것이 그러한 예인데, 한자의 소리가 순한국말 이름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순한국말 이름인 ‘섬목’을 한자 鼠項으로

27) 韓國農商工部水産局 編纂(1910), 『韓國水産誌』 第2輯, 龍山 印刷局, 706~717쪽
 28) 본 자료는 종로도서관 홈페이지(<http://jnlib.sen.go.kr/>)→전자도서관→고문헌 원문 검색서비스 바로가기→한국근대지도자료→경상북도→울릉도 순서로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9) 下條正男(2008a), 앞의 글, 50쪽; (2008b), 앞의 글, 16쪽

표기하면서 그 뒤에 島란 한자를 덧붙인 것을 통해 ‘섬목’이 섬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1882년 이규원이 현재의 깍세섬에 島項이라 표기한 것이 실수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불리던 이름에 기초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시모조 마사오가 鼠項島에 적혀 있다고 지적한 ‘ソモクソム(소모쿠소무)’는 ‘섬목섬’이란 순한국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운 일본의 가타카나로 적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石島의 한국어 발음을 ‘소쿠소무(소쿠소무)’로 보고 있는데, 이는 石島가 한자의 소리+뜻 형태로 순한국말 이름인 ‘석섬’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섬목섬’과 ‘석섬’, 그리고 뒤의 섬을 제외한 ‘섬목’과 ‘석’이 같은 발음이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뿐이다.

순한국말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石이란 한자가 ‘석’이란 순한국말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란 순한국말의 뜻을 표기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지명 표기를 조금이라도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시모조 마사오는 한국의 지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서, 일본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어려운 가타카나로 된 발음에 기초해 논리를 전개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표 8〉은 1918년에 간행한 「1:5만 지형도」의 울릉도 본섬 주변의 섬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지명총람』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일본식 한자 표기라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반영하지 못한 ‘一本立島·三本立’을 제외한 8개가 1979년까지 실제로 불리던 이름에 대해 한자의 소리와 뜻을 딴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1918년에는 울릉도 바로 부근 섬의 고유지명이

모두 만들어져 사용됐다고 볼 수 있으며, 깍세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표 8〉 「1:5만 지형도(1918)에 표기된 울릉도 부근의 섬 지명

| | 1:5만 지형도(1918) | 한자의 소리 | 한국지명총람(1979) | 한자 표기 형태 |
|---|----------------|----------|--------------|----------|
| 1 | 孔岩 | 공암 | 구무방우·구명바우 | 뜻+뜻 |
| 2 | 一本立島(竹岩) | 일본립도(죽암) | 판방우·대방우 | 뜻+뜻 |
| 3 | 三本立 | 삼본립 | 삼선암(三仙岩) | |
| 4 | 島項嶺 | 도항취 | 섬메기재 | 뜻+뜻+뜻 |
| 5 | 觀音島 | 관음도 | 관음굴·깍세섬 | |
| 6 | 竹島 | 죽도 | 땃섬 | 뜻+뜻 |
| 7 | 胄島(北亭岩) | 주도(북정도) | 투구방우·북리바위 | 뜻+뜻 |
| 8 | 燭臺岩 | 촉대암 | 촛대방우 | 소리+소리+뜻 |
| 9 | 水雷岩 | 수뢰암 | 수뢰방우·가재방우 | 소리+소리+뜻 |

그런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竹島(땃섬)이 분명하게 나옴에도 함께 기록된 石島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깍세섬에는 한자의 石島 표기와 연결할 수 없는 觀音島가 표기돼 있을 뿐이다.

觀音島는 깍세섬 해안의 절벽에 태양의 빛에 따라서 다섯 색 또는 일곱 색으로 변해 불교의 관음보살이 산다고 생각되는 관음굴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³⁰⁾ 현재도 관음굴이라 하므로 오래전부터 깍세섬 전체를 가리키는 고유지명 중의 하나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4. 石島와 깍세섬의 관계에 대한 소절

石島가 울도군의 관할 영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30) 한글학회(1979), 앞의 책, 95쪽

(1900)에 기록된 1900년 10월 25일은 울릉도에 사람이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진 1882년 8월 20일로부터 18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영구 거주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400여 가구 1,700여 명이나 됐고, 울릉도의 중요한 마을 대다수를 개척해 거주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주민에 의해 왕성하게 생성돼 한자로 기록된 지명 대다수는 1979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고유지명이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기록된 울릉도 부속 섬 2개 중의 하나인 竹島 역시 이미 이 시기에 주민에 의해 불리던 순한국말 고유지명인 댓섬을 한자의 뜻+뜻의 형식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울릉도 본섬과 부속 섬 관련 문헌이나 지도 자료에서는 각세섬과 관련해 한자로 표기된 石島라 불릴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가 보더라도 石島가 각세섬을 가리킨다고 주장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石島가 각세섬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현상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자의 자세로 보기가 어렵다.

IV. 石島와 獨島

1. 獨島와 ‘독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리고 있는 ‘독도’는 한자로 표기된 獨島를 한자의 소리로 읽으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는 한자로 표기된 지명 대부분을 한자의 소리에 따라 읽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경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獨島가 처음으로 기록될 때 실제로 ‘독도’라고 부르던 이름에 대한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했다는 보장은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부르던 고유지명을 한자의 소리와 뜻을 조합해 표기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기록될 때 獨島가 실제로 어떻게 불리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지는 현재의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다뤄야 하는 문제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만 기초하면 獨島가 처음으로 표기된 문헌은 잘 알려졌다시피 다음과 같은 일본 측의 『군함신고행동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의 기록에서다.

松島에서 리앙코르드岬 實見者로부터 聽取한 情報. 리앙코르드岬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略하여 ‘리앙코島’라고 호칭한다. 별첨한 略圖와 같이 두 개의 岩嶼로 되어 있다. 西嶼은 높이가 약 400呎로 오르기가 곤란하지만 東嶼은 비교적 낮고 雜草가 자라며 頂上은 약간 平坦한 땅이 있어서 2, 3개의 小舍를 건설하기에 適하다고 한다.³¹⁾

이 기록에서 松島[마쓰시마]가 현재의 울릉도고, 리앙코르드岬이 현재의 독도라는 사실은 어느 나라의 연구자나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松島에서 리앙코르드岬 實見者로부터 聽取한 情報”은 ‘울릉도에서 (현재의) 독도를 실제로 본 사람에게서 듣고 조사한 정보’라는 의미로, 실제 조사에 기초한 기록임이 분명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따라서 “리앙코르드岬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코島’라고 호칭한다”는 기록은 1904년 9월 25일을 전후한 시기에 울릉도

31) 신용하 편저(1999),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53쪽 참조

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의 독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기록에 등장하는 獨島는 문자로 기록된(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한인(韓人)이 부르던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다음으로 獨島가 표기된 문헌 역시 잘 알려졌다시피 1906년 3월 29일(음력 3월 5일)에 작성된 조선 측의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다. 여기에는 “本郡所屬獨島”라는 표현이 나와 현재의 독도를 한자로 獨島라고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홍택의 보고서가 강원감사를 거쳐 중앙에 보고되자 같은 해 4월 29일에 내부에서 “獨島領地之說”이란 문구가 포함된 지령이 내려진다.

이어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5월 1일 자로 「雜報: 無變不有」란에 “獨島之稱”이란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가 나온다. 또한 『황성신문』에서도 5월 9일 자로 「雜報: 鬱倅報告內部」란에 “本郡所屬獨島”라는 문구가 담긴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獨島라는 한자 표기의 이름이 울릉도에서 중앙으로 보고됐고, 아울러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황현(黃鉉, 1855~1910)이 『매천야록(梅泉野錄)』 권 5의 1906년 4월 기록에 “울릉도에서 바다 동쪽으로 100리에 섬이 하나 있는데, 獨島라고 한다. 예전에 울릉도에 소속됐는데, 왜인이 억지로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면서 조사하고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남기게 됐다.³²⁾ 그 결과 현재의 독도에 대한 한자 표기로 獨島가 일반화됐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 기록만으로는 獨島가 실제로 부르던 어떤 소리

32) 황현 저·국사편찬위원회 편(1955), 『梅泉野錄』, 新志社, 375쪽. “獨島：距鬱陵島洋東百里 有一島曰獨島 舊屬鬱陵島 倭人勒稱其領地 審查以去”

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한자의 소리에 따라 읽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고, 울릉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獨島가 한자의 소리에 따라 독도로 읽히게 되면서 현재의 독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³³⁾

하지만 울릉도 사람들이 처음부터 獨島의 한자 소리인 독도와 같은 발음으로 섬의 고유지명을 만들어 불렀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獨島는 울릉도 사람들에게 의해 실제로 불리던 섬 이름의 소리를 한자의 뜻과 소리를 조합해 표기한 것일 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자라도 실제로 부르던 고유지명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조합해 표기하던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2. 일본의 獨島 영토화에 대한 조선 측 반응

일본 내각에서 현재의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명명하며 영토 편입을 결정한 것이 1905년 1월 28일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수록한 것은 같은 해 2월 22일이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현재의 독도에 대한 이러한 영토 편입 사실을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 사실을 처음으로 안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다음과 같은 1906년 3월 29일의 「심홍택 보고서」³⁴⁾를

33) 1897년 4월 8일의 독립신문을 정리한 <표 6>에는 한자로 표기된 울릉도의 마을(동리) 이름을 한자의 소리로 읽은 사례가 나온다. 순한국말 이름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표기하는 방식에 정확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울릉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통해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34) 梁泰鎮 編(1979), 各觀察道案 第1冊, 「報告書號外」, 『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1906

접하면서다.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호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田太郎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郎 巡查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多少호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옵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伏望 等因으로 准此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伏望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이러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조선 정부 의정부는 4월 29일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指令 第三號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호니 諸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查報호 事³⁵⁾

조선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5월 1일 자 『대한매일신보』와 5월 9일 자 『황성신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년 3월 28일 일본인 내방, 3월 29일(음력 3월 5일) 긴급 보고
35) 各觀察道案 第1冊, 1906년 4월 29일 조, 「(報告書號外에 대한) 指令 第3號」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内部에 報告호되 日本官員一行이 來到本郡호야, 本郡所在獨島는 日本屬地라 自稱호고 地界濶狹과 戶口結總을 一一錄去라 호았는디 内部에서 指令호기를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謬然이라 호았더라.³⁶⁾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内部에 報告호되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인디 本月四日에 日本官人一行이 來到官舍호와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田太郎과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郎과 巡查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인디 戶總人口와 土地生産多少와 人員及經費幾許와 諸般事務를 調査錄去호았다더라.³⁷⁾

앞의 자료를 보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3월 28일(음력 3월 4일) 일본의 관인(官人) 일행이 獨島가 당시 일본의 영토가 됐기 때문에 시찰 차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빨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獨島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에 보고해 판단의 결과를 듣고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울도군수 심흥택은 보고서의 첫머리에 “本郡所屬獨島”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 獨島가 울도군의 관할 아래 있는 섬임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어 “在於外洋百餘里外”라는 서술을 통해 이 보고서 속의 獨島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받은 조선의 내부와 의정부가 일본이 獨島를

36)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일 자, 「雜報: 無變不有」; 신용하 편저(1999), 앞의 책, 178쪽 참조
37) 『皇城新聞』 1906년 5월 9일자, 「雜報: 鬱倅報告内部」; 신용하 편저(1999), 앞의 책, 178쪽 참조

영토로 했다는 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는 지령을 내리고 있어 獨島에 대한 확실한 영토의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와 조선 내부의 지령을 요약해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보도한 『황성신문』 역시 獨島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6년 조선에서는 울도군과 심홍택의 보고서를 중앙에 보고한 강원감영이라는 지방정부, 내부와 의정부로 대표되는 정부,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모든 단계에 걸쳐 獨島의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獨島와 石島

1960년대 이후 일어난 급속한 한국 경제 성장의 성과가 산림에 반영돼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에는 숲이 울창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독도에는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아 어디서 봐도 돌만 보인다. 독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섬인 東島와 西島 모두 작은 건축물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한 돌산이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3_ 현재의 독도, 각세섬과 뗏섬(竹島)

이와 같은 모습은 비슷한 크기의 각세섬이나 그보다 약간 큰 뗏섬(竹島)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두 섬 모두 높은 절벽으로 이뤄져 있지만 정상 부근에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무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독도와 각세섬, 뗏섬 등 세 섬을 놓고 '돌섬'이란 뜻의 石島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다면 누가 보아도 현재의 독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세 섬이 모두 울릉도 본섬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었다면 외면상의 차이 때문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울릉도 본섬에서 각세섬과 뗏섬(竹島)이 언제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약 50m와 약 2.5km 떨어진 반면 현재의 독도는 날씨가 아주 맑아야만 보이는 89.4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1900년 10월 25일 당시 현재의 독도가 울릉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



그림 4_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돼 앞의 두 섬과 비교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에서는 1900년에서 아주 가까운 1904년과 1906년에 獨島 즉, 현재의 독도 존재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유권 인식 역시 확고했음이 자료로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측에서는 石島와 獨島의 한자 차이에 초점을 맞춰 두 섬이 같은 섬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石島가 각세섬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이런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측에서 獨島에서의 獨의 소리인 ‘독’이 ‘돌(石)’과 같다는 언어적 측면에서 石島가 獨島 즉,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

현재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한자의 소리로만 읽는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에 따라 1904년과 1906년의 문헌 속에 나오는 獨島의 한자 소리인 ‘독도’가 고유지명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1904년에서 1906년 당시에는 실제로 부르던 어떤 이름을 한자의 소리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일 뿐이다.

물론 조선 시대(1392~1910)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리글자인 한글로 지명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리던 이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제강점기(1910~1945)에 獨島로 표기된 지명이 실제로 불리던 이름의 소리가 소리글자인 한글이나 일본의 가타카나에 의해 기록된 자료도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자로 표기된 지명 중 실제로 불리던 이름의 소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지명을 소리글자인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소리글자인 한글이나 일본의 가타카나로 기록된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1966년에서 1986년 사이에 20책으로 간행된 대한민국의 『한국지명총람』에는 1특별시·2직할시·9도 등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거의 모든 한자 지명뿐만 아니라 행정마을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자연지명과 인문지명까지 조사돼 있다. 또한 <표 2>의 예에서 제시한 것처럼 1911년의 『조선지리지자료』에 기록된 한자·언문(한글)과 『한국지명총람』의 한자·한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 이를 통해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한자 지명이 실제로 불리던 순한국말 이름의 소리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거의 모두 복원할 수 있다.

본 글에서 관심을 두는 獨島는 1979년 10월 31일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 IV)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독도(獨島) [독섬]’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사실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다른 사례를 통해 獨島가 ‘독섬’이라는 순한국말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였는지를 보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지명총람』에서 순한국말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獨島처럼 첫 번째 위치에 ‘獨’이 있는 경우를 모두 뽑아낸 것이 <별표 1>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원래부터 한자 이름으로 지명이 만들어진 경우, 둘째, 원래부터 한자 이름으로 지명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순한국말 이름을 표기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별표 1>은 순한국말 이름의 첫 번째 한자 표기에 ‘獨’이 나오는 경우로 총 133개가 조사됐다.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을 비롯해 비슷한 발음인

‘똥·덱·뎃·똥·덱·통·뚝·뎃·뎃’, 뒤의 글자와의 연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간·도개·도가·도끼·도깨’ 등 한자 獨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 116개(87.2%)나 됐다. 반대로 獨의 뜻인 ‘홀로, 따로, 외롭다’에서 온 ‘홀·오·외·판·땅·윗’ 등을 따서 표기한 것은 15개(11.3%)였으며, 미상이 2개(1.5%)였다.

따라서 순한국말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쓰인 獨이란 한자는 주로 뜻이 아니라 소리를 따서, 그중에서도 ‘독’의 소리를 따서 표기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의 문헌에 나오는 獨島의 獨이 순한국말 이름의 ‘독’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한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獨島에서의 島(뜻: 섬, 소리: 도)가 순한국말 이름의 ‘섬’에 대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의 문헌에 나오는 獨島가 ‘독섬’에 대한 한자 표기라는 『한국지명총람』의 기록이나 한국 측의 주장은 ‘獨’이란 한자의 사용 용례로 봤을 때 부정하기 어렵다.³⁸⁾

그러면 獨島에서 ‘獨’이란 한자의 소리로 표기된 순한국말 소리인 ‘독’이 石島의 石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역시 『한국지명총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한자 石의 뜻에 대한 대한민국의 표준말은 ‘돌’인데, 대한민국의 지명 중 ‘돌(石)’과 관련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에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수록돼 있다. 이렇듯 표준말만 기준으로 본

38) 신용하(1998, 앞의 글, 25쪽)도 살펴봤듯이 이와 동일한 예가 전라남도 금산면의 오천리에서 나타나는데, 본섬인 금산면의 거금도에 비해 작은 바위섬인 독섬이 한자로 는 獨島로 표기됐다. 바위섬이라는 서술어는 없지만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에서도 독섬이 獨島로 표기됐다. 위쪽에 있는 옷독섬을 上獨島로, 아래쪽에 있는 아릿독섬을 下獨島로 표기했다. 모두 본섬인 수치도와 상수치도에 비해 작은 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면 ‘독(獨)’과 ‘돌’의 소리가 달라서 獨島=石島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 표준말 ‘돌(石)’과 동일한 뜻이면서 ‘독’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표 2〉는 표준말 ‘돌(石)’과 동일하게 사용된 ‘독’이 순한국말 지명에서 가장 앞쪽에 오는 경우만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명총람』에 ‘돌(石)’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만 뽑았다. 예를 들어 용례로 보아 ‘돌(石)’과 같은 뜻으로 쓰였음이 거의 분명하게 판단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모두 제외했다.

〈별표 2〉를 보면 순한국말 이름의 첫 번째 글자에서 ‘돌(石)’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독’의 사례로 총 319개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확인됐다. 또한 319개의 ‘독’ 중에서 〈별표 3〉처럼 ‘독’이 표준말인 ‘돌’과 같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자 ‘石’으로 표기된 사례도 68개나 나왔다.

따라서 ‘독섬(獨島)’에서의 ‘독’이 표준어인 ‘돌(石)’을 의미하며, 순한국말인 ‘독섬’을 한자의 소리+뜻을 따서 표기한 獨島가 한자의 뜻+뜻을 따서 표기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와 동일하다는 대한민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음도 자명하다.³⁹⁾

그러면 왜 ‘돌섬’이 아니라 ‘독섬’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동안 체류한 후 조사해 올린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 기록된 조선인 140명의 출신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⁴⁰⁾ 이 연구에서는 조선인 140명

39) 신용하(1998, 앞의 글, 26)는 『한국지명총람』에서 ‘독섬’이라 불리는 6개의 섬을 추출해 제시했다. 이 중 돌과 관련된 서술어 있는 경우가 4개인데, 본 조사에서도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나머지 2개는 그런 서술어 없어 본 조사에서는 생략했다.

40) 신용하(1998, 앞의 글, 19쪽)

중에서 전라도 사람이 전체의 85%(정확하게 말하면 82.1%)나 되는 115명이라는 점,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돌’을 주로 ‘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돌섬’이 아니라 ‘독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앞의 연구에서는 전라도에서 ‘돌’을 ‘독’으로 발음한다는 주장과 함께 몇 개의 사례만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해 주장했다는 반박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바로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된 ‘돌’ 관련 ‘독’ 지명의 도별 분포를 정리한 <표 9>다.

<표 9> 순한국말 ‘돌(石)’ 관련 ‘독’ 지명의 도별 분포(『한국지명총람』)

| 道 | 돌(石) 관련 ‘독’ 지명 수(%) | 道 | 돌(石) 관련 ‘독’ 지명 수(%) |
|-------|---------------------|------|---------------------|
| 강원도 | 1(0.3) | 전라남도 | 181(56.7) |
| 경기도 | 9(2.8) | 전라북도 | 70(22.0) |
| 경상남도 | 10(3.2) | 제주도 | 3(0.9) |
| 경상북도 | 11(3.5) | 충청남도 | 31(9.7) |
| 부산직할시 | 0(0.0) | 충청북도 | 0(0.0) |
| 서울특별시 | 1(0.3) | 합계 | 319(100.0) |
| 인천직할시 | 2(0.6) | | |

전체 319개 중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것이 절반을 넘는 56.7%인 181개를 차지하며, 전라북도까지 합하면 무려 78.7%에 이르는 251개에 해당한다. 이것을 전라도 사람이 전체 140명 중에서 82.1%인 115명에 달했다는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기록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독도가 ‘돌섬’이 아니라 ‘독섬’이란 이름으로 불렸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82년 당시 현재의 독도에 ‘독섬’이라는 이름이 붙어 사용될 수 있었는지, 나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느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1882년 당시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 기록된 조선인 140명 모두가 하루나 이틀 머무는 일시적인 여행객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며 주로 배를 만드는 등 생업활동을 하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울릉도와 본토를 왕복할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기 좋은 곳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울릉도 본섬의 해안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섬에도 높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1882년에 이규원 일행이 조사결과에 기초해 그려 올린 울릉도 해안가의 지도 「울릉도외도」의 한자 지명 38개 중에서 21개가 1979년의 『한국지명총람』에서도 확인될 만큼 강한 생명력의 고유지명이었다. 특히 울릉도 바로 주변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섬 위에 1979년 『한국지명총람』에서도 확인되는 竹島(뱃섬)과 島項(섬목)의 이름이 적혀 있다. 따라서 1882년이나 그 이전에 울릉도에 와서 생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 사용된 울릉도 본섬 해안가와 주변의 중요한 부속 섬의 지명은 후대에 전해질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진 고유지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882년경에는 울릉도와 본토 사이에 140명 안팎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복할 뿐만 아니라 울릉도 주변을 항해하는 현상이 지속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농업으로 정착해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현재의 독도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돼 ‘독섬’이란 지명이 부여돼 사용되면서 점차 고유지명화 됐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4. 시모조 마사오의 石島·獨島 이해 태도 비판

시모조 마사오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5년 6월에 발간한 홍보 소책자인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에서 19세기 후반 石島와 獨島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서술한 내용을 반박하면서 獨島란 호칭은 1904년 일본인에 고용된 울릉도 섬사람들이 당시 ‘량코(リャンコ)島’라 불리고 있던 竹島[다케시마에 건너온 후부터 시작됐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게다가 근세 말의 竹島(다케시마, 한국의 獨島)는 량코島라 불렸지 石島는 아니었다는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는 石島와 獨島의 음운관계를 강조하기 전에 량코島와 石島의 음운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⁴¹⁾

필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獨島,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에 수록된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석도와 독도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연구자 중 하나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기록된 石島(독섬)을 통해 볼 때 19세기 후반기가 되면서 독섬이 광범위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야지 “쓰이기 시작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독섬’이란 이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 그것의 한자 표기에 불과했던 ‘石島와 獨島’ 그리고 그것의 한자 소리인 ‘석도와 독도’가 광범위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도, 6세기 이래 우리의 영토』에 대해 정확한 문헌을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며 반박한 시모조 마사오의 견해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한자 표기 지명인 獨島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 1904년 9월 25일의 『군함신고행동일지』라는 것은 관련 연구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록된 것의 상한선을 보여줄 뿐 獨島란 한자 표기나 그것에 해당하는 순한국말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상

41) 下條正男(2008a), 앞의 글, 49쪽; (2008b), 앞의 글, 15쪽

한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연구 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명한 문헌적 근거를 대지 않고 獨島란 호칭이 1904년 일본인에게 고용된 울릉도의 섬사람들이 당시 량코島라 불리던 竹島(다케시마)에 건너온 후부터 시작됐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모조 마사오의 일반적인 연구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둘째, 근세 말의 竹島(다케시마, 한국의 獨島)는 량코島라 불렸지 石島는 아니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측에서는 石島와 獨島의 음운관계를 강조하기 전에 량코島와 石島의 음운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는데, 이 역시 시모조 마사오가 견지하려고 했던 연구자의 자세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확한 문헌 근거로 주장하려는 연구자라면 “량코島라고 불렸다는 문헌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만 石島라고 불렸다고 직접 단정 지을만한 문헌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측에서는 량코島와 石島 사이에 음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충고해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시모조 마사오의 이런 문제점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여러 연구에서도 관찰되며, 필자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문제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스스로 분명한 문헌적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주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필자는 문헌적 근거를 정확하게 대는 것이 중요하지만 원래 역사라는 것이 모두 문헌에 기록돼 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문헌 기록을 찾되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현상의 큰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자 중 한 명이다.

V. 맺음말: 石島·獨島에 대한 연구와 학문 일반의 문제

구체적인 단어는 다르지만 문법 등에서 같은 언어 계통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문명 형성기부터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던 한자를 빌려 와 지명 표기에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가 전혀 다른 중국어 발음에 기초해 만들어진 한자의 소리와 고유하게 사용되던 뜻이 분리돼 한자를 이해하게 된 것 역시 동일하다. 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언어 계통이면서 한자를 빌려 와 지명을 표기한 경험이 있는 몽골·만주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고유한 지역 말로 불리던 지명을 한자의 뜻과 소리의 조합을 통해 표기했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한자 뜻을 빌려 표기한 지명도 한자 소리로 읽는 것이 일반화됐고, 이는 현재까지도 한자 뜻을 빌려 표기한 지명은 한자 뜻에 따라 읽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모든 연구는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느 것을 선택해 표기하게 됐는지 항상 염두하면서 논리를 전개해야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기록된 '石島'가 현재의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가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측과 일본 측의 연구자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모습이다. 다만 石島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한자로 표기된 지명이라는 점은 어느 측이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따라서 石島에 대한 연구가 대한민국의 한자 표기

와 읽기 전통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적이나 연구 관점을 떠나 학문 일반이 지켜야 하는 기초적 문제다.

이는 '石島'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獨島·竹島·竹嶼·島項·鼠項島' 등 순한국말 이름으로 불렸음이 확실한 한자 표기 지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이들 지명을 한자의 소리에 따라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표기되던 시점의 상황을 연구할 때도 '석도·독도·죽도·죽서·도항·서항도' 등 한자의 소리로 읽거나 쓰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태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독도 문제와 관련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의 일차적 잘못은 대한민국 지명에 대한 한자의 표기와 읽기 문제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한자 소리로만 읽고 썼던 대한민국 측의 다수 연구자에게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명의 한자 표기와 읽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본 측 연구자들의 태도 역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며, 그 때문에 나타난 연구 결과 역시 재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1900년 안팎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섬 이름에 대한 표기에서 본 글의 결론을 짚막하게 정리하면 순한국말 이름으로 불리던 당시의 한자(한글) 표기는 '石島(독섬)·獨島(독섬)·竹島(땃섬)·竹嶼(땃섬)·島項(섬목)·鼠項島(섬목)'으로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역사 연구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은 국적이나 관점을 초월한 학문 일반의 문제이며, 지명을 대상으로 한 石島·獨島 문제의 연구에서도 꼭 지켜져야 하는 연구의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별표 1〉 『한국지명총람』 순한국말 이름의 첫 번째 한자 표기에 나오는 獨의 사례

| 市道 | 위치 | | | 불리던 이름 | 한자 표기 | 한자 소리 | 뜻 | 소리 | 미상 |
|-----|-------|-----|------|--------|--------|--------|----|----|----|
| | 市·郡·區 | 面 | 洞里 | | | | | | |
| 강원 | 명주군 | 구정면 | 어단리 | 독바우 | 獨峯 | 독암 | | ○ | |
| | 삼척군 | 도계면 | 신기리 | 동무산 | 獨妙山 | 독묘산 | | ○ | |
| | 양양군 | 서면 | 영덕리 | 독조암 | 獨坐岩 | 독좌암 | | ○ | |
| | | | 양양읍 | 조산리 | 탄섬 | 獨島 | 독도 | ○ | |
| | 원성군 | 소초면 | 교향리 | 독점 | 獨店 | 독점 | | ○ | |
| | 춘성군 | 서면 | 덕두원리 | 독가맛골 | 獨柯洞 | 독가동 | | ○ | |
| | 평창군 | 대화면 | 개수리 | 외솔배기 | 獨松亭 | 독송정 | ○ | | |
| 홍천군 | 남면 | 화전리 | 독장골 | 獨長谷 | 독장곡 | | ○ | | |
| 경기 | 광주군 | 오포면 | 매산리 | 땀미 | 獨山 | 독산 | ○ | | |
| | 김포군 | 김단면 | 당하리 | 독쟁이 | 獨亭, 篤亭 | 독정 | | ○ | |
| | | | 걸포리 | 오염 | 獨島, 孤島 | 독도, 고도 | ○ | | |
| | | | 개곡리 | 독굴 | 獨谷 | 독곡 | | ○ | |
| | | | 시암리 | 독용말 | 獨龍洞 | 독용동 | | | |
| | 송탄시 | 독곡동 | | 외재울 | 獨谷 | 독곡 | ○ | | |
| | 시흥군 | 의왕읍 | 청계리 | 독정이 | 獨亭里 | 독정리 | | ○ | |
| | 안성군 | 서운면 | 송정리 | 독징이 | 獨亭 | 독정 | | ○ | |
| | 여주군 | 홍천면 | 다대리 | 독보들 | 獨湫들 | 독보들 | | ○ | |
| | 용인군 | 모현면 | 왕산리 | 땀미 | 獨山 | 독산 | ○ | | |
| 포천군 | 군내면 | 유교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 신북면 | 기지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 영중면 | 양문리 | 독글·돌글 | 獨訖 | 독홀 | | ○ | |
| 화성군 | 팔탄면 | 창곡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고성군 | 고성읍 | 월평리 | 독번덕 | 獨蕃坪 | 독번평 | | ○ | | |
| | | 동해면 | 장좌리 | 외배미 | 獨野 | 독야 | ○ | | |
| | | 하일면 | 오방리 | 땀매 | 獨山 | 독산 | | ○ | |
| 경남 | 김해군 | 생림면 | 도요리 | 독매 | 獨山 | 독산 | | ○ | |
| | | | 생림리 | 독점 | 獨占 | 독점 | | ○ | |
| | 남해군 | 창선면 | 동대리 | 독뫼 | 獨山 | 독산 | | ○ | |
| | | | 수산리 | 독망골내 | 獨亡 | 독망 | | ○ | |
| | | | 연덕동 | 독매 | 獨山 | 독산 | | ○ | |

| | | | | | | | | | | |
|-----|-----|------|------|-------|-----|-----|----|---|---|--|
| 경남 | 사천군 | 곤명면 | 은사리 | 독뫼동 | 獨山洞 | 독산동 | | ○ | | |
| | 산청군 | 생비량면 | 도전리 | 독뫼·땀매 | 獨山 | 독산 | | ○ | | |
| | | 생초면 | 상촌리 | 택기불 | 獨釣山 | 독조산 | | ○ | | |
| | 의령군 | 가례면 | 양성리 | 땀매봉 | 獨山峯 | 독산봉 | | ○ | | |
| | 진양군 | 미천면 | 효자리 | 독점 | 獨占 | 독점 | | ○ | | |
| | | | 사봉면 | 봉곡리 | 땀기 | 獨溪 | 독계 | | ○ | |
| | | | 수곡면 | 사곡리 | 독땀독 | 獨山 | 독산 | | ○ | |
| | 의창군 | 동면 | 봉강리 | 땀매 | 獨山 | 독산 | | ○ | | |
| | 진해시 | | 덕산동 | 독뫼 | 獨山 | 독산 | | ○ | | |
| | 창령군 | 부곡면 | 부곡리 | 독미 | 獨山 | 독산 | | ○ | | |
| | 통영군 | 한산면 | 창좌리 | 도간바우 | 獨岩 | 독암 | | ○ | | |
| | 하동군 | 청암면 | 상리리 | 땀매 | 獨山 | 독산 | | ○ | | |
| | 함양군 | 안의면 | 신안리 | 독뫼 | 獨山 | 독산 | | ○ | | |
| | | 지곡면 | 보산리 | 땀뫼 | 獨山 | 독산 | | ○ | | |
| 합천군 | 쌍백면 | 평구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 경산군 | 고산면 | 신매동 | 뫼기뫼 | 獨仁池 | 독인지 | | ○ | | | |
| | | 조곡동 | 독자골 | 獨子골 | 독자골 | | ○ | | | |
| | | 매남동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 경주시 | | 황성동 | 땀매 | 獨山 | 독산 | | ○ | | | |
| 고령군 | 은수면 | 법동 | 독점내 | 獨店川 | 독점천 | | ○ | | | |
| 군위군 | 의흥면 | 읍내동 | 독지바위 | 獨花岩 | 독화암 | | ○ | | | |
| 경북 | 금릉군 | 감문면 | 삼성동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 | 평촌리 | 땀뫼 | 獨坪 | 독평 | ○ | | | |
| | | | | 황정리 | 땀내땀 | 獨山 | 독산 | | ○ | |
| 달성군 | 구지면 | 화산동 | 땀미산 | 獨山 | 독산 | | ○ | | | |
| | | 월배면 | 송현동 | 땀뫼 | 獨山 | 독산 | | ○ | | |
| 대구시 | 동구 | 봉무동 | 도개미 | 獨岩 | 독암 | | ○ | | | |
| 봉화군 | 춘양면 | 서벽리 | 독묘산 | 獨山 | 독산 | | ○ | | | |
| 상주군 | 내서면 | 서원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 | | 이안면 | 문창리 | 독미안 | 獨美洞 | 독미동 | | ○ | | |
| 성주군 | 가천면 | 신계동 | 땀미골 | 獨山 | 독산 | | ○ | | | |
| | | 선남면 | 관화동 | 독뫼 | 獨山 | 독산 | | ○ | | |
| 안동군 | 풍산읍 | 계평리 | 독지골 | 獨池谷 | 독지곡 | | ○ | | | |

| | | | | | | | | | |
|-----|-----|------|------|-------|-----|-----|-----|---|---|
| 경북 | 영덕군 | 강구면 | 소월리 | 동미 | 獨山 | 독산 | | ○ | |
| | | 남정면 | 도천리 | 덕짓골 | 獨自谷 | 독자곡 | | ○ | |
| | | 창수면 | 신기리 | 독작골 | 獨曹谷 | 독조곡 | | ○ | |
| | 영일군 | 송라면 | 방석리 | 만돌 | 獨石 | 독석 | ○ | | |
| | | 신광면 | 사정리 | 독매산 | 獨山 | 독산 | | ○ | |
| | | 지행면 | 임중리 | 독미 | 獨山 | 독산 | | ○ | |
| | 영주군 | 단산면 | 사천리 | 독피 | 獨山 | 독산 | | ○ | |
| | 영천군 | 영천읍 | 채신리 | 독조골못 | 獨造堤 | 독조계 | | ○ | |
| | | 화산면 | 가상리 | 독조골 | 獨造谷 | 독조곡 | | ○ | |
| | 예천군 | 유천면 | 고산리 | 오미 | 獨山 | 독산 | ○ | | |
| | 울진군 | 온정면 | 선구리 | 독실 | 獨실 | 독실 | | ○ | |
| | | | 원선미리 | 탄산 | 獨山 | 독산 | | ○ | |
| | | 울진읍 | 읍남리 | 독뚝골 | 獨頭谷 | 독두곡 | | ○ | |
| | 월성군 | 양북면 | 봉길리 | 뚝바위 | 獨岩 | 독암 | | ○ | |
| | | 외동면 | 괘릉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청송군 | 부동면 | 나리 | 독매 | 獨山 | 독산 | | ○ | |
| | | 파천면 | 중평리 | 만봉 | 獨峯 | 독봉 | ○ | | |
| | 서울 | 동대문구 | | 이문동 | 도끼말 | 獨基村 | 독기촌 | | ○ |
| 종로구 | | | 연건동 | 도깨비고개 | 獨甲峴 | 독갑현 | | ○ | |
| 인천 | 남구 | 서창동 |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전남 | 고흥군 | 과역면 | 연등리 | 독대 | 獨垓 | 독대 | | ○ | |
| | | 금산면 | 오천리 | 독섬 | 獨島 | 독도 | | ○ | |
| | | 곡성군 | 죽곡면 | 화양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광안군 | 본량면 | 북산리 | 독골 | 獨谷 | 독곡 | | ○ | |
| | 광양군 | 골약면 | 태인리 | 넉섬 | 獨島 | 독도 | | | ○ |
| | 담양군 | 남면 | 정곡리 | 윗보 | 獨湫 | 독보 | ○ | | |
| | 신안군 | 비금면 | 수치리 | 독섬 | 獨島 | 독도 | | ○ | |
| | 화순군 | 도곡면 | 신덕리 | 외보 | 獨湫 | 독보 | ○ | ○ | |
| | 화순군 | 도암면 | 도장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 벽지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동면 | 천덕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동북면 | 독상리 | 옥앞 | 獨上 | 독상 | | | ○ |
| | | 이서면 | 야사리 | 독보 | 獨湫 | 독보 | | ○ | |

| | | | | | | | | | |
|-----|------|-----|-------|-------|------|-----|----|---|---|
| 제주 | 북제주군 | 구좌읍 | 연평리 | 독진포 | 獨津浦 | 독진포 | | ○ | |
| | | 한림읍 | 용포리 | 독개 | 獨浦 | 독포 | | ○ | |
| | 제주시 | | 해안동 | 도감내 | 獨近川 | 독근천 | | ○ | |
| 전북 | 고창군 | 공음면 | 석교리 | 독지샘 | 獨泉 | 독천 | | ○ | |
| | | | 장곡리 | 독지샘 | 獨井 | 독정 | | ○ | |
| | | 심원면 | 고전리 | 떡적골 | 獨自골 | 독자골 | | ○ | |
| | 남원군 | 대산면 | 풍촌리 | 독매 | 獨山 | 독산 | | ○ | |
| | 무주군 | 산천 | | 독미산 | 獨慕山 | 독모산 | | ○ | |
| | 완주군 | 고산면 | 소향리 | 독서골 | 獨首谷 | 독수곡 | | ○ | |
| | | | 구이면 | 석구리 | 독정 | 獨井 | 독정 | | ○ |
| | | 용복리 | 독배 | 獨排 | 독배 | | ○ | | |
| | 이서면 | 원동리 | 되끼거리 | 獨井峴 | 독정현 | | ○ | | |
| | 익산군 | 여산면 | 원수리 | 독저골 | 獨笛 | 독적 | | ○ | |
| | 임실군 | 임실읍 | 이인리 | 독점 | 獨山 | 독산 | | ○ | |
| | 진안군 | 백운면 | 백암리 | 독진바위 | 獨陳岩 | 독진암 | | ○ | |
| | 공주시 | 우성면 | 단지리 | 독정이고개 | 獨情峙 | 독정치 | | ○ | |
| | | | 안양리 | 도가니 | 獨安 | 독안 | | ○ | |
| 의당면 | 월곡리 | 독정이 | 獨亭 | 독정 | | ○ | | | |
| 논산시 | 광석면 | 왕전리 | 통미 | 獨山 | 독산 | | ○ | | |
| 당진군 | 우강면 | 대포리 | 독원 | 獨元 | 독원 | | ○ | | |
| | 합덕면 | 신흥리 | 독개 | 獨浦 | 독포 | | ○ | | |
| 보령군 | 웅천면 | 독산리 | 홀미·홀미 | 獨山 | 독산 | ○ | | | |
| 서산군 | 고북면 | 신상리 | 독지 | 獨只 | 독지 | | ○ | | |
| | 대산면 | 독곶리 | 독곶 | 獨串 | 독곶 | | ○ | | |
| 아산군 | 염티면 | 동정리 | 독정이 | 獨井 | 독정 | | ○ | | |
| 연기군 | 남면 | 월산리 | 독정이 | 獨亭 | 독정 | | ○ | | |
| 천원군 | 입장면 | 독정리 | 독정이 | 獨井 | 독정 | | ○ | | |
| | 직산면 | 마정리 | 덕정이 | 獨井里 | 독정리 | | ○ | | |
| 청양군 | 대티면 | 오룡리 | 독구실 | 獨古室 | 독고실 | | ○ | | |
| | | 주정리 | 독정이 | 獨亭 | 독정 | | ○ | | |
| | 청남면 | 왕진리 | 독정이나루 | 獨亭나루 | 독정나루 | | ○ | | |
| 홍성군 | 구항면 | 남산리 | 독쟁이 | 獨亨·石亭 | 독정 | | ○ | | |
| | 금마면 | 장성리 | 독귀미 | 獨貴美 | 독귀미 | | ○ | | |

| | | | | | | | | | |
|---------------|-----|-----|-----|--------------------|-----|------------------|-------------------|----------------|--|
| 충북 | 괴산군 | 장연면 | 추점리 | 독점동 | 獨店洞 | 독점동 | | ○ | |
| | 보은군 | 보은면 | 강신리 | 동매 | 獨山 | 독산 | | ○ | |
| | 제천군 | 송학면 | 송한리 | 독종말 | 獨亭村 | 독정촌 | | ○ | |
| | 증원군 | 동량면 | 손동 | 독지 | 獨知 | 독지 | | ○ | |
| 합계 (%) | | | | 133 (100.0) | | 15 (11.3) | 116 (87.5) | 2 (1.5) | |

〈별표 2〉 『한국지명총람』의 순한국말 지명에 ‘돌(石)’의 의미로 사용된 ‘독’ 사례

| 市道 | 위치 | | | 불리던 이름 | 한자 | 설명 |
|-----|-------|-----|-------|--------|--------------|-------------------|
| | 市·郡·區 | 洞·面 | 里 | | | |
| 강원 | 홍천군 | 남면 | 시동리 | 독벼루 | | 돌벼루라고도 함. |
| 경기 | 강화군 | 교동면 | 고구리 | 독고개 | 石峴 | 돌이 있었음. |
| | | 양사면 | 인화리 | 독논 | | 돌이 있음. |
| | 고양군 | 일산읍 | 산황리 | 독고지 | | 돌의 곳으로 됨. |
| | 안성군 | 안성읍 | 도기동 | 독머리 | 石頭 | 큰 돌이 박혀 있어 붙은 이름 |
| | 여주군 | 금사면 | 주록리 | 독부리산 | | 돌이 많음. |
| | | 홍천면 | 문장리 | 독지레 | | 연자방아의 돌이 많이 났음. |
| | 파주군 | 탄현면 | 낙하리 | 독우물 | | 돌 틈에서 물이 나옴. |
| | 포천군 | 영중면 | 양문리 | 독글·돌글 | 獨訖 | 돌골 |
| 화성군 | 송산면 | 독지리 | 독내·돌내 | 石川 | 돌이 많은 내가 있음. | |
| 경남 | 거창군 | 주상면 | 연교리 | 독다리 | | 넓고 큰 돌로써 잇대어 놓았음. |
| | 산청군 | 금서면 | 주상리 | 독다리 | 石橋 | 큰 돌로 놓은 다리 |
| | | 생초면 | 평촌리 | 독배기양지 | | 양지쪽에 돌이 많이 있다 함. |
| | | 차황면 | 양곡리 | 독배미 | | 돌이 있음. |
| | 울주군 | 두서면 | 북안리 | 독갓골 | | 바위가 많음. |
| | 진양군 | 금산면 | 장사리 | 독다리 | | 돌다리가 있음. |
| | 하동군 | 양보면 | 통정리 | 독배기 | | 논 가운데 돌이 박혀 있음. |
| | | 함양군 | 백전면 | 평정리 | 독마니 | |
| | 안의면 | | 초동리 | 독다리 | | 큰 돌로 만든 다리 |
| | 합천군 | 봉산면 | 노곡리 | 독배기보 | | 돌이 박혀 있음. |
| 경북 | 경산군 | 하양읍 | 대곡동 | 독지미 | | 돌이 많다 함. |

| | | | | | | |
|-----|------|-----|-------|---------|-----------|-----------------|
| 경북 | 달성군 | 구지면 | 대암동 | 독골 | | 돌산이 있음. |
| | 문경군 | 문경읍 | 각서리 | 독밭골 | | 돌이 많음. |
| | | | 진안리 | 독밭골 | | 돌이 많음. |
| | 산북면 | 약석리 | 독다리 | | 징검다리 | |
| | | 봉화군 | 춘양면 | 애당리 | 독섬배기 | |
| | 안동군 | 와룡면 | 감애리 | 독산 | | 돌로 뒀음. |
| | | 임하면 | 노산리 | 독산 | 石山 | 돌산 |
| | 월성군 | 산천 | | 독거랑 | | 돌이 많았음. |
| | | 양남면 | 화서리 | 독깃골 | | 돌이 많음. |
| | 청송군 | 청송읍 | 월막리 | 독보 | | 돌로 쌓았음. |
| 서울 | 성동구 | | 도곡동 | 독부라·독구리 | | 돌이 많이 박혀 있음. |
| 인천 | 남구 | | 만수동 | 독골 | | 돌이 많음. |
| | 북구 | | 석남동 | 독골 | 石洞 | 돌이 많음. |
| 전남 | 강진읍 | 남포리 | 독샘 | | | 둘레를 독(돌)으로 쌓았음. |
| | | | 덕남리 | 독새들 | | 독(돌)이 많이 있음. |
| | | 춘진리 | 독보 | | 돌로 막았음. | |
| | | 군동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독다리 |
| | | | 쌍덕리 | 독샘 | | 돌틈에서 물이 남. |
| | | 도암면 | 덕년리 | 독박골 | | 돌이 많음. |
| | 독배깃들 | | | | 돌이 많음. | |
| | 덕서리 | | 독등 | | 돌이 많음. | |
| | 만덕리 | | 독골 | | 독(돌)이 많음. | |
| | | | 독절골 | | 돌이 많음. | |
| | 신기리 | | 독배기잔등 | | 돌이 박혀 있음. | |
| | 용화리 | 독배기 | 石田坪 | 돌이 많음. | | |
| | | 용흥리 | 독다리 | | 독다리 | |
| | 성전면 | 성진리 | 독배기 | | 돌이 많았음. | |
| | 작천면 | 갈동리 | 독보 | | 돌로 막았음. | |
| | | 삼당리 | 독바지 | | 돌이 많음. | |
| | 칠량면 | 단월리 | 독다리 | | 돌이 많음. | |
| | | 송로리 | 독간 | | 돌이 많음. | |
| 송정리 | | 독골 | | 돌이 많음. | | |

| | | | | | | | |
|-----|-----|-----|-----|-------|----------------|--------------------|----------------------|
| 전남 | 강진군 | 칠량면 | 홍학리 | 독골 | | 돌이 많음. | |
| | 과역면 | 도천리 | 독섬 | | | 바위틈에서 물이 나옴. | |
| | | 연등리 | 독섬 | | | 돌이 많음. | |
| | 금산면 | 오천리 | 독섬 | 獨島 | | 모녀도 동남쪽에 있는 바위 섬 | |
| | | 도양면 | 오마리 | 독끝 | | 큰동네 동쪽끝에 있는 바위등성이 | |
| | 독산 | | | | 돌이 많음. | | |
| | 도화면 | 신호리 | 독골 | | | 독(돌)이 많음. | |
| | | 지족리 | 독섬 | | | | |
| | 동강면 | 장덕리 | 독섬 | | | 독(돌)이 많음. | |
| | 봉래면 | 사양리 | 독섬 | | | 독(돌)으로 뚫음. | |
| | 포두면 | 남촌리 | 독바들 | | | 독(돌)이 많음. | |
| | 곡성군 | 겸면 | 남양리 | 독보 | | 돌로 쌓았음. | |
| | | 삼기면 | 원등리 | 독시암 | | 돌틈에서 물이 나와 낚. | |
| | | 옥과면 | 율사리 | 독배기 | | 독(돌)이 박혀 있음. | |
| | | 입면 | 대장리 | 독사리 | | 독(돌)이 많음. | |
| | | 죽곡면 | 봉정리 | 독밭골 | | 돌이 많음. | |
| | 광산군 | 동곡면 | 용봉리 | 독배기 | | 독(돌)이 박혀 있음. | |
| | | 분량면 | 지산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 비아면 | 월계리 | 독시암 | | 독(돌) 사이에 있음. | |
| | | 삼도면 | 양동리 | 독바우 | 石岩 | 근처에 독(돌)과 바위가 많음. | |
| | | 서창면 | 매월리 | 독배미 | | 돌이 많이 있음. | |
| | | 입곡면 | 광산리 | 독골 | 石洞 | | |
| | | 하남면 | 월곡리 | 독산배미 | | | 독(돌)틈에서 물이 나는 샘이 있음. |
| | | | 진곡리 | 독시암 | | | |
| | 광양군 | 골약면 | 중동리 | 독재 | | 독(돌)이 많음. | |
| | | 광양읍 | 사곡리 | 독샘이 | | 물이 독(돌) 틈에서 새어 나옴. | |
| | | | 익신리 | 독새미 | | 물이 독(돌) 틈에서 새어 나옴. | |
| | 광주시 | 동구 | 용연동 | 독구멍이 | | 돌을 캐냈음. | |
| | | 북구 | 두암동 | 독시암 | | 독(돌)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 | 일곡동 | 독시암 | | 독(돌)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 서구 | 유촌동 | 독배기 | | 수살(水糲)로 세운 돌이 있었음. | |
| | 구례군 | 광의면 | 지천리 | 독배기뚝병 | | 큰 독(돌)이 있는 뚝병이었음. | |
| 구례읍 | | 봉남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 | | | | | |
|-----|-----|-------|------|-----|---------------------|-------------|
| 구례군 | 마산면 | 냉천리 | 독다리 | 石橋 | 독(돌)으로 놓은 다리가 있음. | |
| | 문척면 | 월전리 | 독밭골 | | 독(돌)이 많음. | |
| 토지면 | 금내리 | 독배기 | | | 큰 독(돌)이 박혔음. | |
| | 용두리 | 독새미 | | | 독(돌)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문평면 | 대도리 | 독골 | | | 바위가 많음. | |
| | 확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나주군 | 반남면 | 신촌리 | 독보 | | 돌로 막았다 함. | |
| | | 청송리 | 독굴 | | 돌이 많음. | |
| | 하촌리 | 독갓골 | | | 돌과 자갈이 많음. | |
| | 봉황면 | 옥산리 | 독시암 | | 바위틈에서 물이 솟아남. | |
| 왕곡면 | 송죽리 | 독배기 | | | 바위 셋이 박혀 있음. | |
| | 양산리 | 독샘 | | | 독(돌) 틈에서 물이 나옴. | |
| | 월천리 | 독배기 | | | 바위가 박혀 있음. | |
| 고서면 | 금현리 | 독징이 | | | 돌이 박혀 있음. | |
| | 산덕리 | 독배기 | | | 독(돌)이 박혀 있음. | |
| 담양군 | 금성면 | 봉서리 | 독섬 | | 돌로 이루어졌음. | |
| | | 독숨룻거리 | | | 큰 돌이 숨어 있다 함. | |
| | 남면 | 외동리 | 독재 | | | 돌이 많음. |
| | | 풍암리 | 독보 | | | 돌로 막은 보 |
| | | 대덕면 | 매산리 | 독시암 | | 돌 틈에서 물이 남. |
| 무정면 | 오봉리 | 독배기 | | | 돌이 박혀 있음. | |
| 봉산면 | 유산리 | 독백걸 | | | 돌이 박혀 있음. | |
| 월산면 | 중월리 | 독다리 | | | 독다리 | |
| | 창평면 | 용수리 | 독떼바우 | | 작은 돌이 모여 바위가 됐음. | |
| | | 일산리 | 독개재 | | | 돌이 많음. |
| 목포시 | | 눌도동 | 독바우 | 石岩 | 독바우 | |
| | | 산정동 | 독산 | 石山 | | |
| | | 석현동 | 독갓재 | 石峴 | | |
| 무안군 | 삼향면 | 왕산리 | 독매 | 石山 | 독(돌)이 많음. | |
| | 청계면 | 남성리 | 독배기 | | 돌이 박혀 있다 함. | |
| | | 월선리 | 독골 | 石谷 | | |
| 보성군 | 검백면 | 남양리 | 독시암 | | 독(돌)틈에서 물이 남. | |
| | 노동면 | 광곡리 | 독보 | | 근처에 돌이 많음. | |

| | | | | | | |
|----|-----|-----|-----|----------------|------------|-------------------|
| 전남 | 보성군 | 노동면 | 대련리 | 독보 | | 독(돌)이 많음. |
| | | 득량면 | 송곡리 | 독보 | | 돌이 많음. |
| | | | 정흥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문덕면 | 구산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별교읍 | 장양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 지동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놓음. |
| | | | 칭동리 | 독정굴 | | 돌이 많음. |
| | | 보성읍 | 옥평리 | 독보 | | 근처에 독(돌)이 많음. |
| | | 북내면 | 봉천리 | 독다리 | | 돌다리 |
| | | | | 독샘 | | 돌틈에서 물이 남. |
| | | 장천리 | 독다리 | | 돌로 만들었음. | |
| | | | 웅치면 | 대산리 | 독배기 | |
| | | 유산리 | 독보 | | 근처에 돌이 많음. | |
| | | | 율어면 | 선암리 | 독종골 | |
| | | 칠음리 |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조성면 | 구산리 | 독밭등 | | 교인돌이 있음. |
| | | | | 독보 | | 독(돌) 틈에서 물이 남. |
| | | | 매현리 | 독보 | | 근처에 독(돌)이 많음. |
| | | 회천면 | 군농리 | 독트미 | 石間 | 큰 돌 더미가 있음. |
| | | | 벽교리 | 독보 | | 보퉁을 돌로 쌓았음. |
| | | | | 독골 | | 독(돌)이 많음. |
| | 회죽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 승주군 | 별량면 | 봉림리 | 독밭 | | 독(돌)이 많음. |
| | | | 송기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 죽산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상사면 | 도월리 | 독새미 | | 독(돌)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 서면 | 구만리 | 독보 | |
| | | 압곡리 | | 독티미 | | 돌이 많음. |
| | | 송광면 | 삼청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혔음. |
| | | | 쌍암면 | 남강리 | 독배기 | |
| | | 신성리 | | 독배깃재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외서면 | 장산리 | 독보 | | 돌로 짚음. |
| | 화전리 | | 독너실 | | 돌이 많음. | |

| | | | | | | |
|----|-----|-----|------|------|------------------|---------------------|
| 전남 | 승주군 | 월동면 | 망룡리 | 독배기 | | 큰 독(돌)이 박혀 있음. |
| | | 주암면 | 복다리 | 독다리 | | 돌다리 |
| | | | 어왕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혀 있음. |
| | 황전면 | 대치리 | 독보 | | 돌틈에서 나오는 물이 수원임. | |
| | 도초면 | 죽련리 | 독만들 | | 독(돌)이 많았음. | |
| | | 비금면 | 덕산리 | 독섬계 | | 돌이 많은 섬이 있었음. |
| | 용소리 | | 독다리계 | | 돌다리가 있었음. | |
| | 신안군 | 안좌면 | 대우리 | 독고개 | 石峴 | |
| | | | 탄동리 | 독골 | | 돌이 많음. |
| | | | 향목리 | 독살매 | 石山 | 돌산 |
| | | 한운리 | 독구갯재 | | 큰 돌이 있음. | |
| | | 압해면 | 분매리 | 독배기 | | 돌이 많이 박혀 있음. |
| | | 자은면 | 면전리 | 독배미 | | 큰 돌이 있는데, 배를 뺏다 함. |
| | | 장산면 | 팽진리 | 독살매 | | 돌이 많음. |
| | | 지도면 | 태천리 | 독징이골 | 석정동 | |
| | | 하의면 | 능산리 | 독배기 | | 큰 바위가 박혀 있음. |
| | | | 후광리 | 독새미 | | 돌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흑산면 | | 태도리 | 독기미 | | 큰 돌이 있음. |
| | 진도군 | 군내면 | 녹진리 | 독골 | | 돌골 |
| | | 임회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지산면 | 와우리 | 독배기 | | 돌이 박혀 있음. |
| | 함평군 | 손불면 | 동암리 | 독다리 | | 돌다리 |
| | | | 북성리 | 독시암 | | 독(돌)으로 쌓았음. |
| | 신광면 | 유천리 | 뜰고개 | | 돌이 많음. | |
| | 함평군 | 월야면 | 영월리 | 독보 | 石湫 | 전에 독(돌)으로 짚 보가 있었음. |
| | | | 독보 | 石湫 | 전에 돌로 막았음. | |
| | 학교면 | 고막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해남군 | 마산면 | 노하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 맹진리 | 독배기 | | 돌이 박혀 있음. |
| | | | 상동리 | 독배기 | | 가운데에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독보 | | | 가운데에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 문내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북일면 | 홍촌리 | 독배기 | | 돌이 박혀 있음. | |

| | | | | | | | |
|-----|------|-----|-----|-------|--------|--------------|----------------|
| 전남 | 해남군 | 산이면 | 금호리 | 독섬 | | 독섬 | |
| | | | 덕송리 | 독배기 | | 큰 돌이 박혀 있음. | |
| | | | 덕호리 | 독바께 | | 바깥쪽에 돌이 많았음. | |
| | | | 송천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 삼산면 | 상가리 | 독보 | | 벗독을 돌로 쌓았음. | |
| | | | 신흥리 | 독다루 | | 돌다리 | |
| | | | | 독사릿빋등 | | 작은 바윗돌이 많음. | |
| | | | 원진리 | 독보 | | 부근에 돌이 많음. | |
| | | | 충리 | 독보 | | 돌이 많았음. | |
| | | 송지면 | 미야리 | 독구갯재 | | 돌고개, 석곡 | |
| | | 옥천면 | 신계리 | 독보 | | 부근에 돌이 많음. | |
| | | | 영신리 | 독생이 | | 돌우물 | |
| | | | 영춘리 | 독밭골 | | 돌이 많음. | |
| | | 현산면 | 읍호리 | 독다리 | | 돌다리가 있었음. | |
| | | | | 독밭재 | | 돌이 많음. | |
| | | | | 독선배기 | | 선돌이 있음. | |
| | | 화산면 | 가좌리 | 독배기 | | 돌이 박혀 있음. | |
| | | | | 독적막 | | 석관(石棺)이 있었음. | |
| | | | 방축리 | 독밭재 | | 돌이 있었음. | |
| | | | 삼마리 | 독꼬टे | | 돌이 많음. | |
| | | 화원면 | 산호리 | 독섬 | | 독(돌)이 많음. | |
| | | | | 독죽골 | | 독(돌)이 많음. | |
| | | 화순군 | 남면 | 북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 도곡면 | 쌍옥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가 있음. |
| | | | 도암면 | 원천리 | 독다리 | | 돌다리 |
| | | | | 지월리 | 독선배미 | | 독(돌)이 서 있음. |
| | | | 동면 | 언도리 | 독선배미 | | 독(돌)이 서 있음. |
| | | | 동북면 | 안성리 | 독재 | 石峴 | |
| 이서면 | 야사리 | | 독굴 | | 돌이 많음. | | |
| 청풍면 | 신석리 | | 독재 | 石峙 | 돌이 많음. | | |
| 제주 | 북제주군 | 추자면 | 대서리 | 독산 | 石山 | 돌산 | |
| | | 제주시 | | 도두동 | 독대기소 | | 돌이 많음. |
| | | | | 해안동 | 독송물 | | 독(돌) 속에서 물이 남. |

| | | | | | | | |
|-----|-----|-----|-----|-----|-----------|------------------------------|-------------------|
| 전북 | 고창군 | 고창읍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된 다리 있음. | |
| | | 공음면 | 덕암리 | 독산 | | 돌이 많음. | |
| | |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놓은 다리 | |
| | | | 용수리 | 독시암 | 石井 | 바위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 | 태산면 | 광대리 | 독보 | | 천연적인 돌 위에 쌓았음. |
| | | 무장면 | 강남리 | 독산 | | 석산. 돌이 많음. | |
| | | | 신촌리 | 독골 | 石洞 | | |
| | | 부안면 | 선운리 | 독배미 | | 가운데 큰 돌이 있었음. | |
| | | | 운양리 | 독부처 | 石佛 | 돌부처. | |
| | | 성내면 | 산림리 | 독보 | | 바닥이 바위로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보를 쌓았음. | |
| | | | | 독다리 | | 반반한 돌로 됨. | |
| | | | 조동리 | 독밭골 | 石田 | 돌이 많은 밭이 있음. | |
| | | 성송면 | 계당리 | 독보 | | 독(돌)으로 된 바닥 위에 보를 쌓았음. | |
| | | | 상금리 | 독고개 | 石峴 | 돌이 많음. | |
| | | 해리면 | 왕촌리 | 독시암 | | 바위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 | 공덕면 | 저산리 | 독다리평 | 돌다리가 있었다 함. | |
| | | | 금산면 | 원평리 | 독피 | 돌피 | |
| | | 김제군 | 대강면 | 사석리 | 독사리 | 石村 | |
| | | | 산동면 | 부절리 | 독다리계 | | 돌다리가 있었음. |
| | | | 운봉면 | 용산리 | 독배기 | | 돌이 많음. |
| | | 남원군 | 동진면 | 양산리 | 독다리배미 | | 돌로 된 다리가 놓여 있었음. |
| | | | 백산면 | 용계리 | 독골 | 石洞 | |
| | | | 부안면 | 상림리 | 독다리 | 石橋 | |
| | | | | 마포리 | 독섬 | | 돌로 된 작은 섬 |
| | | | 산내면 | 석포리 | 독개 | 石浦 | 돌이 많은 갯가 |
| | | | | 주산면 | 백석리 | 독다리번지 | |
| | | | 행안면 | 궁안리 | 독새암 | | 바위틈에서 물이 흘러나옴. |
| | | | | 진동리 | 독다리코 | | 옆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음. |
| 순창군 | 동계면 | 수정리 | 독매 | 石山 | | | |
| | 북흥면 | 석보리 | 독보 | 石湫 | 돌로 막은 보 | | |
| | | 어은리 | 독다리 | | 돌다리가 있었음. | | |

| | | | | | | |
|-----|-----|-----|------|--------|---------------------|-------------------|
| 전북 | 순창군 | 인계면 | 중산리 | 독배기들 | | 돌이 많이 박혀 있음. |
| | | 적성면 | 괴정리 | 독집 | | 돌 밑에 집이 있었음. |
| | | 풍산면 | 유정리 | 독보 | | 돌로 된 보가 옆에 있음. |
| | 옥구군 | 미성면 | 비안도 | 독섬 | | |
| | | | | | | |
| | 완주군 | 고산면 | 성재리 | 독보 | 石湫 | 돌로 막았음. |
| | | | | 독축골 | | 돌이 많음. |
| | | | 오산리 | 독보 | 石湫 | 돌로 막았음. |
| | | 동상면 | 신월리 | 독다리터 | | 전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음. |
| | | 봉동면 | 고천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 | 독보 | 石湫 | |
| | | 구암리 | 독보 | 石湫 | 돌로 쌓았음. | |
| | | 삼례읍 | 신탕리 | 독다리배미 | | 돌다리가 있었음. |
| | | 운주면 | 장선리 | 독뫼 | | 돌이 많음. |
| | | 이서면 | 반교리 | 독다리 | | 반석으로 놓은 다리가 있음. |
| | | | 상개리 | 독다리논 | | 조그만 돌다리가 있었다 함. |
| | | 화산면 | 운산리 | 독보 | 石湫 | 보 안에 바위가 있음. |
| | | | 춘산리 | 독선거리 | | 북편에 큰 돌이 있음. |
| | | | 대성리 | 독바들 | | 돌이 많음. |
| | | 익산군 | 여산면 | 두여리 | 독지등 | 돌기등이 있었음. |
| | 제남리 | | | 독다리골 | 石橋 | |
| | 춘포면 | | 신동리 | 독구대기다리 | | 돌이 많음. |
| | 임실군 | 둔남면 | 오암리 | 독매 | | 독(돌)으로 된 바위산이 있음. |
| | | 삼계면 | 뇌천리 | 독보 | 石湫 | |
| | | 신평면 | 대리 | 독배기 | | 돌이 있었다 함. |
| | | 임실읍 | 신안리 | 독다리 | | 넓직한 돌다리 |
| | 장수군 | 계남면 | 호덕리 | 독매 | 石山 | 돌로 된 산 |
| | 전주시 | | 인후동 | 독보 | 石湫 | 돌로 보를 쌓았음. |
| | 정읍군 | 감곡면 | 통석리 | 독선거리 | | 큰 돌이 있음. |
| | | | | 독정 | 石亭 | 돌로 된 정자가 있었다 함. |
| 덕천면 | | 하학리 | 독점 재 | 石占峙 | 돌집재 | |
| | | | 보화리 | 독선거리 | | 선돌이 있음. |
| 소성면 | | 용정리 | 독보 | | 돌로 쌓아 만들었음. | |
| | | 중광리 | 독선거리 | | 길 주변에 두 개의 선바위가 있음. | |

| | | | | | | |
|-----|-----|-----|------|------------------|---------------------|-------------------|
| 전북 | 정읍군 | 칠보면 | 축현리 | 독점 | 石井 | 바위틈에서 나는 생물이 있음. |
| | | 태인면 | 박산리 | 독선거리 | | 정자나무 밑에 비석 등이 있음. |
| | 진안군 | 마령면 | 강정리 | 독바골 | | 바위 돌이 나란히 있음. |
| | | | 평지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가 있었음. |
| | | 부귀면 | 두남리 | 독정이 | 石亭 | 크고 넓은 바위가 많음. |
| | 주천면 | 운봉리 | 독선거리 | | 근처에 돌이 서 있음. | |
| | 공주군 | 정안면 | 상룡리 | 독골 | | 돌이 많이 있음. |
| | | 탄천면 | 삼각리 | 독정이 | 石亭里 | 돌샘이 있음. |
| | 논산군 | 노성면 | 화곡리 | 독절골 | 石積谷 | 전에 절이 있었음. |
| | | 상월면 | 산성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당진군 | 당진읍 | 우두리 | 독고지 | | 돌이 곳을 이루었음. |
| | | 송산면 | 유곡리 | 독산 | | 돌이 많음. |
| 정미면 | | 신시리 | 독보 | | 돌이 많음. | |
| 함덕면 | | 신흥리 | 독개 | 獨浦 | 돌이 많이 있음. | |
| 대덕군 | 동면 | 신촌리 | 독골 | | 돌이 많음. | |
| | | 주촌리 | 독적골 | | 돌이 많이 있음. | |
| | 유성면 | 덕명리 | 독맹골 | | 돌맹이가 많음. | |
| 보령군 | 남포면 | 달산리 | 독다리 | | 어귀에 조그만 돌다리가 있음. | |
| | | 옥동리 | 독골 | | 돌이 많음. | |
| | 미산면 | 삼계리 | 독뫼 | | 돌이 많이 있음. | |
| 서산군 | 고북면 | 신상리 | 독지 | 獨只 | 돌이 있었음. | |
| | 성연면 | 오사리 | 독너들 | | 돌이 많음. | |
| | 안면 | 승언리 | 독개 | 石浦 | 갯바닥에 큰 돌이 많이 깔려 있음. | |
| | 태안면 | 동문리 | 독삼 | |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옴. | |
| 예산군 | 해미면 | 언암리 | 독샘 | | 돌로 쌓았음. | |
| | 삽교면 | 삽교리 | 독절 | | 돌 밑에 지었음. | |
| | 응봉면 | 지석리 | 독다리 | | 큰 돌로 만들었음. | |
| 청양군 | 화성면 | 수정리 | 독골 | | 돌이 많이 있음. | |
| | | 독고개 | | 독골에서 홍성읍으로 가는 고개 | | |
| 홍성군 | 구항면 | 남산리 | 독쟁이 | 獨亭·石亭 | | |
| | | 지정리 | 독샘 | | 돌 사이에서 물이 남. | |
| | 금마면 | 장성리 | 독귀미 | 獨貴美 | 산부리에 돌이 많음. | |
| | 은하면 | 대판리 | 독샘 | 石泉 |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옴. | |

| | | | | | | |
|----|-----|-----|-----|------|----|---------------------|
| 충남 | 홍성군 | 장곡면 | 상송리 | 독고개 | | 돌이 있음. |
| | | 홍동면 | 금당리 | 독다리 | | 돌다리 |
| | | | 신기리 | 독다리 | 石橋 | 보안말과 금당리 사이에 있는 돌다리 |
| | | | | 독샘배미 | | 돌로 된 샘이 있음. |
| 합계 | | | 319 | | | |

〈별표 3〉 『한국지명총람』에 순한국말 ‘독’이 한자 ‘石’으로 표기된 사례

| 市道 | 위치 | | | 불리던 이름 | 한자 | 설명 |
|-----|-------|-----|-----|--------|-------------|-------------------|
| | 市·郡·區 | 洞·面 | 里 | | | |
| 경기 | 강화군 | 교동면 | 고구리 | 독고개 | 石峴 | 돌이 있었음. |
| | 안성군 | 안성읍 | 도기동 | 독머리 | 石頭 | 큰 돌이 박혀 있어 붙은 이름. |
| | 화성군 | 송산면 | 독지리 | 독내·돌내 | 石川 | 돌이 많은 냇가 있음. |
| 경남 | 산청군 | 급서면 | 주상리 | 독다리 | 石橋 | 큰 돌로 놓은 다리 |
| 경북 | 안동군 | 임하면 | 노산리 | 독산 | 石山 | 돌산 |
| 인천 | 북구 | | 석남동 | 독골 | 石洞 | |
| 전남 | 강진군 | 군동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 용화리 | 독배기 | 石田坪 | 돌이 많음. |
| | 광산군 | 삼도면 | 양동리 | 독바우 | 石岩 | 근처에 독(돌)과 바위가 많음. |
| | | 임곡면 | 광산리 | 독골 | 石洞 | |
| | 구례군 | 마산면 | 냉천리 | 독다리 | 石橋 | 독(돌)으로 놓은 다리가 있음. |
| | | | 학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 눌도동 | 독바우 | 石岩 | 독바우 |
| | 목포시 | | 산정동 | 독산 | 石山 | |
| | | | 석현동 | 독갓재 | 石峴 | |
| | | | 왕산리 | 독매 | 石山 | 독(돌)이 많음. |
| 무안군 | 삼향면 | 월선리 | 독골 | 石谷 | | |
| | | 정흥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보성군 | 별교읍 | 지동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놓음. | |
| | | 군농리 | 독트미 | 石間 | 큰 돌 터미가 있음. | |
| | | 대우리 | 독고개 | 石峴 | | |
| 신안군 | 안좌면 | 향목리 | 독살매 | 石山 | 돌산 | |

| | | | | | | | |
|-----|-----|------|------|--------------|---------|---------------------|-------------|
| 전남 | 진도군 | 임회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함평군 | 월야면 | 영월리 | 독보 | 石湫 | 전에 독(돌)으로 짠 보가 있었음. | |
| | | | | 독보 | 石湫 | 전에 돌로 막았음. | |
| | 해남군 | 문내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 산이면 | 송천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화순군 | 남면 | 북교리 | 독다리 | 石橋 | | |
| | | 도곡면 | 쌍옥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가 있음. | |
| | | 동북면 | 안성리 | 독재 | 石峴 | | |
| | 제주 | 북제주군 | 추자면 | 대서리 | 독산 | 石山 | 돌산 |
| | | | 고창읍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된 다리 있음. |
| 전북 | 고창군 | 공음면 | 석교리 | 독다리 | 石橋 | 돌로 놓은 다리 | |
| | | | 용수리 | 독시암 | 石井 | 바위틈에서 물이 새어 나옴. | |
| | 부안군 | 무장면 | 신촌리 | 독골 | 石洞 | | |
| | | 부안면 | 운양리 | 독부처 | 石佛 | 돌부처 | |
| | | 성내면 | 조동리 | 독밭골 | 石田 | 돌이 많은 밭이 있음. | |
| | 남원군 | 대강면 | 사석리 | 독사리 | 石村 | | |
| | | | 성송면 | 상금리 | 독고개 | 石峴 | 돌이 많음. |
| | 부안군 | 부안면 | 백산면 | 용계리 | 독골 | 石洞 | |
| | | | 상림리 | 독다리 | 石橋 | | |
| | | | 산내면 | 석포리 | 독개 | 石浦 | 돌이 많은 갯가 |
| 순창군 | 동계면 | 수정리 | 독매 | 石山 | | | |
| | 북흥면 | 석보리 | 독보 | 石湫 | 돌로 막은 보 | | |
| 완주군 | 고산면 | 성재리 | 독보 | 石湫 | 돌로 막았음. | | |
| | | | 독보 | 石湫 | 돌로 막았음. | | |
| | 봉동면 | 고천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 | | | 독보 | 石湫 | | | |
| | | 구암리 | 독보 | 石湫 | 돌로 쌓았음. | | |
| 화산면 | 운산리 | 독보 | 石湫 | 보 안에 바위가 있음. | | | |
| 익산군 | 여산면 | 계남리 | 독다리골 | 石橋 | | | |
| 임실군 | 삼계면 | 뇌천리 | 독보 | 石湫 | | | |
| 장수군 | 계남면 | 호덕리 | 독매 | 石山 | 돌로 된 산 | | |

| | | | | | | |
|-----|-----|-----|-----|-----|---------------------|---------------------|
| 전북 | 전주시 | | 인후동 | 독보 | 石湫 | 돌로 보를 쌓았음. |
| | 정읍군 | 감곡면 | 통석리 | 독정 | 石亭 | 돌로 된 정자가 있었다 함. |
| | | 덕천면 | 하학리 | 독점재 | 石占峙 | 돌집재 |
| | | 칠보면 | 축현리 | 독점 | 石井 | 바위틈에서 나는 샘물이 있음. |
| | 진안군 | 마령면 | 평지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가 있었음. |
| | | 부귀면 | 두남리 | 독정이 | 石亭 | 크고 넓은 바위가 많음. |
| 충남 | 공주군 | 탄천면 | 삼각리 | 독정이 | 石亭里 | 돌샘이 있음. |
| | 논산군 | 노성면 | 화곡리 | 독절골 | 石積谷 | 전에 절이 있었음. |
| | | 상월면 | 산성리 | 독다리 | 石橋 | 돌다리 |
| | 서산군 | 안면 | 승언리 | 독개 | 石浦 | 갯바닥에 큰 돌이 많이 깔려 있음. |
| | 홍성군 | 구항면 | 남산리 | 독정이 | 獨亭·石亭 | |
| | | 은하면 | 대판리 | 독샘 | 石泉 |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옴. |
| 홍동면 | | 신기리 | 독다리 | 石橋 | 보안말과 금당리 사이에 있는 돌다리 | |
| 합계 | | | | 68 | | |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영미



- I. 머리말: 문제 설정과 연구 방법에 대한 소고(小稿)
- II.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의 형성과정 고찰
- III. 리양쿠르 록스와 해군
- IV. 맺음말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영미

I. 머리말: 문제 설정과 연구 방법에 대한 소고 (小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섬의 명칭은 섬 인지의 여부 또는 인식의 형태를 반영한다. 이 논문은 독도의 외국 명칭 중 하나인 ‘Liancourt Rocks’를 통해 근대 이행기 일본의 독도 인지 여부 또는 인식 형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ancourt Rocks는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¹⁾ 하고 붙인 이름이다. 이 명칭은 19세기 후반 한때 일부 서양지도와 일본지도, 문서 등에서 보이다가 곧 사라졌다.²⁾

- 1) 이진명(1998), 『독도, 지리상의 대발견』과 같이, 동해안에 진출한 서양 함선들에게 조선의 섬이 목격돼 명명 또는 측량되는 과정은 ‘서양 함선들에 의한 발견’ 등으로 자주 표현된다. 그러나 이 발견이라는 표현은 서양 함선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것이나 발견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따옴표를 첨부한 ‘발견’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 연구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2) 이 명칭은 아직도 미국(U.S.BGN), 유럽에서 독도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는 명칭 사용 당사자국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논쟁과는 관련 없다’ 또는 ‘제3자’라는 입

정영미

일본사·한국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독도자료집 II—竹島考證』(2006, 바른역사정립기회단), 『울릉도·독도 사수 실록』(2007, 비봉출판사, 공편), 『죽도고』(201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등이 있다.

알핏보면 이 명칭은 18~19세기 서양 함선의 동해 진출이라는 역사 현상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다케시마'³⁾ 고유영토론, 특히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의 논리 안에 이 명칭이 조립된 사실이다.

이 명칭이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05년 5월 '일본해 대대전', 즉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 발틱 함대와외의 대한해협 전투 과정에서였다. Liancourt Rocks 주변에서 벌어진 전투의 승전보를 발 빠르게 전달한 신문 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Liancourt Rocks에 모였다. 그리고 이 섬이 새로 편입한 일본의 신(新) 영토 '다케시마'라는 것이 알려지자 관심은 집중됐고, 이와 관련된 역사가 기술되기 시작했다.⁴⁾

이 과정에서 일련의 울릉도·독도 명칭 관련 연구—이하에서는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가 시작됐다. 이유는 '다케시마'의 역사 기술 과정에서 일본의 신 영토 '다케시마'가 에도 시대에는 마쓰시마라고 불렀고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켰다는 사실이 자각됐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는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포함해 일본에서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명칭의 전도(顛倒) 이유에 대해 설명해나갔다.

그리고 그 설명의 총체인 연구 성과는 1950~1960년대의 소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기 중 일본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 같

은 논리가 역사적 실체로서 '역사적 사실'⁵⁾로 정착됐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은 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일본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론=고유영토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은 이 '역사적 사실'에 조립됨으로써 일본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론=고유영토론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할 때 Liancourt Rocks가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정도·인식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일정 시점에 있었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성돼온 '다케시마' 영유권과 결부된 관심 또는 의식이나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극히 현재적인 것이며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명칭을 통해 근대 이행기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일반적 인지·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명칭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론=고유영토론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가 형성해온 '역사적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나아가 이 '역사적 사실' 안에서 Liancourt Rocks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Liancourt Rocks를 일본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론=고유영토론과 분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명칭을 명칭 그 자체로 연구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그 자체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Liancourt Rocks라고 명명하게 된

5) '역사적 사실'은 메타 히스토리적 관점, 또는 언설(言說)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사실'로 표기한다.

장 표명이 담겨 있다.

3) 독도를 가리키는 지금의 일본 명칭 竹島/다케시마는 에도 시대에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독도인 竹島는 '다케시마'로, 울릉도를 가리킬 경우에는 '다케시마(울릉도)'로 구별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에도 시대 독도를 가리키던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마쓰시마(울릉도)'로 표기하며 마쓰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일 때는 '마쓰시마(독도)'로 표기한다.

4) 이 점에 대해서는 II-2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경위를 서양 함선의 동해 진출과 조선 섬의 '발견' 및 명명이라는 세계사적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일본의 '섬의 명칭에 대한 연구'는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승선함 이름을 따서 Liancourt Rocks라고 명명했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또 당시에는 많은 서양 함선이 탐험과 포경, 수로 측량 등을 위해 동해로 진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했다(표 1 참조). 이 사실 역시 상기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은 그 나름대로 연구 과제가 될 만하나⁶⁾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므로 보류한다.

〈표 1〉 서양 함선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독도 명명

| '발견' 일자 | 국적 | 선명 | 선장 | 울릉도 명 | 독도 명 | 경위 |
|-------------|----|--------------------------------|---|-------------------|------|--|
| 1787. 5. 27 | FR | 탐험선 Boussole호 Astrolabe호 | 라페루즈 (Jean-François de La Pérouse, 1741~1788?) | 다즐레 Dagelet | | 울릉도를 처음 본 Boussole호 특별 승무원 Lepante Dagelet의 이름 부여, 위도 37° 25' 경도 130° 56' |
| 1789 | UK | 탐험선 Argonaute호 | 코넷 (James Colnett, 1753~1806) | 아르고노트 Argonaut | | 승선함 이름 부여, 위도 37° 52' 경도 129° 50' |

6) 필자는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사업으로 부산대학교 정인철 교수에게 의뢰해 프랑스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다. 그 연구 성과물이 정인철(2010), 『프랑스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2010 연구지원 성과물/미발간)이다. 또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은 현재에도 미국(특히, U.S.BGN)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독도의 명칭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서양 함선의 동해 진출과 조선 섬의 '발견' 및 명명이라는 세계사적 문맥에서 이 명칭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 관심과는 거리가 있어 여기서는 보류한다.

| | | | | | | |
|-------------|----|-------------------|--|--|---|---|
| 1849. 1. 27 | FR | 포경선 Liancourt호 | 인슬로 (Jeremiah Inslow, 1781~1858) | | 리앙쿠르 록스 (Liancourt Rocks) | 승선함 이름 부여, 다즐레가 북동 1/2북에 서 보이는 위치의 동쪽 위도 37° 2' 경도 129° 26' |
| 1854 | RU | 전함 Palada호 | 푸차친 (Euphymius Putiatin, 1803~1883) | | 메넬라이/ 올리부차 (Manalai/ Olivatsa) | 승선함 이름 부여 |
| 1855 | UK | 전함 Hornet호 | 포시스 (Charles Codrington Forsyth) | | 호넷 (Hornet) | 승선함 이름 부여 |

출처: 정인철(2010), 『프랑스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2010 연구지원 성과/미발간), 秋岡武次郎(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会地理』, 通号278号, 日本社会地理協会編集, 東京, 7~10쪽

두 번째,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봐도 이는 독도와 관련 깊은 명칭이다. 즉, 1904년 9월 29일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 영토편입과 불하 신청을 위해 내무·외무·농상부 대신에게 제출한 「량코도 영토편입 및 불하 청원서」(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ニ貸下願), 군함 니타카(新高)의 1904년 9월 25일 자 조사보고서 「마쓰시마(울릉도)에서 '리앙코르도 암(독도)'을 실제로 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松島ニ於テ「リアンコルド」岩実見者ヨリ聴取リタル情報) 등과 같이 일본 정부와 관련된 움직임 안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 주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부합할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 설정 및 연구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II-1에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에서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 혼란에 대한 설명과 그 변화과정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II-2에서는 그 설명이 의존하고 있는, 전전(戰前)에서 전후(戰後)에 걸친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겠다. 또 ‘Ⅲ. 리앙쿠르 록스와 해군’에서는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사용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 해당 명칭과 일본 해군과의 관련성을 논증하겠다.

결론적으로 ‘섬의 명칭에 대한 연구’에서 형성된 ‘역사적 사실’ 및 이에 바탕을 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 그중에서도 “일본은 오래전부터 마쓰시마(독도)라는 이름으로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고 근대에 들어 시볼트 지도의 영향으로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됐기에 이 섬을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편입해 영유권 의사를 재확인했다”라는 논리와 당시의 실질적인 독도 인지·인식은 다른 것이다. 또한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은 나카이의 영토편입 및 불하 신청서가 아닌 일본 해군의 형성과 수로 측량, 조선 연안 측량과 같은 군사 활동과 관련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의 형성과정 고찰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의 ‘역사적 사실’과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 혼란에 대한 설명

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는 러일전쟁 중 대한해협 전투 과정을 전달한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진 Liancourt Rocks라는 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섬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시도로 이 연구가 시작됐다. 또 영유권 주장의 색채가 열었던—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다—‘다케시마’의 역사 기술은 1950년대, 즉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논쟁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영유권 주장 색채를 강하게 띠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로 정비됐다.

한편,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이 의존하는 여러 ‘역사적 사실’ 중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에 기재돼 있는 일본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 부분이 연구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를 1950년대 이전 및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Liancourt Rock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으로 각색되지 않은 섬의 명칭과 인지·인식적 면에서 Liancourt Rocks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한다.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에서의 역사적 ‘다케시마’ 인지

「다케시마 문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일관적 입장’으로 먼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또 국제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점, 다음으로 “한국의 독도 점거가 국제법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일본의 독도 점거 이전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⁸⁾

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각국 지역정세 > 아시아 > ‘다케시마’ 문제 > ‘다케시마’ 개요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2011. 5. 19 방문

8) 「竹島の領有權に関する我国の一貫した立場」

1.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

이에 이은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에서는, 1. '다케시마'의 인지, 2. '다케시마'의 영유, 3. '다케시마' 도해 금지, 4.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의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 또한 그 안에 일본이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를 마쓰시마(松島, 독도)로 부르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다케시마'는 17세기 초 일본 서해안 주민의 울릉도 도항 시 기항지(寄港地) 또는 어채지(魚採地) 역할을 했다는 점, 17세기 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조일 교섭' 결과 일본 주민의 울릉도 도항은 금지됐으나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1900년대 초 '다케시마'에서 일어난 강치 포획과 관련해 일본 어민이 랑코도(다케시마)의 영토편입 및 불하 신청서를 냄으로써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이 섬을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⁹⁾

위는 근대 이전 일본이 인지적인 면과 행위적인 면에서 독도와와의 관련성을 지속해왔음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개요'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또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측면에서의 논리가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인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와 행위의 관련성 상정은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의 명칭 전도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의 개요

1. '다케시마'의 인지

현재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마쓰시마(독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서북서 약 92km 앞에 있는 울릉도가 '다케시마(울릉도)'나 '이소다케시마(울릉도)'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나 울릉도의 명칭은 유럽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위치 측정 오류로 일시적 혼란이 있었기는 했으나, 우리나라가 '마쓰시마(독도)'와 '다케시마(울릉도)'라는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넣은 간행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이외,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조선반도와 오키 제도[隱岐諸島] 사이에 적확히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¹⁰⁾

위에 인용한 자료의 볼드체 부분은 참으로 석연치 않은 기술로 느껴진다. 앞서 「'다케시마' 문제」에서 보았듯이 '다케시마'가 인지·인식적 측면에서

10) 竹島問題の概要

1. 竹島の認知

現在の竹島は、我が国ではかつて「松島」と呼ばれていました。そして竹島の西北西約92キロメートル先にある鬱陵島が「竹島」や「磯竹島」と呼ばれていました。竹島や鬱陵島の名称については、ヨーロッパの探検家等による鬱陵島の測位の誤りにより一時的な混乱があったものの、我が国が「松島」と「竹島」の存在を古くから認知していたことは各種の地図や文献からも確認できます。例えば、経緯線を投影した刊行日本図として最も代表的な長久保赤水(ながくぼせきすい)の「改正日本輿地路程(よちろてい)全図」(1779年初版)ほか、竹島と鬱陵島を朝鮮半島と隠岐諸島との間に的確に記載している地図は多数存在します。これに対し、韓国が古くから竹島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根拠はありません。(…)

2.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根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
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ません。
9) 이 다음에 근대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독도 취급과 한국의 대응을 일본 측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한다.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논하는 장소에서 “우리나라가 마쓰시마(독도)와 다케시마(울릉도)라는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과 같은 부분은 운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런 기술을 할 역사적 필연성이 있다.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에도 시대에 독도는 마쓰시마로 불렸다. 그리고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켰다. 그런데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시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돼 편입됐다. 섬의 명칭은 섬의 인지 여부와 인식 형태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예전의 마쓰시마(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 편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일본의 독도 인지·인식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에 있어 크나큰 결점이다.

따라서 이 결점을 보완할 무엇인가가 필요해진다. 즉, 예전의 마쓰시마(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돼 편입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기술되는 서양 함선의 울릉도 측량 오류에 대한 이야기다.

또 다음 자료에서 보면, 예전에 마쓰시마(독도)라고 불렀다가 서양 함선의 울릉도 측정 오류로 이 명칭이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자, 울릉도를 가리키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 독도의 그 당시 이름이 ‘Liancourt Rocks’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금일의 ‘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의 일이었다. 그러나 곧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됐으므로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그의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1904년 9월, 내무·외무·농상무 세 대신에게 「량코도」(注) 영토편입 및 10년간의 불하를 청원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취하면서, 1905년(페이지 38년)의 각의 결정으로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注 : 「량코도」는 ‘다케시마’의 서양명 「리양쿠루도」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로 울릉도가 종래의 「다케시마」에 더해 「마쓰시마」라고 불리게 됐으므로, 현재의 ‘다케시마’는 종래의 「마쓰시마」와 함께 「량코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¹¹⁾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나카이 요자부로는 시마네현 오키도민이라는 사실이다. 시마네현과 오키 섬은 일본에서 예전부터 독도와 아주 관련이 깊은 섬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마쓰시마(독도)가 처음으로 기술된 고문헌으로 알려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는 이즈모국[出雲國] 마쓰에번[松江藩]¹²⁾[지금의 시마네현 지역에 있었던 번: 집필자의 번사였던 사이토 간스케[齊藤勘介, 도요노부(豊宣)라고도 함]가 영주의 명을 받아 그 영토에 속하는 오키 섬을 조사한 보고서다.¹³⁾

- 11) 4. 竹島の島根県編入
 今日竹島において、あしかの捕獲が本格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00年代初期のことでした。しかし、間もなくあしかの捕獲は過当競争の状態となったことから、島根県隠岐島民の中井養三郎は、その事業の安定を図るため、1904(明治37)年9月、内務・外務・農商務三大臣に対して「りゃんこ島」(注)の領土編入及び10年間の貸し下げを願い出ました。これを受けた政府は、島根県の意見を聴取しつつ、1905(明治38年)の閣議決定をもって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竹島を領有する意思を再確認しました。
 (注) 「りゃんこ島」竹島の洋名「リアンクール島」の俗称。当時、ヨーロッパの探検家の測量の誤りなどにより、鬱陵島が従来の「竹島」に加え「松島」とも呼ばれるようになり、現在の竹島は従来の「松島」とともに「りゃんこ島」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 12) 이즈모국[出雲國](지금의 시마네현 동부 지역) 마쓰에[松江]에 있었던 번(藩 : 에도 시대 다이묘[大名](봉건 영주)의 영지 또는 지배기구를 말함) 오키 섬은 1625년 이후 도쿠가와 가의 일족인 마쓰다이러[松平] 가의 마쓰에번 영지였고 1687년에 도쿠가와 가에 반환됐으나 이후에도 마쓰에번이 관리했다.
- 13) 大西俊輝·권오엽 번역, 정영미 감수, 『隱州視聽合記』, 『독도자료집 Ⅲ』, 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 참조

이 보고서에서 사이토는 “오키 섬에서 북서쪽으로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독도)가 있고 또 하루를 더 가면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戊亥間行二日一夜有松嶋又一日程有竹嶋)”¹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오키 섬은 17세기 이나바국(因幡國) 돗토리번(鳥取藩)의 요나고(米子)¹⁵⁾ 주민의 울릉도 도해 시 출항지였다. 돗토리번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1828년에 편찬한 『죽도고(竹島考) 上·下』¹⁶⁾를 보면, 요나고 주민은 배를 타고 요나고를 출발해 당일 이즈모국(시마네현 동부지역: 집필지) 구모쓰(雲津) 해안에 도착하고, 여기서 바다를 건너 오키 섬으로 간다. 그리고 오키 섬 포구에서 잠시 순풍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불면 울릉도로 향하는데¹⁷⁾ 이 오키 섬 포구를 후쿠우라(福浦)라고 한다.

안용복 일행도 1693년과 1696년 오키 섬을 거쳐 이나바국 돗토리번에 갔다. 2005년 5월 17일 자 『산음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는 “1696년 돗토리번으로 도항 중 오키에 들른 안용복이 ‘다케시마’가 조선영토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문서가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 구가(舊家)에서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했다.¹⁸⁾ 이 문서가 국내에서 잘 알려진 1696년의 「원록구명자년 조선

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다.¹⁹⁾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던 무라카미 가(家)는 아마(海士)의 호족이며 오키 섬으로 유배 간 고토바 천황(1180~1239)의 묘소를 지키는 집안이다. 에도 시대에는 촌장(庄屋) 집안이었다. 위 문서는 울릉도와 子山島(于山島=독도)가 조선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재된 팔도 지도를 가지고 돗토리번 번주에게 소송을 하러 간²⁰⁾ 안용복 일행을 맞은 오키 섬의 마쓰에번 대관(代官, 번사)²¹⁾ 두 명이 안용복 일행의 도항 이유 등을 조사해 마쓰에번에 보고한 보고서를 해당 지역 촌장들이 필사해 둔 필사본 중 하나로 보인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은 이미 결착이 나 있는 상태였다. 즉, 1696년 1월 에도 막부는 요나고 주민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라는 지령을 돗토리번에 전달한 후였다. 1693년 요나고 어선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안용복과 박

19)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1696), 시마네현 오키군 아마정(海士町) 아마(海士) 거주 무라카미 스케구로(村上助九郎) 씨 소장. 이 자료의 존재가 신문 기사화된 후 10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쥬(内藤正申) 씨와 함께 무라카미 가를 방문해 촬영해왔다. 자료를 제공해준 무라카미 씨와 나이토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때 시마네현 마쓰에 히가시(松江東) 고등학교 교사 히노 도시하루(楠野俊晴) 씨는 본인이 나이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 자료를 탈초한 탈초본을 제공해줬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20)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1696)
“(…)右安龍福・雷憲・金可果三人江在番人立會之時、朝鮮八道之図ヲ八枚ニ持仕候ヲ出申候、(…)安龍福申候は、竹嶋ヲ竹ノ嶋ト申候、朝鮮國江原道東萊府ノ内ニ鬱陵嶋ト申嶋御座候、是ヲ竹ノ嶋ト申候由申候則、八道ノ図ニ記之所持仕候、松嶋ハ右同道ノ内子山ト申嶋御座候、是ヲ松嶋ト申由、是も八道之図記之、(…)安龍福申候ハ、私參乗候船ニハ拾壹人伯州へ參り鳥取伯者守様へ御斷之義在之罷越申候、(…)伯州へ訴訟之訳書付申候様ニト申候得者、始ハ心得候由申候、廿二日朝ニ至り其事共書出スニ不及候、伯州へ參委細可申上由(後略)”, 각주 19) 히노 도시하루 씨의 탈초본을 약간 수정해 인용했다.

21) 마쓰에번은 대관(代官) 2명을 오키 섬의 도젠(島前)과 도고(島後)에 각각 파견해 오키 섬을 관리했다.

14) 大西俊輝·권오엽 번역, 정영미 감수, 위의 책, 11, 33쪽

15) 이나바국(因幡國)(지금의 돗토리현 지역)에 있었던 돗토리번의 지성(支城)이었던 요나고성(米子城) 관할 지역, 요나고 성은 돗토리번 번주 이케다(池田) 가의 가신인 아라오(荒尾) 가가 지배했다.

16) 岡嶋正義(1828), 『竹島考 上·下』(판본은 명확하지 않다. 이 자료는 충북대 권오엽 교수가 제공해주었다); (번역본) 정영미 역(2010),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성과물 1」, 『竹島考 上·下』, 경상북도: 경상북도(재)안용복재단, 참조

17) “同年二月三日米子(ヨナゴ)ヲ發船(ハツセン)シテ其ノ日雲州雲津(クモツ)ニ到岸(トウガン)シテ同十三日ニハ隱岐國へ着帆(チャクハン)シ暫(シハラ)ク此巖(アウ)ニ船ヲ繫留(カケトメ)風便(フウビン)ヲ待(マツ)テ四月六日纜(トモチ)ヲ解(ト)キ同八日竹島へ着岸シ”(번역본) 정영미 역(2010), 앞의 책, 170~171쪽

18) 「海士旧家から供述文書発見」, 『山陰中央新報』(2005년 5월 17일), 1면

어둔을 납치해 돛토리로 데리고 온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조일 간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다케시마 일건(一件: 한국에서는 '울릉도 쟁계'라고 함)의 결과였다.

이 사건은 돛토리번이라는 지역 지배자의 범위를 벗어나 에도 막부,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 에도의 조일 교섭 창구인 쓰시마번이 관련된 국가 차원의 영유권 분쟁이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인상에 깊게 남았던 것 같다.

지금도 돛토리현 지역에는 돛토리번 변청 자료, 지역 지지(地誌) 등에 나타나고 주민의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도해 이야기, 다케시마 일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죽도고』 역시 돛토리와 그 주변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통해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과 조선, 중국 등의 문헌을 들어 자신의 다케시마(울릉도) 영유권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섬의 귀속 여부와는 별도로, 돛토리와 그 주변지역에 두 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죽도고』가 편찬된 19세기 초까지 두 섬에 대한 인지·인식이 지속됐다는 이야기도 된다.²²⁾

22) 그러나 이 인지·인식은 단지 명칭 인지·인식이었으며 섬의 실체(實體)와 명칭이 합치하는 인지·인식이 아니었다. 필자는 필자의 번역본 『죽도고(竹島考)』 개요에서 “오카지마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역시 19세기 후반에 나온 일본 측 사료 『죽도고증(竹島考證)』에 보면 19세기 중엽 이후 일본 외무성으로 마쓰시마(울릉도) 개척원이 쇄도하는데 그 이전부터 아마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죽도고』에서 볼 수 있는 ‘울릉도와 다케시마(울릉도)는 별개의 섬’이라는 인식은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야와 무라카와 가의 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이후 대략 150여 년 세월이 흘러 당해 지역민들의 관련 기억에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요나고 주민의 울릉도 도해와 ‘다케시마 일건’에 대한 기억이 약 100여 년의 시간 경과로 혼란을 일으키고, 1800년대에는 돛토리와 주변지역에서 옛날에 독도를 가리키던 마쓰시마를 울릉도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이다. 즉 ‘마쓰시마’, ‘다케시마’ 명칭의 혼란이 돛토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자체적으

또 1837년에 있었던 하마다번(濱田藩)의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 사건²³⁾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미국(石見國, 지금의 시마네현 하마다 지역)의 주민 하치에몬은 하마다번의 후원 하에 도항이 금지된 다케시마(울릉도)로 비밀 도항했다. 이 일이 에도 막부에 알려져 하치에몬이 사형을 당함은 물론 암암리에 후원한 하마다번 번주와 관련자가 엄형(嚴刑)을 받았고 1837년 에도 막부는 1696년에 이어 다시 다케시마(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다.

이 사건의 취조 시 하치에몬의 진술에 따라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²⁴⁾라는 지도가 그려졌는데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표기되고 이와미국과의 거리도 표시돼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선과 같은 색으로 두 섬을 색칠해 놓았다. 즉 19세기 중반까지도 해당 지역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인지·인식이 남아 있었다.²⁵⁾

또, 일본 메이지유신 후 정부에 쇄도된 울릉도 개척 청원서(〈표2〉 참조)를 보면, 시마네현 출신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그 외 지역사람들은 마쓰시마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즉 메이지 정부 초기까지 에도 시대 오야·무라카와 가의 울릉도 도해에서 비롯된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인식

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이 점을 본 논문의 논지와 연결시키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예전의 독도를 가리키던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던 다케시마로 명명돼 편입된 이유를 서양 함선의 울릉도 측량 오류와 시볼트의 지도에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23) 森須和男(2002), 石見学ブックレット3 八右衛門とその時代—今津屋八右衛門の竹嶋一件と近世海運—, 浜田市 教育委員会, 島根県

24) 「朝鮮竹嶋渡航始末記」 필사본(1836), 하마다[浜田]시립도서관 소장

25) 하치에몬의 진술서에는 비밀 도항을 우려하는 하마다 번 사람들이 설득하면서 ‘다케시마(울릉도)에 가다가 다른 배를 만나면 마쓰시마(독도)에 간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이에 바탕을 둔 일본 측 연구는 ‘마쓰시마(독도)’가 1696년의 도항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속됐으며, 예전의 인식과는 단절된 또는 전도(顛倒)된 다른 형태의 인식, 즉 ‘울릉도=마쓰시마’라는 인식과 나카이 요자부로의 예와 같이 ‘마쓰시마=조선의 랑코도=Liancourt Rocks’ 인식은 그 이후의 것이었다.

〈표 2〉 19세기 후반 일본 외무성 등에 제출된 울릉도 개척 청원서 내역

| 일자 | 청원서 제목 | 청원자 | 제출처 |
|--------------|--------------------------|---------------------|--------------------------------------|
| 1876년 7월 | 松島(울릉도) 開拓之議 | 陸奥土族 武島一學 (武藤平學) | 外務省 |
| 1876년 7월 13일 | 兒玉貞陽建白 ※ 松島(울릉도) 개척 건 | 兒玉貞陽 | 外務省 |
| 1876년 12월 1일 | 松島(울릉도) 開島願書并建言 | 千葉縣下佐倉商人 齋藤七郎兵衛 |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무역사무관 瀨島壽人 (외무성 영사) |
| 1877년 1월 27일 | 竹島(울릉도) 渡海之願 | 島根縣土族 戶田敬義 | 東京府知事 楠木正隆 |
| 1877년 6월 25일 | 松島(울릉도) 開島之建白 | 武藤平學 | 外務省 |

출처: 정영미 역(2006), 『죽도고증(竹島考証)』, 『독도자료집Ⅱ』,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83~513쪽 정리

이와 같은 경과에서 보면, 제한된 자료에서 얻은 결론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17세기 말부터 메이지 정부 초창기까지 약 170여 년간 산음지역(山陰地域) 시마네, 돗토리현 등을 아우르는 지역: 집필지에서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독도=마쓰시마’라는 인식이 이후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단절됐고, 1904년 나카이의 랑코도와 같이 전혀 다른 섬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이 ‘일본의 역사적 독도 인지·인식의 단절’이라는 측면을 내포하는 랑코도라는 명칭과 연혁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외무성 홈페이지의 개정과정을 보면, 일본의 역사적 독도 인지와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는 주로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이 근대에 들어 전도된 과정과 이유만을 부각하고 정

비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표 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용 개정과정

| 날짜 | 위치 | 외무성 홈페이지 > 각국 지역정세 > 아시아 > ‘다케시마’ 문제 > ‘다케시마’ 개요 > 1. ‘다케시마’ 인지 |
|-----------------------|----|---|
| 2006. 7. 18 현재 | |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당시의 마쓰시마)’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헌·지도 등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주: 경위선을 넣은 간행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에서는 현재의 ‘다케시마’ 위치관계를 바르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지 시대까지 다수의 자료가 있습니다.) |
| 2006. 12. 28 (개정판) | | 지금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지 시대 초경까지는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당시 ‘다케시마(또는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불리던 것은 현재의 울릉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나 ‘마쓰시마’를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이나 지도 등을 보면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넣은 간행 일본 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 외,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반도와 오키 제도[隱岐諸島]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
| 2007. 5. 20 현재 | | 상동 |
| 2008. 2 이후 | | 상동 |
| 2011. 5. 19 현재 | | 현재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마쓰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서북서 약 92km 앞에 있는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나 울릉도의 명칭에 관해서는 유럽 탐험가 등의 울릉도 위치 측정 오류로 일시적 혼란이 있었기는 했으나 우리나라가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넣은 간행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외,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조선반도와 오키 제도[隱岐諸島]와의 사이에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 각국 지역정세 > 아시아 > ‘다케시마’ 문제 > ‘다케시마’ 개요 > 1. ‘다케시마’ 인지(2006~2011) 기술임. 이 부분은 개요 설명이며 이외 상세기술이 별첨돼 있다.

한편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의 명칭 전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케시마' 인지(상세)

[일본에서의 '다케시마'의 인지]

(…)

2. 1787년, 프랑스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이르러, 이것을 '다즐레(Dagelet) 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계속해서 1789년에는 영국 탐험가 코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습니다만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코넷이 측정한 울릉도 경위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돼, 그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됐습니다.

3. 1840년,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일본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오키 섬과 조선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 '다즐레 섬'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일관적으로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로 불려 온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혼란을 만들게 됐습니다.

4.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고래의 '다케시마',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에 구미에서 전해진 섬 이름이 혼재해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고 하는 일본인이 그 섬의 개척을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섬 이름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1880년(메이지 13)에 현지 조사를 하고, 동 청원으로써 '마쓰시마'라고 칭해지는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했습니다.

5. 이상의 경위에 바탕을 두고 울릉도는 '마쓰시마'라고 불리게 됐기 때문에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1905년(메이지 38), 그때까지의 명칭을 뒤바꾸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했

습니다.²⁶⁾

위 내용은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 전도에 대해 ① 유럽 함선의 측량 오류로 인해 서양 지도상에 울릉도가 아르고노트와 다즐레의 두 섬인 것처럼 기재됨, ② 시볼트가 「일본도(日本圖)」에서 서양 지도상의 이 두 섬을 예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라고 해 명칭 혼란이 발생했음, ③

26) 竹島の認知詳細

【日本における竹島の認知】

(…)

2. 1787年、フランスの航海家ラ・ペルーズが鬱陵島に至り、これを「ダジュレー(Dagelet)島」と命名しました。続いて、1789年には、イギリスの探検家コネットも鬱陵島を発見しましたが、彼はこの島を「アルゴノート(Argonaut)島」と名づけました。しかし、ラ・ペルーズとコネットが測定した鬱陵島の経緯度にはズレがあったことから、その後、ヨーロッパで作成された地図には、鬱陵島があたかも別の2島であるかのように記載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

3. 1840年、長崎出島の医師シーボルトは「日本図」を作成しました。彼は、隠岐島と朝鮮半島との間には西から「竹島」(現在の鬱陵島)、「松島」(現在の竹島)という2つの島があることを日本の諸文献や地図により知っていました。その一方、ヨーロッパの地図には、西から「アルゴノート島」「ダジュレー島」という2つの名称が並んでいることも知っていました。このため、彼の地図では「アルゴノート島」が「タカシマ」「ダジュレー島」が「マツシマ」と記載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により、それまで一貫して「竹島」又は「磯竹島」と呼ばれてきた鬱陵島が、「松島」とも呼ばれる混乱を招くこととなりました。

4. このように、わが国内では、古来の「竹島」「松島」に関する知識と、その後、欧米から伝えられた島名が混在していましたが、その最中に「松島」を望見したとする日本人が、同島の開拓を政府に願い出ました。政府は、島名の関係を明らかにするため1880(明治13)年に現地調査を行い、同請願で「松島」と称されている島が鬱陵島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5. 以上の経緯を踏まえ、鬱陵島は「松島」と称されることとなったため、現在の竹島の名称をいかにするかが問題となりました。このため、政府は島根県の意見も聴取しつつ、1905(明治38年)、これまでの名称を入れ替える形で現在の竹島を正式に「竹島」と命名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1880년 조사를 통해 마쓰시마가 울릉도라는 것을 확인함, ④ 따라서 독도에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부여해 편입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필자가 아는 한, 한일 간 독도 관련 연구에서 하나의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의 처음 의도는 일본이 편입한 새로운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연혁을 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로서의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이것의 형성과정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 형성과정 – 전전과 전후 –

1) 1950~1960년대 독도 영유권 논쟁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1950~1960년대의 소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시기에 정비됐다. 이 논쟁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인접해역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과 이 수역 내에 독도가 포함된 것에 대한 일본의 항의를 시작으로 1964년 한일회담 전년까지 57차례에 걸쳐 한국 주일대표부와 일본외무성 간 왕복 구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이 시기에는 무력 충돌 사건도 벌어지는 등 분쟁의 양상을 띠었다. 관련 문서는 한국외무부문서²⁷⁾에 수록돼 있으며, 당시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사건과 관련된

27) 외교통상부문서 『독도문제, 1952-53』(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외교통상부문서 『독도문제, 1954』(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6); 외교통상부문서 『독도문제 1955-59』(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7); 외교통상부문서 『독도문제, 1960-64』(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 외교통상부문서 『독도문제, 1965-71』(분류번호 743.11JA, 4569)가 있다.

이 문서 중 한일 간 왕복 구술서는 신용하(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001), 『독도연구총서 8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

왕복 구술서를 리스트로 정리한 것이 <부록1>이다.

이 중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 소유의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입장을, 한국은 3차에 걸쳐(〈부록1〉 No.12, No.24, No.42), 일본은 4차에 걸쳐(〈부록1〉 No.6, No.15, No.36, No.52) 밝혔다. 이후 이 과정에서 제시된 논리, 근거자료가 정비돼 현재의 한일 독도 관련 공식 입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의 관심인 섬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견해 ① 1953. 7. 13. 〈부록1〉 No.6²⁸⁾

(…) 예전에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라고 했던 섬은 지금의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며 ‘다케시마’는 마쓰시마로 알려졌으나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가 1840년에 제작한 지도의 실수로 유럽 지도에서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나타나게 됐고 그 결과 앞의 명칭과 뒤의 명칭이 뒤바뀌었다. 이 부정확한 명칭이 일본에서도 사용돼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표현되고 마쓰시마라고 불리던 작은 섬에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

4권], 독도연구보전협회에 해제와 함께 정리돼 있다.

28) “(…) In considering this matter, it should be recalled in the first place that the island which bore the name of Takeshima or Isotakeshima in former times was what is now called Wul-Nung-to, and that the present Takeshima was known as Matsushima. This is a fact which may be established by Japanese Literature and old maps published in the days of the Edo Shogunate... However, in the map of Japan published in 1840 by Philipp Franz von Siebold, (Siebold 원문대로) Wul-Nung-to was mistakenly indicated as Matsushima and, as the result, the latter name has come to replace the former one in the maps subsequently made in Europe. The misnomer came into use also in Japan, causing Wul-Nung-to to be represented as Matsushima and the small island previously called Matsushima to acquire the name of Takeshima (…)”

일본정부견해 ④ 1962. 7. 13. <부록1> No.52²⁹⁾

①“(…) (6) 한국정부는 「1959년 1월 7일 자 견해」에서 일본 문헌 중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 명칭을 혼동해 어느 것이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 두 섬의 변천에 관해서는 이미 「1953년 7월 13일 자 일본국 정부견해」에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말해보면,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까지 일관되게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지금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고 있었다. 그 후 일정 시기의 명칭 혼란은 아래와 같이 울릉도에 대한 유럽인의 측정 오류에 기인한다. 즉, 그 경위를 보면 1787년에 프랑스 깬럽 드 라 페루즈(Galaup de la Pérouse)가 울릉도에 도착해, 이 섬을 Dagelet 섬이라고 명명하는데 이어 1797년에 영국 윌리엄 로버트 부루톤(William Robert

Broughton) 역시 울릉도에 Argonaute 섬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그런데 부루톤이 이 섬의 경위도를 잘못 측정했으므로 그 후의 유럽 지도에 울릉도가 Dagelet, Argonaute의 두 섬으로 기재됐다. 그 후 1840년에 시볼트가 「일본도(日本図)」를 작성할 때 실수로, 종래의 일본 지도에 다케시마[竹島: 지금의 울릉도], 송도[松島: 지금의 ‘다케시마’]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다케시마는 Argonaute 섬으로, 마쓰시마는 Dagelet 섬이라고 했다. 그 후 부루톤의 측정이 부정확했던 것이 판명 나서 유럽인의 지도에서 Argonaute가 삭제되고, 울릉도는 Dagelet 섬(마쓰시마)이라고만 기재돼 유럽인의 지도에서 기존에 ‘다케시마’라고 불리던 울릉도가 ‘마쓰시마’가 돼버렸다. 이와 같이 유럽의 측정 오류에 기인하는 다케시마, 마쓰시마 두 섬의 이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05년 2월에 종래의 ‘마쓰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됐을 때 ‘다케시마’라고 정식으로 명명된 것이다.

29) “(…) (6) 韓国政府は「1959年1月7日付見解」の中で日本の文献中、松島と竹島の名が混同し、いずれが鬱陵島と竹島を指称するか判らないとして、日本の竹島に対する明確な知識に疑問を投げかけようと試みている。松島と竹島両島の変遷については、すでに「1953年7月13日付日本国政府見解」において述べ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これを改めて述べれば、日本では明治時代の始めまで一貫して鬱陵島を「竹島」、今日の竹島を「松島」と呼んでいた。その後、ある時期の名称の混乱は下記のように鬱陵島に対するヨーロッパ人の測定の誤りに起因している。すなわち、その経緯をみると、1787年にフランスのガロウ・ド・ラ・ペルウス(Galaup de la Pérouse)が鬱陵島に到り、これをDagelet島と命名したところ、さらに1797年にイギリスのウィリアム・ロバート・ブロートン(William Robert Broughton)が同じ鬱陵島に対してArgonaute島との名を与えた。しかるにブロートンが同島の経緯度を間違えて測定したので、その後のヨーロッパの地図に鬱陵島がDagelet, Argonauteの二島として記載された。1840年にシーボルトが日本図を作るときに従来の日本の地図に竹島(今の鬱陵島、松島(今の竹島))と記されていたことから誤って竹島をArgonaute島に、松島をDagelet島にあてはめた。その後ブロートンの測定は不正確であったことが判明してヨーロッパ人の地図からArgonaute島が抹消され、鬱陵島はDagelet島(松島)としてだけ記されるようになり、ヨーロッパの地図においては従来「竹島」と呼ばれていた鬱陵島が「松島」とな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ヨーロッパの測定の誤りに起因する竹島、松島両島名の混乱をさけるため、1905年2月に従来の「松島」が島根県に編入された際、これが「竹島」と正式に命名されたものである。(…)”

위는 제1차와 제4차 견해에 제시된 다케시마(울릉도) · 마쓰시마(독도) 명칭 혼란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다. 제1차 견해에서 제시된,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독도)가 어떻게 메이지 시대 이후 ‘다케시마’로 편입됐는가에 대한 간단한 견해는 제4차에 와서는 매우 정치화됐다. 이것은 제4차 견해에서 보이듯 제3차 한국 측 견해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952년 1월 18일 평화선 선언에 대한 1952년 1월 28일 항의 구술서(〈부록1〉 No.1)에서 일본 측은 평화선 내에 포함된 일본해의, Liancourt Rocks라고도 부르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³⁰⁾라고 했다. 1952년 2월 12일 답변 구술서(〈부록1〉 No.2)에서 한국 측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SCAPIN No.677 및

30) “(…) Furthermore, in the proclamation the Republic of Korea appears to assume territorial rights over the islets in the Japan Sea Known as Takeshima (otherwise known as Liancourt Rocks).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any such assumption or claim by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se islets which are without question Japanese territory (…)”

맥아더 라인을 일본이 상기해볼 것과 독도로 알려진 Liancourt Rocks가 수 세기 동안 한국 영토였다고 반론³¹⁾했다. 이에 대해 1952년 4월 25일(〈부록1〉 No.3) 재판론에서 일본 측도 ‘다케시마’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했고,³²⁾ 이후 일본정부견해 ①에서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의 지도를 근거로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독도)를 ‘다케시마’로 편입한 이유에 대해 말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재판론으로 한국 측 역시 한국정부견해 ①(〈부록1〉 No.12)에서 예전의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명칭(우릉·무릉·울릉/삼봉도의 우산도)에 대해 말하고 현재 독도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³³⁾ 이후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제2차 견해에서 역사적 근거를 들어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고 상

대국의 논리에 반박했다. 일본 측은 한국 문헌상의 우산도/삼봉도는, 즉 울릉도인 일도이명(一島二名)이라고 반박했고³⁴⁾ 한국 측은 우산도/삼봉도와 울릉도는 이도이명(二島二名)이며 지리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 혼칭(混稱)된 것이라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메이지 초기의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음을 일본인 학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 毅]의 연구성과를 들어 논증했다.³⁵⁾

또한 한국정부 3차 견해에서는³⁶⁾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상에서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의 심각한 혼란은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지리적 지식 결핍임을 말하는 한편,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1)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feel inclined to enter into full arguments, here in this note, over the ownership of Liancourt Rocks, known as “Dokdo” in through centuries, and merely wishes to remind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SCAP, by SCAPIN No.677 dated January 29, 1946, explicitly excluded the islets 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s of Japan and that again the same islets have been left outside of the MacArthur Line, facts that endorse and confirm the Korean claim to them, which is beyond any dispute (…)”

32) “(…) With regard to the ownership of the Take-Shima(Liancourt Rocks)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of the above Note Verbale, it must be stressed that these islands in question have been Japanese territory up to the present (…)”

33) “(…) With regard to names of Ulneungdo and Dokdo in Korea, Ulneungdo had been called Wooneung, Mooneung, Ulneungdo, etc., while Dokdo had been called Woosan of Sambongdo. And, in the meantime, dokdo has been given its present name of “Dokdo” due to the following backgrounds: According to the dialect of Kyunsang Province of Korea, Dok means stones of rocks. Dokdo means an island of stones of rocks. It happens that the pronunciation of the present Dokdo which means “isolated island” coincides with that of Dokdo (island of rocks or stones). Thus, the said island came to be called Dokdo by Koreans very suitably and symbolically, for Dokdo is really a rocky island (…)”

34) “(…)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may point out passages in Korean literature which regarded Sambongdo or Woosando as none other than Ulneungdo. (…)”

35) “(…) 于山島와 鬱陵島가 두 개의 別島라는 것을 區區히 說明할 必要가 없다. (…)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이 編纂된 當時 二島二名으로 確認된 事實에 결코 影響을 미치게 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地理的 知識이 發達되지 않았던 時代에 있어서 是 同一地域에 異稱이 생기고 이것이 原名과 混用하여 오다가 二島二名으로 分析되는 實例는 ——히 每舉기 어려우나 特히 日本學者 田保僑(원문대료) 潔氏의 松島竹島에 關한 學究的인 論症에서도 그 좋은 實例를 차저볼 수 있는 바이다. 卽 田保僑 潔氏는 日本이 該地域에 關하여 地理的 知識이 缺乏되 있던 明治初期에 있어서 松島, 竹島라는 名稱이 鬱陵島一島를 指稱하였고 그것이 다시 鬱陵島와 獨島(日本 所謂 現在의 竹島)를 各各 指稱하게 되었다. 同時에 鬱陵島를 가리키든 竹島라는 名稱이 獨島(鬱陵島의 附屬島)의 名稱으로 指稱되었다는 事實을 學究的으로 論症한 바 있었다. (…)”

36) “(…) 또한 당시 日本의 소위 ‘죽도’, ‘송도’가 지금 울릉, 독도의 어느 것을 指稱한 것인지 分별키 어렵다. 환언하면 ‘송도’, ‘죽도’란 이름이 도대체 서로 바뀌어 2명 공히 울릉도, 독도를 혼칭했기 때문에 일본 측 기록은 그 어느 것을 독도, 어느 것을 울릉도로 지칭한 것인지 실로 구별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러한 명칭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이도에 대한 당시 日本의 지리적 지식이 명확치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결핍은 결국 이것이 日本의 관할권 밖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이에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지적한 이 점을 의식한 듯 제4차 견해에서는 마쓰시마(독도)가 '다케시마'로 명칭 전도된 것에 대해 언제, 왜,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정리해서 반론했는데 그것이 앞서 인용한 절이다.

2) 1906년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연구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내용이 조금 달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주된 관련 연구에는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1906년³⁷⁾, 1907년³⁸⁾ 연구 및 다보하시 기요시의 1931년 2월³⁹⁾, 1931년 5월⁴⁰⁾ 연구가 있는데 오쿠하라의 1906년 연구 및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에서 그 특징이 더욱 잘 나타나 있다.

오쿠하라 헤키운은 1906년 3월 시행된 시마네현의 독도 시찰에 동행했던 당시 시마네현 야쓰카군[八束郡] 아이카촌[秋鹿村] 진조[尋常] 고등소학교 교장이었다.⁴¹⁾ 당시 시찰단은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를 단장으로 시마네현 관료, 현 내 신문기자, 교사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3월 26일 오후 5시 5분 오키도 도고[島後]의 사이고항[西郷港]을 출발해 3월 27일 아침 독도를 서도에서 동도 순으로 조사,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기상변동으로 울릉도로 피난, 3월 28일 울릉도 현황 조사 및 울도군수 심흥택 면담 후 초저녁에 귀

향길에 올라 3월 29일 오후 4시 출발항으로 되돌아왔다.⁴²⁾

이 시찰 후 1906년 6월에 오쿠하라의 '다케시마' 명칭 관련 연구 「죽도현역고(竹島沿革考)」가 잡지에 게재됐고, 1907년에는 '다케시마'와 울릉도 시찰 북명서를 참작해 오쿠하라가 편찬한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가 간행됐다. 이 문헌은 '다케시마'를 지리·기후·어업·어민생활의 상황·연혁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지리·생물·생업·무역·교통·주민·교육·정치·토지·일본이주민·연혁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부록으로 '다케시마 도항일지' 및 시찰 도중 쓴 시를 모은 시가집 『한조여운(寒潮餘韻)』이 수록됐다.

이 중 「죽도현역고」의 초두에는 오쿠하라가 시찰단에 합류한 목적이 다음과 같이 서술돼 있다.

① 지난 3월 하순,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사무관은 시찰원 40여 명과 함께 신 영토 '다케시마' 시찰 길에 올랐다. 나도 운 좋게 그 일행에 끼여 '다케시마' 및 울릉도에 상륙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시찰했고, 아즈마[東] 오키도사[隱岐島司]의 후의를 입어 동 관청의 옛날 기록 및 '다케시마'에 관한 문서를 열람했다. 또, '다케시마' 경영에 대해 '다케시마' 어로회사원 나카기 요자부로 씨의 설득력 있는 '다케시마' 경영담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마쓰에[松江] 도서관의 옛날 책과 기록을 섭렵했으며, 작년 이후 신문·잡지에 나타난 여러 사람의 말을 참조해 본 논문을 집필했다.

② a. '다케시마'의 명칭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 보이는 다케시마란 모두 지금의 울릉도를 말하는 것으로 종래 이즈모[出雲]·이와미[石見]·호키[伯耆] 오키[隱岐] 지방 [지금의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 집필자] 사람들이 도항했던 다케시마는 울릉도다. 그러나 작년 2월 시마네현의 영토로 편입되고 일본해 대해전으로

37) 奥原碧雲(1906年 6月),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第8卷 第6号(1990年, 歴史地理一卷~8卷, 日本歴史地理学会編, 復刻版), 東京: 日本歴史地理研究会編, 6~24쪽

38) 奥原福市(1907), 『竹島及鬱陵島』, 島根県: 報光社(復刻版: 奥原碧雲(2005), 『竹島及鬱陵島』, ハーベスト出版)

39) 田保橋潔(1931年 2月), 「鬱陵島, その発見と領有」, 『青丘学叢』, 第3号, ソウル: 青丘学会編, 1~30쪽

40) 田保橋潔(1931年 5月), 「鬱陵島の名称に就いて(補) - 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 」, 『青丘学叢』, 第4号, ソウル: 青丘学会編, 103~109쪽

41) 奥原福市(1907), 위의 책

42) 奥原福市(1907), 위의 책, 99~112쪽

전 세계에 알려진 신(新) '다케시마'는 옛 기록에 보이는 마쓰시마로, 오키 사람이 랑코도(리양코루 암의 방언)라고 칭하는, 자라는 나무 없는 무인(無人)의 소암초다. 그런데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가 한번 이 명칭을 바꿔서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칭했으므로 이번에 리양코루 열암을 '다케시마'라고 명명해 신 영토로 편입된 것일 것이다. 실제로 그 땅을 답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옛 기록에 보이는 '다케시마'로 간주해 큰 오류를 확산시키기에 이르렀다.

③ 그 『지학잡지』 200~202호에 걸쳐 연재된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麿] 씨의 「오키국 다케시마에 관한 옛 기록」과 같은 것은, b. 울릉도 기사로서 리양코루 암의 신 '다케시마'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등이 그 일례이다.

④ 다음으로, 사학계의 엔도 만센[遠藤萬川] 씨는 『요미우리신문』 수로지를 인용하고 여기에 부기해, 무라오카 료스케[村岡良弼] 씨의 『일본지리자료(日本地理資料)』,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씨의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辞書)』에서 c. 울릉도의 별명을 다케시마라고 한 것은 의문이라고 했고, 더욱이 『소요신보(松陽新報)』 지면에서, 신 '다케시마'란 우리나라 구 막부 시대에는 일찍부터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칭했으며, 이즈모번[出雲藩]에 속한 것이라 했고, 유배자를 두는 곳이라 했는데 “그 후 내정 혼란과 함께 이 섬이 소속이 없는 것처럼 됐다.” 운운이라고 기록했고, 또 같은 지면에 그 후 고문서를 보면 울릉도의 다른 이름은 다케시마였다”고 기록했다. d. 그러나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는 했을지언정 다케시마라고도 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으므로 현 내 식자의 답변을 기다린다 운운이라고 기록해 의문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⑤ e. 이것들은 필경 신 '다케시마'를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큰 섬으로 오인해 옛 기록에 보이는 다케시마에 대한 기사를 여기에 갖다 붙인 것으로, 한번 실제로 그 땅을 답사해보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다. 또 요시다 도고 씨의 대일본지명사전은, 신 '다케시마'에 관해 직접 기재하지는 않고 있으나 구 다케시마에 관해 여러 문헌을 인용한 매우 해박한 내용이므로 필히 참

조해야 할 것이다.⁴³⁾

여기서 a는 논문이 집필된 목적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다케시마'가 어디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

- 43) “ ① 去る三月下旬、島根県第三部長神西事務官は、視察員四十余名とともに、新領土竹島視察の途に上られたり、余幸にその一行に加はり、竹島及び鬱陵島に上陸し、親しくその状況を視察し、東隠岐島司の厚意によりて同廳の奮記並に竹島に関する文書を閲覧し、かつ、竹島経営につき、與つて力ありし竹島漁獵会社員中井養三郎氏の竹島経営談を聞き、歸來松江図書館の旧書記記録を渉猟し、昨年以來新聞雑誌にあらはれたる諸家の説を参照して、本篇を起稿せり。
- ② a. 竹島の名称につきては、鬱陵島と混同せる人少なからず、本邦の旧記に見えたる竹島は、すべて、今の鬱陵島のことにして、從來、出雲石見伯耆隠岐地方の人々が渡航せし竹島は即ち鬱陵島なり、而して、昨年二月島根県の領土に編入せられ、日本海大海戦によりて、全世界に宣伝せられし新竹島は、旧記に見えたる松島にして、隠岐国人のリヤンコ島(リアンコール岩の転訛)と称せし、生木なき無人の小岩嶼なり、然るに「朝鮮水路誌」一たびこの名称を転倒して、鬱陵島一名松島と称せしより、今回リアンコール列岩を竹島と命名して、新領土に編入せらるるや、実地を踏査せざる人は、直ちに旧記にみえたる竹島となし、大なる誤謬を伝ふるに至れり。
- ③ かの地学雑誌二百号より二百二号に亘りて、連載せられたる田中阿歌麿氏の「隠岐国竹島に関する旧記」の如き、b. 鬱陵島の記事にしてリアンコール岩の新竹島とは、全然無関係なるが如きその一例なり。
- ④ 次に、史学界の遠藤萬川氏は、読売新聞紙水路誌を引用しこれに附記して、村岡良弼氏の日本地理資料、吉田東伍氏の大日本地名辞書に、c. 鬱陵島の別名竹島とせるは疑問なりとし、更に松陽新報紙上に於て、新竹島は、わが旧幕時代には、夙にこれを竹島と称し、出雲藩に属せしめ、流罪人を置く處とせしが、その後、内政の混乱とともに、この島は無所属同様となれり、云々と記し、また、同紙上に「その後、古文書を見れば、鬱陵島の別名竹島なりしことを記せり、d. されど、鬱陵島は松島とこそいへ、竹島といへるを聞かず、県下識者の解答をまつ」、云々と記して、疑点を挟まれたり。
- ⑤ e. これ等は、畢竟新竹島を以て、人民の住居に堪ふべき大島と誤認し、旧記に見えたる竹島の記事をこれに附会したるものにして、一たび実地を踏査せんか、疑問(원문대로임 疑問의 오류로 보임)は忽にして氷解せられべきなり。なほ、吉田東伍氏の大日本地名辞書は、新竹島につきて直接に記する處なけれども、旧竹島につきて、諸書を引用すること頗る該博なれば、必ず参照すべきなり”、奥原碧雲(1906), 앞의 책, 7쪽 1행~8쪽 19행

이 새로 편입한 ‘다케시마’를 울릉도로 알고 있으나 새로 편입한 영토 ‘다케시마’는 고기록에 보이는 마쓰시마고, 오키도 사람이 랑코도라고 부르는 섬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또 오쿠하라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돼 편입된 것에 대해 『조선수로지』가 원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 섬이 ‘다케시마’로 명명되자 이 섬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즉시 이를 옛 기록에 보이는 다케시마로 간주했고 그 오류가 확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③과 ④에서는 그 예를 들고 있다. ③에서는 『지학잡지(地學雜誌)』의 ‘다케시마’ 관련 글이 실제로는 b. “울릉도에 대한 기사로 리앙코르 암인 신 ‘다케시마’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④에서는, 『일본지리지료』, 『대일본지명사서』에서 c. “울릉도의 다른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의문”, 『소요신보』는 신 ‘다케시마’가 구 막부시대 초기부터 다케시마라고 칭했다고 했다. 한편, 고문서 등에서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을 ‘다케시마’라고도 기술했는데 d. “그러나 울릉도는 마쓰시마라고는 칭하나 다케시마라고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학계 관련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⑤에서는 사람들이 새로 편입한 신 영토 e. “‘다케시마’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이라고 착각해 고기록의 ‘다케시마는 울릉도’와 무리하게 연결 지은 것으로 한번 실지답사를 하면 의문이 금방 풀릴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일본의 독도 편입이 일본 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일본해 대해전(러일전쟁)’이었으며 대다수 사람이 당시 이 ‘다케시마’를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로 알고 있었고,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쿠하라가 이 논문을 집필한 것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오쿠하라가 그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혼란의 원인 제공자를 해군

발행의 『조선수로지』로 보고 있었던 것도 명백하다. 오쿠하라는 이 문헌의 ‘리앙코루토 열암[リアンコルト 列岩]’ 항목을 인용⁴⁴⁾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도 판인지는 기술돼 있지 않다.

오쿠하라는 위에서 인용한 문제의식 이후 다음과 같이 기술해간다. 즉 일본해 대해전으로 세계 역사에 혁혁한 광채를 비춘 ‘다케시마’⁴⁵⁾의 현황을 기록하고, 이 섬이 “근년 원양어업자가 발견한 곳으로, 1904년(메이지 36)경부터 강치 포획자가 속속 도항해 남획했는데 지금은 다케시마 어업회사가 독점한 어획지가 됐으며”⁴⁶⁾, 원래 이 섬이 알려진 것은 1667년 이후로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신 ‘다케시마’는 마쓰시마로 알려졌으나 “그런데 수로지에는 이것을 바꾸어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하고 신 ‘다케시마’를 리앙코루토 암이라고 하여 프랑스 함선의 발견이라고 했다”⁴⁷⁾, “그러나 신 ‘다케시마’는 프랑스 배 ‘리앙코루토’의 발견보다 183년 앞선, 1667년 우리의 기록 『은주시청합기』에 보이므로 적어도 이 암초가 일본인에게 발견된 것은 그보다 더욱 이전일 터다. 또 프랑스 배의 발견보다 41년 앞선 1808년 『변요분계도고』에 명기됐고, 같은 배(船)의 발견보다 27년 앞선 1823년 『신 영토』에 상세히 기재돼 있음에도 수로지는 이 도서 발견을 외국 배에 맡겨놓고 재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한 양국연안에서의 거리가 일본 쪽으로 10해리 가까운 거리임에도 해

44) 奥原碧雲(1906), 앞의 책, 11쪽 12~21행

45) “(…) 日本海大海戦争によりて、世界の歴史に赫砲たる光彩をとどめし竹島は (…)", 奥原碧雲(1906), 위의 책, 8쪽 20행

46) “(…) 近年遠洋漁業者の発見する所となり、明治三十六年の頃より、海驢獵者続々渡航して濫獲をはじめしが、今は竹島漁獵会社の独占獵漁地となればなり。(…)”, 奥原碧雲(1906), 앞의 책, 9쪽 11~12행

47) “(…) 然るに水路誌にはこれを転倒して、鬱陵島とし、新竹島をリアンコルト列岩とし、佛国船の発見となせり (…)", 奥原碧雲(1906), 위의 책, 11쪽 9~11행

도에는 조선의 부에 편입시킨 것 같아 극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⁴⁸⁾라고 했다.

또 오쿠하라의 『조선수로지』의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鬱陵島一名松島)’ 항목과 자신의 울릉도 시찰 결과, 에도 시대 관련 문헌 기사 등을 들어 신 ‘다케시마’가 ‘다케시마=울릉도’가 아님을 논증하고, 1837년 하치에몬 사건 결과 에도막부의 도항 금지령으로 ‘다케시마=울릉도’가 일본 서해안 주민의 기억에서 잊혔을 때 일본 해군수로부가 조선수로지 및 해도에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鬱陵島一名松島)로 발표했기에 리앙코루도 암은 자연히 예전 기록의 다케시마에 해당한다고 오인됐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다케시마는 이미 겐로쿠 중기[에도 시대 연호 1969년경: 집필자]부터 조선 판도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리앙코루도 암까지도 조선의 판도라고 인정하게 됐다”⁴⁹⁾고 한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당시 일본 해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은 후대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다. 즉, 일본 해군은 1880년 3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환몽수로지』를 발간, 1889년 3월에 이 수로지를 폐간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해역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해 일본영해를 다른 곳과 구별한 『일본수로지』를 발간했다. 이들 수로지 중 『환몽수로지』 제2권 제2판(1886) 「러한편(露韓編)」에 울릉도와 함께 리앙코루도 암이 기재됐으며, 『일본수로지』 1897년 판은 울릉도·리앙코루도 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조선수로지』 1894년과 1899년 판에는 양 섬이 기재돼 있는 것을 봐서 일본 해군수로국이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는 1900년 시점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에서 이미 지적됐다.⁵⁰⁾ 또 한국은 일본 정부견해 ①(〈부록1〉 No.12)에서 『조선수로지』 제3권(1933) 「조선동해안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 사실에 입각해 이 논문의 주안점이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의 명칭 혼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 새로 편입한 영토 신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오쿠하라의 왜 일본 해군이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후 그는, 1903년 리앙코도에서의 강제 어획업을 계획한 나카이 요자부 로가 이 섬이 조선영토라고 하여 조선 정부에 불하 청원을 하고자 상경한 것과 농상무성 수산국원 및 수산국장 면담을 거쳐 해군수로부 수로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듣고 랑코도 편입, 불하 신청을 하는 과정을 기술했다. 끝으로 “‘다케시마’의 영토편입, ‘다케시마’의 명명에 관한 사정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처럼 영토편입은 지리적으로 볼 때도 경영적으로 볼 때도, 또 역사적으로 논할 때도 공공연하게 우리 영토에 편입돼야 할 것으로 한 점의 비난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명명에 관해서

50) 堀和生(1987), 105쪽 하단 9행~106쪽 14행

48) “されど、新竹島は佛船「リアンコール」の発見に先立つこと百八十三年、寛文七年の我記録に見えたれば、少なくともこの岩嶼の日本人に発見せられしは、なほ以前なるべく、また佛船の発見に先立つこと四十一年、文化六年に邊要分界図考に明記せられ、なほ、同船の発見に先立つこと廿七年、文政六年の古記集に詳記せられしに拘らず、水路誌は、この島嶼発見を外国船に委して顧みず、剩へ、日韓兩國沿岸よりの距離は、日本の方十哩の近距離なるに、海図には、朝鮮の部に編入せられしが如き、遺憾の極といはざるべからず”, 奥原碧雲(1906), 위의 책, 12쪽 1~6행

49) “(…) 爾來、石州沿海の人、又渡航を企てしも、幕府の禁制にあひ、天保以來數十年間竹島は殆んど本邦人に忘却せられ、海軍水路部の朝鮮水路誌及び海図に鬱陵島一名松島として發表せられしより、リアンコール岩は、自然旧記の竹島にあたるものと誤認せられ、而して竹島は既に元禄中より朝鮮の版図と認められし故、リアンコール岩をも朝鮮の版図と認むるに至れるなり。(…)”, 奥原碧雲(1906), 위의 책, 19쪽 13~16행

도 오키도청에서는 수로지 및 해도에 바탕을 두고 이미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명명한 이상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도서는 리양코도 외에는 없으므로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이유다. 단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수로부에서 어떤 사료를 근거로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명명했는지가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 의문만 풀리면 ‘다케시마’의 명명에 대한 것은 어려움 없이 풀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간의 식자에 향해 절실히 가르침을 청하는 바다”⁵¹⁾로 끝을 맺고 있다.

3)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연구

오쿠하라는 해군 수로지에 기재된 ‘울릉도=마쓰시마’ 때문에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로 편입된 것과 동시에 동시대인이 이 새로운 ‘다케시마’를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로 오인, 울릉도가 조선영토인 것처럼 새로운 ‘다케시마’도 조선영토로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섬이 일본의 영토임을 설파했다.

한편 일제식민지하에서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는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의 명칭이며, 이 울릉도의 명칭들이 울릉도와 리양쿠루도의 명칭

으로 혼동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31년 2월, 『청구학총(靑丘學叢)』 제3호⁵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울릉도는 이소다케시마, 다케시마 또는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알려졌으며 요즘 들어 리양쿠루도의 존재가 잘 알려짐에 따라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이 울릉도와 리양쿠루도 명칭과 혼동되게 됐다. 53) (...) 또 울릉도가 이소다케시마라고 알려진 것은 에도 시대 초기 또는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도 시대 중기에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마쓰시마라고 불린 것은 에도 막부 말기인데 그 이유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혹은 이 섬을 멀리서 본 모양에서 생긴 명칭이라고 보인다. 이리하여 요즘 들어서는 리양쿠루도의 존재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섬은 점점 혼동되기 시작했다.”⁵⁴⁾

또 그는 오늘날 울릉도를 마쓰시마, 리양쿠루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영국해군의 관용에 따른다고 하며, 영국해군 수로지상의 다줄레 섬의 일본명이 Matu-Sima(마쓰시마)로 기재된 것에서 시작해 프랑스 항해가 라 페루즈가

51) “(...) 竹島の領土編入、竹島の命名につきての事情は上述の如く、而して、領土編入は地理上より見るも、經營上より見るも、はた、また歴史上より論ずるも、公然わが領土に編入すべきものにして、一点の非議を挟むべき余地を有せざるや明らかかなり、次に命名につきて、隱岐島片にに於ては、水路誌及び海図によりて、既に鬱陵島を松島と命名せられし以上は、竹島に当るべき島嶼は、リヤンコ島を措きて外に求むべからず、これ竹島と命名せられし所以なり、ただ、ここに吾人の疑を挟むべきは、水路部に於て、如何なる史料によりて、鬱陵島一名松島と命名せられしか、これ根本的疑問也、この疑問だに氷解せんか、竹島の命名は刃を迎えずして直ちに解決せらるべきなり、此れ吾人の世の識者に向て切に指教を請はんとする處なり。”、奥原碧雲(1906), 앞의 책, 23쪽 10~17행

52) 田保橋潔(1931年 2月), 「鬱陵島、その発見と領有」, 『靑丘學叢』, 第3号, ソウル:靑丘学会編, 1~30쪽

53) “(...) 鬱陵島即ちダジュレ島は武陵、羽陵、芋陵、或は于山島の名を以て知られ、国史に於ても芋陵島として伝へられて居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然るに近代に至り、本邦人特に山陰地方の漁民、同島に渡航するものあるに及んで、日本名が附せられた。朝鮮通行大紀に見える礮竹島を初めとし、後に竹島、或いは松島として知られて居る。後鬱陵島の東南に、巨岩の海中に屹立するもの(現行海図上のリヤンクル島Liancourt)あること知られるに及び、松島、竹島の名称は、鬱陵島とリヤンクル島間に混同せられる傾向が生じた (...)”, 田保橋潔(1931年 2月), 위의 책, 2쪽 2~6행

54) “(...) 鬱陵島が松島と称せられたのは幕末時代にあり、その理由は全く不明である。或は同島の遠望より生じた名称かと思われる。而して此頃に至っては、かのリヤンクル島の存在も知悉せられて居たので、此兩島は次第に混同せらるに至った”, 田保橋潔(1931年 2月), 위의 책, 2쪽 14행~3쪽 1행

1787년 5월 28일 울릉도를 ‘발견’하고 다줄레 섬으로 명명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⁵⁵⁾

그리고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리양쿠우루도에 관해서는『영국해군수로지』 등이 : 집필재 그 일본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 마쓰시마로 규정된 이상 ‘다케시마’가 리양쿠우루도의 다른 이름으로 간주된 것은 자연스럽다. 이리하여 울릉도의 일본명은 마쓰시마로 확정되고, 그 본래의 별칭인 다케시마는 의외로 작은 섬 ‘리양쿠우루 섬’으로 넘어갔다.”⁵⁶⁾고 한다.

즉, 다보하시는 오쿠하라와는 달리 마쓰시마가 울릉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다른 이름인 다케시마는 ‘마쓰시마=울릉도’가 확정됨에 따라 ‘의외로’ 새로 발견된 작은 섬 ‘리양쿠우루 섬’의 명칭으로 넘어갔다는 해석을 했다. 이것은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가 『조선수로지』 때문에 명칭이 서로 뒤바뀌었다고 하는 오쿠하라의 설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리양코도, 또는 리양쿠우루도 아니면 ‘다케시마’의 명칭을 울릉도 명칭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그 명칭 간 전도 이유를 『조선수로지』 또는 『영국해군수로지』 등의 외부요인에서 찾는 점도 같다. 한편 다보하시의 위 설명은 한국정부견해 ② 우산도·울릉도 이도이 명론에 영향을 주는 한편⁵⁷⁾,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일본정부견해 ①, ④에

55) 田保橋潔(1931年 2月), 위의 책, 제1장 「鬱陵島の名称 松島 竹島」 및 제2장 「ド・ラ・ベルウズの鬱陵島発見」 1~12쪽 참조

56) “(...) 리양쿠우루島についてはその日本名を挙げて居ないが、既に鬱陵島の別名が松島と規定せられた以上は、松島がリ양쿠우루島の別名とせられたのも自然の数である。かくして鬱陵島之日本名は松島と確定せられ、その本来の別名竹島は意外なる小島リ양쿠우루に移されたものである”, 田保橋潔(1931年 2月), 위의 책, 3쪽 9~12행

57) 각주 35) 참조

서 보이듯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 명칭의 혼란을 서양 함선의 울릉도 ‘발견’부터 기술하는 방식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해 그의 다른 논고를 보면 동시대 학자들이 ‘다케시마’를 ‘다마고 섬[卯島]’으로, 다케시마는 지금의 땃섬[竹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학총』 제4호⁵⁸⁾ 연구는 제3호 연구 내용 중 마쓰시마·다케시마 명칭에 대해 반론이 있었던 듯, 이에 대한 답변의 형태를 띤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3호 연구가 발표된 이후 1931년 3월 23일 자로 동경제국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문학박사인 쓰보이 구메조[坪井 九馬三]의 마쓰시마·다케시마 명칭 관련 반론이 있었다.

반론의 내용인즉 1931년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울릉도 식물조사에 종사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원래 다마고 섬이고 다케시마는 땃섬(지금의 竹島, 일본에서는 竹嶼라 함)이라는 것이다.⁵⁹⁾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나카이 교수는 竹島를 일본명 다케시마라 하고, 竹島는 혹은 武島(다케시마)라고 기재하기도 하는 점을 들어 어느 쪽이 맞는지 밝히고자 울릉

58) 田保橋潔(1931年 5月), 「鬱陵島の名称に就いて(補)―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青丘学叢』, 第4号, ソウル: 青丘学会編, 103~109쪽

59) “数年前、朝鮮総督府の命を奉じて、中井猛之進君鬱陵に赴き、其植物を精査あり候節、松島竹島の由来をも調査せられ候。是れは隠岐よりの移民が、植民地の前途を祝福して、本島を松島、その東方の沖にある附属の岩嶼を竹島と呼び申候次第之由、又隠岐の東北沖にあり、アシカの繁殖地として知られ、普通海図にLiancourt と申しあるは、隠岐人が夙く、タマゴ島―卵島―と申来りしことにて、之れを竹島としたのは、固より「自然の数で」はありませんとの由、中井君の説に御座候…”, 田保橋潔(1931年 5月), 앞의 책, 104쪽 상단 5~15행

도 개척자의 한 사람인 가타오카 요시베[片岡吉兵衛]에게 물은 결과 竹島가 맞다 하고, 마쓰시마·다케시마라고 명명한 이유를 ‘이것이 소나무[松]가 울창하고, 대나무[竹]가 울창하기 때문이 아니라 송죽(松竹)이라고 하여 경사스럽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일러전쟁 당시 해군 보고서에 [울릉도를 : 집필자] 마쓰시마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쓰보이 교수는 이 의견에 완전히 동의해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등의 기사를 완전히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여 배제시킨 것이다. (...)」⁶⁰⁾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표 2>에서 보듯 1870년대에 ‘마쓰시마 개척원’ 또는 ‘다케시마 개척원’이 외무성에 제출되면서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가 일도이명인지 이도이명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자 1878년에 조선 해안 수로 측량 후 돌아오는 아마기함에 울릉도 조사를 지시한다. 이 아마기함은 마쓰시마가 곧 조선의 울릉도이며 다케시마는 그 옆의 뗏섬(竹島)이라는 보고를 하게 된다.⁶¹⁾

이에 의하면 에도 시대의 울릉도, 독도를 가리키던 다케시마,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잠시 울릉도를 가리키게 됐다가, 후에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울릉도를, (아마기함의 보고를 보면) 다케시마는 지금의 뗏섬(竹

60) “(...) 中井教授は、竹島を日本名タケシマなりとし、竹島は或は武島とも記載するものあるを以て、そのいづれを正しとすべきか、鬱陵島開拓者の一人なる道同居住片岡吉兵衛氏について正した結果、竹島を以て正しきものとせられ更に松島、竹島命名の由来として「これ松が繁茂し、竹が繁茂せるために非ずして、松竹と並稱し、目出度き意に用ゐし由、日露戦争当時海軍の報告書に松島とある所為なり」と主張せられた。坪井教授は全く之に意見を同じうせられ、東国輿地勝覽、芝峰類説等の記事を、全くの想像より出でたものとして抹殺せられものである。(…)”, 田保橋潔(1931年 5月), 위의 책, 106쪽 상단 3~12행

61) 「外務省記録、朝鮮國鬱陵島禁渡航是引戻処分件 竹島考証 382-4」 일본 외교 사료관 소장 ; (번역본) 정영미 역(2006), 「竹島考証」, 『독도자료집 II』,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511쪽

島)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전이된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은 나카이 교수의 보고와 쓰보이 교수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Liancourt Rocks, 즉 독도는 완전히 논외였다.

그러나 다보하시는 나카이 교수가 오키 지방 노인의 말만 듣고 주장하는 다마고 섬이란 명칭은 고기록에 보이지 않으며,⁶²⁾ 울릉도의 일본명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마쓰시마⁶³⁾고, 뗏섬(竹島)이 다케시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나카이 교수가 말하는 다마고 섬(卵島)·마쓰시마(松島)·다케시마(竹島), 뗏섬(竹島)을 현행 해도에서의 Liancourt 암=제1島, Dagelet 섬=제2島, Boussole 섬=제3島로 하여 각 명칭을 정리한 것이 <표 4>다. 여기서 “다마고 섬 및 뗏섬(竹島)은 문헌상 확인되지 않고 울릉도만이 하나의 섬으로 마쓰시마·다케시마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다⁶⁴⁾”고 했다.

62) “(...) 中井教授は、卵島の名を以て称せられ、坪井教授も之に従はれて居るが、卵島の名稱は中井教授の報告に初めて見えるもので、古記録には一切所見がない。同教授の説は後段に述べる隠岐国故老の言に基いたものであるが、更に確実なる文献上の所拠を示されるやう希望する(…)” 田保橋潔(1931年 5月), 위의 책, 105쪽 하단 12~16행

63) “(...) 鬱陵島の日本名を松島と称する事は、筆者の述べたところで、何人も之に疑義を有するものはない(…)” 田保橋潔(1931年 5月), 위의 책, 105쪽 하단 17~18행

64) “(...) 以上論ずるところによって第一島洋名リヤクウル岩、第三島洋名ブソウル岩の名稱は、文献上猶確むるを得ず、但第二島鬱陵島のみ一島にして、松島、竹島の二名を有する事を論証することを得た(…)”, 田保橋潔(1931年 5月), 위의 책, 106쪽 하단 8~11행

〈표 4〉 다보하시의 울릉도·독도·죽도(댓섬) 명칭 정리

| | 서양명칭 | 조선명칭 | 조선명칭 | 해도 | 쓰보이·나카이 |
|------|-----------|------|------|-------------|-------------|
| 일본 ← | Liancourt | | | 竹島 | 卵島 |
| | Dagelet | 鬱陵島 | 울릉도 | 鬱陵島 (松島) | 鬱陵島 (松島) |
| | Boussole | 竹島? | 대섬? | 竹嶼 | 竹島 |

→ 한국

출처: 田保橋潔(1931년 5월), 『鬱陵島の名称に就いて(補) - 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 『靑丘学叢』, 第4号, 靑丘学会編, 104쪽에서 인용.

그리고 Boussole 섬에 대해서는,

제3島⁶⁵⁾를 竹島라고 칭하는 것은 가장 곤란한 문제다. 竹島는 일본명 다케시마[タケシマ]인지, 조선명 대섬(훈독하여)인지, 혹은 죽도(음독하여)인지조차 판명되지 않는다. 竹島에 武島라는 한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 나카이 교수는 오키[隱岐]와 이즈모[出雲] 지역 주민의 관용(慣用)이라고 하나 이것도 근거가 되는 문헌자료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단, 가장 주의할 점은 『지봉유설』, 『조선통교대기』, 『죽도기사』, 『죽도문답』 등에서 보이는 이소 다케시마[磯竹島] 혹은 다케시마[竹島]는 제2도, 즉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 부속된 암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다보하시는 주로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고문헌상에서 울릉도를 가리켰

65) “(…) 第三島を竹島と称する事は、最も困難なる問題である。竹島は日本名タケシマか、朝鮮名대섬(訓)か、或は죽도(音)であるかすらも判明しない。…竹島に武島の漢字を宛てる事は、中井教授は隱岐、出雲辺の住民の慣用として居られるが、之も文献について引拠を示さるれば大幸である。但此に最も注意を要するのは、芝峰類說、朝鮮通行大紀、竹島紀事、竹島文談等に見える磯竹島或は竹島は、第二島即ち鬱陵島を指すものでその附属の岩礁を指すものでない(…)”, 田保橋潔(1931년 5월), 앞의 책, 106쪽 상단 1~3행, 상단 13~18행

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이것이 그 부속섬인 댓섬[竹島]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추정은 나카이·쓰보이 교수 지적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앞의 아마기함의 보고는 물론, 다보하시의 설명이 고문헌 조사 및 사변적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양 교수는 오키도민의 증언 또는 울릉도 실지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란 지금의 댓섬[竹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봐도 타당할 듯싶다.⁶⁶⁾

그리고 다보하시는 울릉도에 대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두 명칭이 울릉도와 리앙쿠우루 암 사이에서 혼용됐으며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사이에서 혼용됐다고 한다.⁶⁷⁾ 그리고 최근 울릉도의 명칭이 마쓰시마로 확정됐기 때문에 ‘다케시마’라는 울릉도의 명칭은 자연스럽게 리앙쿠우루 섬의 명칭으로 넘어갔다.⁶⁸⁾ ‘다케시마’라는 명칭의 유래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대나무가 자라는 것에 연유한 것이고,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와 라 페루즈가 Dagelet 섬을 마쓰시마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적어도 19세기 초기에는 이 명칭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66)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증될 것이다.

67) “(…) かくの如く第一リヤクウルと第二島ダジュレエとは、江戸時代より明治初期に亘り、常に混同せられ、松島、竹島の名称は同時に両島の間混用せられたのは寧ろ普通である。従うて最近第二島の名称が松島と確定した以上は、その一名竹島が第一島に移されたのも決して不自然とは考えられない(…)”, 田保橋潔(1931년 5월), 위의 책, 108쪽 하단 16행~상단 4행

68) “(…) 磯竹島、或は竹島の名称は、既に江戸時代以前に存し、その竹を産するを以て名とした事実…松島の名称の由来は詳かでないが、かのドクトル・フィリップ・フォン・シーボルト가 도·라·펠루즈의 航跡를 研究して、ダジュレエ島を den Japanern längst bekannte Inselchen Matsusima と云つて居るのから考ふるに、尠くとも十九世紀初期には、広く此名を以て知られて居たと解すべきである。(…)”, 田保橋潔(1931년 5월), 위의 책, 108쪽, 상단 12행~하단 4행

이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도 명칭과의 관계에서 ‘다케시마’ 명칭을 설명하는 것은 오키하라와 같으나, 오키하라가 Liancourt Rocks의 새로운 명칭 ‘다케시마’가 에도 시대 울릉도의 명칭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다보하시는 에도 시대 이래 울릉도 명칭인 다케시마·마쓰시마 중에 울릉도 명칭으로 확정되고 남은 명칭 하나가 Liancourt Rocks에 붙게 됐다고 설명하는 차이점이 있다. 다보하시의 경우 이 Liancourt Rocks의 소유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⁶⁹⁾

4)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의 연구

앞서 본 1950~1960년대 한일 영유권 논쟁기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설명은 일본 고지도 학자 아키오카 다케지로의 설명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키오카는 동경대 지리학과를 졸업,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육군사관학교·법정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고지도 수집·연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평가받고 있는 지리학자였다.

그가 1950년에 발표한 논문 「일본해 서남의 마쓰시마와 다케시마」⁷⁰⁾ 및 1971년에 간행된 고지도집 『일본고지도집성』⁷¹⁾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 명

69) “(...) もと拙稿「鬱陵島、その発見と領有」は、日本海中の孤島たる鬱陵島が、ヨーロッパの航海家に発見せられた事実を述べ、更に同島の主権が日本鮮両国間の困難なる交渉となり、遂に日本国政府の平和的情報によって円満な解決を告げた顛末を論証するにあり、鬱陵島の名称について交渉し、その当否を争うのは本志ではない。(…)”, 田保橋潔 (1931年 5月), 앞의 책, 103쪽, 상단 7~12행

70) 秋岡武次郎(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会地理』, 通号27(8月), 東京: 日本社会地理協会編集, 7~10쪽

71) 秋岡武次郎(1971), 『日本古地図集成 併録 日本地図作成史』, 東京: 鹿島研究所出版会, 107~111쪽

칭 혼란에 대해 서양과 일본 고지도·고문헌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 앞서 인용한 일본정부전해 ④ 섬의 명칭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아키오카는 먼저 에도 시대 막부 말기 관찬 지도 제작자인 이노 다다타카 [伊能忠敬]의 실측일본도를 필사해간 시볼트의 「일본도」가 일본 오키와 조선 동남부 사이에 두 섬을 그린 후 여기에 각각 일본명과 서양명, 경위도선과 유럽인 발견자를 기록한 것을 말하고, 이것이 “섬의 수 및 일본지명, 유럽지명, 조선지명이 지금까지 매우 혼잡하게 섞여 온 문제”⁷²⁾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표 5〉 시볼트 「일본도(日本圖)」의 울릉도 독도 관련 기재사항

| 다카시마(竹島) | 마쓰시마(松島) |
|-------------|------------|
| Takasima | Matususima |
| L'Argonaute | L'Dagelet |
| 위도 37°25' | 위도 37°52' |
| 경도 130°56' | 경도 129°50' |

출처: 秋岡武次郎(1950), 7쪽 정리

이후 1. 「구미(歐美) 측」에서는 라 페루즈와 부루톤⁷³⁾이 각각 울릉도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 경위를 기술했다. 그리고 “시볼트도 위 탐험자의 보고서와 제 지도를 신뢰해 그의 지도에 아르고노트와 다줄레를 그렸고 (...) 그가 옛날부터 오키와 조선 사이에 두 개의 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72) “(...) これに関しては島の数及び日本地名、欧地名、朝鮮地名とが混淆し、錯雑を極めて今に及んでいる問題がある(…)”, 秋岡武次郎(1950), 앞의 책, 7쪽 상단 27~29행

73) 이 발견자는 영국의 코넛이다. 아키오카는 그의 1971년의 글에서 코넛으로 수정하고 있다. 107쪽

에 위와 같이 표기했다. (...) 시볼트가 귀국할 때 소지한 도서 목록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대일본세견지장전도」, 「개정일본도」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지도들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 그는 마쓰시마·다케시마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서양인과 일본인이 그린 지도를 비교해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라고 하고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라고 했다. (...) 그러나 다줄레 섬 및 아르고노트 섬은 실은 하나의 섬으로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줄레 섬에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나중에 큰 사실 혼란을 가져오게 됐다. 여기에 더해 조선명인 울릉도라는 이름이 더해져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⁷⁴⁾라고 한다.

또 1849년, 1854년, 1855년에 독도가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받으며 ‘발견’된 것과 1856년 간행 미국 페리 제독의 『일본래항기』 관찬 3권, 1856년 간행 제1권 부속도를 시볼트 지도에 바탕을 두고 <표6>과 같이 기술한 사실을 언급한다.

74) “(...) 시볼트도右二探検者の報告書や諸地図を信憑して右二島を描くと共に...一方我が国では古くから隠岐と朝鮮との中間に二つの島があることが知られ、... 시볼트의持帰った書籍の目録には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第二本細見指掌全図、改正日本図が載せられているからこれらの地図によったのだろう。彼はこの松島・竹島の実在を知り、歐人側と日本側との地図を比定してダジュレー島に松島を当て、アルゴノート島に竹島を当て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ダジュレー島及びアルゴノート島は実は同一嶋であり、竹島に該当すべきものであったから、ダジュレー島に松島の名を与えたことは後に大きな事実の混乱を惹起することとなった。加之後に朝鮮の名の鬱陵島の名が之に加わるに及び混乱は一層甚だしくなった (...)”, 秋岡武次郎(1950), 앞의 책, 7쪽 하단 14~15행, 8쪽 상단 3~13행

<표 6> 『일본래항기』 기재사항

| | 제1섬 | 제2섬 | 제3섬 |
|------|------------|-------|-------------------|
| 일본 ← | 아르고노트 섬 | 다줄레 섬 | — |
| | ※ 실재하지 않음. | 마쓰 섬 | 1855년 영국 군함 호넷 발견 |
| | | | → 한국 |

출처 : 秋岡武次郎(1950), 『일본래항기』 관찬 3권, 1856년 간행 제1권 기재사항, 8쪽 정리

그리고 “그리하여 이후 구미제 지도에는 점차 아르고노트 섬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현실을 반영한 2개의 섬만이 기재됐다. 그리고 조선에 가까운 다줄레 섬 즉 울릉도에 일본의 마쓰시마를 비정한 것은 시볼트로 이것이 이후의 구미제 지도에 답습돼 지금에 이르는 것이다.”⁷⁵⁾

다음으로 「일본 측 및 한국 측」에서는 다줄레가 조선의 우산국에서 무릉·우릉·울릉·울릉도 등의 명칭을 갖는 섬이며, 일본에서는 이소다케 또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갖는 섬임을 조선과 일본 고지도를 들어 증명하고, “이리하여 구미에서 말하는 다줄레 섬은 예전부터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이며, 또 조선의 울릉도로서 리양쿠루 섬 별명 호넷 섬은 예전부터 말하는 일본의 마쓰시마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정에서 시볼트가 「일본도(日本圖)」 이래 다줄레 섬, 즉 울릉도(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기에 이르렀다”⁷⁶⁾고 한다.

75) “(...)かくてその後の欧米製地図には次第にアルゴノート島の名が消え、現実通りの二島のみが記され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朝鮮島に近いダジュレー島即ち鬱陵島に日本の松島を当てたのはシボルトであって、これが以後の欧米製地図に踏襲されて今日に及んでいるのである(...)”, 秋岡武次郎(1950), 8쪽 하단 8~12행

76) “(...)かくして欧米でいうダジュレー島は古くから日本で称せられている竹島であり、又朝鮮の鬱陵島のことであって、リヤンクール島別名ホーネット島はふるくからいう日本の松島であった。而も既に述べたようなじじょうからシボルト日本図依頼ダジュレー島即ち鬱陵島(竹島)を欧米側では松島と記すに至った。(...)”, 秋岡武次郎(1950), 위의 책, 9쪽 중단 33행~하단 5행

이런 이유로 「메이지 이후의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지도에는 정확히 기록된 마쓰시마·다케시마가 “한편 메이지 후반에는 구미 지도상 마쓰시마의 잘못된 이름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류인지 혹은 그 양쪽 이유가 하나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울릉도를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자도 생겼다. (...) 한편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불러왔던 마쓰시마에 조선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또 조선인이 그린 여러 지도에도 이 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순전한 일본의 도서였다. 단지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인이 이 섬을 발견하고 그들 지도에 리앙쿠루 또는 호넷 섬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미제 및 일본제 지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게 됨으로써 이 섬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조차 무시돼 지금의 일본제 대소 여러 지도에도 그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적다”⁷⁷⁾고 했다.

위를 보면, 그가 독도 소유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50년으로 연구 시기는 그보다 앞설 것이다.

한편, 이형식(2010)의 「패전 후 일본학계의 독도문제 대응(1945~1954)」를

77) “(...) 一方明治後半には欧米地図上の松島の誤った名の影響を受けたためか或いは我が国に於ける自然の間違いからか若しくはその双方の理由が一緒になったためか知らぬが、鬱陵島を松島の名を以て呼ぶものも生じて居り…一方これに対して我が国としての昔からの松島は朝鮮自身としては全然これを関知せず、又朝鮮側の手になる諸種の地図にもこの島を記しているものは一つも見当たらない純然たる日本の島嶼であった。唯既述のようにヨーロッパ人がこの島を望見し、彼らの地図にリヤンクール又はホーネット島と挙げるものであった。然るに欧米製並びに邦製諸地図に於いて鬱陵島を松島と記すに至ったためこの島の存在が我が国自身に於いてすら無視され、現今の邦製の大小種々の地図にもその存在を記されているものが少ない (...)”, 秋岡武次郎(1950), 앞의 책, 9쪽 하단16~20행, 하단 29행~10쪽 상단 5행

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이 1953년 10월~1954년 1월에 독도문제에 식견을 가진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를 모아 연구회를 열고 연구성과와 학문적 의견을 들었으며⁷⁸⁾ 참여 역사학자로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나카무라 히라쿠[中村拓]·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⁷⁹⁾·아이바 기요시[相場清]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⁸⁰⁾ 따라서 아키오카가 독도 영유권 분쟁기의 일본정부견해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연구 내용이 일본정부견해 ④와 같은 것은 확연하다.

그리고 당시 외무성 조약국 제1과장이었으며 일본정부견해 작성에 직접 관여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1953년에 작성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보고서」⁸¹⁾ 내용을 보완해 발간한 1966년의 문헌⁸²⁾은 내용상으로 또 그가 직접 아키오카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⁸³⁾

그의 연구 관심이 ‘다케시마’에 있었고 서양·일본·조선 지도상의 울릉도·독도 명칭에 부여한 질서 역시 관련 있었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지도들⁸⁴⁾에서 ‘다케시마’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필 것이고 그 이름이 마쓰시마 또는 Liancourt Rocks 아니면 Hornet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 명칭들은 ‘다케시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칭이다. 그렇다면

78) 이형식(2011. 9), 「패전 후 일본학계의 독도문제 대응(1945~1954)」,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Vol. 1, 20쪽 8~10행
79) 이 사람은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와 같은 사람이거나 나카무라 에이코라는 이름의 일본어 표기(英子?의 오류인가)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
80) 이형식(2011. 9), 앞의 책, 26쪽 3~21행
81) 川上健三(1953年 8月), 『竹島の領有』, 東京: 外務省条約局
82)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9~31쪽
83) 川上健三(1966), 위의 책, 10쪽 1~3행 및 17쪽 1행~18쪽 12행
84) 아키오카 소장 지도는 그의 해제와 함께 1971년 고지도집으로 발간됐다(秋岡武次郎(1971), 앞의 책, 107~111쪽). 여기에는 일본 및 서양 지도 104점이 수록돼 있다.

‘다케시마’와 관련 있는 명칭은 무엇일까? 그것은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조선의 울릉도다. 따라서 그는 혼란 상태에 있는 명칭의 질서부여를 울릉도 명칭 설명에서 시작했다고 본다.⁸⁵⁾ 그러면 일본에서 울릉도 명칭이 독도 명칭으로 전도된 원인이 필요하다. 아키오카는 그 원인을 온전히 시볼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미 한국 학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신지현(1985)⁸⁶⁾은 구레 쇼조[吳秀三]의 ‘시볼트 연구’⁸⁷⁾를 인용해 시볼트가 하야시 시헤이[林平]·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마미야 린조[間宮林藏]·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등의 저술과 지도에 지식이 있음을 꼽고, “아르고노트를 竹島에 비정(比定)했던 것은 자신의 창작이라기보다는 일본 측(日本側)의 전술한 사람들의 지도(地圖)에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⁸⁸⁾ 그러나 위 언급한 자료들의 어떤 부분이 시볼트 지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증은 없다. 또 최석우(1985)⁸⁹⁾ 역시 시볼트의 지도 「일본인의(日本人)의 원도(原圖)와 천문학적(天文學的) 관찰(觀察)」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기록된 점을 들어 신지현과 마찬가지로 지적⁹⁰⁾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논증은 결여돼 있다.⁹¹⁾

시볼트가 자신의 지도에 왜 아르고노트·다줄레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비정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시볼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일지도 모른다.

한편 아키오카는 1950년 논문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1971년 글에서 시볼트가 다카하시 가게야스로부터 전달받은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를 베껴서 가져갔다는 서두부분을 뺀다. 에도 시대의 관찬 지도 제작자인 이노의 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따라서 시볼트가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인식에 대한 근거로 이노의 지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점을 인식한 것일까? 1971년 글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

그리고 1950년 글의 앞서 인용된 “그러나 구미제 및 일본제 지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게 됨으로써 이 섬(옛날부터의 마쓰시마=독도 : 집필자)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조차 무시돼 지금의 일본제 대소 여러 지도에도 그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적다”라는 부분은 “그러나 구미제 및 우리나라 여러 지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게 됨으로써 이 섬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85) 한편 아키오카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만든 조선 지도에는 간단하게 울릉도 한 섬만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또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磯竹島 또는 竹島로 알려져 있었다”(秋岡武次郎(1950), 앞의 책, 8쪽 하단 29~31행)고 하며 조선의 지도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팔도총도」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우산도의 두 섬으로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묵언하고 있다.

86) 신지현(1985), 「鬱陵島·獨島의 認知와 領有」,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광문사, 91~145쪽

87) 吳秀三(1926), 『シーボルト先生其生涯及功業』, 東京

88) 신지현(1985), 앞의 책, 112쪽 4행~6행

89) 최석우(1985), 「歐美側 文獻에 나타난 獨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광문사, 335~360쪽

90) 최석우(1985), 위의 책, 336쪽

91) 한국 측 연구는 섬의 명칭 전도에 있어서 ‘시볼트 원인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 측 연구의 논박 대상은 가와카미의 연구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키오카의 연구를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볼트 원인론은 시볼트가 일본 고지도상의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인식하는데 이를 서양 지도의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에 비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볼트가 일본 사람의 연구를 참조했다고 하는 한국 측 지적과 같은 것이다. 또 최석우는 “歐美의 海圖들, 특히 英國의 「中國水路誌」가 이른바 「시볼트」의 誤謬를 答습했다는 日本側 주장은 어디까지나 역지에 지나지 않는다”(337쪽)고 했는데, 가와카미(13쪽)도 아키오카(8쪽)도 시볼트 지도를 답습한 서양 지도의 예로 1856년간 페리 제독의 『일본원정기』 삽입도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일본어 텍스트 해독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조차 전자(前者)의 섬[마쓰시마=울릉도 : 집필자]과 자주 혼동되는 경향을 보였다”⁹²⁾로 바뀐다.

5) 결론적으로

아키오카의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혼란과 그 전도(顛倒) 논리는 1950~1960년대의 일본정부견해에 일본의 ‘다케시마’ 인식 또는 인지에 대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했고, 1966년 간행된 가와카미의 문헌으로 계승됐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1906년의 오쿠하라, 1931년의 다보하시의 연구를 아키오카가 참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에서 ‘다케시마’ 인식 또는 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 아키오카·가와카미의 설명이 비판 없이 전제된다. 더 나아가 한국 연구에서 일본의 두 섬에 대한 명칭 혼란론을 비판적으로 기술할 때도 아키오카가 제공한 설명 자료와 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⁹³⁾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섬 명칭 혼란론은 새로 편입한 영토 ‘다케시마’가 울릉도라는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반론(오쿠하라, 1906)과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명한 인식(아키오카, 1950) 위에서 구

성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후 모두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서양 함선의 울릉도 발견과 측정 오류라는 울릉도 명칭 변화로부터 기술하는 방식이 한일 간 본격적인 영유권 논쟁의 발발과 맞물리면서 정치화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시대에 ‘다케시마’가 울릉도(오쿠하라, 1906)이거나 지금의 땃섬[竹島](다보하시, 1931, 5)이라는 인식이 공존했다는 사실이다. 이 중 다나카 아카마로의 논문은 동경지학협회 간행 『지학잡지』에 1905년 8~10월 실린 논문이다.⁹⁴⁾ 동경지학협회⁹⁵⁾는 유럽 각국에서의 왕립지리학회와의 역할을 본떠 1879년 4월 12일 창립됐다. 그리고 1883년에 설립된 ‘지학회’와 1893년 합병하고 1899년부터 학회지 『지학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발간하고 있다. 이런 정평이 나 있는 잡지에서 다나카 아카마로는 오쿠하라가 지적한 것처럼 ‘다케시마’를 울릉도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 점은 그다음 해인 1906년 6월호에야 정정된다.⁹⁶⁾

또 ‘다케시마’가 지금의 땃섬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 지시에 의한 울릉도 실지 조사 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나카이 다케노신의 울릉도 조사보고란 정확히는 1933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울릉도식물조사서』⁹⁷⁾다. 이 조사서 맨

92) “(...) 一方之に対して我国としての昔からの松島は朝鮮自らとしては之に関与せず…しかるに欧米製並びに邦製諸地図において鬱陵島を松島と記すに至ったためこの島が…わが国自身においてすら前者の島と混同されがちであった(...)”, 秋岡武次郎(1971), 앞의 책, 111쪽 중단 6~8행

93) 예를 들면, 1787년 라 페루즈가 울릉도를 발견했으며 1789년에는 코벳이 또 울릉도를 발견했는데 경위도가 달라 동해상에 울릉도가 두 개의 섬으로 나타났으며 (...) 운운 등 아키오카가 ‘다케시마’ 명칭을 서양인의 울릉도 발견과 측정 오류에서 시작하는 것과 ‘시볼트 원인론’을 비판 없이 전제하기도 한다.

94) 田中阿歌麻呂(1905), 「隱岐国竹島に関する旧記」, 『地学雑誌』, 第17集第200号(1905. 8. 15刊行), 東京: 東京地学協会, 594~597쪽; (1905), 「隱岐国竹島に関する旧記(承前)」, 『地学雑誌』, 第17集 第201号(1905. 9. 15刊行), 東京: 東京地学協会, 660~663쪽; (1905), 「隱岐国竹島に関する旧記(元結)」, 『地学雑誌』, 第17集 第202号(1905. 10. 15刊行), 東京: 東京地学協会, 741~743쪽

95) www.geog.or.jp/index.html 참조

96) 田中阿歌麻呂(1906), 「隱岐国竹島に関する地理学上の知識」, 『地学雑誌』, 第18集 第210号(1906. 6. 15刊行), 東京: 東京地学協会, 415~419쪽. 그는 이 논문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다시 쓰고 보기(419쪽)에서 전년도 200~202호 기사는 울릉도에 대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정정하고 있다.

97) 朝鮮總督府(1933), 『鬱陵島植物調査書』, 東京: 三秀舎

앞에는 “본편은 본 총독부 촉탁 이학박사 나카이 다케노신의 울릉도 식물조사보고서로서 학술상, 산업상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으므로 인쇄했다. 다이쇼 18년 조선총독부...”⁹⁸⁾라는 서문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다케시마’가 울릉도 또는 ‘땃섬’이라는 인식이 더 일반적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현실에 기반을 둔 인식(쓰보이·나카이의 지적)이었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즉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가 시볼트 지도를 원인으로 전도된 것이라는 일본 측 설명은 그야말로 영유권 주장을 위한 설명일 뿐이며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본 논문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역사 사실로 기술된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표기하는 연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리앙쿠르 록스와 해군⁹⁹⁾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로 명명해 새로 편입한 섬 Liancourt Rocks와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를 역사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노력—섬의 명칭 혼란—에도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은 1950년대까지 일본 정부에 남아 있었다.

이 명칭은 일본 측 구술서 <부록1> No.1¹⁰⁰⁾ 및 1952년 4월 25일 자 <부록1> No.2¹⁰¹⁾에서까지 Take-Shima의 다른 이름으로 병기되다가 1953년 7월 13일 일본정부견해 ①에 와서야 삭제된다.¹⁰²⁾ 이후 일본 측 구술서에서는 Take-Shima라는 이름만 남는다.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이렇게 1950년대 일본정부 공식 외교 문서에까지 거명된 이유는 이 명칭이 일본정부와 관계가 깊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섬의 명칭 혼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다케시마’의 외국 명칭에는 그 외에도 호넷 섬 또는 올리부차·메넬라이 섬 등의 명칭이 있다.

99) “이러한 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서양제국주의의 세력이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탐험하고 자기 나라식의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중에 일본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의 측량 잘못으로 그 명칭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종래 독도에 붙였던 송도의 명칭을 울릉도에 같 다 붙이고 송도라고 했던 독도의 명칭은 섬의 특징이나 구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모방 (...) 이것은 러일전쟁에 대비해 조선침략의 교두보로 먼저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 최문형(1990), (책제목), 136~137쪽

“독도를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에게 인정이라도 받으려는 듯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제국주의 침탈을 위장”, 김병오(1997), (책제목), 10쪽

100) 각주 29) 참조

101) 각주 31) 참조

10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Korean Mission in Japan and with reference to the Latter’s note of June 26, 1953, concerning the unlawful landing on the Take-shima, a Japanese possession (...)”

98) “本編は本府囑託理學博士中井猛之進ノ鬱陵島植物調査報告書ニシテ學術並産業上參考ニ資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印刷ニ附ス大正八年四月 朝鮮總督府”

이 명칭들이 서양 지도를 통해 일본 지도에, 또 이를 통해 일본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명칭들이 새로 편입한 일본의 신 영토 '다케시마'의 전 이름으로서 외교 공식 문서상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거명된 것은 그 자체로 이 명칭과 일본 정부와의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

다음부터는 Liancourt Rocks와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겠다.

1. 가와카미의 다케시마·마쓰시마와 고지도

가와카미(1966)의 제1장 제1절 「도명의 혼란(島名ノ混乱)」¹⁰³⁾은 앞의 아키오카 연구를 더욱더 체계화한 것이다.¹⁰⁴⁾ 그는 아키오카가 제시한 자료 외에도 더 많은 자료—주로 지도—를 예로 들어, 서양 함선의 울릉도 발견과 측량 오류, 독도 발견, 이에 따른 여러 명칭의 발생, 시볼트의 명칭 비정 오류로 일본에서 울릉도가 '다줄레=마쓰시마'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된 과정을 설명했다.

즉 "(...) 라 페루즈 이래 구미인에 의한 이들 두 섬[울릉도·독도: 집필자의 발견과 그 지리적 지견의 변천, 특히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에 비정한 시볼트 이후의 잘못된 지식이 충분히 음미되거나 정리되는 일 없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자,

103) 川上健三(1966), 「島名の混乱」,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第1章 第1節, 9~31쪽

104) “この竹島の島名の混乱の事実については…この問題に決定的な解答を与えたのは秋岡武次郎氏で、同氏の論文「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ではシーボルトがダジュレー島を「松島」にあって、アルゴノート島を「竹島」にあってたことから、島名が混乱するに至った経緯がきわめて明解に説明されている (…)”, 川上健三(1966), 위의 책, 9쪽 9행~10쪽 1~3행

그때까지 아무런 오해도 혼란도 없었던 울릉도, 마쓰시마, 다케시마 3자 관계의 명확성이 결여됐다”¹⁰⁵⁾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지도를 ① 전통적 마쓰시마·다케시마 계통의 지도, ② 구미제 지도의 영향을 받은 계통의 지도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를 제시한다.¹⁰⁶⁾

분류 ①은 에도 시대 중기 이후 일본 지도의 계통을 답습한 지도 리스트¹⁰⁷⁾고, 구미의 지리적 지견이 들어온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한 후 발견되는데¹⁰⁸⁾, 1894년경에도 산음지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울릉도를 여전히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¹⁰⁹⁾고 한다. 한편 '다케시마'는 이 지방에서는 마쓰시마가 아닌 리양쿠르의 방언 '리랑코 섬' 또는 '랑코 섬'으로 부르는 게 보통이었으나 '예전부터 내려오는 호칭인 '마쓰시마'가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고' 1903년까지 마쓰시마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고 했다.¹¹⁰⁾

분류 ②는 최신의 구미 지리적 지식을 받아들인 일본 지도를 나타낸다. 그 중 오래된 것은 1861년 네덜란드 지도를 번역한 「신간여지전도(新刊輿地全圖)」인데, 이 지도는 시볼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줄레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¹¹⁾

105) “(...) ラーペルウズ以来の欧米人によるこれら兩島の発見とその地理的知見の変遷、ことにダジュレー島を松島に比定したシーボルト以来の欧米人によるこれら兩島の発見とその地理的知見の変遷、ことにダジュレー島を松島に比定したシーボルトの誤った知識が、十分に吟味、整理されることなくわが国に伝えられるや、それまでなんら誤解も混乱もなかった鬱陵島、松島、竹島の三者の關係が明確を欠くようになるのである (...)”, 川上健三(1966), 위의 책, 19쪽

106) 川上健三(1966), 위의 책, 29~39쪽,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리적 지식의 변천」(표)

107) 川上健三(1966), 위의 책, 9쪽 14~15행

108) 川上健三(1966), 위의 책, 20쪽 7~8행

109) 川上健三(1966), 위의 책, 21쪽 13~14행

110) 川上健三(1966), 위의 책, 21쪽 14행~22쪽 4행

111) 川上健三(1966), 위의 책, 22쪽 11~16행

또, 시볼트 지도의 영향을 받은 1856년 페리 제독 『일본원정기』 부속도 및 1859년, 1866년 제임스 와일도의 지도를 답습한 1867년 가쓰 가이슈(勝海州)의 「대일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略島)」 계열 번역 지도¹¹²⁾가 아르고노트·다줄레·리양쿠르(또는 호넷)의 세 섬을 기록했다고 한다.¹¹³⁾ 그 외 다른 서양 지도를 답습해 울릉도를 다줄레로 표기했으나 독도를 올리부차·메넬라이로 기록한 지도¹¹⁴⁾ 및 지도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표기돼 있으나 그 형태·위치로 보아 명백히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인 지도 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¹¹⁵⁾

한편, 고지도만 가지고 보면 가와카미의 설명에는 맹점(盲点)이 있다. 가와카미의 이 분류표를 기초로 하고, 그 외 아키오카의 논문과 지도집¹¹⁶⁾, 1950~1960년대 일본 정부전해 작성에 참여했던 나카무라 히라쿠의 지도집¹¹⁷⁾,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집¹¹⁸⁾ 등 간행 고지도집에 수록된 290여 점의 일본 고지도 중 울릉도·독도가 기재된 지도를 발췌해 그 기재사항을 가와카미 방식에 의해 분류한 것이, <부록2> 전통적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계열 지도와 <부록3> 구미의 최신 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제 지도다.

이 부록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112) 橋本玉蘭(1870), 「大日本四神全図」; 樫原義長(1886), 「大日本地圖」; 前川善兵衛(1893), 「詳密日本新地圖」; 加川千義(1906), 「明治三十七八年戰役紀念地圖」 등
 113) 川上健三(1966), 앞의 책, 24쪽
 114) 川上健三(1966), 앞의 책, 26~27쪽
 115) 川上健三(1966), 앞의 책, 27쪽
 116) 秋岡武次郎(1971), 『日本古地圖集成 鹿島研究出版會』, 東京. 총 104점의 일본 고지도가 수록돼 있다.
 117) 中村拓(1972), 『日本古地圖大成』, 東京: 講談社. 총 133점의 일본 고지도가 수록돼 있다.
 118) 鈴木純子·渡辺一郎編(1999), 『最終上程版 伊能圖集成[大圖][小圖]』, 東京: 柏書房. 총 51점의 일본 고지도가 수록돼 있다.

① 고지도상으로 보면 에도 시대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계열 지도가 서양의 울릉도·독도 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제 지도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② 서양 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제 지도에 한해서 보면 울릉도를 아르고노트인 다케시마와 다줄레인 마쓰시마 두 섬으로 기재한 지도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②의 지도상 울릉도는 서양 함선의 측량 오류로 생겨난 ‘가공의 섬=아르고노트’와 실제의 ‘울릉도=다줄레’ 위치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번역돼 기재됐다는 점이다.

이 지도를 통해 독자가 일차적으로 얻는 정보는 서양 지도상 ‘가공의 울릉도인 아르고노트와 실제의 울릉도인 다줄레’라는 것이 아니다. 그 번역어인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인 것이다. 그리고 동해상에 여전히 에도 시대와 같이 다케시마는 조선 쪽에, 마쓰시마는 일본 쪽에 그려져 있다는 정보를 얻는 것이다. 물론 경위도상으로는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인식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이 지도들이 에도 시대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계열의 지도들과 다른 점은 없을 것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에도 시대와 같이 조선 쪽에 다케시마, 일본 쪽에 마쓰시마라는 명칭을 가진 두 개의 섬이 동해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여기에서 서양의 새로운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를 반영한 지도가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에 미친 영향을 운운할 여지는 없어진다.

물론 <부록>에서 다룬 고지도가 일본 고지도 전체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영된 지도들은 현재 일본에서 간행된 저명한 고지도집에 수록된 검증된

지도들이다.¹¹⁹⁾ 한편, 현대송(2009)¹²⁰⁾은 “1590년대부터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 되기까지 일본(日)이 제작한 지도로서 조선 전도, 일본 전도, 그 축적과 판도로 보아 독도가 기록 가능한 아시아 지도, 세계 지도, 오키 섬, 시마네현 산음지역도 등 지방도 일본 고지도 화상 653점을 분석”¹²¹⁾ 했는데, 그 대부분이 아르고노트·다줄레의 위치에 그려진 다케시마·마쓰시마라는 명칭의 두 개 섬이 그려진 지도였다.¹²²⁾

아키오카·가와카미가 말한 바와 같이 확실히 서양 지도가 일본 지도에 영

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근대에 들어 울릉도가 실제 울릉도의 위치에서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표기돼 나타나는 지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의 ‘인식’ 변화에 직접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사람의 인식에 대한 영향력에 주안점을 두는 한,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인식을 나타내는 지도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도 서양 지도의 영향으로 아르고노트·다줄레의 위치에 그려지기는 하나 동해상에는 여전히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이 그려진 지도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지도를 사용해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와 근대 이후 아르고노트·다줄레의 위치에 그려진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일본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은 에도 시대에도 근대에 들어서도 어디까지나 다케시마·마쓰시마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명칭들이 지시하는 실체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항해자가 아닌 이상 인식은 명칭의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오쿠하라(1906) 논문에서처럼 왜 당시 사람들이 새로 편입한 ‘다케시마’를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라고 인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 섬의 명칭의 혼란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울릉도의 명칭에 한한다. 독도와는 관련이 없다. 독도와는 관련성은,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가 근대에 들어 마쓰시마로 명칭이 전이됐기 때문에 마쓰시마가 ‘다케시마’가 됐다는 설명뿐이다. 이 점은 가와카미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가와카미는 그의 논문(196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고래의 마쓰시마, 다케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전해진 여러 계통의 지리적 지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상당히

119) 中村拓監修(1972), “日本地図学史上重要かつ代表的と考えられる古地図のうち、世界図を除く各種の地図を収録したもの。ただし必要と思われる場合には、収録図と関係深い世界図或は西洋製地図を併載して参考に供した”, 凡例 인용 등

120) 현대송(2009), 「일본 고지도로 본 일본의 독도 인식」, 『지해 해양학술상 논문 수상집』, 4~9쪽에 잘 정리돼 있다.

121) 현대송(2009), 위의 책, 1쪽, 「초록」 참조

122) 현대송(2009)은 「IV 일본제작 지도상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관계와 소속」(30쪽~)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같이 게재된 지도로서 두 섬의 상호위치 관계가 판별 가능한 189종(〈표 6〉, 30쪽) 지도 검토 후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한 지도는 90% 이상(전체 55종 중 50종)이 다케시마의 위치를 울릉도에서 보아 시계 10시 방향, 즉 북서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인식상으로는 한국의 영토로 보아 무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독도의 실제 위치와는 정반대 방향인 북위 38도, 동경 130도 부근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르고노트’의 위치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 난점이다”(31~32쪽)라고 기술했다. 이 기술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같이 게재된 지도’라는 것은 한국어 번역인데 일본 지도상으로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같이 기술된 지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같이 기술된 지도에는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 계통의 지도와 근대 이후 ‘다케시마=가공의 섬 울릉도’, ‘마쓰시마=실제 울릉도’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검토한 지도 대부분 ‘다케시마가 (...) 아르고노트의 위치’에 그려져 있다고 지적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생각할 때 근대 이후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한 일본 지도(도명의 혼란론을 입증할 만한 지도)가 대량 유포된 것은 인정할만하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지도상의 명칭은 어디까지나 조선쪽에 다케시마, 그 옆에 마쓰시마를 기록함으로써 두 개의 명칭 관계가 사람들의 인식상 혼란을 빚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이르기까지 혼재하게 되는데 단지 이것들을 통괄하고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다케시마'는 옛날에는 '마쓰시마', 구미의 지식이 들어오고 나서는 '리엔코루토 록크' 또는 '메넬라이 섬 및 올리부차 섬' 등으로 불리고는 있었으나 아직 한 번도 '다케시마'라고 불린 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은 이 섬을 시마네현의 소관으로 편입한 후의 일이다. (...)123)

2. 리앙쿠르 록스와 해군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할 때 섬의 명칭을 시마네현에 조회한 결과다. 즉,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가 당시의 마쓰시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것이다.

이 과정은 확실히 아키오카·가와카미가 말하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명칭 전도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위의 인식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당시의 일반적 인식 전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인식은 당시의 독도가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라는 인식 또는 뗏섬[竹島]이라는 등의 여러 인식 중 하나였고, 오히려 마이너(minor)적이었다. 경위도상의 위치야 어쨌든 명칭상으로는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도에는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우세하거나 보통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케시마'가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라는 인식과 지식은 17세기 오야·무라카와의 울릉도 도해를 계기로 산음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관련 고문헌과 구전(口傳)을 참조할 수 있었던 시마네현 정부에 한한 인식이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자부로조차 독도를 한국 영토 Liancourt Rocks로 알고 있지 않았던가. 이 마이너적인 인식이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정설(正設)로 정착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케시마'라는 명칭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 아래 형성된 '역사적 사실' 중 하나라면, 다음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마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일 것이다.¹²⁴⁾ 이 명칭이야말로 당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을 반영한 명칭이었다. 이 명칭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으며 정부문서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불가결해진다.

다음 <표 7>은 독도가 Liancourt Rocks로 표기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표 7> Liancourt Rocks가 기재된 자료

| 편찬연도 | 자료 | 출전 |
|-------|----------------------|----------|
| 1886년 | 일본 해군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 호리, 1987 |
| 1894년 | 일본 해군 『조선수로지』 | 호리, 1987 |

124) 필자가 Liancourt Rocks의 연구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은 동국대 명예교수 임영정 씨의 시사(2010, 2)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영정 교수는 필자에게 일본 측 연구에서 등장하는 Liancourt Rocks에 대한 한국 측 검증이 전혀 없었으며 이 명칭이 언제 어떻게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123) "(...) このように、わが国古来の松島、竹島に関する知識と、その後欧米から伝えられたいろいろの系統の地理的知識とが、明確に整理されないままに相当後世に至るまで混在す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が、ただこれらを通覧してここにはっきりいえることは、今日の竹島は、古くは「松島」、欧米の知識が入ってきてからは「リエンコラルトロック」または「メネライ瀨およびユリウツ瀨」などと呼ばれてはいたが、いまだかつて「竹島」といわれた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が「竹島」の名が与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同島を島根県の所管に編入してから後のことに属している(...)" 川上健三(1966), 앞의 책, 28쪽 12~17행

| | | |
|-------|---|----------------------|
| 1899년 | 일본 해군 『조선수로지』 | |
| 1904년 | 나카이 요자부로 『량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 | 1953, 7. 13 일본정부건해① |
| | 『군함 니타카 행동일지』 1904, 9. 24 및 1924, 9. 25 | 최문형, 2004 / 호리, 1987 |
| 1905년 | 『군함 쓰시마 전시일지』 1904, 11, 13~19 | 1952, 9. 9 한국정부건해① |
| | 『비고문서』 67호 | |
| | 『관보』 1905, 5. 29 | |
| | 『오사카 아사히신문』 1905, 5. 29 | |
| 1905년 | 『관보』 1905, 5. 30 | |
| | 『전보신문』 1905, 5. 31 | |

※ 이 표의 출전은 자료가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문헌을 기재했다. 한국 연구와 일본 연구 모두 자료의 초출 문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향이 커 어느 자료가 어떤 학자에 의해 제일 처음 언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필자가 아는 한 되도록 자료의 초출 문헌을 출전으로 기록했으나 약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 보완해나가겠다.

또 <표 8>은 <부록3>에서 독도가 Liancourt Rocks로 기재된 지도만 발췌한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 리스트는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도 중 독도가 Liancourt Rocks로 표기된 지도 전부를 망라한 것 같다. 현대송(2009) 역시 Liancourt Rocks가 표기된 일본 지도에 대해 거의 같은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¹²⁵⁾

125) 현대송(2009), 앞의 책, 30쪽 <표 6> 「울릉도에서 보는 독도의 위치 방향과 빈도」. 단, 지도 리스트가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지도에 기재된 Liancourt Rocks인지 서양 지도에 기재된 그것인지는 판별되지 않는다.

<표 8> 독도가 Liancourt Rocks로 기재된 지도

| 연대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 독도 표기 |
|-------------------|-------------------------|--|---|---------------------------|
| 1867년 (慶応 3年) | 가쓰 가이슈 勝海舟 | 『대일본연해약도』 『大日本國沿岸海圖』 | ▽竹島 ◎松島 (호우리루 록크(ホウリルロック)) | 리엔코라루 록크 (リエンコラルロック) |
| 1870년 (明治 3年) | 하시모토 교쿠란 사이 橋本玉蘭齋 | 『대일본사신전도』 『大日本四神全図』 | ▽竹+嵯陵島(한린도, 란칸토(ハンリントウ, ランカントウ)) 竹シマ ◎松シマ(호우리루 록크, 세유르 사키(ホウリル ロック、セウルク)) | 리엔코우루토 록크 (リエンコウルトロック) |
| 1874년 (明治 4年) | 오키 간레이 沖冠嶺 | 『대일본 및 지나 조 선도』 | ▽竹島 ◎松島 | 리엔코우루토 록크 (リエンコウルトロック) |
| 1880년 (明治 13年) | 해군수로국 海軍水路局 | 군함 「아마기」가 마쓰시마=울릉도 확인 軍艦「天城」 *松島=嵯陵島を 確認 | ◎松島 | 리엔코루토 암 (リアンコルト岩) |
| 1886년 (明治 19年) | 가시와라 요시나카 梶原義長 | 『대일본지도』 『大日本地図』 | ◎松島(호우리루 록크, 세유르 사키(ホウリル ロック、セウルク)) | 리엔코루토 록크 (リエンコルトロック) |
| 1896년 (明治 29年) | 수로부 水路部 | 『조선』 『朝鮮』 | 嵯陵島·松島 | 리양코루토 암 (リアンコルト岩) |
| 1906년 (明治 39年) | 가가와 지요시 加川千義 | 메이지37, 38년 (1904, 5년) 전역 기념지도 明治三十七八年 戦役記念地図 | 嵯陵島(松島) | 竹島(리양코루토 (リアンコルト)) |

※ ▽竹島는 가공의 섬 아래고노트 표시, ◎松島는 실제의 '울릉도=다줄레' 표시

위의 <표 7>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이 일본 해군, 1905년 2월 독도 편입 과정, 1905년 5월 27일 울릉도 부근에서 개전된 일본과 러시아의 해전 관련 언론보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한

일 간에 이미 잘 알려진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또, 위의 <표 8>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이 명칭이 일본 해군과 러일전쟁 및 정부 관련 지도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1880년, 1896년, 1906년 자료는 일본 해군 및 러일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머지 지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위의 리스트를 참고하면 Liancourt Rocks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본 지도는 가쓰 가이슈의 「대일본국연해약도」다. 이진명(1998)에 의하면, 1849년(철종 1년)에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리앙쿠르호는 귀향한 그날(1849년 4월 19일) 바로 Liancourt Rocks 목격 등에 대한 항해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¹²⁶⁾

그리고 1850년 프랑스 해군성 해도국은 그 내용을 『수로지(Annales hydrographiques)』(tome 4, 17쪽, 1951년 간행)에 수록했고, 1851년에는 「태평양전도」(해도번호 1264)에 독도를 기재했다. 이로써 독도는 사상 최초로 해도상의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게 됐다고 한다.¹²⁷⁾

이후 독도가 Liancourt Rocks로 기재된 서양 지도가 등장하는데 가쓰 가이슈의 「대일본국연해약도」는 그중 영국의 지도를 번역한 지도다. 지도상 “요즘 항해술이 발달해 선함이 빈번해졌으나 영국출판지도가 매우 정밀한 것을 가숙(家塾, 사설 교육소 : 집필지에서 번각해 항행을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의 서문을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다.¹²⁸⁾

126) 이진명(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주)도서출판 삼인, 51쪽

127) 이진명(1998), 위의 책, 51~52쪽; 정인철(2010), 『프랑스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2010 연구지원 성과물/미발간), 참조

128) “大日本国沿海略図

方今航海術日盛而環海航船路繹不絕。然間差針路為暗礁砂洲遭危難者不少。是乃閱地圖疎與地圖不密密之失也。偶觀英國所刻東洋測量圖海岸深涉山岳高低水源潮路島嶼暗礁盡無不記其國難小而其用為大因刻於家塾以便航行之徒云。慶應三丁卯朱明月既

그런데 영국의 호넷도 1955년 독도를 ‘발견’하고 호넷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음에도 가쓰 카이슈가 참조한 영국 지도에는 Liancourt Rocks로 기재됐다고 하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당시 서양 각국의 해도 정보 교환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95년 영국에서 수로국이 창설돼 해도를 제작, 판매한 것을 비롯해 18~19세기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러시아, 아메리카 등에 수로국이 창설되면서 각국의 해도 정보를 교환·공유하게 됐다.¹²⁹⁾ 이 과정에서 1849년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정보가 공유되고 리앙쿠르호의 Liancourt Rocks라는 이름이 먼저 명명된 것을 인정받아 영국 지도에도 실리게 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기쿠치 신이치[菊池眞一](2007)의 연구 노트에 의하면 이 영국 지도란 영국 수로부 제작 「海圖 2347 Nipon, Kiusiu and Sikok」(1828)의 1863년 11월 개정판 이후 판본¹³⁰⁾인 1:1,800,000 항해도 「海圖 2347-Japan-Nipon, Kiusiu and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를 참조한 것이다. 이 지도에

望海舟勝義邦識 江左鳴鷺福田群書”

『明治大学人文科学研究所創設40周年記念 蘆田文庫目録 古地図編』(蘆田文庫編纂委員會, 2004. 3)

目録番号 09-24-1, 목판(色刷), 1舖, 62.5×71.6cm(17.9×9.9cm), 화상(畫像)은 蘆田文庫 홈페이지(www.lib.meiji.ac.jp/per1/ashida/search_detail?detail_sea_param=loc,9,24,1)에서 볼 수 있음

129)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横山伊徳(2001), 「一九世紀日本近海測量について、黒田日出男外編」,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69~344쪽을 참조할 것

130) 1855. 10. 12, 1861. 8, 1862. 8, 1863. 5. 15, 1863. 10. 10, 1864. 6, 1865. 6에 걸쳐 개정됨.

菊池眞一(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国地図—日本水路部創設前の海図史—」, 『海事情報部研究報告』, 第43号(2007. 3. 28号), 東京: 海上保安庁, 7~8쪽

는 <부록2>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케시마_[竹島]=가공의 울릉도’, ‘마쓰시마_[松島]=실제 울릉도’, ‘리엔코오루토 록크=독도’가 기재돼 있다.¹³¹⁾

일본 근해 및 연해에 대한 근대적 해도는 메이지 시대 초기 서양의 수로부가 그렸다. 막 개국한 일본의 수로부는 국제항해용 해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수로부가 일본의 근대 해도를 그렸는데, 이 해도들은 외국 수로부의 측량뿐만 아니라 에도 말기 관찬 지도 제작자인 이노 다타카_[伊能忠敬]의 실측 일본 지도¹³²⁾를 참조해 그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해도 중 가장 초창기의 해도가 1855년에 간행된 「영국해도(Admiralty Chart)」 2347 ‘Japan’ 및 2405 ‘The Kuril Islands’이다.¹³³⁾

따라서 일본 내에서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일본제 지도 중

131) 단, ‘마쓰시마=울릉도’에는 호우리루 록크라고도 기재돼 있는데 이 명칭이 1855년 호넷이 명명한 ‘호넷=독도’의 방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한다.

132) 1854년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1816년 에도부내 측량까지 10회에 걸쳐 각 지역을 측량하고 지도(약 400종)를 제작해 막부에 상정했다. 이 지도를 총칭해 「이노도(伊能圖)」라고 한다. 鈴木純子·渡辺一郎編, 最終上程版 伊能圖集成[大図][小図], 柏書房(1999), 3쪽. 「이노도」는 본문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볼트의 지도 및 그 외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 지도, 수로도, 해도 등에 원용(援用)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많은데(본문에서는 아키오카(1950), 「일본 고지도연구」, 1권 1호, 『대일본국연해약도』 소개 등으로 그 외 많은 고지도 연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관찬 지도인 「이노도」에 울릉도,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없다. 만일 「이노도」가 서양 지도와 서양 영향을 받은 많은 일본 지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지도들에 표기된 Liancourt Rocks는 온전히 서양의 측량 및 이에 따른 인식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이는 일본 에도 시대의 ‘마쓰시마=독도’라는 인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에는 일본 에도 시대 ‘마쓰시마=독도’라는 인식이 메이지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단절됐음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133) 菊池眞一(2007), 「幕末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本近海英国地図—日本水路部繪設前の海図史—」, 『海洋情報部研究報告』, 第43号(2007. 3. 28号), 東京: 海上保安庁, 1~2쪽

Liancourt Rocks가 처음으로 기재된 지도로 1867년 가쓰 가이슈의 「대일본국연해약도」를 상정해도 그다지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본다.

일본에 남아있는 고지도 중 한 점인 이 지도에 대해 이후의 고지도 연구자들이 무언가 특별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평가 하나를 볼 수 있었다.

“가쓰 카이슈가 일본 에도 막부 말 동란기에 영국판 해도를 사숙생(私塾生)용으로 번역한 것.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해 해륙의 도형, 지리적 위치도 좋다. 수심 해류도 들어 있으며 이즈 반도 제항(諸港)의 분도(分圖)가 들어 있다. 당시 「이노도(伊能圖)」는 어용도(御用圖)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었으나 오히려 외국에서 역수입해 들어온 지도를 통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항간에는 그다지 유포되지 않았던 것 같다.”¹³⁴⁾

본 논문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그러나 현재 파악할 수 있는 Liancourt Rocks가 기재된 메이지기의 고지도 8여 점 중에 제일 처음으로 그려진 지도가 가쓰 가이슈의 지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가쓰 가이슈가 ‘일본 제국 해군의 기초 건설에 공헌했으며 일본 해군사에 특필해야 할 제일인자’¹³⁵⁾로 평가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34) “勝海舟が幕末動乱期に英国版海図を私塾生用に和訳したものでメルカトル図法を用い海陸の図形, 地理的位置もよい, 水深, 海流も入り伊豆半島諸港の分図が入っている。当時伊能圖は御用圖として国内に用い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がかって外国に渡ったものからの逆輸入に入り正確な形を知ることができたのは皮肉ともいえよう。しかしこの地図はあまり巷間には出回らなかった様である。” 「古地図出版一覽」, 『月刊 古地図研究』, 第1卷 第1号, 1960. 3. 1, 日本地図資料協会, 15쪽에서 소개

135) 勝海舟(1889), 海軍歴史(成瀬恭刊行(1967年)), 『海軍歴史 勝海舟著』, 原書房 「海軍歴史解説」

가쓰 가이슈(1823. 1. 30~1899. 1. 19)는 일본 막부 말기의 막신(幕臣)이며 메이지기의 정치가다. 1855년에 나가사키 해군전습소(海軍傳習所)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도 막부의 해군 관련 재직을 책임지게 된다. 해군전습소는 에도 막부가 창설한 해군 양성소다. 오래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막부는 시대적 추세에 눌려 결국 개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제외국선의 내항에 대비해 한층 해안 방비를 강화하게 됐다. 그리고 막부는 연안측량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이에 1855년(安政 2年) 네덜란드 해군사관들을 고용해 나가사키에 해군전습소를 설치하고 막신(幕臣) 및 제번사(諸藩士)를 불러들여 그들에게 근대적 해군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당시 교육(傳習)을 받은 사람 중에는 가쓰 린타로(勝麟太郎)를 비롯해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야다보리 게이조(矢田堀景藏), 오노도모고로(小野友五郎), 후쿠오카 긴고(福岡金吾), 마쓰오카 반키치(松岡盤吉), 아라이 이쿠노스케(荒井郁之助), 고가 겐고(甲賀源吾) 등의 막신이 있었고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薩摩藩)), 사노 쓰네타미(佐野常民), 나카무타 구라노스케(中牟田倉之助(肥前藩)),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悦), 무라타 사주로(村田佐十郎(津藩)) 등이 있었다. 가쓰 가이슈는 이때 가쓰 린타로(勝麟太郎)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¹³⁶⁾ 이때의 동기생들은 메이지기에 들어서도 대부분 제국 해군의 중책이 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가쓰 가이슈는 1959년 군함조련소 교수방취재(軍艦訓練所 教授方取才)가 됐고, 1960년에는 간린함(咸臨丸)을 타고 도미(渡美), 에도 막부 해군 관련 재직을 역임했으며, 1962년에 군함봉행병(軍艦奉行并, 에도 막부 직제 중의 하나인 막부 해군을 통솔하고 군함조련소를 관장한 군함봉행 휘하 역직: 집필자)이 된다. 이때 그는 막부의 지원을 받아

136) 長谷川和泉, 「明治以前に作られた海図」, 『月刊 古地図研究』, 第3巻 第12号, 日本地図資料協会(1973. 2. 1), 5쪽

도쿄에 해군조련소(海軍訓練所)를 설치하며 조련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설 해군 양성소인 해군숙(海軍塾)을 경영하게 되는데, 교육생 중에는 일본 메이지유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카모토 류마(坂本竜馬)도 포함돼 있다. 이 해군숙의 교육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일본연해약도」인 것으로 보인다.

가쓰 가이슈는 64년에 군함봉행이 됐으나 곧 해임된다. 그러나 1866년에 군함봉행에 재취임하며 68년 메이지 정부하에서 해군봉행병, 육군총재를 역임하고 1872년 일본 병부성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나누어지면서 독립한 해군성의 첫 해군대보(海軍大輔, 해군성의 제2위직: 집필자), 1873년 첫 해군항(海軍郷, 해군성의 제1위직: 집필자)이 된다.¹³⁷⁾

또 그는 1889년에 도쿠가와 막부의 해군 창업에서 1867년 11월 9일 대정봉환(大政奉還)으로 에도 막부가 해체될 때까지 해군 역사를 기록한 『해군역사(海軍歴史)』(1889)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해군숙 학생들을 위해 「영국 해도 2347」을 번역해 만든 「대일본연해약도」가 담고 있는 동해상의 지리 정보, 즉 ‘다케시마=아르고노트’, ‘마쓰시마=울릉도’, ‘리엔코라루 록크=독도’가 이후 일본 해군으로 계승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위에 제시한 표에서 해군과 관련된 사항들에 Liancourt Rocks 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다. 즉, 위의 <표 8>에서 본 것처럼 1880년 해군 아마기함(天城艦)의 보고, 1896년 해군수로부 제작 「조선」지도, 1906년 「러일전쟁 기념지도(明治三十七八年戰役記念地図)」등 해군 관련 지도가 가쓰 가이슈의 동해상 세 섬에 대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추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표 7>에서 제시한 자료

137) 이상 가쓰 가이슈에 대한 것은 日本史広辞典編集委員会編(1997), 『日本史広辞典』, 東京: 山川出版社, 455쪽, 가쓰 가이슈 항목을 참고함.

역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기도 하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 해군이나 영국 지도 때문에 울릉도가 마쓰시마가 됐다고 한 오쿠하라나 다보하시의 지적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표 8>의 자료 중 1870년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 「대일본사신전도완」, 1874년 오키 간레이 「대일본 및 지나 조선도」, 1886년 가시와라 요시나가 「대일본지도」 역시 동해상의 지리 정보를 세 섬, 즉 ‘아르고노트=가공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실제 울릉도’,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는 점은 물론, ‘마쓰시마=실제의 울릉도’에 ‘호우리루 록크 및 세유르 사키’라는 같은 정보를 부가하고 있는 점에서 지도 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⁸⁾

다음으로는 「대일본연해약도」의 ‘활용’적인 측면을 잠시 생각해보자. 이 지도의 정보는 해군을 통해 해군 수로지, 해도 등에 반영됐다. 그리고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1904년에 독도 강제잡이를 위해 바다를 건넌 나카이 요자부로나 그 이전에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산음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지도는 정확한 거리와 위치, 방위 등이 표시돼 있어 먼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지도였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지도가 당시에 제작됐다.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계열의 지도나 아르고노트·다즐레 위치에 있는 다케시마·마쓰시마 계열의 지도 등 많은 지도가 남아 있으나 그런 지도들이 실질적인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할 때 당시 지도 정보의 계통적 분류는 가와카미의 분류에 더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지도군과 단지 지도 제작을 위해 제작한 지도군의 분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지도군에 내재해 있는 인식이 당시의 대표적 인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덧붙여 말하면, 나카이 요자부로나 그 외 울릉도에 건너온 산음지역 사람들이 사용한 지도는 영국 해군의 해도를 본뜬 일본 해군의 해도였으리라고 추측되는데 이 해도는 오쿠하라, 다보하시, 아키오카가 모두 지적하듯 Liancourt Rocks를 조선영토로 취급한 해도였다. 나카이 요자부리가 1905년 독도 편입 신청을 할 때 Liancourt Rocks를 조선영토로 안 것은 당연하다.

3. 결론적으로

현재 한일 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특정 고지도를 제시하며 그 고지도상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재사항을 가지고 한국 영토이니 일본 영토이니 주장한다. 그런데 고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같은 정확한 실측에 의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도가 아니다. 어떤 특정 지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지도가 제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사람이 그린 지도를 참고로 제작자가 판단해 일부 지리 정보를 발췌·편집해 만들어내는 지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지도는 그 지리 정보의 계통에 따르는 계통적 분류가 필요하다.

또, 실측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측이 결여된 부분은 작자의 상상이나 생각으로 채워나간다. 이는 그가 속해 있던 시대의 상상이나 생각에 구속된다. 고지도는 관념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즉 보는 지도가 아니라 읽는 지도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고지도를 그러한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서 다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울릉도·독도 표기에 대해 가와카미가 수집할 수 있는 지도들을 수집해서

138) 한편 이들 지도 간 정보 요소의 동일성을 제외하면 그 외의 연관관계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계통별로 검토한 것에 대해 필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서양계 지도가 일본계 지도에 미친 영향을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즉시 결부시킨 점이다. 앞서 본 것 같이 여기에는 '번역'의 메커니즘이 끼여들어 있다. 아르고노트·다줄레가 실제로는 울릉도일지라도 이것이 번역되면 다케시마·마쓰시마며 이는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둘째로, 가와카미는 '활용'이란 측면을 놓치고 있다.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계통의 지도는 실질적인 항해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메이지기는 실제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측 지도가 필요할 때였다.¹³⁹⁾ 당시 그러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지도나 아니면 서양 지도를 번역한 해군 지도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가쓰 가이슈의 예가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해를 주도한 것도 일본 해군이였다. 그 외의 지도는 항해하지 않는 대다수 일반 사람의 관념상 지리적 인식과 결부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가와카미는 일반 사람들의 관념상 인식을 나타내는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계열의 지도군과 실질적인 '활용'을 동반하는 마쓰시마·Liancourt Rocks 계열의 지도군을 동등하게 병렬시키고 있을 뿐이다. 당시의 인식은 역시 이 '활용'을 전제로 한 인식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관허' 지도와 다른 민간 지도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았다.

139) 이 점에 대해서는 교토대학 호리 가즈오 씨의 시사(2011, 8)가 있었다. 그 이전 집필자는 '산음지역에 남아 있는 것은 다케시마·마쓰시마 계통의 지도인데 왜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자부루가 독도를 Liancourt Rocks로 알고 있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이때 호리 씨는 '당시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지도가 아니다. 직접 울릉도에 도항한 나카이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해군이 발행한 항해용 지도 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세 번째로, 이 '활용'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독도는 Liancourt Rocks였다. 일본 해군, 더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인식이였다. 그리고 Liancourt Rocks가 기재된 해도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항해자의 인식이였다. 그리고 이 명칭의 근원은 영국 해도이지, 에도 시대 마쓰시마는 아니었다.

IV. 맺음말

1905년 5월 27일 울릉도 부근에서 벌어진 '일본해 대해전'은 일본에 Liancourt Rocks라는 섬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섬의 존재가 알려진 전쟁 승전보는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지방지 및 전국지 기사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전달됐고 이 사실은 시마네현 지방지인 『산음신문(山陰新聞)』에서 보인다. 이 신문에서는 5월 29일부터 「동경전보(東京電報)」¹⁴⁰⁾란에서 다루고 있다.

이후 Liancourt Rocks가 어떤 섬이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고 이 섬의 역사가 쓰이면서 명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다케시마'가 울릉도라든지 뱃섬이라든지 하는 인식이 있었음과 그 같은 인식이 독도 편입 후 한참이 지나도록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을 흡수한 일본의 정부 견해에는 그 부분이 사상(捨象)돼 있다.

그리고 1950~1960년대 독도 영유권 분쟁기에는 본격적으로 '다케시마' 명칭을 서양 함선의 울릉도 측량 오류와 '시볼트 원인론'에서 찾는 논리가 정비됐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고지도들은 그 지도의 정보 계

140) 「東京電報」, 『山陰新聞』(1905년 5월 29일~6월 3일), 2면

통에 따른 계통적 분류에 덧붙여 정보가 번역됐을 때의 형태 및 영향력, 정보와 정보의 시대성 고려 등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와카미의 분석에는 이와 같은 점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울릉도 명칭 혼란에서 시작하는 '섬의 명칭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 자체로 '다케시마' 명칭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설명은 일견 논점이 바뀌어 갔다는 느낌을 준다. '다케시마'에 대한 설명은 나카이의 Liancourt Rocks에서 시작해야 한다. 울릉도 명칭 혼란과 결부시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은 논점을 독도에서 울릉도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에도 시대 다케시마·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담당한 주체는 지역사회였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는 새 시대, 즉 메이지 시대가 되어 해체됐고(메이지현) 중앙집권화된 정부하에서 다시 개편됐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남아 있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도 끊어졌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멀리 산음지역에 존재하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서양 지도를 통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명칭이 Liancourt Rocks다. 이는 에도 시대 마쓰시마 인식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은 독도 편입 시 일본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 인식을 17세기 말 산음지역 요나고 주민의 울릉도 도항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남아 있던 고사료, 지도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에 무리하게 꿰어 맞추는 것이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싶다.

〈부록1〉 1950~1960년대 한일왕복구술서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가능명칭 :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 43.11JA1952-53 등록번호 : 4565 생산과 : 정무국제1과 생산년 : 1953 필름번호 : K-0009 파일번호 : 1 후래임번호 : 0001-0368 | 1952. 1. 28 | (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 | 1 | 1952. 1. 28 | 일본 | NOTE VERBALE (1952. 1. 28 日側口述書) | 한국 영토 인접마다 및 대륙봉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1952. 1. 28 자 대한민국 대통령 선언 관련 다음과 같은 진술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요청 | 1952. 1. 28 日語 獨島領有權論爭 시작 口述書 (平和線선포에 향의, 獨島 문제제기) 제3권 No. 390 (400~402쪽) |
| | 1953. 5. 28 | (일) '다케시마' 근해 조사 중이던 시마 네현 어업시 협장 조사선이 독도에서 미역·전복을 채취하던 약 30여 명의 울릉도어민(배 10척)을 봄. | 2 | 1952. 2. 12 | 한국 | /COPY/ (1952. 2. 12 日側口述書) | 1952. 1. 28 대한민국 대통령선언 관련 1952. 1. 28 일본 정부의 관점에 대한 답변 구술서 사본을 일본 정부에 전달 요청 | 1952. 2. 12 日語 韓國政府의 반박 口述書 (獨島領有權재천명) 제3권 No. 391(402~405쪽) |
| | 1953. 6. 25 pm4:30 | (한) 일본수산 시험선(백 톤 급 목선 1척)이 독도 접근. 일본인 9명이 상륙하여 독도에 체류하고 있는 울릉도민 6명에게 체도 이유 등을 묻고 촬영, 어민위령비문을 촬영하고 pm7:00경 퇴항 | 3 | 1952. 4. 25 | 일본 | /COPY/ (1952. 4. 25 日側口述書) | 1952. 2. 12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 1952. 4. 25 日語 日本 측 口述書 (한국 측 1952. 2. 12 日語 口述書에 반박) 제3권 No. 392(405~407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53. 6. 27 am10:00 | (한) 일본어 선(60톤급 목선 1척)이 독도 접안, 8명이 상륙하여 전일과 동일한 질문 및 행동을 하고 pm3:00경 퇴항 | 4 | 1953. 6. 22 | 일본 | NOTE VERBALE (No.167/A2) | 일본 영해로의 한국어선 침입과 동해역에서의 어로에 대해 알림 * 한글번역문명행수록 「日本外務省으로부터의抗議覺書」 | 1953. 6. 22자 일본 측 口述書 (No.167/A2) (韓國漁民의 獨島近海조업에 向의) 제3권 No.393(408~409쪽) |
| | 1953. 6. 28 am08:00 | (한) 일본해상 보안청 선박 2척(오키마루/구주류마루)이 독도 접안, '시마네현 오치군고가 무라다케시마'라고 쓴 표목 2개와 접근 금지 주의판을 설치하고 pm10:00경 퇴항 | 5 | 1953. 6. 26 | 한국 | NOTE VERBALE 한글번역문명행수록 「日本外務省에對한駐日代表歸回翰(原文英語)」 | 소위 '일본영해에의 한국어선 침입과 이 해역에서의 어로에對한駐日代表歸回翰' 관련 1953. 6. 22자(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 1953. 6. 26자 한국 측 口述書 (일본 측 1953. 6. 22자 口述書에 대한 반박) 제3권 No.394(409~410쪽) |
| | 1953. 7. 1 | (한) 일본인이 독도 상륙 | 6 | 1953. 7. 13 | 일본 | NOTE VERBALE (No.186/A2) (1953. 7. 13자 日側口述書) |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일본 소유 '다케시마'로의 불법 상륙과 동 섬 주변 일본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활동 관련 1953. 6. 26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및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 견해」 | 1953. 7. 13자 일본 측 口述書 (No.186/A2) (일본정부견해① 표명) 제3권 No.397(414~421쪽) |
| | 1953. 7. 12 | (일)일본 정부 순시선이 '다케시마' 순시중 한국 관헌 7명(경찰)의 보호 아래 어로 중인 한국 | 7 | 1953. 7. 13 | 일본 | NOTE VERBALE (No.187/A2) | '다케시마' 수역에서의 한국어민 불법조업 및 이 지역에서의 일본순시선에 대한 한국 관헌의 불법총격 관련 통고 |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어민 30명(배 3척)을 보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이 순시선이 '다케시마'를 떠날 때 한국 관헌 이동선에 발 포함. | | | | | | |
| | | (한)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법 제65조에 바탕을 두고 한국해역을 침입한 일본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울릉도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하였으므로 경고사격을 한 것임. | 8 | 1953. 8. 4 | 한국 | NOTE VERBALE (1953. 8. 4자 我側口述書) | 독도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섬들에 대한 일본인의 반복적 불법 행위 및 침범 관련 통고 | 1953. 8. 4자 한국 측 口述書 (日本官憲의 標識 건립에 抗議) 제3권 No.398(421~424쪽) |
| | | | 9 | 1953. 8. 8 | 일본 | NOTE VERBALE (No.205/A2) (1953. 8. 8자 日側口述書) | 1953. 8. 4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 1953. 8. 8자 일본 측 口述書 (한국 측 口述書에 반박) 제3권 No.399(425~426쪽) |
| | | | 10 | 1953. 8. 22 | 한국 | NOTE VERBALE (1953. 8. 22자 我側口述書) | 소위 한국인에 의한 불법어로 및 한국 관헌의 불법총격에 대한 1953. 7. 13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 1953. 8. 22자 한국 측 口述書 (일본 公船 영해침범에 向의) 제3권 No.400(426~428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 11 | 1953. 8. 31 | 일본 | NOTE VERBALE (No. 216/A2) (1953. 8. 31字 日側口述書) | 한국인의 불법어업 행위 및 한국 관현의 일본선박에 대한 불법사격 관련 1953. 7. 13 자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1953. 8. 22 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 1953. 8. 31자 일본 측 口述書 (일본 巡視船 피격에 항의) 제3권 No. 401(428쪽) |
| | | | 12 | 1953. 9. 9 | 한국 | NOTE VERBALE (1953. 9. 9字 我側口述書) | 1953. 6. 26 (한국 측) 구술서 관련 1953. 7. 13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및 「독도(다케시마) 관련 일본 정부견해에 대한 반박」 | 1953. 9. 9자 『韓國政府見解①』 수록 口述書(『韓國政府見解①』 표명) 제3권 No. 402(432~442쪽) |
| | 1953. 9. 17 am9:30 | (한) 일본 어업시험장 소속 일본 선박(62톤 급 목선)이 am9:30 독도근역영해 침범 및 pm10:30 아라이쓰도시라는 조사원 1명을 포함한 일본관현들이 독도 상륙 | 13 | 1953. 9. 26 | 한국 | NOTE VERBALE (1953. 9. 26字 我側口述書) | 일본 정부 관현의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한 불법 상륙 관련 통고 | 1953. 9. 26자 한국 측 口述書 (日本公船領海侵犯에 항의) 제3권 No. 403(442~443쪽) |
| 기능명칭 : 독도문제, 1954 분류번호 : 743.11JA1954 등록번호 : 4565 생산과 : 정무국제1과 생산년 : 1954 | 1954. 5. 18 | (일) 약간의 한국 관현들이 '다케시마'에 가서 '한국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독도'라고 쓰고 그 옆에 태극기를 새겨 넣음. | 14 | 1953. 10. 3 | 일본 | 1953. 10. 3字 日側口述書 (No. (243/A2)) | 1953. 9. 9 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 1953. 10. 3자 일본 측 口述書 (No. 243/A2) (『日本政府見解②』 통보예정) 제4권 No. 443(215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필름번호 : K-0009 파일번호 : 2 후레임번호 : 0001-0260 | | * 5,23자 한국국제시보 보도 내용에 바탕을 둠. | | | | | | |
| | 1954. 5. 23 am10:00 | (일) '다케시마'에서 조사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 쓰가루함이, 한국 어부 30여 명(모터보트3척)이 '다케시마'에 불법 상륙, 근해에서 어업 활동하는 것과 일본 정부가 세운 표식이 없어지고 대신 섬 경사면에 태극기와 한국어를 새겨 넣은 것을 보았음. | 15 | 1954. 2. 10 | 일본 | NOTE VERBALE No. 15/A2 | 다케시마 관련 1953. 9. 9 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및 「다케시마영유권관련 1953. 9. 9 한국주일대표부 구술서에서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의 반박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 1954. 2. 10 『일본정부견해②』 수록 口述書 제4권 No. 444(216~231쪽) |
| | | (한) 일본군 함(1,000톤)이 독도 해안 250미터 지점에 닿을 내리고 2시간 동안 독도를 관찰했음. | 16 | 1954. 6. 14 | 일본 | NOTE VERBALE (1954. 6. 14字 日側口述書 No. 95/A5) | 한국인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불법상륙 및 어업활동. 한국 관현의 랜드마크 설치 관련 통고 | 1954. 6. 14자 일본 측 口述書 (No. 95/A5) (『韓國船領海侵犯에 대한 항의』 제4권 No. 445(236~238쪽) |
| | 1954. 5. 28 | (한) 450톤급 어선 선원 13명 중 한명이 허가 없이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 랜드마크를 사진 찍고 10분 후에 돌아감. | 17 | 1954. 6. 14 | 한국 | NOTE VERBALE (1954. 6. 14字 我側口述書) | 한국 영토인 독도 주변해역에 일본인과 일본어선의 불법상륙 관련 건 | 1954. 6. 14자 한국 측 口述書(日本公船領海侵犯에 대한 抗議) 제4권 No. 446(239~240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54. 5. 29 | (일) 돛토리 현 어업조사장 시험선 '다이센'이 어업해역 조사를 위해 '다케시마'에 상륙했을 때 50여명의 울릉도에서 온 듯한 어민단체가 (모터보트(수십톤)과 3바지선)이 미역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음. | 18 | 1954. 8. 26 | 일본 | NOTE VERBALE (1954.8.26字日側口述書 (No.L40/A5)) | 한국 관헌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한 불법저격 및 일본 영토 '다케시마' 침범에 대한 항의 | 1954. 8. 26字 일본 측 口述書 (日本巡視船被撃에 대한 抗議) 제4권 No.447(240~241쪽) |
| | 1954. 6. 16 |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 '쓰가루'가 조사를 위해 '다케시마'에 갔다가 각 5톤급 바지선 3척과 3척의 모터보트에 탄 한국 사람이 '다케시마'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음. | 19 | 1954. 8. 27 | 일본 | NOTE VERBALE (1954.8.27字日側口述書 (No.144/A5)) | 한국 관헌과 한국인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침범, 일본 영해인 주변해역에서의 어업, 랜드마크와 등대 설치에 대한 항의 | 1954. 8. 27字 일본 측 口述書 (No.144/A5) (韓國國旗 燈臺建設에 항의) 제4권 No.448(242~243쪽) |
| | 1954. 6. 26 | (일) 일본순시선 '나가라'와 '구즈류'가 '다케시마'에 갔다가 바지선 1척과 약 6명의 한국인을 붙, 그들은 한국경비대와 관련 있어 보였음. 서도 북서쪽에 있 | 20 | 1954. 8. 30 | 한국 | NOTE VERBALE (54.8.30字我側口述書) | 소위 한국 관헌의 '다케시마' 해역침범이라는 1954. 8. 26 (일본 측) 구술서 No.140/A5에 대한 항의 | 1954. 8. 30字韓 한국측 口述書 (일본공선영해침범에 항의) 제4권 No.449(243~245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는 동굴 앞에 텐트를 세워놓았음. 서도의 암초에 한국 글씨가 보임. | | | | | | |
| | 1954. 8. 23 8:40 | (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 사서도 북서쪽 700미터 지점을 향해 시 서도해안 동굴에서 약 10분간 600발음 발사함. 총알 하나가 갑판우현 기 관실을 스치고 감. | 21 | 1954. 9. 1 | 한국 | NOTE VERBALE (1954.9.1字我側口述書) | 소위 한국민과 한국 관헌의 '다케시마' 주변해역에서의 어업, 랜드마크 및 등대설치 등 '다케시마' 침범이라는 1954. 8. 27 (일본 측) 구술서 관련 답변 | 1954. 9. 1字 한국 측 口述書 (일본 측 1954. 8. 27字口述書에 대한 반박) 제4권 No.450(245~247쪽) |
| | | (한) 일본철선이 2정의 대포를 장치고 갑판에 30명이 타고 독도에 접근. 한국해양경찰이 파견한 관헌이 독도해역 500미터 이내 접근하였기에 정지요청함. 일본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독도에 상륙할 명백한 태도로 접근하였기에 경고사격을 함. | 22 | 1954. 9. 15 | 한국 | | | 1954. 9. 15字 한국 측 口述書 (燈臺 설치사실 日本政府에 通告) 제4권 No.451(247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54. 9. 25 | (한)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탁임하는 제의를 해음. | 23 | 1954. 9. 24 | 일본 | NOTE VERBALE (1954.9.24日側口述書) |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등대를 설치한다고 알린 1954. 9.15 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 1954. 9. 24자 일본 측 口述書 (No.157/A5) 제4권 No.452(247~248쪽) |
| | 1954. 10. 2 |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와 '나가라'가 독도 동도 남서쪽 1.5마일 지점에서 7명의 한국 관헌으로부터 총격 위협을 받았음. 동도정상에 40미터 거리를 두고 2개의 무선방송을 위한 약 10미터의 막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본, 그 옆에 집 두 채가 있었음. | 24 | 1954. 9. 25 | 한국 | NOTE VERBALE (1954.9.35我側口述書) | 독도영유(다케시마) 영유권 관련 1954. 2. 10 자 일본 측 구술서 No.15/A2에 대한 답변 및 『獨島(竹島)領有에關한 一九五四年二月十日 亞細亞第十五號 日本外務省の覺書 로서日本政府가取한見解를反駁하는 大韓民國政府의見解(韓國政府見解2)』 | 1954. 9. 25字 「한국정부견해②」 수록 口述書 (『韓國政府見解②』 표명) 제4권 No.453(249~290쪽) |
| | 1954. 10. 28 | (한) 독도영유권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탁임하는 일본 정부제의를 거절하는 공한을 일본외무성에 전달 및 성명서 발표 | 25 | 1954. 9. 25 | 일본 | | '다케시마' 소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 | 1954. 9.25字 일본 측 口述書 (한국등대 설치에 대한 항의 및 國際司法裁判所提議를 提議) 제4권 No.454(300~302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54년 | 한국 독도 우표 발행 | 26 | 1954. 10. 21 | 일본 | NOTE VERBALE (1954.10.21日側口述書) | 한국 관헌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상주 및 일본 정부 선박 위협 및 제 시설 설치 관련 건 | 1954. 10. 21字 일본 측 口述書 (No.185/A5) (大砲설치에 대한 항의) 제4권 No.455(302~304쪽) |
| | 1954. 11. 20 | 독도 우표 발행에 관한 일본 정부내각 회의 개최, 22일자로 한국에 항의 | 27 | 1954. 10. 28 | 한국 | NOTE VERBALE (1954.10.28日我側口述書) | 독도 소유에 관한 문제 관련 1954. 9. 25 자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주일대표부 견해와 한국 정부의 결정 전달 | 1954. 10. 28 한국 측의 일본 측 國際司法裁判所行에 의한 분쟁지화 시도거부 口述書 (일본 측의 國際司法裁判所提議提議一蹴) 제4권 No.456(304~306쪽) |
| | 1954. 11. 21 am6:30~am7:00 | (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와 '헤쿠라'에 대해 독도상주 조선관헌 이박 격포 위협 발사 | 28 | 1954. 11. 29 | 일본 | NOTE VERBALE No.214/A5 | '다케시마'가 그려진 한국 정부 발행 우표에 대한 항의 | 1954. 11. 29字 일본 측 口述書 (No.214/A5) (韓國獨島郵票發行에 항의) 제4권 No.457(308~309쪽) |
| | 1955. 7. 8 | (한) 독도 등대 개축 | 29 | 1954. 11. 30 | 한국 | NOTE VERBALE No.215/4 |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한 한국 관헌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한 포격에 대한 항의 | 1954.11.30字 일본 측 口述書 (No.215/A5) 日本巡視艦被撃에 항의 제4권 No.458(310~311쪽) |
| | 1955. 7. 19 am 6:00 | (한)일본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 남동쪽 1,500미터 수역까지 침범 | 30 | 1954. 12. 13 | 한국 | NOTE VERBALE (1954.12.13日我側口述書) | 독도가 그려진 우표 발행 관련 1954. 9. 29 자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답변 | 1954. 11. 30字 한국 측 口述書(獨島武裝, 郵票발행의 合法性) 천명 제4권 No.459(311~313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 31 | 1954. 12. 30 | 한국 | NOTE VERBALE (1954.12.30 字我側口述書) | 한국 관헌에 의한 일본순시선 폭격 관련 1954. 11. 30 자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 1954. 12. 30字 한국 측 口述書 (日本漁船領海侵犯에 항의) 제4권 No.460(313~316쪽) |
| 가능명칭 : 독도문제, 1955-59 분류번호 : 743. 11JA1955-59 등록번호 : 4567 생산과 : 아주과 생산년 : 1959 필름번호 : K-0009 파일번호 : 3 후레이번호 : 0001-0295 | | | 32 | 1955. 8. 8 | 한국 | NOTE VERBALE (1955.8.8字 我側口述書)③ | 경상북도 독도의 등대를 최근 개축한 것을 알림. | 1955. 8. 8字 한국 측 口述書 (新燈臺 설치 통보) 제4권 No.461(316~317쪽) |
| | | | 33 | 1955. 8. 16 | 일본 | NOTE VERBALE 1955.8.16字 日側口述書 |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 점거 관련 건 | 1955. 8. 16字 일본 측 구술서 (No.126/A5)(한국 의 등대, 창고 설치에 항의) 제4권 No.462(317~318쪽) |
| | | | 34 | 1955. 8. 24 | 일본 | | | 1955. 8. 24字 일본 측 口述書 (燈臺設置通告不人定) 제4권 No.463(p. 319) * 본문생략 |
| | | | 35 | 1955. 8. 31 | 한국 | NOTE VERBALE (1955.8.31字 我側口述書) | 한국정부관헌의 독도 점거 관련 1955. 8. 16 자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 1955. 8. 31字 한국 측 口述書 (燈臺 등 설치 合法性제명) 제4권 No.464(319~321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 36 | 1956. 9. 20 | 일본 | NOTE VERBALE No.102/A1 | '다케시마' 영유권 관련 1954. 9. 25 자 (한국 측) 구술서에 대한 항의 및 「1954. 9. 25 자 다케시마 문제 관련 한국정부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 관점」 | 1956. 9. 20字 「日本政府見解③」 수록 일본 측 口述書 (『日本政府見解③』 3표명) 제4권 No.465(322~363쪽) |
| | 1957. 4. 9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쓰가루'가 동도에 서 한국인 및 관련, 등대 발견 | 37 | 1957. 5. 8 | 일본 | 1957.5.8字 日側口述書 (No.63/A1) |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 점거에 대한 항의 | 1957. 5. 8字 일본 측 口述書 (No.63/A1) (韓國官民常住 및 燈臺尙存에 항의) 제4권 No.466(363~364쪽) |
| | 1957. 8. 11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접근, 등대, wirelesspoles, 그 밖의 설치물 상존함을 보고 항의 | 38 | 1957. 6. 4 | 한국 | | 독도 관련 1957. 5. 8 자 (일본 측) 구술서 No.63/A1에 대한 항의 | 1957. 6. 4字 한국 측 口述書 (PKM-12_ (일본 측 口述書에 반박) 제4권 No.467(364~365쪽) |
| | 1957. 10. 20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접근 등대, wirelesspoles, 그 밖의 설치물 상존함의 보고 항의 | 39 | 1957. 10. 6 | 일본 | | *1957.5.8 1957.5.8字 日側口述書 (No.63/A1)와 동일 | 1957. 10. 6字 일본 측 口述書 (1957. 5. 8 일본 측 口述書와 同一) 제4권 No.468(366쪽) * 본문 생략 |
| | | | 40 | 1957. 12. 25 | 일본 | NOTE VERBALE (1957.12.25字 日側口述書 (No.199/A1)) |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 점거 관련 건 | 1957. 12. 25字 일본 측 口述書 (No.199/A1)(上 同) 제4권 No.469(366~367쪽) |
| | | | 41 | 1957. 1. 7 | 일본 | 1957.1.7字 日側口述書 (No.63/A1) | 1957.5.8字 日側口述書 (No.63/A1)와 동일 | 1957. 1. 7字 일본 측 口述書(上 同) 제4권 No.470(367쪽) * 본문 생략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58. 9. 10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 접근, 한국 관련 및 한국인 상주, 등대, 건물, 다른 설치물이 상존하는 것을 보고 항의 | 42 | 1958. 10. 6 | 일본 | NOTE VERBALE (1958.10.6字 日側口述書 (No.175/ASN)) |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한 항의 | 1958. 10. 6字 일본 측 口述書 (No.175/ASN)(上同) 제4권 No.471(367~368쪽) |
| | 1959. 9. 15 | (한)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 (600톤), PM-14type이 500미터 밖 독도 주변 선회 | 43 | 1959. 1. 7 | 한국 | NOTE VERBALE | 독도 주권 관련 (일본 측) 구술서 1956. 9. 20 자 No.102/A1 및 1957. 9. 25 No.199/A1, 1958. 10. 6 No.175/ASN에 대한 건 및 「一九五六年九月二十日字獨島에관한日本政府의見解를反駁하는大韓民國政府의見解(韓國政府見解3)」 | 1959. 1. 7字 한국정부견해③ 수록 韓國側口述書 (PKM-1) (한국정부견해③ 표명) 제4권 No.472(371~407쪽) |
| | | | 44 | 1959. 9. 18 | 한국 | NOTE VERBALE (1959.9.18字 我側口述書 (PKM-20)) | 일본 정부 순시선 '헤쿠라'의 독도 주변 한국영해 침범 관련 건 | 1959. 9. 18字 한국 측 口述書 (PKM-20) (日本巡視船領海侵犯에 抗議) 제4권 No.473(410~412쪽) |
| | | | 45 | 1959. 9. 23 | 일본 | NOTE VERBALE 1959.9.23字 日側口述書 No.156/ASN | 최근의 일본 정부 순시선에 의한 '다케시마' 상황 점검 관련 1959. 9. 18 자 (한국 측) 구술서 PKM-20에 대한 항의 | 1959. 9. 23字 일본 측 口述書 (No.156/ASN) (한국 측 1959. 9. 18 字 口述書에 반박) 제4권 No.474(412~413쪽) |
| | | | 46 | 1959. 9. 23 | 한국 | | | 1959. 12. 3字 한국 측 口述書 (日本巡視船領海侵犯에 抗議)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 | | | | | 제4권 No.475(414쪽) *본문 생략 |
| 기능명칭 : 독도문제, 1960-64 분류번호 : 743, 11JA1960-64 등록번호 : 4568 생산과 : 동북아주과 생산년 : 1964 필름번호 : K-0009 파일번호 : 4 후레이번호 : 0001-0206 | 1960. 12. 8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가 한국 정부에 의한 등대 및 다른 건조물이 상존하는 것을 보고 | 47 | 1960. 12. 22 | 일본 | NOTE VERBALE (1960.12.22字 日側口述書 (No.371/ASN)) | 한국 정부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한 항의 | 1960. 12. 22字 일본 측 口述書 (No.371/ASN)(燈臺, 建造物尙存에 항의) 제4권 No.476(414~415쪽) |
| | | | 48 | 1961. 1. 5 | 한국 | NOTE VERBALE (1961.1.5字 我側口述書 (PKM1)) | 독도(다케시마) 관련 1960. 12. 22 자 (일본 측) 구술서 No.371/ASN에 대한 답변 | 1961. 1. 5字 한국 측 口述書 (PKM-1) (일본 측 口述書에 반박) 제4권 No.477(415~416쪽) |
| | 1961. 12. 3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에서 한국 정부가 세운 등대 및 다른 건조물이 상존하는 것을 보고 | 49 | 1961. 12. 25 | 일본 | NOTE VERBALE (1961.12.25字 日側口述書 (No.375/ASN)) | 한국 정부 관헌들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한 항의 | 1961. 12. 25字 日側 口述書 (No.375/ASN) 제4권 No.478(416~417쪽) |
| | | (한)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P.N.14 헤쿠라'가 am 8:20 독도 500m 앞까지 접근했다가 am 9:30 돌아감. | 50 | 1961. 12. 27 | 한국 | NOTE VERBALE 1961.12.27字 我側口述書 (No.PKM-80) | 독도 주권 관련 1961. 12. 25 자 일본 측 구술서 No.375/ASN에 대한 답변 | 1961. 12. 27字 한국 측 口述書 (No.PKM-80) (日本側 口述書에 반박) 제4권 No.479(418~419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1962. 2. 2 | (일) 5명의 한국인 아마추어 무선연맹원과 한국일보 기자 두 명이 1주간 예정으로 독도 상륙, 제외국에 대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무선통신을 함. (2.3 한국일보 기사에 의함) | 51 | 1962. 2. 10 | 일본 | NOTE VERBALE (1962.2.10字日側口述書 (No.375/ASN)) | 한국인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불법 상륙과 불법 통신(韓國아마추어通信員獨島上活動에 向의) 제4권 | 1961. 2. 10字 일본 측 口述書 (No.34/ASN) (韓國아마추어通信員獨島上活動에 向의) 제4권 No.480(419~420쪽) |
| | 1962. 12. 22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오키' 독도 순시. 한국 관헌 및 구조불이 계속 있는 것을 발견 | 52 | 1962. 7. 13 | 일본 | NOTE VERBALE (1962.7.13字日側口述書 (No.228/ASN)) | 다케시마 영토 문제 관련 向의 및 「竹島에 關한1959年1월7일부 韓國政府見解에 對한日本政府의見解(日本政府見解4)」 | 1962. 7. 13字 「일본정부견해④」 수록 日本側 口述書(No.228/ASN) (『일본정부견해④』 표명) 제4권 No.481(422~459쪽) |
| | 1963. 1. 8 | (일) 한국 경상북도경찰국의 울릉경찰서 소속 순시선 '화랑호'가 독도 거주 한국 관헌에게 반입할 물자를 싣고 1월 4일 울릉도를 출발하였으나 풍랑으로 접안 못하고 1월 5일 귀도 중에 島根県知夫郡西之島町浦郷港に漂着 | 53 | 1963. 2. 5 | 일본 | NOTE VERBALE (1963.2.5字日側口述書 (No.41/ASN)) | 한국 관헌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불법 상륙과 불법 접거에 대한 向의 | 1963. 2. 5字 日本側 口述書 (No.41/ASN) (韓國警備艇武器搬入에 向의) 제4권 No.482(459~461쪽) |

| 출전 | 날짜 | (정보 출처) 이벤트 | 번호 | 날짜 | 발신 | 문서 제목 | 내용(요약) | 비고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기술사항) |
|----|-------------|--|----|--------------|----|--|--|---|
| | | | 54 | 1963. 2. 25 | 한국 | NOTE VERBALE (1963.2.25字我側口述書 (No.PKM-12)) | 1963. 2. 5 자 (일본 측) 구술서 No.41/ASN에 대한 답변 | 1963. 2. 25字 韓國側 口述書 (No.PKM-12) (일본 측 1963. 2. 5 자 口述書에 反박) 제4권 No.483(461~462쪽) |
| | 1964. 1. 31 | (일) 일본해 상보안청 순시선 '해쿠라'가 독도 순시. 한국 관헌 및 구조물이 계속 있는 것을 발견 보고 | 55 | 1964. 3. 3 | 일본 | NOTE VERBALE 1964.3.3字日側口述書 No.72/ASN | 한국 관헌의 일본 영토 '다케시마' 불법 상륙과 불법 접거에 대한 向의 | 1964. 3. 3字 일본 측 口述書 (No.72/ASN) (韓國警察臨時退去 요구) 제4권 No.484(468~469쪽) |
| | 1964 | (韓) 일본외무성 책자 '오늘의 일본' 증독도 부분에 대해 한국항의 | 56 | 1964. 3. 18 | 한국 | 1964.3.18字我側口述書 (No.PKM-3) | 1964. 3. 3 자 구술서 No.72/ASN에 대한 답변 | 1964. 3. 18字 한국 측 口述書 (No.PKM-3) (일본 측 1964. 3. 3 자 구술서에 反박) 제4권 No.485(470~471쪽) |
| | | | 57 | 1964. 11. 2 | 한국 | | | 1964. 11. 2字 한국 측 口述書 (日本外務省「오늘의일본」내용에 向의) *본문 생략 제4권 No.486(471쪽) |
| | | | 58 | 1964. 11. 12 | 일본 | 1964.11.12字日側口述書 (No.476/ASN) | 일본외무성 소식지 「오늘의일본」에 '다케시마' 명시 관련 한국 측 1964. 11. 2 자 구술서 PKM-12에 대한 답변 | 1964. 11. 12字 일본 측 口述書 (한국 측 1964. 11. 2 자 口述書에 反박) 제4권 No.487(471~472쪽) |

<부록2> 전통적 다케시마(竹島)·마쓰시마(松島) 계통 지도

| 연도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 독도 표기 | 출전 |
|---------------------------|------------------|----------------------------------|--------|-------|--|
| 모오야마 시대 桃山時代 | | 福井市淨得寺所藏 日本図及び世界図屏風 | 磯竹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 | 東京都小林中 所藏 日本図及び世界図 | 磯竹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 | 若狭小浜市川村平右衛門所藏 日本図及び世界図屏風 | 磯竹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 | 大和某寺旧藏東京都南波 所藏日本図 | 磯竹島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에도 시대 초기 江戸時代 初期 | | 県立長崎図書館藏 盧州出旧藏 東亞ポルトラーノ型海図 | 竹島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1667년 寛文 7年 10月 序 | 藤(齊藤) 弗 緩著 | 隠州視聽合記 写本四卷四册 (南波氏藏) 卷一 | 竹島 | 松嶋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
| 에도 시대 중기 江戸時代 中期 | — | 手書き日本図 | 竹嶋 | 松嶋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7쪽 秋岡(1950), 7쪽 |
| 1705년 宝永 2年 | | 朝鮮軍記大全 (20册) 第一卷 朝鮮渡海之図 | 竹島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1736년 元文 | 伊藤東涯 | 翰幹小録 | 磯竹島 |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9쪽 |
| 1775년 安永 4年 | 長久保赤水 | 「日本輿地路程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779년 安永 8年刊 | 長久保赤水作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日本全図, 54쪽 中村 『日本古地図大成』, 70~71쪽 (No.33)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7쪽 秋岡(1950), 7쪽 |
| 1783년 天明 3年 | | 「重鐫日本輿地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日本全図, 59쪽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7쪽 |

| 연도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 독도 표기 | 출전 |
|-----------------|-------------|-------------------------------------|--------|-------|--|
| 1785년 | 林子平 | 「三国接壤地図」 * 朝鮮之持也 「三国通覽輿地路程全図」 | 竹島 | 松島 | 中村 『日本古地図大成』, 64쪽(No.30) |
| 1785년 | 林子平 | 「大日本図」 | 竹島 | 松島 | |
| 1791년 寛政 3年 | 長久保赤水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7쪽 |
| 18세기 후반 | | 「総絵図」 | 竹島 | 松島 | |
| 1808년 文化 5年 | 浪華藤応 道撰 | 「大日本細見指掌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日本全図, 56쪽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7쪽 |
| 1809년 文化 6年 | 高橋景保 | 「日本辺界略図」 * 朝鮮海 | | | 中村 『日本古地図大成』, 69쪽(No.32) |
| 1811년 文化 8年 | 淺野弥 兵衛 | 「日本国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7쪽 秋岡(1950), 7쪽 |
| 1811년 文化 8年 | | 「改正日本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7쪽 |
| 1811년 文化 8年刊 | 淺野弥 兵衛 | 「淺野弥兵衛版改正日本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55쪽 |
| 1811년 文化 8年 | 三木光齋 作 | 「大日本改正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57쪽 |
| 1811년 文化 8年 | 長久保 赤水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 竹島 | 松島 | |
| 1816년 文化 13年 | — | 「大日本接壤三国之図」 | —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58쪽 |
| 1821년 文政 4年 | 伊能忠敬 | 「大日本沿海輿地全図」(全8 枚の中中部・近畿) | — | — | 中村 『日本古地図大成』, 74~75쪽 (No.35) |
| 1828년 文政 11年 | | 「国郡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地図作成史(解説)』, 109쪽 秋岡(1950), 7쪽 |
| 1854년 嘉永 7年 | 菊屋幸三 郎版 | 「校正大日本輿地全図」 | —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60쪽 |
| 1864년 文久 4年 | 恵比須屋 庄七梓 | 「大日本海陸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64년 嘉永 7年 | 工藤東 平昨 | 「大日本沿海要彙全図」 | 竹島 | 松島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64쪽 |

| 연도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 독도 표기 | 출전 |
|---------------------------|------------|--|--------|-----------|----------------------------------|
| 1865년 慶応 1年 | 橋本玉蘭 | 「大日本輿地全図」*官許 | —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61쪽 |
| 1867년 慶応 3年刊 | 佐藤政養 | 「銅板大日本製図」 | —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62쪽 |
| 1867년 慶応 3年刊 | 勝海舟藏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63쪽 |
| 1869년 明治 2年 | 笹窓 貞雅補丁 | 「大日本海陸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70년 明治 10年 | 文部省刊 | 「日本全図」 | — | — | 秋岡, 『日本古地図大成』 「日本全図」, 70쪽(2枚) |
| 1872년 明治 2年 | 中島彭 | 「日本輿地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72년 明治 5年 | 橋本玉 蘭刊 | 「校正大日本輿地全図」*官許 | — | — | 秋岡, 『日本古地図集成』 「日本全図」, 66쪽 |
| 1878년 明治 11年 | 塚本明毅 | 「日本地誌提要」 「隠岐の部」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82년 明治 15年 | 木村文造 | 「銅版朝鮮國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82년 明治 15年 | 鈴木敬作 | 「朝鮮國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82년 明治 15年 | 伊能忠敬 | 「(小図)山陰道, 山陽道, 南海島, 西海道, 全体図(部分図1)」 | — | — | 鈴木·渡辺『伊能図集成』, 50쪽 (No.50) |
| 1886년 明治 19年 | 森琴石 | 「大日本海陸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894년 明治 27年 1月 14日 | | 「山陰新聞」 漁船改丸の蔚陵島渡航 記事 | 竹島 | | 川上(1966) |
| 1894년 明治 27年 2月 18日 | | 「山陰新聞」 松江佐藤狂水投「朝鮮竹島 探検」 | 竹島 | リラン コ島 | 川上(1966) |
| 1894년 明治 27年 | 宗孟寛 | 「日清韓三国輿地全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900년 明治 33年 | 青木恒 三郎 | 日清韓三国大地図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연도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 독도 표기 | 출전 |
|---------------------------|-----------|-----------------------|--------|-----------|----------|
| 1903년 明治 36年 | 小泉憲 貞著 | 「隠岐誌 後編」第49綴 | 竹島 | 松島 | 川上(1966) |
| 1904년 明治 37年 9月 29日 | 中井養 三郎 | 「りゃんこ島領土編入 並びに貸下願」 | | リラン コ島 | 川上(1966) |

〈부록3〉 구미의 최신 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제 지도

| 연대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아르고노트 ◎울릉도=다즐레 | 독도 표기 | 출전 |
|-----------------|-----------|-----------------------------------|--|-----------------|----------------------------|
| 1861년 文久 1年 | 佐藤政養 | 「新刊輿地全図」 (書肆 江戸野川三の橋 万屋為四郎) | ◎タケ島 | | 川上(1966) |
| 1867년 慶応 3年 | 勝海舟 | 「大日本国沿海略図」 | ▽竹島 ◎松島(ホウリ ルロック) | リエニコ랄로 ック | 川上(1966) 松岡, 日本全図 63 |
| 1870년 明治 3年 | 橋本玉蘭 | 「大日本四神全図」 | ▽竹+時陵島(ハ ンリントウ,ラン カントウ) 竹シマ ◎松シマ(ホウリ ルロック,セユル 崎) | リエニコ랄로 록 | 川上(1966) 秋岡(1971) |
| 1874년 明治 4年 | 沖冠嶺 | 「大日本及支那海略圖」 | ▽竹島 ◎松島 | リエニコ랄로 록 | 川上(1966) |
| 1875년 明治 8年 | 陸軍參謀 局 | 「朝鮮全図」 | ▽竹島 ◎松島 | | 川上(1966) |
| 1876년 明治 9年 | 大後秀勝 | 「大日本海路全図」 | ◎松島 | メネライ瀨,オリ ウツ瀨 | 川上(1966) |
| 1877년 明治 10年 | 文部省 | 「日本全図(官本三平製圖)」 | ▽竹島 ◎松島 | | 川上(1966) |
| 1879년 明治 12年 | 柳田昶 | 「大日本全図」 | ◎松島 | | 川上(1966) |
| 1880년 明治 13年 | 海軍水路 局 | 軍艦「天城」 *松島=蔚陵島를 確認 | ◎松島 | リアン코랄로 岩 | 川上(1966) |

| 연대 | 저자 | 지도명 | 울릉도 표기 ▽아르고노트 ◎다출레=울릉도 | 독도 표기 | 출전 |
|---------------------------|--------------------------------------|--------------------|------------------------------|-----------------|----------|
| 1882년 明治 15年 | 海軍水路局 | 「日支韓航路里程一覽略図」 | ◎松島 | リアンコールト石 | 川上(1966) |
| 1883년 明治 16年 3月 | 日本人の 薊陵伐木 事件関連 地方長官 名の通達 | | ◎松島一名竹島、 薊陵島 | | 川上(1966) |
| 1886년 明治 19年 | 樫原義長 | 「大日本地図」 | ◎松島(ホウリル ロック、セユル崎) | リエンコールト ロック | 川上(1966) |
| 1886년 明治 19年 9月 30日 | 水路部 | 「寰瀛水路誌 第二卷第二編」 | 薊陵島・松島 ダゲレット | | 川上(1966) |
| 1887년 明治 20年 | 水路部 | 「世界全図」 | ◎松島 | | 川上(1966) |
| 1891년 明治 24年 | 水路部 | 「日本総図」 | 薊陵島・松島 | | 川上(1966) |
| 1893년 明治 26年 | 前川善兵衛 | 「詳密日本新地図」 | 薊陵島・松島 | | 川上(1966) |
| 1894년 明治 27年 | 地学協会 | 「朝鮮全図」 | 薊陵島・松島 | | 川上(1966) |
| 1894년 明治 27年 | 清水常太郎 | 「朝鮮輿地図」 | 竹島 猪田川、中峰 ◎松島 | | 川上(1966) |
| 1895년 明治 28年 | 水谷延次 | 「大日本全図」 | ◎松島 | | 川上(1966) |
| 1896년 明治 29年 | 水路部 | 「朝鮮」 | 薊陵島・松島 | リアンコールト岩 | 川上(1966) |
| 1897년 明治 30年 | 農商務省地 質調査所 | 「大日本帝国全図」 | ◎松島 | メネライ瀬、オリ ウツ瀬 | 川上(1966) |
| 1906년 明治 39年 | 加川千義 | 明治三十七、八年 戦役記念地図 | 薊陵島(松島) | 竹島(リアンコールト) | 川上(1966) |

• 참고문헌

독도 명칭 연구 관련 문헌/논문/자료집(국회도서관 소장자료 2011년 1월 19일 검색)

학위논문

강민아(2010), 『20세기 초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백인기(2009),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이선미(2007), 『한일 양국의 기록에서 살펴본 안용복 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강석민(2008), 『18세기 조선의 영토론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남기훈(2005), 『17세기 조일양국의 울릉도 독도인식』,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김병오(1997),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자료집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편주(2010), 『죽도문답: 고문서의 독도』,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편(2009),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고문헌편』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주석(2009), 『元祿覚書: 独島の原初記録』, J&C

권오엽(2008), 「일본의 죽도발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의 기록」, 『일어교육』, 제44집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2008), 「죽도기사」, 『독도연구』 제4호

국사편찬위원회(2008), 『독도자료』 1-3 미국편

오니시 도시테루·권오엽 역(2007), 『독도자료집 3: 은주시청합기』, 동북아역사재단

문철영(2007), 『규장각 소장 독도관련 자료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영미 역(2006), 『독도자료집 2-죽도고증』,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 다다미디어

한국해양수산개발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200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독도관련 NARA 자료 해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2005), 『독도논문번역선 1』, 다다미디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2005), 『독도논문번역선 2』, 다다미디어

김병렬 외 저(2005), 『독도자료집 1』,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 다다미디어

해양수산부(2004),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

송병기(2004), 『독도영유권 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국회도서관(2004), 『독도관련 고지도 1-2』

신용하 편저(2001),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편저(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편저(1999),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편저(1998),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 독도연구보존협회

양태진(1998), 『독도연구문헌집』, 경인문화사

김병렬(1997),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양태진(1979), 『한국 국경영토관계 문헌집』, 갑자문화사

양태진(1978), 『독도관계문헌목록』, 발행처불명

역사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정병준(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손승철(2010),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藤原隆夫(2010), 「竹島(=独島)問題ノ歴史的一考察」, 『독도연구』 제8호

권정(2010),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의 상남」, 『일어일문학연구』 제72집 2권

권오엽(2010), 「죽도고의 안용복」, 『일본문화연구』 제33집

울산광역시(2010), 『울릉도 독도수호 박어둔 재조명』(2009년 울산시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김병렬, 노영구, 이상근(2009), 『독도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강현(2009),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개척사 관련 기초자료 수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편역(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권정(2009), 「동해의 무루구세무와 부른세미」, 『일본학연구』 제27집

유미림(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1집 제1호

김영수(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통권 73호

남경란(2008), 「울릉군지명연구」, 『독도연구』 제4호

이상태(2008), 「독도명칭의 역사적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제8권 제1호

한철호(2008), 「메이지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의 울릉도 독도인식: 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19호

유미림, 조은희(2008),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 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호동(2008), 「일제시대 도리이 류쵸의 눈에비친 울릉도」, 『독도연구』 제4호

김호동(2008), 「조선초기 울릉도 독도 관리정책」, 『동북아역사논총』 제20호

김호동(2008),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조선시대 수토제도의 연구방향 모색」, 『독도연구』 제5호

심현용(2008),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 소장자료 고찰」, 『강원문화사연구』 제13집

유미림(2008),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2호

서종학(2008), 「'독도' '석도'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권 3호 통권 139호

박병섭(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호동(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구선희, 김소남, 정병욱(2007),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독도관련 자료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마무라 토모에(2007), 「울릉도기사」, 『독도연구』 제3호

권오엽(2007), 「은주시청합기와 독도」, 『동북아역사논총』 제18호

김병렬·나이트 세이쵸 공저, 김관원 외 역(2006),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김병렬(2006), 『일본 군부의 독도침탈사』,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



송병기(2006),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 『역사학보』 제8집 제2호

허영란(2006), 「19세기말-20세기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제13호

송병기(2005), 『(고쳐쓴)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이진명(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김정숙(2005),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 『독도연구』 창간호

윤소영(2005), 「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인식」, 『독도연구』 창간호

배성준(2005), 「한말 울릉도 독도 영토문제의 대두와 울도군 설치」, 『북방사논총』 제7호

이준구(2005), 「17세기말 호패 호적이 말하는 울릉도 독도파수꾼 안용복과 박어둔」, 『조선사연구』 통권 제14집

大西俊輝, 권오엽·권정 역(2004), 『獨島』, J&C

야마베 겐타로·가지무라 히데키·호리 가즈오 저, 임영정 역(2003), 『독도 영유권의 일본측 주장을 반박한 일본인 논문집』, 경인문화사

민족문화연구소(2003), 『울릉도·독도 동해안 어민의 생존전략과 적응』, 영남대학교출판부

민족문화연구소(2003), 『울릉도 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 발전』,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진명 편(2003), 『수로지: 동해, 울릉도, 독도관련 부분 (1858-1983)』, 발행처 불명

이진명편(2003), 『동해, 독도, 울릉도: Mer de l'Est, Rochers Liancourt, Ile Dageleted/19세기』, 발행처 불명

김호동(2003),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활동의 허와 실」, 『대구사학』 제71집

김호동(2004), 「개항기 울릉도 개척정책과이주실태」, 『대구사학』 제77집

배성준(2002), 「울릉도 독도 명칭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제94호

박배근(2001),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통권 50호

양태진(1999), 『근세한국경역 논고』, 경인문화사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단국대학교출판부

이진명(1999), 「서양 자료로 본 독도」, 『인문과학연구』 19

신용하(1998), 「독도 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명칭변화를 통해 본 독도의 한국고유영토 증명」, 『한국학보』 91·92

신용하(1997), 「한국의 독도영유에 관한 역사적 증거 자료의 발굴과 실증적 연구」, 『성곡논총』 제28집 4권

김병렬(1997. 8), 「독도의 명칭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편, 『교수논총』 제9집

임영정(1996),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호칭의 변화와 그 성격」, 『순국』 70

송병기(1996),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독도영유권: 국내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양태진(1989), 『한국변경사 연구』, 법경출판사

양태진(1984), 「독도관계문헌의 서지적 고찰: 조선 산업지를 중심으로<특집>」, 『국회도서관보』 173

김정균(1982), 「중정양삼랑의 소위 '독도편입 및 대하청원'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52

신석호(1962), 「독도의 사적 유래와 연혁」, 『시사』 1

신석호(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 8

응용연구
교육, 쟁점과 대응방안, 쟁점 고찰, 분쟁과 영유권 문제 연구(주로 국제법적/해양법적 관점), 내셔널리즘,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의 연구,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독도 영유권 주장, 연구/현안/논쟁 등에 대한 개설서, 소설

| 검색일 | 단행본 | 연도 | 학위논문 | 자료집 | 논문/단행본 |
|----------------|-------|-----------|------|-----|--------|
| 2010. 2. 5 검색 | 935건 | 1926-2010 | 5 | 24 | 44 |
| 2011. 1. 19 검색 | 96건 | 2008-2010 | 2 | 1 | 6 |
| 합계 | 1,031 | | 7 | 25 | 50 |

• 찾아보기

<ㄱ>

가시와라 요시나가 279, 286
 가쓰 가이슈 272, 279, 280, 283~285, 288
 가와카미 겐조 65, 263
 假倭 83
 가지도 6, 9, 13~15, 63~67
 가지어(可之魚, 강치) 64, 65, 121
 가타카나 176, 178, 188, 189
 각군연혁급거리방면결호경계표(各郡沿革及距
 里方面結戶境界標) 147
 갑오개혁 118, 124
 강계고 16, 94~96, 101
 강원감사 86, 182
 강원도관찰사서리 128, 129, 132
 강제 편입 109
 개벽 127, 128, 149
 거금도 190
 거문도(巨文島) 16, 128
 검찰일기 98, 101
 결정적 기일 25, 28, 29, 77
 경도(京都) 129, 130, 147, 220, 221, 259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慶尙南道機張郡地
 方狀況) 143, 147, 150
 경상남도 울도군 지방상황(慶尙南道鬱島郡地
 方狀況) 119, 141, 150, 173, 174, 176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88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속찬사목(續撰事目) 88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88
 경상도지리지의 서(序) 88
 경성(京城) 48, 51, 52, 55, 129, 130
 경조(京兆) 129
 계본초 112
 高麗史地理誌 86, 87
 고마쓰 스스무[小松運] 136
 고아스크란(Goascoran) 32, 36
 谷浦(골개 또는 골계) 166, 167, 171
 공도정책 13, 38, 39, 41, 42, 49, 59, 65,
 66, 312
 광조(廣島, 깍새) 121
 觀音島 7, 19, 155, 162, 171, 179
 관계개정안 113
 관계개혁안 102
 光岩(구암) 170, 175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 134
 구레 쇼조 264
 龜岩洞(굴바우) 170, 175

구연수 145
 구연호(具然浩) 143
 국제사법법원 6, 15, 23, 25, 26, 33, 35
 군함신고행동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81,
 194
 궁내부잡철(宮內府雜綴) 141
 금반언의 원리 77
 金凡 89, 107
 금사면 157~161, 202
 金丸 89, 106
 기장군 141, 143, 144, 146, 147, 150
 기장군수(機張郡守) 143
 기장군읍지(機張郡邑誌) 147
 기쿠치 신이치 281
 김건중(金建中) 137
 김옥균(金玉均) 17, 121, 123
 김원준 125
 김인우 39~42, 44, 46, 84, 88
 김택영(金澤榮) 139, 140
 김환 45, 106, 107
 깍새섬 7, 19, 151, 155, 156, 162~165,
 168~171, 176, 178~180, 186~188
 <ㄴ>
 나가무라 히데다카 263
 나가무라 히라쿠 263, 272
 나카이 다케노신 253, 267, 268

나카이 요자부로 221, 226, 227, 232, 249,
 277, 278, 286~288
 卵峰(알봉) 175
 남순행 119, 141, 143, 150
 남회(南營) 45, 85, 107
 내륙 이주정책 85
 내부 18, 103, 105, 109, 113, 118, 122,
 124, 125, 131~133, 149, 156, 173, 182,
 185, 186, 227
 내부시찰관 124, 126
 니타카[新高]의 行動日誌 82, 221, 278
 니타카함 109, 113
 니타카함의 보고 113
 <ㄷ>
 다가와 고쥬 263
 다나카 아카마로의 논문 267
 다보하시 기요시 241, 242, 250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137~139,
 다줄레 220, 221, 234, 235, 251, 252,
 259~261, 265, 270~275, 279, 286, 288,
 309, 310
 다카하시 가게야스 264, 265
 다케시마 8, 10~12, 20~22, 44, 46, 60,
 61, 65~67, 100, 117, 124, 153, 183,
 194, 195, 218, 219, 221~258, 260~277,
 282, 285, 286, 288~290, 292, 294~299,

| | | | |
|---------------------------------------|---|---|---|
| 301, 303~306 | 149~151, 153, 154, 156, 161~164, 167, | 139~141, 143, 145~153, 155, 156, 171, | 동국지도(東國地圖) 97 |
|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 223~225, 233 | 168, 171, 173, 176, 179, 180, 183, 187, | 180~183, 185~189, 192~198, 200, | 동남제도개척사 17, 123 |
| 다케시마(울릉도) 도항 금지령 231 | 188, 191, 194, 196 | 216~232, 234~237, 239~242, 246, | 동남제도개척사겸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捕 |
| 다케시마(竹島)의 날 100, 117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7, 17~20, | 248, 249, 254~256, 259, 260, 262~266, | 鯨使) 121 |
|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 218, 221~223 | 68, 97, 102, 104, 105, 108, 118, 121, | 269, 270, 272~282, 285, 287~297, | 東文選 86 |
| 다케시마 인지론=고유영토론 219 | 124~127, 129~131, 139, 142, 143, 149, | 298~309, 311~315 | 동북아역사재단 5, 193, 194, 216, 220, |
| 당빌 82 | 151, 153, 154, 156, 161~164, 167, 168, | 獨島 7~9, 17~20, 24, 79, 81, 82, 105, | 221, 227, 280, 311, 327 |
| (大明)一統誌 86 | 171, 173, 176, 179, 180, 187, 188, 191, | 107~110, 112, 113, 117, 118, 126, |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123 |
| 대일본 및 지나 조선도 279, 286 | 194, 196 | 128~130, 135, 146, 148, 149, 151, 153, | 동여전도 97 |
| 대일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略島) 272, | 대한제국 칙령 제79호(1900) 134 | 155, 180~186, 188~191, 193~198, | 뜻글자(表意文字) 157 |
| 280~283 | 대한지지(大韓地誌) 17, 18, 121, 122, | 200, 204, 241, 264, 291, 293, 298, 302, | |
| 대일본사신전도완 286 | 135~137 | 304 | <ㄹ> |
| 대일본제국전도 75 | 댓섬(竹島) 154, 162, 186, 187 | 독도 영토 편입 118, 119, 133, 143, 150, | 라 페루즈 70, 234, 238, 251, 257, 259, |
| 대일본지도 279, 286 | 도감제(島監制) 125 | 221 | 266, 270 |
| 대일본해로전도 75 | 도동 94, 144, 174 | 독도에 망루 설치 109, 113 | 라 포르테 96, 103, 104, 120, 121, 124, |
|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137 | 도명(島名) 호칭 113 | 독립신문 120, 172, 173, 183 | 125, 149 |
| 대한매일신보 131~133, 149, 182, 184, | 도명의 혼란[島名ノ混亂] 270 | 독섬 14, 16, 17, 20, 65, 108~110, 112, | 량코島 194, 195 |
| 186 | 도민의 쇄환 83, 85, 106 | 126, 127, 130, 149, 155, 189~194, 197, | 량코도 영토편입 및 불하 청원서 221, 278 |
| 대한민국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 도장제(島長制) 125 | 200, 204, 205, 208~210 | 레지신부 82 |
| (평화선 선언) 23 | 도쿄[東京] 120 | 돌섬 17~19, 108~110, 112, 118, | 리양코島 181 |
|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18, 136~138, 140, | 도항 53, 104, 166, 197, 224, 228, 229, | 126~128, 130, 149, 150, 155, 163, 187, | 리양코르드암 181 |
| 147, 150 | 231, 243, 247, 248, 288, 290, 314 | 191, 192, 208 | 리양쿠르암 69~71 |
|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97 | 島項(섬목) 169~171, 193, 197 | 동국문헌비고 13, 16, 17, 38, 95, 101, | |
| 대한전도 97 | 독도 4~9, 12~24, 27, 37~42, 46~48, | 122, 124, 138~140, 150 | <ㄴ> |
| 대한제국 7, 17~20, 68, 97, 102, 104, | 51~54, 60, 62, 64, 65, 67~77, 80~86,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42, 53, | 마쓰모토 니키치[松本仁吉] 136 |
| 105, 108, 116, 118, 121, 124~127, | 91, 92, 97, 98, 102, 105, 107~110, 112, | 85~90, 93, 94, 96, 100, 107, 122, 254 | 마쓰시마[松島] 8, 13, 18, 20~22, 71, |
| 129~131, 133, 134, 139, 141~143, 146, | 113, 115, 117~121, 123~135, 137, | 동국여지승람의 지리관 94 | 100, 109, 124, 149, 181, 218, 221, 222, |

224~228, 230~242, 244, 246~255, 257~263, 265, 266, 268~277, 279, 282, 285, 286, 288~290, 306

마쓰시마(울릉도)에서 '리앙코르도 암(독도)'을 실제로 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松島=於テ'リ'アンコルド'岩実見者ヨリ聴取リタル情報] 221

마쓰에[松江] 120, 227, 243

馬岩(말방우) 170

만기요람 96

만주 196

망키에 섬 26~30

매일신보 125

매천야록 182

鳴梁 169

몬타나 데 나라테리크(Montana de Naguaterique) 32

몽골 196

무라카미 가(家) 229

무릉도 39~41, 44, 45, 49~51, 62, 76, 83~86, 88~90

武陵島 83

무릉도원 83, 90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39, 40, 44, 84

민구에라(Meanguera) 31, 33~37, 70

민구에리타(Meanguerita) 31, 33~37, 70

〈ㅂ〉

박석창 94

박습 39, 44, 83

박어둔 9~11, 91, 312, 314

박영효(朴泳孝) 124

박정양(朴定陽) 125

방중현 126, 127, 155

方之用 83

방패도(防牌島) 122

배개 158, 160

배계주 18, 103, 104, 120, 121, 123~126, 145, 149

변요분계도고 247

邊要分界圖考 68

보고서호외(報告書號外) 129, 132

本邦西北邊境水陸略圖 82

부루톤 238, 239, 259

부산항 원산항 143

부산해관 103, 104, 120, 122, 124, 149

브라운(J.B. Brown, 柏卓安) 120, 122

〈ㅅ〉

산음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 228

삼봉도 6, 9, 13~15, 47~62, 70, 77, 85, 240, 241

삼봉도 수역사목(三峰島 搜覓事目) 85

삼봉도경차관 49, 85

삼산면(三山面) 127, 128, 208

삼척 40, 44, 62, 83, 85, 91, 107, 143

상수치도 190

상품실 158, 160

徐菴 130

서울 34, 123, 129, 130, 200, 203

서항도 67, 197

鼠項島 7, 19, 171, 176~178, 197

석도 6, 7, 9, 13~19, 22, 68, 77, 82, 83, 105, 108, 110, 113, 115, 117~119, 121, 124, 127~131, 140, 142, 143, 145, 148, 149, 155, 161, 163, 194, 197, 313

石島 7, 8, 14, 15, 17~20, 37, 68, 79, 82, 105, 108, 110, 112, 113, 117, 118, 126, 128, 130, 131, 148, 149, 151, 153~156, 161~164, 167, 168, 171, 176~180, 186~188, 190, 191, 193~197

石島說 7, 103

石門洞(돌문골) 170

섬목 19, 162, 166, 168, 169, 177, 178, 193, 197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 8, 20, 22, 25, 215, 217~223, 236, 290

(世宗實錄)地理志 86

세무사 120, 122, 125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3, 16, 38, 42, 44~46, 84, 86~89, 102, 107

소리글자(表音文字) 157, 188, 189

小黃土邱尾(작은황토구미) 166, 167

손돌목 169

孫夏項 169

孫石項 169

손죽도(巽竹島) 128

(宋)九域誌 86

松島 20, 38, 46, 68, 69, 70, 77, 95, 99, 123, 124, 149, 181, 221, 224, 225, 227, 232, 235, 238, 239, 241, 245, 250~262, 266, 270, 271, 276, 279, 282, 306~310

松竹 69, 77, 90, 99, 101, 112, 254

송죽도 16, 90, 99, 100

松竹島 16, 90, 98~100, 112

수로지 74, 136, 244, 247~250, 280, 314

수선(首善) 129

수치리 190, 200

수토관 65, 94, 122

수토사의 윤변교대 92

순중 119, 141, 143, 150

스에마쓰 야스카즈 263

스즈키 도메키치[鈴木留吉] 136

시마네현 69, 108, 117, 128, 143, 183, 221, 224, 226~229, 231, 234, 239, 242, 243, 274, 276, 277, 288, 289

시모조 마사오 8, 176, 178, 193~195

시볼트 222, 231, 234, 235, 237, 239,

| | | | |
|---|--|---|--|
| 240, 257, 259~261, 264~266, 268, 270~272, 282, 289 | 아르고노트 21, 74, 124, 220, 234, 235, 259~261, 264, 265, 272~275, 279, 285, 286, 288, 309, 310 | 여지도서(輿地圖書) 90 | 于山國의 땅 95 |
| 시찰록(視察錄) 124, 125, 149 | 아릿독섬 190 | 여지승람(輿地勝覽) 42, 45, 90, 134, 135 | 우산도 9, 12~19, 22, 38~42, 44, 46, 47, 51~53, 59, 70, 76, 77, 81~86, 88~100, 102, 105~110, 112, 113, 117~119, 121~126, 128, 134, 135, 137~140, 148~150, 240, 241, 252, 264 |
| 신간여지전도(新刊輿地全圖) 271 | 아마기함 254, 257, 279, 285 | 영국 해도 2347 285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경준 94, 95 |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137 | 영종도(永宗島) 18, 125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묘명각석문 94 | 아이바 기요시 263 | 오다 사이지로[大田才次郎] 136 | 148~150, 240, 241, 252, 264 |
| 神西由太郎 108, 109, 129, 242 |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 258 | 五道兩界圖 87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용하 38, 41, 48, 52, 155, 181, 185, 191, 190, 236, 310, 312, 315 | 안용복 9~13, 15, 16, 47, 68, 76, 82, 91, 96, 228, 229 | 오야·무라카와 가 231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2, 16, 17, 38, 42, 44~46, 54, 59, 90, 101, 122, 135 | 安田 雷洲 82 | 오천리 190, 200, 204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지현 264 | 안종화 138 | 오칸조카시라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님에게 제출한 「서부의 사본(御勘定頭松平美濃守 殿江差出候書付寫) 66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찬조선지리지(新撰朝鮮地理誌) 136 | 兩界大圖·小圖 87 |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242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誌) 42, 89 | 양성지 42, 86, 89 | 오키 간레이 279, 286 | 148~150, 240, 241, 252, 264 |
| 신편대한지지(新編大韓地誌) 138 | 양코도 138, 139 | 오키[隱岐] 120, 143, 146, 148, 150, 225, 227~229, 233, 234, 243, 255, 256, 259, 274 | 148~150, 240, 241, 252, 264 |
| 심능익 7, 115, 116, 119, 140~143, 145, 146, 148, 150 | 에크레오 섬 26 | 오키도 138, 143, 146, 242, 246 | 148~150, 240, 241, 252, 264 |
| 심능익 보고서 7, 115, 116, 140~143, 146 | 에크레오(Les Ecrehou) 및 망키에(Les Minqiers)의 도서 및 부속 암초들에 대 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 26 | 올리부차·미넬라이 섬 269 | 148~150, 240, 241, 252, 264 |
| 심흥택 118, 128~130, 137, 145, 146, 149, 182, 183, 185, 186 | 엘 모노(El Mono) 회의 32 | 올리부차와 미넬라이 암(Olovutsa & Minelai Rock) 72 | 148~150, 240, 241, 252, 264 |
|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 18, 123, 124 | 엘 티그레 섬 31, 33~35 | 옹도(瓮島) 64, 66, 67, 122 | 148~150, 240, 241, 252, 264 |
| 쓰보이 구메조 253 |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 섬의 영유권 및 해 양경계분쟁 사건 25 | 외방 통신 172, 173 | 148~150, 240, 241, 252, 264 |
| <○> | 여암 신경준 묘갈명 95 | 외부(外部) 109, 133 | 148~150, 240, 241, 252, 264 |
| 鵝溪遺稿 89 | 閩延茂昌虞芮三邑圖 87 | 요도 51, 61, 62, 77, 85 | 148~150, 240, 241, 252, 264 |
| 아래품실 160 | 여지고 38, 95, 97, 139, 140 | 우산국 38, 42, 43, 75, 76, 87, 97, 100, 106, 113, 124, 261 | 148~150, 240, 241, 252, 264 |

울도기(蔚島記) 102~105, 113, 125, 126, 170, 177, 191~193
 173
 울돌목 169
 울릉 121, 240, 261
 울릉군 108, 166, 168, 169, 176, 189
 울릉도 4, 9~21, 38~47, 49, 50, 52, 55, 59~62, 64~71, 74~77, 81, 84~108, 110~113, 119~129, 131, 132, 134~140, 142~144, 146~150, 154, 156, 162~165, 168~173, 176, 178~183, 187, 193~195, 218, 220~222, 224~244, 246~275, 277~279, 282, 285~290
 울릉도 개척령 119, 127, 171, 180
 울릉도 도감 18, 149, 172
 울릉도 비어책(備禦策) 91
 울릉도 수토 17, 122
 울릉도 수토관 122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 92, 121
 울릉도 쟁계 9, 47, 91, 93, 107, 230
 울릉도(鬱陵島)를 울도(蔚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에 관(關)한 청의서(請議書) 82, 105, 124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126, 146
 울릉도감 17, 121, 123, 124, 126
 울릉도검찰사 17, 90, 123, 164
 울릉도검찰일기 98, 102, 128, 164, 167, 170, 177, 191~193
 울릉도민 106, 118, 120
 鬱陵島事 89
 울릉도사적(鬱陵島史蹟) 91
 울릉도시찰위원 102, 103, 149
 울릉도식물조사서 267
 울릉도에 대한 우용정의 지식 106
 울릉도외도(鬱陵島外島) 17, 19, 123, 165, 166, 168, 170, 171, 193
 울릉도청 146
 울릉전도 118, 121, 142, 143, 149, 154, 163
 울진 51, 62, 102, 134, 135
 옷독섬 190
 원록구명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 228
 월송만호 17, 92, 93, 106, 107, 122
 위품실 160
 유본예(柳本藝) 130
 유형원 95
 輪廻 수검 99
 隱岐古記集 68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227, 247
 의정부 87, 105, 118, 129, 132, 145, 184~186
 의정부 지령 132
 이견하 102, 104
 이규원 164, 165, 168, 170, 177, 178, 191~193, 286
 이규원의 우산도에 대한 식견 100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110
 이노 다다타카 259, 264, 265, 272, 282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 231
 이명래 82, 128
 이사청(理事廳) 133
 이산해 89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123
 이을 127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 131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41
 이포리(梨浦里) 158~160
 이형식 262
 李膺의 八道圖 87
 일본공사관 133
 일본래항기 260, 261
 일본수로지 249
 일본에 편입 108, 249
 日本與地路程全圖 68
 일본원정기 72, 265, 272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118, 119, 133, 143, 150
 일본의 독도 편입 140, 145, 146, 148, 246
 일본해 대해전 218, 243, 246, 247, 289
 <ㅈ>
 자산도 46, 47, 148
 子山島 82, 96, 148, 229
 자케이트 그랜드(Zacate Grande) 33
 長生竹島記 65
 장안(長安) 129
 장지연 136~140, 147
 장한상 91~93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심찰 91
 저전동(楮田洞) 64, 66, 122
 전라도 방언 126~128, 149
 전석규 111, 165
 전재항(田在恒) 145
 접역지도 97
 정상기 97
 정약용 137
 鄭陟의 八道圖 87
 제국신문 132, 133, 149
 제주도 129, 192
 젤라야-카스텔라노스 협약(Zelaya-Castellanos Convention) 32
 조민 89
 조석명 93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18, 123, 124, 149
 조선동해안도 74, 75, 249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136, 244, 246~249, 252, 277, 278

조선왕국도(朝鮮王國圖) 82
조선지리도(朝鮮地理圖) 136
조선지리지(朝鮮地誌) 18, 134
조선지리지요약(朝鮮地誌要略) 136
조선지리지자료 157~160, 169, 173, 174, 176, 189
조선팔도지(朝鮮八道誌) 136
조양보(朝陽報) 139
죽도 17, 18, 42, 64, 66~68, 97, 99, 118, 121~124, 131, 142, 143, 145, 149, 167, 179, 197, 241, 256
竹島 10, 16, 17, 20, 21, 38, 68~70, 77, 96, 99, 100, 105, 117, 118, 121, 122, 124, 131, 153~156, 162, 163, 167, 168, 170, 171, 176, 179, 180, 183, 186, 187, 193~195, 197, 218, 223, 225, 227, 232, 235, 238, 239, 241, 245, 247, 248, 250~264, 267, 270, 271, 276, 279, 282
죽도고(竹島考) 228, 230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243
竹島圖說 68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231
죽도연혁고(竹島沿革考) 243
죽도조사단 108
竹邊灣至水源端 176
죽서 67, 92, 93, 100, 102, 121, 149, 176, 197
竹嶼 92, 99, 101, 253, 256
竹岩(대방우·판방우) 17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8, 47, 97, 103, 138~140, 150
지령 제3호 129
陳松亭 82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108, 129, 242
津田靜一 82
〈갸〉
참정대신 129, 145
창원부 행재소 141
천부리 166~169, 172
청구학총(靑丘學叢) 제3호 251
淸十八省輿地全 82
청일전쟁 124
淸朝一統圖 82
천양 158~160
초도(草島) 16, 128
초등대한지지(初等大韓地誌) 18, 138
최석우 264, 265
崔雲渚 86
錐山(송곳산) 169, 175
〈크〉
크루즈-레토나 협약(The Cruz-Letona Convention) 31, 32, 35
〈ㄷ〉
태평양전도 280
台霞洞 105, 154, 175
통감부 18, 131~133, 141, 156
〈프〉
패럴린즈(Farallones) 33
폰세카 만 31~35
프랑스와 영국이 체결한 어업협정 29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 237, 240, 257
〈ㅎ〉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 279, 286
하품실 158, 160
학부(學部) 97, 134, 135
한경지략(漢京誌略) 130
한국수산지 19, 176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137~139
한국지명총람 20, 158~162, 165, 166, 168, 169, 171, 174, 176, 178~180, 189~193, 198, 202, 212
한글 9, 18, 19, 130, 155, 157, 159, 160, 172~175, 188, 189, 197
한성부(漢城府) 129, 130
한성사범학교 134
한양(漢陽) 129, 130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기 218
한창국(韓昌國) 17, 65, 66, 122, 123
해금정책(海禁政策) 16, 83, 85, 89, 107
해금정책의 금령 89
海圖 2347 Nipon, Kiusiu and Sikok_(1828) 281
海圖 2347-Japan-Nipon, Kiusiu and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 281
해저전신선 131, 132
현대송 274, 278
현채(玄采) 135~137
호넷 섬(Hornet Island) 71, 72, 261, 262, 269
홍량호 95
환몽수로지(寔濛水路誌) 248, 249
황성신문 17, 96, 120, 121, 123, 124, 130, 131, 137, 139, 148, 149, 156, 182, 184, 186
황현 182
황성군수 145
Chianxantao 82
Liancourt Rocks 20~22, 217~223, 226, 232, 239, 240, 255, 258, 263, 269, 270, 277~283, 285~290
SCAPIN No.677 239, 240
Tchichantao 8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5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독섬(石島)과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초판 1쇄 인쇄 2012년 6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6월 15일

지은이 김병렬 · 임영정 · 홍정원 · 이기봉 · 정영미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2

ISBN 978-89-6187-274-4 93910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